2020

오펜 작품집

드라마 상

O'PEN
CJ ENM

2020 오펜 작품집 — 드라마 상

2020

오펜 작품집

드라마 상

오펜 소개

오펜(O’PEN)은 작가(pen)를 꿈꾸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open)
창작 공간과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CJ ENM이 드라마 제작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①신인 창작자 발굴 ②콘텐츠 기획 개발 ③제작/편성
④비즈매칭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신인 창작자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2020 오펜 드라마/시트콤 주요 프로그램

1 작가모집	대본 접수/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인 작가 선발 (드라마 20명/시트콤 5명)
2 특강/세미나	드라마/시트콤 기획, 소재 개발, 작법 등에 대한 특강 세미나
3 현장취재/견학	이야기 소재 발굴, 완성도 제고, 현장감 등을 위해 현장 취재/견학, 인터뷰 지원
4 공동 창작 워크숍	[드라마] 미니시리즈 공동 기획, 집필 [시트콤] 코미디 드라마 공동 기획, 집필
5 개인 창작 워크숍	[드라마] 미니시리즈 기획, 집필 [시트콤] 코미디 드라마 기획, 집필
6 제작/편성	tvN ‹드라마 스테이지 2021› 방영(21년 2월~)
7 작품집 제작	당선작 도서 및 e-Book 제작 발간
8 비즈매칭	작가, 연출자, 프로듀서, 제작사 등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적교류 비즈매칭 기회 제공

공동 창작 멘토진	[드라마] 이대일 작가 ‹보좌관›, ‹라이프 온 마스› 정윤정 작가 ‹하백의 신부›, ‹미생› 황은경 작가 ‹디데이›, ‹뉴하트› [시트콤] 이남규 작가 ‹눈이 부시게›, ‹송곳› 박준화 감독 ‹김비서가 왜 그럴까›, ‹식샤를 합시다 시즌 1,2›
개인 창작 멘토진	[드라마] 김규태 감독 ‹라이프›, ‹괜찮아 사랑이야› 안길호 감독 ‹청춘 기록›,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양희승 작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는 와이프› 정현정 작가 ‹도시남녀의 사랑법›, ‹로맨스는 별책부록› 황준혁 감독 ‹블랙독› [시트콤] 백미경 작가 ‹힘쎈 여자 도봉순›, ‹품위 있는 그녀›
세미나/특강	미니시리즈 기획 — 김원석 감독 ‹미생› 미니시리즈 플롯 — 박재범 작가 ‹열혈사제› 미니시리즈 캐릭터 — 박해영 작가 ‹나의 아저씨›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야 햐는가 — 노희경 작가 ‹라이브› 넷플릭스가 원하는 콘텐츠는? — 넷플릭스 크리에이터팀 드라마 제작 시 커뮤니케이션 방법 — 최지훈(오펜 1기), 김지훈(오펜 2기), 배이화(오펜 3기) 작가, 박원국 감독 ‹특별근로 감독관 조장풍› 드라마 제작 과정의 이해 — 유상원 팀장(스튜디오 드래곤) 계약서 쓰기의 실제 — 윤선미 님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의 세계 — 최진이 경위(은평경찰서)
현장 취재/ 견학/인터뷰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문화재 수사팀 ‹스타트업› 세트 견학 대검찰청 의료사고 전담 안수연 수사관 충북대학교 흉부외과 김도훈 전문의 CGV 씨네드쉐프 총괄 정호석 셰프 등

차례

박성실 씨의 死(사)차 산업혁명 — 송영준
11

눈녹듯 — 김선미
69

대리인간: Proxy Emotion — 차이한
121

매화 진 자리 — 모성은
179

번쾌의 난 — 김혜정
229

통영행 버스 — 김지안
289

더 페어 (The Fair) — 추현정
341

폴카운트 [B ●●● S ●● O ●●] — 이병준
399

21의 온도 — 최하늘
449

덕구 이즈 백 (Deokgu is Back) — 김해녹
499

박성실 씨의 死(사)차 산업혁명

송영준

작의

‘사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모두 백수가 되는, 한마디로 대백수의 시대다.’
—철학자 도올 김용옥

곧 다가올 AI시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예측이 있지만
‹박성실 씨의 死차 산업혁명›은 한 철학자의 견해에서 태어났고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다.

인간은 패배할 것이다. 그것도 처절하게.
지치지도, 질리지도 않고,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면서 월급도 받지 않는
천재(AI)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서 이기는 인간은 극소수일 것이니까.

나는 이 이야기가 미리 만나보는 일자리 사망시대 간접체험 드라마이며
동시에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한다.
근 미래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대학살 시대를
가장 먼저 체감할 카나리아들의 비명 소리를 미리 들어보는 독한 예방접종.

그러니 두려움은 떨치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주시길.
꽤나 독하지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당신에게 놓을 테니.

등장인물

박성실(45세, 여) 퓨처라이프 화재보험 자동차 긴급출동 콜센터 상담원
학창시절, 우등상은 못 받았어도 개근상은 놓친 적 없는 성실 씨의 인생
계획에는 요행도 대박도 없다. 착실히 벌어서 적금 넣고 세 가족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며, 점심 먹고 초코파이 두 개와 달달한 믹스커피 한잔
마시는 것이 취미이다.

그런 성실 씨에게 찾아온 상담원 90퍼센트 해고 발표. 다행히 이번엔
살아남았지만 삼 개월의 평가 기간 이후 VIP 전담 소수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다. 인류가 늘 그랬듯이, 생존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은 성실 씨. 불문율로 정해진 권장화법에서 벗어나 AI상담원이 못하는 '개그응대'를 시작. 결과는 대성공. 이달의 최우수 상담원으로 선정까지 되자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꿈꾼다.

박철수(45세, 남편) 수백운수 트럭운전사

일이 취미이고 취미가 일인 성실의 남편. 자율주행 도입으로 해고당한 후 쓸모 없는 인간이 됐다는 자괴감과 돈 못 버는 가장이 됐다는 자책감에 집에서 술만 마신다.

박지우(7세, 아들)

성실과 남편이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말이 없고 감정적 동요도 없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

이혜영(53세, 여) 성실의 동료

성실의 동료 상담원. 시니컬하고 차가운 성격이지만 폭넓은 지식과 혜안 그리고 통찰력까지 갖춘 상담원들의 왕언니. 자신의 성향에 맞춘 '카운슬링응대'를 개발.

최미연(32세, 여) 성실의 동료

성실의 동료 상담원. 내성적이고 낯가리는 성격이라 성실, 혜영을 제외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이들도 없다. 허나 살아남기 위해 성격과 안 맞는 '섹시응대'를 개발.

최 이사(44세, 남) 퓨처라이프 화재보험 AI팀 이사

전직 'AI진흥위원회 원장'이자 현직 AI팀 이사.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상담 시스템을 상담사에서 AI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회장(70세, 남) 퓨처라이프 화재보험 회장

업계에 가장 먼저 AI상담시스템을 도입한 인물.
장인이 직접 손으로 만든 상품들만 소비한다.

그 외

성실의 팀장, 팀원들, 유치원 선생님, 로또가게 할머니, 긴급출동 신청 고객 등

줄거리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2025년 9월 30일.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된 집 앞에서 가족사진 찍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깬 박성실 씨. 현실처럼 생생한 꿈에 소름이 돋지만, 그녀의 현실은 아들 유치원 보내고 출근하는 일이다. 후다닥 바쁜 아침을 보내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꿈 해몽을 검색해보니 웬걸? 길몽이란다. 지각 한 번 해본 적 없고 요행도 꿈꾸어본 적 없는 그녀지만. 오늘은 지각을 무릅쓰고 출근길에 로또복권을 산다. 허나 그녀에게 찾아온 소식은 AI상담시스템 도입으로 상담원 90퍼센트를 해고한다는 통보.
다행히 이번에는 살아남았지만, 삼 개월 동안의 평가 후 VIP 고객을 담당할 소수의 상담사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다는데….

노조가 터미네이터냐? 기계랑 싸우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온 성실 씨. 야간에 트럭 운전하는 남편이 출근도 안 하고 술을 마시고 있다. 깜짝 놀란 성실 씨를 더 놀라게 만든 남편의 대답. 자율주행 도입으로 짤렸단다. 노조에서도 파업, 연대, 투쟁, 이런 거 없단다.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거기에 월급마저 달라고 안 하는 기계 대신 어떻게 우리를 써달라고 하겠느냐…. 술에 취해서 한탄하듯 말하는 남편을 보며 성실 씨는 소소하지만 평온한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는 불안감을 느낀다.

인간은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요즘 정신 줄을 놓고 사는 성실 씨가 고객 응대 중 권장화법을 벗어난 실수를 한다. 허나, 긴장한 성실 씨와 다르게 크게 웃고는 칭찬 콜까지 해주는 고객. 번쩍! 하고 AI상담원을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성실 씨. 동료인 혜영, 미연에게 새로운 고객 응대법을 제안. 결과는 대박! 고객들의 칭찬 콜 덕분에 10월과 11월 최우수 상담원으로 뽑힌 세 사람. 드디어 VIP 상담사 발표 날, 세 사람은 1차 해고발표일과는 다르게 희망에 가득 차서 발표를 기다리는데….

소문만 무성한 AI시대

아직도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일자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박성실 씨의 死(사)차 산업혁명
송영준

#1. 성실의 꿈. 공터(일몰 시간)

활활 타오르고 있는 휑한 공터에 위치한 허름한 집 한 채.
놀란 표정으로 어찌할 줄 모르고 바라만 보고 있는 성실.
그사이 집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거지꼴을 한 성실의 가족이 의자를 들고 와서 앉는다.
마치 다 타버린 집을 배경으로 가족사진이라도 찍듯이.

#2. 성실 집/안방(아침)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는 성실, 방 안을 둘러보며

성실 (놀란 표정) 뭔 꿈이 이렇게 생생하냐?

모닝콜이 울리는 핸드폰, 2025년 9월 30일 06:10분이다.

#3. 몽타주. 성실 집/거실+아들 방+화장실(아침)

본인 씻고. 아들 깨우고, 씻기고. 잠에서 덜 깬 아들 식탁에 앉히고.
가볍게 화장하고. 옷도 입고.

#4. 성실 집/거실(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안방에서 나오는 성실.
식탁에 앉은 아들이 밥은 안 먹고 손톱만 물어뜯고 있다.

성실 (자신의 밥을 퍼서 아들 옆에 앉으며) 니 살 그만 뜯어먹고 고등어

살 뜯어 먹어.

아들 (입맛이 없는지 먹을 생각이 없고)

성실 든든하게 먹어야 열심히 일을 하지.

아들 난 유치원 가는데? 일 안 하는데?

성실 (웃으며)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야. 어서 먹어.

아들에게 고등어 살을 발라주며 밥을 먹는 성실.
거실 벽에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씐 액자 붙어 있다.

#5. 성실 집 앞+유치원 차량(아침)

성실이 몇 번이고 아들에게 뽀뽀를 하고 유치원 차에 태운다.

성실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점심엔 꼭 좀.

선생님 걱정 마시고 출근하세요. 제가 챙겨서 먹일게요.

성실 (꾸벅꾸벅 인사하고 급하게 자리 뜨며) 네, 감사합니다. 네.

유치원 차 창문을 통해 멀어지는 성실을 바라보는 아들.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고 있다.

#6. 지하철 안(아침)

사람으로 꽉 찬 지하철 안. 멍하게 서 있던 성실, 꿈이 생각난다.
스마트폰을 꺼내 집이 불타는 꿈 검색.
화면 한쪽에 성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보여지고
'꿈 해몽 : 엄청난 길몽입니다. 오늘은 로또에 도전해보세요!'

성실 (얼굴에 화색) 대박!!! (좋아서 발까지 동동거리면)

툭툭 밀린 양옆 사람이 슬쩍 눈치 준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사과 후, 핸드폰 화면을 보고 또 본다.

다들 무표정한 만원 지하철. 혼자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성실이다.

#7. 길거리(아침)

다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성실.

성실 로또가… 로또가… 로또 가게가…

회사 반대 방향, 길 건너편에 위치한 로또판매점을 발견한 성실.
핸드폰 시계를 본다. 08:52분. 간당간당한 시간.
신호가 바뀌자 결심한 듯 로또판매점 방향으로 달린다.

#8. 로또판매점(아침)

할머니 혼자 있는 작은 노점.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천 원을 건네며

성실 할머니 자동 이천 원 주세요. (돈을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돈을 거두어들이며) 아니 그냥 삼천 원… 아니다… (고민) 어…

할머니 간밤에 좋은 꿈이라도 꿨어?

성실 (대답 대신 밝게 웃는다)

할머니 그럼 한 만 원어치는 사야지.

성실 그건 좀… 사행성인데… 그런데 돈 쓰는 건.

할머니 성실하네.

성실 (깜짝) 저 아세요?

#9. 콜센터/정문(아침)

'우리가 미래입니다!' 플래카드가 붙은 퓨처라이프 콜센터 사옥.
사원증을 목에 걸며 (보상콜 주간1팀 박성실) 뛰어 들어가는 성실.

#10. 콜센터/1층 엘리베이터 앞(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엘리베이터.
층별 안내판을 보면 30층 건물에 30층은 회장실.
나머지 층들은 전부 콜센터가 사용하고 있다.
초조해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성실. 계단으로 뛰어간다.

#11. 콜센터/계단+7층 사무실(아침)

헐레벌떡 7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성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백 명은 될 법한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어 웅성웅성.

#12. 콜센터/주간1팀(아침)

'보상콜 주간1팀'으로 뛰어와 컴퓨터 켜고 로그인을 하면 08:59분.
성실이 숨을 가다듬는 사이 옆자리 미연이 얼굴만 쑥 내밀며

미연 언니가 웬일이야. 지각을 할 뻔하고.
혜영 그러게. 지우 어디 아퍼?
성실 (헐떡헐떡) 아니요. 내가 꿈을 (문뜩 길몽은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늦잠. 늦잠.

컴퓨터 시계가 09:00분이 되자마자 바로 업무 버튼 누르면
기다렸다는 듯 콜이 들어온다.
성실의 팀원들 모두 기계라도 된 듯 매뉴얼 맞춰 전화 응대.

성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솔라시! 솔라시!
(연결 버튼 누르고 하이톤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13. 콜센터/30층 회장실(아침)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최 이사. 회장실 상황을 보고는 멈칫.
상의와 다르게 하의는 팬티 차림의 회장.
백발의 재단사가 회장의 몸 치수를 재고 있다.

회장 들어와.

최 이사가 다가가자 일을 끝마치고 나가는 재단사.

재단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바느질이라 완성까지 이 주쯤 걸립니다.
회장 알어. 명품이 어디 쉽게 나와? 고생했어.

재단사가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확인하고는 말을 꺼내는 최 이사.

최 이사 다섯 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회장 열 시 발표 아니었어?
최 이사 오늘 업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회장 그렇네. (씩 미소) 자네 일하는 거 보면 꼭 기계 같아.
최 이사 감사합니다.
회장 좋아. 그렇게 진행해.

인사하고 회장 방을 나가는 최 이사.
바지를 입으려던 회장, 바지에 붙은 먼지를 귀찮다는 듯 떼어낸다.

#14. 콜센터/휴게실(낮)

점심시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내는 성실, 혜영, 미연.
아침에 먹다 남은 고등어구이와 김치를 반찬으로 꺼내는 성실.

혜영 (고등어 보며) 그놈의 노르웨이 고등어. 지겹지도 않냐?

성실　인생 재미로 살아요? 홈쇼핑에서 얼마나 싸게 파는데.

불평은 했지만 혜영도 참치 캔에 김치. 미연도 김에 소시지 반찬.

성실　(반찬 보며) 다들 익숙하네. 좋잖아. 낯가림할 거 없고.
미연　낯 좀 가리고 싶네요.
혜영　(반찬들 보며) 너무들 익숙해. 벌써 몇 년째야.
성실　(밥 먹으며) 꽁치로 바꿀까? 요즘 꽁치도 싸던데?
혜영·미연　(동시에) 야!
언니　!!!
혜영　등 푸른 생선, 아주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미연　지우는 밥 뭘로 먹여요?
성실　(뭔 소리냐는 표정)
혜영　아서라. 지우는 뭐 다른 거 먹이겠냐?
걔는 한국 어린이가 아니야. 노르웨이 어린이지.

여고생들처럼 키득거리며 도시락을 먹는 세 사람.

#15. 콜센터/주간1팀 차대+창가(낮)

각 팀에 배치된 차대. 믹스커피, 녹차, 초코과자 등등이 놓여 있다.
믹스커피 두 개 타고, 초코파이도 두 개 들고 창가로 가는 성실.
믹스커피와 초코파이의 달달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본다.
소소하고 안정적인 일상의 평화를 즐기는 성실.

#16. 콜센터/주간1팀(낮)

좁은 책상에 각종 지도와 권장화법들이 잔뜩 붙은 성실의 자리.

성실　(밝은 하이톤. 허나 서비스 불가임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투로)
안타깝게도 고객님의 차량은 잠금장치가 강화된 고급
외제차량이라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박성실이었습니다.

상담 이력을 남기고는 기지개를 하는 성실. 시간을 보자 16:59분.

성실　(혼잣말) 한 시간만 있으면 퇴근이네.

나른한 표정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사이.
컴퓨터 시계가 17:00분이 되자마자 성실의 핸드폰에 진동.
동시에 주변의 모든 직원들 핸드폰에도 진동.
건물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핸드폰에서 동시에 울리는 진동 때문에
지진이라도 난 듯 화면이 흔들거리고.
원인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스레 문자를 확인하는 성실.

—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밝은 하이톤으로 AI가 내레이션.

제목 : 사랑하는 퓨처라이프 콜센터 직원분들에게

AI　직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AI상담시스템 도입으로 금일부로
90퍼센트 인원을 감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팀장들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입니다!
퓨처라이프 오미래.

충격으로 인해 웅성거렸던 콜센터에 찾아온 정적. 5초쯤 유지되다가
상담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뱉는 멘트에 정적이 깨진다.

상담사들　고객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직된 분위기와는 다르게 여전히 솔라시! 밝은 하이톤 목소리들.
그때 성실에게 콜이 인입된다.

성실　(습관적으로 밝고 경쾌하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얗게 질린 얼굴과 당장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눈.
그와 반대로 한껏 올라간 입꼬리와 밝은 하이톤 목소리.
이런 대비로 인해 성실의 얼굴이 기괴해 보인다.

#17. 콜센터/회의실 밖(낮)

통유리 벽을 통해 회의실 안이 보인다.
30여 명의 주간1팀 팀원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팀장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들어와 해고자 명단을 발표한다.
우는 사람. 얼이 빠진 사람. 화를 내는 사람.
허나 이상하리만큼 순순히 인정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팀원들.
성실, 혜영, 미연. 세 사람만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

#18. 콜센터/회의실 안(낮)

화색이 도는 성실.
허나 이를 숨기며 팀장에게 폭풍 질문.
미연도 얼떨떨하지만 화색. 혜영만 무표정이다.

성실 우리는 살아남은 거예요?
미연 더 이상 해고는 없어요?
팀장 (난감) 앞으로 삼 개월 동안의 평가 후에 VIP 인입 콜 담당할 소수의 상담사는 남긴다고 하던데….
성실 남기는 사람들 기준은 뭐예요?
미연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 …아마도 QA나… 근태나….
성실 그럼 이번 해고 기준은 뭐였어요?
미연 QA는 아닌 거 같던데.
팀장 아마 근태점수가….
성실 근태구나.
미연 (유리벽 바깥 팀원들을 보고는) 그렇네.

성실 그거 말고 다른 말은 없어요?
미연 뭘 알아야 우리도 준비를 하죠.
성실 QA평가 기준은 그대로예요?
미연 이젠 AI랑 비교해서 콜 품질 테스트하는 거예요?
팀장 (아무 대답도 못 하고 있다)
성실 (미연 보곤) 그렇겠네. (팀장 보며) 맞아요?
팀장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도….
미연 그럼 AI랑 근태로 경쟁해야 하는 거예요?
성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계는 근태가 안 좋을 수 없잖아요.
미연 그럼 보건휴가나 연차도 쓰면 안 되겠네요?
성실 그렇네.
미연 AI보다 잘하려면 또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성실 AI랑 우리랑 콜 품질 테스트 항목이 똑같아요?
팀장 (난감) 그게… 그게….

성실과 미연의 질문에 당황한 팀장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혜영.

혜영 (시니컬) 그만.

성실, 미연, 팀장 모두 혜영을 바라본다.

혜영 쟤도 몰라.
팀장 (기대고 싶은 표정으로 혜영을 바라본다)
혜영 말이 팀장이지.
팀장비 명목으로 우리보다 월급 딱 20만 원 더 받어.
뭘 알겠어. 그만 물어봐. 힘드니까.
팀장 (참았던 눈물이 터진다) 왜… 왜…
결정은 지들이 하고 발표는 나더러 하래….
성실·미연 (미안한 표정으로 팀장을 바라본다)
팀장 (펑펑 울며)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팀원이 없는데 팀장이 왜 필요하겠어요….

#19. 콜센터/주간1팀(밤)

짐 정리가 끝났지만 모니터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팀원들.
컴퓨터 시계가 18:00로 바뀌자 동시에 로그아웃하고는
줄지어 짐을 들고 영원히 퇴근을 한다.

#20. 콜센터/회의실 안(밤)

미안함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유리벽 밖을 보고 있는 성실.

#21. 언덕길(밤)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동네 언덕길을 지친 표정으로 걸어가는 성실.

미연(E) 언니 오늘은 같이 한잔해요.

INSERT.
회사 앞. 한 시간 전. 퇴근하는 성실의 팔을 잡는 미연.

성실 들어가서 애 밥 차려줘야지.
미연 형부랑 짜장면 시켜 먹으라고 해요. 오늘 기분도 그런데.
혜영 놔줘. 애 남편 밤에 트럭 몰잖아.
미연 (성실 놓아주며) 그렇구나. 그래서 맨날 후다닥이구나.
성실 (후다닥 가며) 다음에 마시자. 미안~~~

다시 언덕길, 성실의 장바구니 안이 보여지면
파, 콩나물, 두부 그리고 소주 한 병이 들어 있다.

#22. 성실 집/거실(밤)

현관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성실이 집으로 들어온다.
식탁에서 김치 하나에 소주 마시고 있는 남편을 보고 놀라는 성실.

성실 뭐해? (술상을 보고는) 일 안 나가?
남편 (대답 없이 술만 마시고)
성실 (식탁 의자에 앉으며) 운전할 사람이 술을….
남편 (씁쓸하게) 나 짤렸어….
성실 (청천벽력) !!!
남편 낮에 연락 왔어. 이제 나오지 말래.
성실 (정신 차리고) 왜? 무슨 일 있었어?
남편 (젓가락으로 김치만 뒤적뒤적)
성실 왜에? (문뜩 떠오르는 게 있다) 당신 설마 또오….
남편 (괜히 버럭) 미쳤어! (기죽어서) 내가 또 술 먹고 운전하게….
성실 그럼 왜?
남편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나 필요 없대. 자동행주. 아니다.
거 뭐야…. 그거… 어… 자동주행. 그걸로 싹 다 바꿨대.

당황스러워서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는 성실. 멍하니 있다가 문뜩

성실 당신 조합 있잖아. 매달 회비 내는 그 화물노동조합.
거기서는 파업, 연대, 투쟁, 이런 거 안 한대?
남편 …노동조합이 터미네이터냐? 기계랑 싸우게…

성실도 남편도 허망하게 앉아만 있다. 남편, 빈 잔에 술을 따르며

남편 내가 사장 같아도 기계로 바꾸겠다. (처량하게 리듬을 타며)
월급을 달라고 하냐. 휴무를 달라고 하냐. 어디 아프기를 하냐.
(소주병 들고는) 이렇게 술을 마시기를 하냐…. (한숨) 걔네는
달라는 거 없이 주기만 하잖아. 그거지 그거. 아낌없이 주는 나물.
성실 나물 아니고 나무.
남편 그래. 그거. 어쨌든. 팍팍 주는.

남편의 잔을 가져와 술을 가득 따라서 마시는 성실.
그제야 김치 하나 놓인 남편의 술상이 보인다.
자신이 마시려고 산 소주를 꺼내 식탁에 놓고는 일어나서

성실 (괜히 틱틱) 안주가 이게 뭐야? 밥 안 먹었지?
두부찌개 끓여줄 테니까 천천히 마셔. 속 버려.

싱크대에서 두부찌개를 끓이는 성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INSERT
술 마시는 아빠와 찌개 끓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아들.
불안한지, 습관인지, 자신의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고 있다.

#23. 성실 집/안방(밤)

술에 취한 남편은 코를 골지만 성실은 걱정이 태산이다.

성실(E) 하나라도 벌어야지…. 나라도 벌어야 하는데.
이러다 둘 다 그러면….

걱정 때문에 잠 못 들고 뒤척이는 성실이다.

#24. 몽타주. 길거리(밤)

— 쉬지 않고 빛을 내는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 24시간 무인 편의점 계산대에서 빛을 번쩍이는 스캐너.
— 자동화된 쓰레기 청소차가 쓰레기를 차에 붓고는 떠난다.

#25. 성실 집/안방+거실(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성실. 옆자리에 남편이 없다.
성실이 방에서 나와 보면 남편이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다.

성실 뭐해?
남편 (괜히 눈치를 보며) 일어났어? 어제 먹었던 두부찌개 데우면 되지?
성실 (백수가 된 미안함에 눈치를 보는 남편을 보자 측은도 하고 화도 나고) 내가 할게. 지우나 깨워.
남편 (손 털고 지우 방으로 가며) 지우야. 일어나자. 지우야.

개수대에 와보면 집안일 해본 적 없는 남편이 흘린 쌀알이 잔뜩.
한 톨 한 톨 손으로 다 담고는 쌀을 다시 씻는 성실.

#26. 성실 집/현관(아침)

출근하는 성실. 그런 성실을 배웅하는 아들과 남편.

남편 내가 지우 유치원 차 태울게. 저녁때도 데려오고.
성실 (미안해하는 남편을 위해 억지로 더 밝게) 대접받는 기분이네.
아들 (아빠랑 있는 게 어색한 표정. 떨떠름하게) 엄마 안녕.
성실 갔다 올게. (나가다가 다시 돌아서고는) 술 먹지 말고.
응? 몸 상하니까. 혹시라도 먹을 거면 냉장고에.
남편 안 먹어. 걱정 말고 출근해.

#27. 지하철 안(아침)

어제와 같은 시간. 출근시간임에도 사람이 절반 정도만 채워진 지하철 안.
성실이 어제와는 다르게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다.

#28. 콜센터/7층(아침)

사람들이 없어 어제와 다르게 고요한 사무실.
인부들 몇이 책상과 컴퓨터를 들고 나가고 있고.
성실이 못 볼 것을 보기라도 한 듯 후다닥 자리로 간다.

#29. 콜센터/주간1팀(아침)

08:50분. 로그인을 하고 앉아 있는 성실.
한참 멍하니 있다가 컴퓨터 시계를 보니 08:58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전화를 받기 위해 헤드셋을 착용하고
옆을 보면 혜영과 미연이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성실(E) (두 사람의 빈자리를 보며) 지각인가? 한 번만 지각해도 근태점수 반 토막 나는데…. 그럼 QA만점도 소용없는데….

아직 출근하지 않은 두 사람의 빈자리를 다시 보면서

성실(E) 내가 불만 콜만 안 받으면, 두 사람보다 무조건 점수가 높은데….

이기적인 생각을 한 자신이 부끄러운지 몸을 부르르 떠는 성실.
그때 미연과 혜영이 헐레벌떡 출근.

미연 (자리에 앉으며 불쑥) 언니도 그랬구나.
성실 (속마음 들킨 사람처럼 깜짝) 응? 어 뭐?
혜영 나쁜 아침.
성실 네, 언니 나쁜, 어, 좋은… 네, 오셨어요.
미연 (로그인하며) 텅 빈 사무실 보니까 나도 몸이 부르르 떨리더라.
성실 (괜히 민망해서 얼굴이 벌게지고)
혜영 일하자. 책상 안 빼려면.

09:00분이 되고.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표정의 성실.

성실(E) 살아남자. 살아남자. 실수해서 불만 콜만 안 받으면 돼….

CUT TO
베테랑 상담사답지 않게 고객의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는 성실.

성실 머리, 할 때 머가 아니라 버스, 할 때 버입니까?

CUT TO

남고객(F) 가솔린이요.

고객이 가솔린이라고 하는데 접수 창에는 경유를 체크한다.

성실 비상급유 경유로 가져다드리면 되겠습니까?
남고객(F) (짜증) 몇 번 말해! 몇 번!!! 가솔린이라고. 가솔린. 영어 몰라?
성실 (깜짝 놀라서 경유로 체크한 화면을 휘발유로 바꾸며) 불편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휘발유로 바로 접수해서 출동차 보내드리겠습니다.
남고객(F) 전화 받는 상담원 이름이 뭐야?
성실 (당황)…!!!
남고객(F) (버럭) 퓨처라이프는 가솔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일 시키는 거야? 혼유 사고라도 나면 니들이 다 책임질 거야?
성실 (제발 살려달라고 머리 조아리듯) 고객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통화품질이 잠시 안 좋아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가솔린은 휘발유. 디젤은 경유. 알죠. 당연히 알죠.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노여움 푸세요.
남고객(F) (조금 화가 수그러져서) 알겠어. 빨리나 보내줘.
성실 네 고객님. 긴급하게 출동차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 (이름을 정확하게 못 듣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발음을 뭉그러뜨리며) 박성실이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성실. 그런 성실을 슬쩍 보는 혜영.

#30. 콜센터/휴게실(낮)

어제와는 다르게 텅 빈 휴게실.
별말 없이 살려고 먹는 듯 무덤덤하게 밥을 먹는 세 사람.

혜영 (시니컬) 무슨 일 있어?
성실 아뇨.
혜영 왜 안 하던 실수를 해?
성실 …
혜영 짤린 사람들한테 미안해?
성실 …
혜영 아님. 짤릴까 봐 긴장돼?
성실 …
미연 (젓가락을 놓으며) 하나 더 있지.
성실·혜영 (미연을 바라보면)
미연 나라도 살아남아야 하는데.
성실 (괜히 찔려서 두 사람 눈도 못 보고)
미연 사실 오늘 언니들이 지각하길 내심 바랬거든.
(눈치 보고는) 괜히. 찔려서 하는 말.

셋 다 비슷했는지 민망해서 서로를 보지도 못한다.

혜영 (숟가락 놓으며) 에이 씨. 밥 먹기 싫다.

텅 빈 휴게실. 셋 다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멍하니 있다.

#31. 콜센터/주간1팀 차대+창가(낮)

평소처럼 믹스커피 두 개와 초코파이 두 개를 집는 성실.
이 사소한 습관도 결격사유가 될 거 같은지 주변을 둘러보고는
믹스커피 한 개와 초코파이 한 개는 내려놓는다.
창가로 가서 믹스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역시 영 밍밍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마시다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다.

#32. 성실 집/거실(낮)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 남편.
성실에게서 '점심 잘 챙겨먹어. 술 마시지 말고.' 문자가 오고.
'술 안 먹어. 걱정 마'라고 성실에게 답을 한다.
하지만 대답과는 다르게 라면에 소주를 마시고 있는 남편.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남편의 구부정한 등이 보인다.

#33. AI실/밖+안(낮)

정적인 남편의 구부정한 등에서 동적인 최 이사의 곧은 등으로 연결.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최 이사.
AI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면 고민 중이던 팀원들이 일어난다.

최 이사 어떻게 됐어?
팀원들 (다들 최 이사의 눈길을 피한다)
최 이사 (누구라도 대답하라는 듯 둘러보면)
팀원1 학습은 전부 끝났습니다.
팀원2 최근 5년간 상담사들 녹취로 학습은 끝냈는데….
최 이사 그런데?
팀원1 더 배울 게 없다는 게….
최 이사 무슨 소리야?
팀원2 (서버 톡톡 치며) 얘 학습능력은 무한대인데… 더 배울 교재가….
팀원1 지금 상황으로는 기존 상담사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최 이사 (고민) 새로운 교재가 필요하다?
팀원1 네.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해줘야 합니다만….

최 이사가 고민에 빠지고, 팀원들도 조용하다.

팀원3　저기….

최 이사　말해.

팀원3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34. 콜센터/엘리베이터 안(밤)

멍하게 정면만 보고 있는 성실, 혜영, 미연.
퇴근시간이지만 퇴근할 사람이 없어 엘리베이터에 세 사람뿐이다.

#35. 콜센터/건물 앞(밤)

터덕터덕 걸어 나오는 세 사람. 서로 자신이 갈 방향으로 간다.

성실　(기운 없이 걸어가며) 들어가. 들어가요.

혜영　(지친 듯 손만 흔들고)

미연　(습관처럼) 언니들, 내일 봐요.

미연의 '내일 봐요'라는 말에 걸음을 멈추는 성실.
돌아서서 달려가 혜영과 미연의 팔을 잡는다.
팔을 잡힌 혜영과 미연, 왜 이러나 싶어 당황스럽다.

성실　우리 내일도 꼭 봐요. 힘들다고 술 마시지 말고. 지각도 하지 말고.

미연　(화색) 그래영. 우리 내일은 도시락도 맛있는 거 싸와용. 힘나게.

성실　그러자. 나도 그럴게.

성실·미연　(밝아진 얼굴로 혜영을 바라본다)

혜영　(시니컬) 도시락도 똑같은 거 싸올 거고. 집에 가서 술도 마실 거지만. (잠시 쉬고) 지각은 안 할게.

서로에게 품었던 약간의 경쟁심, 미안함이 사라지는 세 사람.

성실　내일 봅시다.

미연　내일 봐요.

혜영　내일 보자.

#36. 성실 집/거실(밤)

밝아진 표정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성실.
TV를 켜놓은 채 소주 세 병을 마시고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고는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때 성실에게 전화가 오고.

성실　네에? 지금 갈게요.

#37. 유치원 밖+안(밤)

성실이 유치원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가면
아들이 혼자 신발장에 멍하니 앉아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

성실　미안해. 많이 기다렸어?

아들　(반응이 없다)

선생님　(다가와서) 아침에 아버님이 직접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오시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성실　아이구,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퇴근도 못 하시고….

선생님　(성실이 너무 미안해하니까) 아니에요. 정리할 게 있어서 괜찮아요.

성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에요 어머님. 얼른 들어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아들　(엄마와 선생님을 멍하니 보고만 있다)

#38. 성실 집/거실+베란다(밤)

아들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는 성실.
가방만 벗기고 바로 화장실에 아들을 넣으며

성실 세수하고 발도 씻어. 엄마가 금방 밥해줄게.

아들 (화장실로 들어가다) 짜장면?

성실 왜 짜장면 먹고 싶어?

아들 (별 대답 없이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간다)

바닥에 어질러진 술병을 보자 화가 올라온다. 한소리 하려고 하는데
이불도 없이 거실 바닥에서 웅크리고 잠든 남편을 보자 측은하다.

성실 (흔들어 깨우며) 여보. 여보 일어나.

남편 (찌뿌둥하게 일어나서) 어? 어. (두리번거리다)
아! 지우 데리러 가야 하는데. 짜장면 먹기로 했는데.

성실 내가 데려왔어.

남편 그랬어. 미안. 깜빡했네.

성실 (측은해서) 술 먹지 말라니까.

남편 미안. (한참 멍하니 있다가) 할 일이 없어서.

성실 (술병들을 정리하던 손이 멈춘다)

남편 (마른세수하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치울게.
낮에 자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밤에 잤는데도 졸리데.

성실의 손에 들린 술병들을 뺏어서 본인이 치우는 남편.
베란다에 소주병이 어제 두 병에 이어 오늘 마신 세 병이 더해진다.

#39. 성실 집/거실(밤)

오늘 새로 만든 반찬들 덕분에 상이 평소보다 푸짐하다.
성실이 내일 가져갈 도시락 반찬을 미리 담고 식탁에 앉으면
남편과 아들 둘 다 입맛 없는지 깨작깨작.

성실 (남편, 아들 보며) 왜 안 먹어? 반찬 많이 했는데?

아들 (깨작거리다가 아빠를 슬쩍 본다)

남편 지우야 짜장면 내일 꼭 먹자.

아들 (들은 척도 안 한다)

배가 고팠는지 혼자서 열심히 밥을 먹는 성실.

#40. 성실 집/안방+거실(밤)

곤히 잠든 성실. 그에 반해 잠이 오지 않는 남편. 시계를 보면 새벽 1시쯤.
조용히 방을 나오는 남편. TV를 켜고 소리는 무음.
저녁때 먹은 반찬과 소주 한 병을 들고 TV 앞에 앉는다.

#41. 성실 집/거실(낮)

일요일 오후. 남편과 아들은 짜파게티를 먹고 있고
청소를 하던 성실이 베란다에서 20개 정도의 빈 소주병을 본다.

#42. 성실 집/안방(낮)

성실 앞에서 괜히 주눅 들어 있는 남편.

성실 (조심스럽게) 뭐라도 해야지…. 응?

남편 (주눅) 해야지.

성실 아니면 취미 같은 거라도 하는 건 어때? 어디 등산이라도 가거나….
요 앞에 약수터 있잖아.

남편 (볼 면목도 없다는 듯 고개만 푹)

성실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있으니까 당신 건강 망치는 거 같아서.

남편 …내가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성실 …

남편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우리한테야 일이 취미지.

성실 …

남편 뭐 취미라고 해 봤자 일 끝나고 같이 소주 한잔 하거나….

성실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하려는데)

남편 내가 빨리 좀 구해볼게….

성실　(말 꺼낸 게 괜히 미안하다) 아니 난 그런 말이 아니라

남편　(O.L.) 안 그래도 한번 알아보려고 했어. (급하게 점퍼 주섬주섬 입으며) 내가 일 하나는 또 야무지게 하잖아. 같이 일하자고 했던 형님들 많았으니까 이참에 전화 한번 쫙~악 돌려볼게.

도망치듯 나가는 남편.
괜히 미안한 표정의 성실.

#43. 성실 집 앞/골목(낮)

구부정한 자세로 저장된 번호들을 보고 있는 남편.
저장된 번호 몇 명 없다. 대부분 함께 해고된 이들.
'수백운수 김덕형 형님, 수백운수 조우진 형님 등'
그중 한 사람에게 전화하는 남편.

남편　(어색) 형님 잘 지내세요? 그렇죠 뭐. 혹시 형님네는…
그래요. 형님네 회사도 그렇게 바뀌요. 힘내세요.
네 다음에 소주나 한잔해요. 네. 들어가세요.

CUT TO
한 연락처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제자리에서 어정어정.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을 누른다.

남편　(방금 전 통화보다 더욱 위축되어) 네, 형님. 오랜만이에요.
형님1(F)　(언짢은) 어, 웬일이야?
남편　그간 연락도 못 드리고….
형님1(F)　짤렸다며?
남편　(움찔) 아 소식 들으셨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어… 혹시 예전에 말씀하셨던 형님 보조 아직 구해요?
형님1(F)　(틱틱) 하라고 할 땐 전화도 안 받고 도망 다니더니.
남편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형님1(F)　(좀 수그러들었다) 철수야?
남편　네, 형님.
형님1(F)　있던 보조도 내보내고 기계 하나 좋은 놈으로 샀다.
남편　그래요. 요즘엔 그것도 기계가 해요….
형님1(F)　너도 정신 바싹 차리고 다른 일…
남편　형님 전화 들어오네요. 네 아니에요. 네, 들어가세요.

급하게 전화를 끊는 남편. 더 전화할 곳도 없다.
막상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멍하니 닫힌 현관문만 바라본다.

#44. 성실 집/안방(낮)

무언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성실.
손에는 얼마 전에 산 로또복권. 결국 딱 삼천 원어치 샀다.
확인된 QR코드는 전부 꽝. 단 하나의 숫자도 일치하지 않는다.

성실　(흔들리는 눈동자) 그럴 리가 없는데…

QR코드는 못 믿겠다는 듯 번호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고 있는 성실.

#45. 성실 집/거실(밤)

아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 성실에게 전화가 온다.

성실　네. 전데요…. 네? 경찰서요?

#46. 경찰서 전경(밤)

#47. 경찰서/형사1부(밤)

헐레벌떡 들어오는 성실, 고개 푹 숙이고 조사받는 남편이 보인다.

성실 (남편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야?
(피가 나는 남편 오른손을 보곤) 손은 또 왜 그래?

형사 아내분?

성실 (위축) 네… 근데 무슨….

형사 이거 뭐 설명하기도 그렇고. 직접 보세요.

형사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플레이 해준다.

#48. 과거. 도로(밤)

몇 시간 전. 운행 중인 수백운수 자율주행트럭 블랙박스 영상.
무언가 확 도로로 뛰어들고. 사고 직전 급정지. 블랙박스에서 일반 시점으로 전환. 술에 만취한 남편이 소주병을 들고 차 앞을 막고 있다.

차량음성 장애물 발견. 장애물 발견.

남편 (소주 꿀꺽꿀꺽 마시고) 장애물? 내가 장애물이냐?

차량음성 비켜주십시오.

남편 너나 비켜.

차량음성 운행에 지장을 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처벌 같은 소리하네. 철수 없이 일에만 직진하면서 살아온 이 인간 박철수를 빠꾸시킨… (울컥) 니가 누굴 처벌해!

차량음성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방해하면 신설된 자율주행운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비켜주십시오.

남은 소주를 마시고 빈 병을 땅에 내던지는 남편.

남편 싫어! 너나 비켜! (피가 흐르도록 오른손 주먹으로 차량을 치며)
너나 비키라고! 너나… 내 인생에서 비키라고!!!

그때 교통경찰 두 명이 달려와서 남편을 제지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오열하며 주먹으로 자동차를 치고 있다.

남편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살게 니가 좀 비켜주라….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나도 쪼옴….

힘껏 버둥거리지만 경찰들에게 힘없이 제압되는 남편.
수갑을 찬 채 땅바닥에 고꾸라져 펑펑 운다.

남편 좀 살자…. 나도 좀 살려… (버럭) 줘!!!!

땅에 고꾸라져 있는 남편의 시각으로 보면
수백운수의 '수백'이 '백수'로 보인다.

#49. 성실의 집/거실+안방(아침)

다음 날 아침, 거실에서 아들과 함께 나가려는 성실.

성실 (아들 보며) 잠깐만.

조용히 안방 문을 열어보면 남편이 등을 보이고 웅크리고 있다.

성실 (혼잣말) 밥이라도 먹고 자야 하는데….

한참이나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는 성실.
성실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감고 있던 눈을 뜨는 남편.
하얀 붕대를 감은 남편의 오른손이 보인다. 크게 한숨.

#50. 지하철 안(아침)

출근시간임에도 사람 한 명 없이 텅텅 빈 지하철 안.

이상하게 생각할 법도 하지만 성실은 고민에 빠져 바쁘다.

형사(E) 회사 측에선 차량 파손비용만 변상하시면 고소 취하하겠다네요.
운 좋은 줄 아세요.

한숨을 푹 하고 내쉬는 성실.

#51. 콜센터/주간1팀(낮)

한참 일하고 있는 성실. 고객 콜이 인입되고

남고객(F) 타이어 파스요.

성실이 고장접수 창을 보면 법인소유 화물차량으로 분류되어 있다.

성실(E) 이 고객님은 아직도 일을 하시네.
성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고장접수와는 상관없는 고객의 계약정보 창에 들어가 보는 성실.
자동차가 속한 회사의 이름과 주소 등을 본다.

성실(E) 이 회사는 사람이 운전해야만 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회산가?
남고객(F) 여보세요? 여보세요?
성실 (정신 차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번호가 몇 번입니까?
성실(E) 혹시 자리 없으려나? 한번 물어볼까?
남고객(F) (빠르게) 385저2234.
성실(E) 전부 녹취되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혹시라도 불만 콜 들어오면
바로 짤릴 텐데….
성실 (정신이 딴 데 팔려서) 385, 저팔계, 할 때 저에 2234 맞습니까?
남고객(F) (순간 아무런 말이 없다)

성실의 자리에 붙은 응대 예시화법이 보인다.

'가'는 가을, '모'는 모자, '저'는 저울, 저고리 등등.
문뜩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실.

남고객(F) (참고 있던 웃음이 푹 하고 터진다)
성실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남고객(F) 저팔계? 아하하하하. 내가 핸들밥 먹고 사는 사람이라 긴급출동
자주 전화하는데. 저팔계 할 때 저는 처음 들어보네.
성실 (다행이다) 재미있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고객님.
남고객(F) (유쾌하게) 좋잖아요!
성실 네???
남고객(F) 저울, 저고리. 얼마나 지겹고 딱딱해요.
타이어 찢어져서 한참 짜증났는데 웃고 나니까 좀 낫네.
성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남고객(F) 거 전화 받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칭찬 전화 한 통 넣게.
성실 (화색)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는 상담원 박, 성, 실, 입니다.

고객응대를 마친 성실, 얼떨떨하지만 기분은 좋다.
순간 번쩍! 하고 떠오르는 생각.
예시화법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뭔가를 적기 시작한다.

CUT TO
11:59분이 되자 성실이 메신저로 팀장에게 말을 건다.
화면에 메신저 창 띄워지며

성실(E) 팀장님 혹시 나한테 칭찬 콜 들어오지 않았어요?
팀장(E) 잠시만요~
팀장(E) 들어왔네요. 상담사님 칭찬한다고.
성실(E) (얼굴에 화색)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팀장(E) 네. 맛점요~

성실이 도시락, 권장응대법, 그리고 직접 쓴 종이를 들고 일어난다.

#52. 콜센터/휴게실(낮)

미연과 혜영이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풀고 있고
성실이 싱글벙글하며 들어온다.

혜영 (성실 보며) 왜 이래?
성실 (싱글벙글) 뭐가요?
혜영 요즘 얼굴이 왜 맨날 기상청이야.
성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혜영 도저히 예측을 못 하겠잖아.
미연 그러게? 오전에는 저기압이었다가 지금은 고기압이었다가.
뭐야? 언니 사춘기야?
혜영 너도 왔니 갱년기?
성실 둘 다 아니고. 곧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영과 미연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은 표정으로 성실을 보고
성실이 싱글생글하면서 도시락 반찬을 꺼내서 놓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역시나 고등어구이가 떡 하니 보인다.

혜영 (인상 팍) 아, 또 노르웨이!
미연 (인상 팍) 와… 언니 진짜 마이웨이다.
성실 (텅 빈 휴게실을 굳이 둘러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
(텅 빈 휴게실에서 굳이 소곤소곤) 우리만의 웨이를 찾은 거 같아.
미연 무슨 웨이요?
성실 (소곤소곤) 밥 먹고 얘기해요.
미연 먹으면서 얘기해요.
성실 먹으면서 말하면 복 달아나.
혜영 (미연 보며) 얘 왜 이러니?
미연 (모르겠다는 듯 어깨만 으쓱)
성실 (싱글벙글) 어서 먹어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혜영, 미연과 달리
성실 혼자 신이 나서 밥을 맛있게 먹는다.

#53. 콜센터/옥상(낮)

A4에 적힌 내용들을 찬찬히 보고 있는 혜영과 미연.
성실이 성적표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둘을 바라보고 있다.

미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좀 위험하지 않아요?
성실 (왜? 하는 표정)
미연 예시화법이 권장화법인데.
(혜영 보며) 권장화법 벗어나면 QA점수 깎이잖아요?
혜영 (끄덕끄덕) 그렇지.
성실 나 오늘 칭찬 콜 받았다니까. 한 달에 칭찬 콜 세 번, 아니
두 번이라도 받으면 이달의 최우수 상담원 아니에요?
혜영 (끄덕끄덕) 그렇지.
성실 그럼 무조건 1등이니까. 살아남는 거잖아?

혜영과 미연도 성실의 말을 듣고는 곰곰이 생각 중이다.

미연 근데…
성실 (미연을 바라본다)
미연 한 번은 칭찬 콜 받을 수 있다 해도. 혹시나 불만 콜 들어오면….
칭찬 콜 세 개보다 불만 콜 하나가 더 크잖아요?
혜영 (끄덕끄덕) 그것도 그렇지.
성실 (실망하는 눈치) 그렇네.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네….

성실, 부끄러운지 혜영이 들고 있던 A4용지를 가져가려는데
혜영이 손에 힘을 꽉 주며 놓아주지 않는다.

혜영 그렇긴 한데…
성실·미연 (혜영을 바라본다)
혜영 안 될 건 없잖아?
성실 (화색) 그쵸?
혜영 (미연을 바라본다)
미연 …좋은데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답답한지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는 세 사람.

혜영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성실·미연 (어서 말하라는 듯 혜영을 바라본다)

혜영 이대로 있으면 어차피 우리 다 짤려.

성실·미연 (깜짝) 네에???

혜영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혜영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으니까… 끝나고 얘기하자.

성실 오늘 한잔할까요?

미연 언니 오늘은 후다닥 안 하게?

성실 (쓰게 웃으며) 오늘은 괜찮아.

혜영이 시계를 보면, 12시 55분.

혜영 어차피 점심시간도 다 됐네. 일단 내려가자.

#54. 셀프삼겹살 가게/밖+안(밤)

셀프삼겹살 가게로 들어가는 성실, 혜영, 미연. 가게 입구에
'인건비까지 아껴서 고객님에게 돌려드립니다!' 입간판.

성실 (가게 들어서며) 여기 진짜 싸다.

미연 그치? 혜영 언니랑은 종종 오거든.

성실 나중에 우리 지우 데리고 한번 와야겠네.

혜영 지우 데려오기 전에 (턱짓) 저것들 먼저 데려와.

혜영이 턱짓한 방향을 보면 야채와 반찬들 모아둔 곳에 '올 셀프'

CUT TO
혜영이 소주를 한잔 쭉 마시고

미연과 성실은 안절부절 혜영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성실 (혜영에게 술을 따라주며) 언니, 아까 하던 말, 그래서요?

혜영 VIP 담당할 상담사는 남긴다고 했잖아?

미연 그랬죠.

혜영 몇이나 남길 거 같아?

성실 글쎄요?

미연 한… 백 명?

혜영 (한숨) 아… 이 순수한 생명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미연 그럼… 열 명? 다섯 명?

성실 (생각해보고) 그쯤이겠네….

혜영 그치? 자 그럼, 우리 회사 상담원이 전부 오천 명쯤 됐었지?

미연 그렇죠. 짤리기 전엔.

혜영 그럼… 오천 명 중에 열 명 남기면… 0.2프로쯤 되네?

미연 그래서요?

혜영 (미연 보며) 너 살면서 상위 0.2프로 안에 든 적 있어?

미연 (뜨끔)

혜영 지금은 리스크 관리할 때가 아니야.

고기가 타는데도 다들 생각에 빠져 있다.

혜영 (대뜸) 야! VIP가 무슨 뜻이야?

미연 네? 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성실 베리 임포탄트 퍼슨? 어… 피플?

혜영 그래. 그럼 화재보험사에서 VIP가 누구야?

미연 (조심스레) 부자들?

혜영 (고개 좌우로)

성실 (조심스레) 그룹사 임원들?

혜영 (한숨) 회사 임원? 가입상품 많은 고객? 아니지! 그 사람들은
보험사 안 바꿔. 콜센터에 불만 제기도 잘 안 하고. 불만이 왜 있냐?
운전은 기사들이 하는데.

성실 그건 그렇죠.

혜영 그럼 우리의 VIP가 누구야?

성실·미연　(동시에) 빨간색들!!!

#55. 미연의 회상. 콜센터/주간1팀(낮)

콜을 받는 미연. 고객내역 창에 빨간색 주의사항이 보인다.
'Warning. 급하고 예민함. 불만 콜 2회 인입. 조심해서 응대할 것.'
평소보다 더욱 하이톤 목소리로 인입된 콜을 받는 미연.

미연　사랑합니다 고객…
진상남(F)　야!!! 니들 일 이따위로 할래!!!!!!!!

#56. 셀프삼겹살집/안(밤)

다시 현재. 과거의 기억 때문에 부르르 떠는 미연.
혜영의 말이 이해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성실.

성실　까다롭고 예민하고 말 잘 안 통하는 고객들.
혜영　정답. 그럼 그런 고객들 콜을 AI가 받는다고 생각해봐.
성실·미연　(곰곰이 생각 중)
혜영　감정 없는 AI가 매뉴얼대로 응대한다고 생각해보라고.

#57 상상. 길거리(낮)

고장 난 차량 앞에서 전화기에 대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남자.
AI가 목소리만 나오며 응대 중.

진상남　긴급출동 신청한 지가 얼만데 아직도 안 와? 니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어? 나는 하루를 분 단위로 사는 사람이라고!!!
AI(F)　분 단위 말씀하셨습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고객님은 긴급출동 신청하신 지 3분 35초 지났습니다.

진상남　(이거 뭐지? 놀리나?)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어?
AI(F)　전화 주신 고객님 김명수 고객님 아니십니까? 차주가 아니시면 상담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상남　(확 당황!) 뭐야? 너 또라이야? 내가 너 때문에 퓨처라이프에 든 보험 오늘 싹~다 해지한다. 너 이름이 뭐야!!!
AI(F)　(놀리나 싶을 정도로 밝고 화사하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제 이름은 퓨처라이프 상담원 오미래입니다.
진상남　(순순히 이름을 말하니까 당황) 이… 이름을 그냥 막 말해버리네? 어… 야!!! 나 보험 확 해지한다니까!!!
AI(F)　긴급출동이 아니라 보험해지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고객님이 전화 주신 부서는 긴급출동 접수 부서입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보험해지 담당부서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진상남　(전화 연결 대기음이 들리고) 여보세요? 여… 여….

황당한 표정으로 전화만 멍하니 보고 있는 진상남.

#58. 셀프삼겹살집/안(밤)

다시 현재. 고개를 끄덕이는 미연과 성실.

혜영　VIP 담당? 쉽게 말해 진상고객 전담팀이야. 진상이 뭐야?
성실·미연　…?
혜영　감정적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맞지?
성실·미연　(고객 끄덕)
혜영　그럼 회사는 어떤 상담사를 남겨야겠어?
AI가 못 하는 상담을 하는 상담사. 즉!
성실·미연　(혜영의 입에 주목)
혜영　감정적인 고객을 감성적으로 응대하고 풀어주는 상담사.
성실　언니 맞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한마디로 하면 딱 그거야.
혜영　(먼 산 보며) 해볼 만할 듯.
미연　(잔을 내밀며) 언니 난 콜!
성실　(잔을 내밀며) 나도 당연히 콜!

혜영　(잔을 내밀며) 역시 콜!

건배하는 성실, 혜영, 미연. 희망차게 미소 짓는다.

#59. 지하철역/거울 앞(밤)

사람이 없는 한적한 지하철역. 지나가다 대형 거울 앞에 서는 성실.

미연(E)　그럼 셋 다 코믹으로 가는 거야?
혜영(E)　(버럭) 난 짤리면 짤렸지 그건 못 해!
성실(E)　그럼 어쩌시려구요?

전신거울을 보며 재밌는 표정을 지어보는 성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런 성실을 이상하게 보지만
성실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표정을 지어본다.

혜영(E)　성실이 니가 코믹으로 해.
성실(E)　오케이! 난 그게 체질에 맞아.
미연(E)　언니 그럼 난?
혜영(E)　미연이 너는… 음… 섹시로 해.
미연(E)　섹시요?

#60. 미연의 집/화장실+방(밤)

화장대 앞에 앉아서 머리에 감은 수건을 휙— 풀어헤치고는
거울 속에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젖은 머리칼과 촉촉한 입술.
언뜻 보면 섹시해 보이는 자신을 관찰하듯 본다.

혜영(E)　이 똥멍충아!
미연(E)　(찡찡) 왜여어엉!
혜영(E)　그래 그거. 넌 그거라니까! 우리가 무슨 화상통화로 상담하니.
목소리만 섹시하면 되지.

거울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미연.

미연(E)　그럼 언니는요?

#61. 혜영의 집(밤)

책상에 앉아서 메모지와 펜을 꺼내는 혜영.

혜영(E)　난 내가 알아서 할게.
미연(E)　뭐예요. 한 배를 탔는데.
성실(E)　말해봐요.

책을 한 권 꺼내서 바라보는 혜영. 마음에 든다는 표정이다.
제목을 보면 ‹한 권으로 끝내는 자동차 정비›

혜영(E)　난, 논리와 이성 그리고 지식을 버무린 상담.

#62. 버스 안(아침)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미연.

미연(E)　우리 뭔가, 뭐 같다.

#63. 길거리(아침)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혜영. 활기 넘치는 표정이다.

혜영(E)　그렇네. 괜히 설레네.

#64. 지하철역/밖(아침)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오는 성실. 역시 활기 넘치는 표정.

성실(E) 그쵸? 막 힘도 나는 거 같고.

#65. 콜센터/주간1팀(아침)

세 사람, 자신만의 고객응대법이 적힌 A4용지를 꺼낸 후 심호흡.

혜영(E) 긴장하자. 당장은 밥벌이를 위한 작은 몸부림이지만.
미래에 다시 보면 우리의 도전이 인간의 진일보를 이룬 거대한
한 걸음의 시작일 수도 있어.

미연(E) 휴~ 언니들 준비됐어용!

혜영(E) 다들 준비됐지?

성실(E) 나 이 말 진짜 싫어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딱 맞는 거 같아.

서로를 바라보는 세 사람.

성실(E) 파이팅.

눈빛으로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컴퓨터 시계가 08:59분에서 09:00분으로 시간이 바뀌고.
세 사람 모두 약간의 흥분과 긴장상태에서 업무 버튼을 누른다.

#66. 타임랩스. 서울 전경

시간이 흐르는 모습. 성실, 혜영, 미연의 활기찬 도입멘트가 들린다.

성실(E) 사랑합니다 고객님.

혜영(E) 퓨처라이프 긴급출동입니다.

미연(E)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67. 콜센터/최이사 사무실(낮)

업무를 보는 최 이사. 전화가 오고

최 이사 (전화 받으며) 네.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68. 콜센터/QA실(낮)

최 이사가 QA실에 들어오자 다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QA팀장 이사님이 보고하라고 하셨던 사항 같아서.

최 이사 (턱짓) 일단 들어봅시다.

녹취된 고객응대 파일 '20251022_박성실'을 클릭.
스피커에서 성실의 음성이 흘러나온다.

#69. 과거. 교차. 도로+주간1팀(낮)

타이어 펑크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택배차량.

성실(F) 고객님, 차량번호가 몇 번입니까?

차에서 내리는 택배기사. 차 번호판을 확인한다. 38저4532.

택배기사 (빠르게) 38저4532요.

성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미소) 38, 저팔계,
할 때 저에 4532번입니까?

택배기사 (귀찮다는 듯) 네. 네.

(펑크 난 타이어 발로 차며 안절부절) 바뻐 죽겠는데… 아…

성실 (운전자 이름 손진영 확인 후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서 목소리 다듬는다) 손… 손… 음음….

그런 성실의 목소리를 듣고 다가오는 혜영과 미연.

혜영·미연 (조용히) 파이팅!

응원하는 혜영과 미연에게 미소로 대답한 후
성실이 음소거 버튼을 해제하고 대뜸 저팔계 성대모사.

성실 손 형~~~ 타이어 빵꾸 났으셔어어어어?

너무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다시 핸드폰을 보는 택배기사.

택배기사 (놀람) 네?

성실, 다시 과감하게 저팔계 성대모사.

성실 손 형, 출동차 곧 도착해서 고쳐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통화하던 택배기사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다.
화라도 난 듯 호흡이 헐떡헐떡 급해지더니 참았던 웃음이 빵ㅡ

택배기사 푸하하하!!!

성실 (평소 하이톤) 고객님 곧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택배기사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네요. 맨날 택배 왜 늦냐는 불만만 받다가.

성실 잠시나마 고객님에게 즐거움 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택배기사 아… 진짜 좋네요.

성실 그러셨습니까? 고객님.

택배기사 다들 그러잖아요. 기계처럼. 똑같은 음성, 똑같은 단어, 말투.

성실 앞으로도 고객님에게 기쁨 드리는 상담 하겠습니다.
(다시 저팔계) 손 형! 서비스 잘 받으시고 치키치키 차카차카~
오늘도 대박으로 고고씽 하셔~~~

택배기사 네, 감사합니다!

성실 (다시 원래 하이톤)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사 (또박또박 끊어서) 박, 성, 실, 이었습니다.

택배기사(F) (웃으며) 성함이 뭐라고요?

뒤에서 응원하던 혜영과 미연이 서로 얼싸안고 좋아하고
성실은 씩 하고 미소를 짓는다.

#70. 콜센터/QA실(낮)

생각에 깊이 잠겨서 고개를 끄덕이며 녹취를 듣고 있는 최 이사.
미묘하게 흥분되어 있다. 유심히 관찰하는 QA팀장.

최 이사 (약간 다급하게) 또 있습니까?

QA팀장 (왜 이러지?) 네 있습니다. 다른 상담사분 또 누구셨지?

직원2 최미연 상담사입니다.

최 이사 (다급) 어서 들려주세요.

흥분한 최 이사를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힐끔거리는 QA팀장.
'20251026_최미연' 파일을 클릭. 스피커에서 녹취가 흘러나온다.

#71. 과거. 교차. 주차장+주간1팀(낮)

주차장에서 전화하고 있는 남자.

미연(F) (나른한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남운전자 (뭐지 하는 표정이었다가) 차가 고장이….

상담하고 있는 미연. 차량번호 11호3114 듣자 눈이 번쩍.
뒤에서 보던 혜영과 성실도 눈이 번쩍.

혜영 (조용히) 아픈 척 아픈 척.

성실 (조용히) 찡찡. 살짝 찡찡.

미연이 혜영과 성실을 돌아보고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후

미연 (나른하고 아픈 듯한 목소리로)
고객님의~~~ 소중하안 차량번호가 11,
아플 때 호오~ 하는 그 호~에 311사아~ 맞을까요?

남운전자 (침을 꿀떡. 말 더듬) 네? 네네네네네넨. 네에!

미연 고객님 차량 어디가 (하아~~) 아플까요?

남운전자 (말 더듬) 아… 그… 배터리… 네.

미연 배터리 기력이 떨어졌을까요?

남운전자 네에. 주… 죽었어요.

미연 그럼 죽은 배터리를 호오~ 해서 화—악 살려드릴까요?

남운전자 (침을 꿀떡) 화…확 네. 벌떡 살려주세요.

미연 그럼 빠르게 접수하겠습니다.

남운전자 아뇨! 아뇨! 아뇨!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저 그렇게 안 바쁩니다.

미연의 목소리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남운전자.

#72. 콜센터/QA실(낮)

최 이사 (대놓고 다급함을 드러내며) 또? 또 있습니까?

QA팀장이 눈빛을 보내자 '20251027_이혜영' 파일을 클릭하는 손.

#73. 과거. 바닷가 도로+주간1팀(낮)

상담을 하고 있는 혜영. 자동차 정비 책을 보다가

혜영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 들어보니까 엔진의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오일류 보충이면 충분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여운전자(F) (울먹) 네… 알겠어요…

혜영 고객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느 바닷가. 고장 난 차 옆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통화 중인 여자.

여운전자 (울먹) 남친이랑 헤어지고 마음 정리하려고 혼자 바다 보러 왔는데
(주저앉아서 울며) 차까지 말썽부리고…
(아이처럼 운다)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혜영(F) 고객님. 뚝!

여운전자 (뿌애애애앵)

혜영(F) 뚝!

여운전자 (뿌애애애앵)

한참을 우는 여운전자. 조용히 다 울기를 기다려주는 혜영.
울음소리가 좀 줄어들자 혜영이 다시 말을 한다.
혜영과 여운전자 화면분할로.

혜영 웬만큼 우셨어요?

여운전자 네.

혜영 (단호) 고객님.

여운전자 네?

혜영 여자가 남자 따위 때문에 울어서야 되겠습니까?

여운전자 …?

혜영 고객님. 그 노래 아세요?

여운전자 노래여?

혜영 옛날 노랜데. (노래로) 남자는 배. 여자는?

여운전자 여자는… 아! 항구?

혜영　그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배 떠났다고 항구가 왜 슬퍼합니까.
바닷가라고 하셨죠. 항구 쪽 한번 보세요.

쪼그려 앉아서 울던 여자가 일어나서 뒤돌아보면
수많은 배가 정착되어 있는 항구가 보인다.

혜영(F)　떠난 배 따위는 바다에서 태풍 만나 개고생이나 하라고 하시고.
고객님은 새로 올 수많은 배들 생각하세요.

여운전자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럴까요? 또 그럴까요?

혜영(F)　당연하죠. 거 자잘한 통통배들은 가라고 하시고.
크고 좋은 놈으로 골라서 새로 정박시키세요.

여운전자　(키득거리며) 하긴 전 남친은 좀 작긴 했어요.

통화하며 기분이 조금 풀린 듯한 여운전자의 모습이 보인다.

#74. 콜센터/QA실(낮)

흥분된 표정으로 녹취를 듣고 있는 최 이사.
그에 반해 흥분한 최 이사를 불안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QA팀장.
권장화법을 벗어난 상담사들 때문에 최 이사가 화가 난 거라 오판.

QA팀장　(단호하게) 이 세 상담사 바로 징계하겠습니다.

최 이사　(짜증) 네? 왜요?

QA팀장　(어? 화난 거 아니었나) 그게… 저… 지금 들으신 녹취들은 저희가
권유하는 응대화법에서 많이 벗어난 고객응대라서.

최 이사　그런데요?

QA팀장　네? …아… 그게….

최 이사　이 세 상담사 칭찬 콜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QA팀원1　네. 박성실 씨 5회. 이혜영, 최미연 씨 3회입니다.

최 이사　(답답) 팀장님?

QA팀장　네.

최 이사　고객이 만족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담사의 최우선 과제 아니에요?

QA팀장　(말귀 알아듣고) 네. 알겠습니다.

최 이사　(QA실 나가면서) 이 세 상담사 과거 녹취파일 전부 AI실로
보내주시고요.

QA팀장　네!

최 이사　오늘부턴 당일 녹취파일도 매일 AI실로 보내세요.

QA팀장　네!

#75. 콜센터/복도(낮)

최 이사　(전화하며) QA실에서 파일 갈 거야.
(한참 듣고 있다가) 그래. 적용해.

전화를 끊는 최 이사의 얼굴이 매우 밝아진다.

#76. 콜센터/게시판 앞(낮)

미연이 성실과 혜영의 손을 잡고 게시판 앞으로 데려오고.
게시판에 10월 최우수 상담원으로 선정된 성실, 혜영, 미연의 사진.
환호하며 서로를 끌어안는 세 사람.

#77. 언덕길(밤)

동네 언덕길을 밝은 표정으로 걸어가는 성실.
한 손엔 치킨 두 마리. 한 손에 맥주가 여러 병. 그때 전화가 오고

성실　(전화 받으며) 응. 엄마 다 왔어. 집 앞. 그래.

밝은 표정으로 걸어가는 성실의 뒷모습.
달그락달그락. 맥주병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린다.

#78. 성실 집/현관+거실(밤)

들어오는 성실을 향해 뛰어오는 아들. 치킨만 쏙 받아서 거실로.
초췌한 표정의 남편이 성실을 보며 어색한 미소.

남편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성실 최우수 상담원으로 뽑혀서 보너스 받았어. 어서 먹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성실의 집안.

#79. 콜센터/게시판 앞(낮)

성실, 혜영, 미연의 얼굴이 붙은 10월 최우수 상담사 게시물을 떼고
11월의 최우수 상담사 게시물을 붙이고 가는 직원.
이번 달에도 세 사람이 최우수 상담사로 뽑혔다.

#80. 콜센터/주간1팀(아침)

자막 — 2025년 12월 31일.
약속된 삼 개월이 지나고. VIP 인입 콜 담당 상담사 발표 날.
출근하는 혜영과 미연에게 먼저 출근한 성실이 밝게 인사.

성실 좋은 아침.
미연 굿 모닝~~~
혜영 (밝게) 좋은 아침.
성실 언니가 웬일로?
혜영 중요한 날이니까. 밝게.
미연 그럼. 그럼. 난 부정 탈까 봐 선도 하나 안 밟고 왔는데용.
성실 난 어제 목욕탕 가서 때도 밀었어.
혜영 (헤드셋 쓰며) 자 오늘도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줍시다.
미연 (섹시하게) 그러엄 그럴까요~~~

성실 (저팔계) 오늘도 대박으로 고고씽~~~

서로를 바라보며 씩 웃고는 일을 시작하는 세 사람.

#81. 콜센터/7층 회의실 밖(낮)

삼 개월 전과 같은 시간, 같은 회의실.
바깥에서 유리벽을 통해 회의실 안이 보여지고
삼 개월 전 그날과는 다르게 밝은 표정인 세 사람.
팀장이 삼 개월 전 그날처럼 회의실로 들어온다.
그날과 다르게 손에 종이 한 장 들지 않고 빈손으로.

#82. 각종 도로(낮)

각종 도로들. 보닛을 열고 있는 차량. 펑크가 난 차량.
고장 난 차량 앞에서 전화를 하는 다양한 사람들.
상담사들의 상담하는 소리가 내레이션처럼 깔린다.

#83. 길거리(낮)

38고3521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세워져 있다.
통화하는 남자.

운전자 네. 배터리 충전이요.
성실(F) (성실과 99퍼센트 비슷하지만 어딘가 약간 다른 듯한)
38, 고스톱, 할 때 고 맞습니까?
운전자 (웃으며) 네 맞습니다.

#84. 콜센터/1층 로비(낮)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건물 로비. 각 층을 안내하는 안내판.
30층 회장실. 29층 AI센터만 남고 나머지 층은 전부 지워졌다.

성실(F) 고객님 너무 걱정 마시고요.

#85. 콜센터/2+3+4+5층+화장실(낮)

텅 빈 2층. 역시나 텅 빈 3층.
4층도 역시나 텅 비어 있다. 바닥엔 책상이 놓여 있던 자국만.
5층도 텅 비어 있고 화장실은 을씨년스럽게 메말라 있다.

성실(F) 바로 출동차 보내드리겠습니다.

#86. 콜센터/7층+주간1팀(낮)

역시나 텅 빈 7층. 성실이 일하는 주간1팀 쪽에서 인기척.
카메라가 이동하여 주간1팀 쪽으로 가면
인부들이 성실, 혜영, 미연이 쓰던 책상과 컴퓨터를 나르고 있다.

성실(F) 38광땡 운전대 잡으신 분이 뭐가 걱정이십니까?

#87. 콜센터/29층 AI센터(낮)

29층 AI센터 서버실 문이 보이고. 들어가는 최 이사의 뒷모습.

운전자(F) (기분 좋은 듯) 그런가요?

최 이사가 멈춰 서면 서버에서 성실의 목소리와 개그상담을
배워서 따라 하는 AI상담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성실(F) 오늘도 38광땡 잡고 대박으로 고고씽 하세요~~~
운전자(F) 네, 감사합니다.

최 이사, 프로그램 보고 있는 AI실 직원에게

최 이사 어때?
팀원1 학습능력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이젠 기존 상담사들은 생각도 못 했던 멘트까지 하던데요?

최 이사가 수고했다는 듯 직원의 등을 두드리고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서버를 바라보고 있다.

#88. 성실의 집/안방(낮)

뭐라도 안 하면 못 견디겠는지 깨끗한 집 안을 또 청소하는 성실.
장롱 위 먼지를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첩이 툭 떨어지고
사진첩 안에 고이 넣어둔 성실의 초중고 개근상장이 떨어진다.
개근상장을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보는 성실.

성실 웬 쓰레기가 치워도 치워도 계속 나와.

쓸모없다는 듯 개근상장을 박박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후
다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깨끗한 집 안을 쓸고 닦는다.

#89. 혜영의 집(낮)

핸드폰으로 구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혜영.
구인 게시물로 가득했던 사이트가 텅텅 비어 있다.
'콜센터', '상담원', '서빙' 등등으로 검색해보지만 '구인 없음.'

단 하나의 구인 게시물이 올라오자 다급히 클릭하지만
'노래방 도우미 구함. 20~39세까지.'

혜영 (깊은 한숨)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90. 노래방 룸(밤)

술에 취한 두 남자와 두 명의 도우미. 질퍽하게 노는 한 도우미와 다르게
주춤주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도우미. 미연이다.

남자1 (풀린 눈으로 미연 보며) 너 뭐야?
미연 네, 저는 상담원… 아니….
남자1 기계냐? 로보트야? 뭐 이리 딱딱해.
(버럭) 돈 받았음 돈값을 해야지!

노래가 끝나고 남자2가 자리에 앉고 도우미가 다가온다.
미연에게 눈치 주고는 남자1에게 팔짱 끼며 교태.

도우미 으응~ 오빠 처음이라 그래. 한잔하세요.

자리에 앉은 미연, 남자1이 따라주는 술을 단번에 마신다.
술이라도 잘 마셔야 방에서 쫓겨나지 않기에.

#91. 길거리(밤)

술에 만취해서 건물 옥상 난간에 앉아 있던 미연.
위태롭게 일어나서 난간을 천천히 걷는다.
어색한 짧은 치마에 하이힐까지. 미연이 더욱 위태위태해 보인다.

미연 살고 싶은데… 살고는 싶은데….
(처연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언니들… 나 어떡해…?

한참을 서 있던 미연이 건물 아래로 뚝 떨어진다.
미연이 떨어지면서 부딪힌 자동차 경보음이 밤하늘에 퍼진다.

#92. 성실 집/거실(밤)

조문 다녀온 복장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는 성실.
#1의 불탄 집을 배경으로 앉아 있던 구도 그대로.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 성실, 남편, 아들.
그때 거실 전등이 빠르게 세 번, 깜빡, 깜빡, 깜빡거린다.

INSERT
깜빡이는 불빛에 보이는 베란다.
빈 소주병 수백 개가 어지럽게 쌓여 있다.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는 가족들.
다시 거실 전등이 아까보다 조금 천천히 세 번, 깜빡, 깜빡, 깜빡.

INSERT
깜빡이는 불빛에 보이는 거실 벽.
가훈 같던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액자가 사라졌다.
누런 벽에 새하얀 흔적만 남긴 채.

여전히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가족들.

성실 (멍하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남편과 아들 둘 다 대답이 없고.
말을 꺼낸 성실도 무기력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다.
그때 다시 전등이 빠르게 세 번, 깜빡, 깜빡, 깜빡.

설명 : 빛으로 보내는 모스부호 SOS 싸인(..._ _ _ ...)
(빠르게) 깜빡, 깜빡, 깜빡. (조금 천천히) 깜~빡, 깜~빡, 깜~빡. (빠르게) 깜빡,

깜빡, 깜빡.

이제야 천장의 전등을 멍하니 올려다보는 성실의 가족.

성실 (전등을 보며) 수명이 다 됐나?

아들 (손톱 물어뜯으며 전등을 보고 있다)

남편 (전등을 보며) 이번엔 새로 나온 놈으로 갈아야겠어.
전기 적게 먹고 오래가는 놈으로.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전구가 퍽 하고 터지며 암전.
단 한 줄기 빛, 단 하나의 소리도 남김없이 사라지며
박성실 씨의 死차 산업혁명이 완성된다.

끝.

작가 후기

"네가 쓴 건 작가주의지 드라마가 아니야."
센터장님의 첫 일성에 혼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그럼 작가가 작가주의를 하지 뭘 하라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다.
허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무시할 수는 없는 법.
처음으로 돌아가본다. 난 이 단막을 왜 썼는가?
이유는 단순했다. 오펜에 당선되려고.

아! 그렇네…. 당선됐구나.
이 단막은 당선이라는 목적을 이루어냈구나.
날 위한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했으니
이젠 시청자를 위한 용도로 수정해야겠구나.
울고, 웃고, 싸우고, 시기하고 때론 찌질하게.
감정이 펼쳐지는 드라마로 수정해야겠구나.
그렇게 수정을 했다. 소소하고 소박하게.

지금도 나는 작가주의와 드라마, 그 어딘가에서 서 있다.
허나 알았으니 적용하면 된다. 배웠으니 써먹어보자.
지금 쓰고 있는 미니시리즈에서.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집필실까지 내어준 오펜 측에 감사드리며.
16부작 대서사에 Mini시리즈라는 이름을 붙인 누군가의 호연지기처럼.
호기롭게 Big한 16부작을 완성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작가주의 말고 감정이 폭발하는 드라마로.

눈녹듯

김선미

작의

어느 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도시의 이름을 알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느 인디 가수도 혼자 좋아했다.
햄버거를 먹을 때는 꼭 케첩을 뿌렸다.
원래는 내 취향이 아닌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오래전 누군가가 알려준 뒤 어느 순간 내 것이 되었다.

알려준 그 사람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았다.
한 시절을 곁에 있던 사람과 나눈 뜨겁던 감정은 어디로 가는가,
한 계절을 뒤덮은 눈은 녹아 어디로 흐르는가.
혼자 걸으며 그 질문들을 던지다가,

지난겨울의 눈이 녹아 이 봄의 싹을 틔웠구나,
뜨겁던 감정들은 내 안에 녹아 일부가 되었구나,
알게 됐다.

그 깨달음에 대해 썼다.

누군가 내게로 왔다가 사라지고,
사라진 후에 또 어떤 것들이 쌓이는 과정,
살면서 한 번쯤 겪는 아프고 쓸쓸하지만 의미 있는 감정들을 나누고 싶다.

등장인물

설아(22~37세, 여) 듬직, 우직, 묵묵한 난임전문의
무뚝뚝, 무덤덤, 지나치게 우직. 1970년대 우리네 아버지 같다. 아무리 힘들어도 징징대는 일 없이 국밥 한 그릇 퍼먹으며 밥심으로 버틴다. 집이 망하는 와중에도 묵묵히 공부해 30대 초반에 불임전문병원 '아이봄'을 오픈했다. 난임부부들에게 의느님을 넘어 의물주라 불린다. 얼굴, 재력, 실력,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보인다. 눈빛은 텅 비어 있다는

것. 감정 표현에 서툴다는 것. 첫사랑 기홍은 그녀의 속을 처음으로 들여다본 사람이다. 그가 다정하게 손잡고 '즐거운 나의 집'으로 데려간 후, 그녀의 삶은 달라지고, 그가 돌연 사라진 후 그녀의 삶은 정체된다.

기홍(22~37세, 남) 애정도, 외로움도 넘치는 첫사랑

사람에게도, 물건에게도 애착이 아주 많다. 모든 게 정반대인 설아에게 처음엔 호기심을, 다음엔 깊은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도 설아는 늘 거기 있는 동시에 곁에 없다. 답 없는 기다림에 지칠 무렵, 자신과 똑같은 사랑 덩어리 제이미를 만난다.

청도(24~39세, 남) 그냥 네 옆에 있는 남자

설아와 함께 '아이봄'을 꾸려 나가는 난임 연구원. 동기들은 '설아와 일할 바엔 군대를 다시 가라'고 하지만 청도는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은 설아가 편하고 좋다. 설아만큼이나 감정 표현에 서툴러 늘 티격태격한다.

보라(22~37세, 여)

설아의 절친이자 아이봄 코디네이터. 툭툭대지만 설아를 아낀다. 일찍 애 낳고 일찍 이혼하고 또 열심히 연애하면서, 메마른 설아와 달리 다채롭게 살아간다.

그 외

제이미, 설아 부, 김 간호사, 난임 부부, 대학 동기들, 교수, 소년 등

줄거리

"그 밤 눈이 펑펑 왔지. 빛의 조각들처럼."

2005~2013, 너와 함께한 아홉 번의 겨울.

난임병원 '아이봄'을 운영하는 설아는 말도, 표정도, 연말 약속도 없는 건조한 여자다. 사사로운 감정은 눌러두고 밥 때 되면 푹푹 먹고 일할 때 되면 열심히 일하면서 삶의 잔가지 없이 심플하고 우직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2020년의 마지막 날, 캐나다에서 온 발랄한 교포 제이미를 진료한 후 그녀의 남편을 보고 얼어붙는다. 자신이 시험관 시술을 해주어야 할 사람은 7년을 그리워한 첫사랑, 홍이다.

스물둘, 잠잘 시간도 없던 의대생 설아에게 찾아온 홍은 자신과 정반대로 사람과 사물 모두에게 애착이 넘치는 남자다. 무서운 아버지에게 '감정은 낭비'라 배우며 살아온 설아는 그와 난생처음 사랑에 빠지면서, 신생아가 부모에게 언어를 배우듯 삶을 새로 배운다.

둘은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헤어지는 일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설아 옆에서 외로웠던 홍은 갑자기 그녀를 떠났다. 그리고 지금, 다른 여자와의 아이를 원하고 있다. 그것도 설아의 병원에서.

눈녹듯
김선미

#1. 설원(새벽)

동이 트는 푸른 새벽. 온통 새하얀 설원. 푸드덕거리며 날아가는 새들.
그 사이를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내며 걸어가는 설아.
장갑을 벗어 눈을 만진다. 손에서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눈송이.
설아는 다시 걷기 시작하고,
한참 걸어간 자리에 작은 스펀지밥 피규어 하나 명랑하게 누워 있다.

타이틀. ‹눈녹듯›

#2. 설아의 집/현관(아침)

투박한 구두를 꺼내 신는 설아의 뒷모습.
현관에 붙은 작은 통에서 소지품들 하나씩 꺼내 의식적으로 챙긴다.
오른손에 시계를 차고 우산을 가방에 넣고 차 키를 주머니에 넣는다.

#3. 거리+아이봄 병원/대기실(낮)

연말 행사로 떠들썩한 거리 위로 눈이 내린다.
눈송이가 날아와 툭툭 떨어지는 '아이봄' 간판,
눈송이가 건물 창문에 붙으면 자연스레 창문 안쪽으로 이동해
병원 안 풍경이 보인다. 대기자 많고, 스태프들 바쁘게 움직인다.

보라 눈 때문에 차 많이 막혔죠? (환자에게 너스레) 숙제했어요?
(웃으며) 역시 참 성실하셔~ 오늘은 대추차 끓였어요~
드시고 좀만 더 계세요.

수술복 입은 제이미, 살금살금 걸어 나온다.
그 모습에 달려가 부축하는 보라.

제이미 (힘 없지만 밝다) 보라 코디님~~
보라 아고, 우리 캐나다댁! 고생했어요. 오늘 채취 너무 잘 됐으니까,
회복실 가서 푹 쉬고 조심히 가세요.
제이미 저 원장님 만나고 가도 돼요?
남자(E) 제대로 한 거 맞아!!!??

설아, 진료실에서 고성이 새어 나온다. 사람들 시선 일제히 쏠리고
김 간호사가 들어가 보려 하지만 보라가 눈짓으로 만류한다.

보라 우리가 누굴 걱정해~ 쟤… 그야말로, 말 그대로 김. 설. 아. 예요.
김 간호사 네?
보라 아, 옛날에. (가다 돌아보며) 인간 아닐 때 이름. (웃는다)

#4. 아이봄 병원/설아 진료실(낮)

의사 가운에 '김지원'이라 박혀 있다.
미동 없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설아.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

남자 (버럭버럭) 2년이라고 2년! 돈 버려 시간 버려 몸 축나, 뭐야 이게!

설아의 얼굴은 덤덤하지만 차트는 논문 버금가게 빼곡하다. 노력의 흔적들.

설아 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자연임신
확률은 50프로 미만입니다. 그런데 아내분은 1년에 반 이상이
무배란이고 남편분의 정자운동성은 하위 90프로라서…
남자 (O.L.) (발끈)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아내 상의 확 젖히면
배 곳곳에 주사 자국) 좀 보라고! 과배란이니 뭐니, 하루에 주사를
세 대씩 놨다고, 그럼 효과가 있었을 거 아냐! 요새 뉴스에서
하도 지 정자로 시술한다는 의사 놈들 얘기 나오길래 일부러 젊은

여의사 찾아왔다고!
근데 막말로, 돈만 받고 시늉만 하는지 알 게 뭐야!

설아 (매서운 표정) 그런 마음이 들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제가 눈앞에서 배양액을 꺼내 보여드린다 한들 본인 껀 지
알 수나 있을까요?

남자 (벌떡)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단 거야 뭐야!!

여자 (울며) 여보 제발…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지쳐서…
흑흑…

여자 보며 조금 흔들린 표정의 설아,
책상 위 스펀지밥 피규어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홍(E) 남이 울 때는 슬픈 시늉이라도 해줘.

설아(E)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홍(E) 위로를 받으면 달라지지….

설아 … (부부의 얼굴을 바라본다) 여기 오시는 아내분들의 난자를 보면,
어느 날은 스무 살처럼 너무 상태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고들 하세요. 그런 상태면 금방
성공합니다. 저는 확률을 높일 뿐, 환경은 두 분이 바꾸는 거예요.
(여자 보며 애써 따뜻한 미소) 엄마 되실 수 있어요.

여자 (울컥해서) 흑흑… 네…

남자 (고개 떨군다) 아… 남들은 턱턱 생기는데…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순간 화딱지가 나서….

설아 아내분이 한 달에 여섯 번 내원할 동안 남편분은 딱 한 번 나오시는
겁니다. 부모가 되는 특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되는 일이 쉬울 순 없으니까. 힘들면 좀 쉬었다 하시죠.

CUT TO
빈 진료실에 설아, 피곤한 표정으로 책상에 엎드려 피규어 응시한다.
괜히 얄미운 듯 스펀지밥 얼굴 푹 눌러 뒤로 밀면 다시 앞으로 디용용 튕겨
올라온다. 그때 똑똑 노크 소리, 보라 들어온다.

보라 직접 듣고 싶으시다고.

제이미 (얼굴 쏙) 쌤— 괜찮아요? (속삭) 싸우는 거 같던데?

설아 (덤덤) 앉아요.

제이미 (삐죽) 왜 우리 쌤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설아 오늘 채취하신 난자는 바로 수정시키고 5일간 배양할 겁니다.
다음 주 이식까지 몸 관리 잘하세요.

제이미 진작 쌤 찾아올 걸 그랬어요! 저 습관성 유산으로 엄청 고생하고…
오죽하면 한국까지 왔겠어요. 진짜 우리 오빠 닮은 아기면 너무
이쁠 텐데… 잘 부탁드려요옹—

설아 최선을 다할게요.

청도, 진료실 사이 문 열고 들어오며

청도 (마스크 벗으며) 체크할래?

설아 응.

제이미 (세상 해맑) 어? 핸썸 박 쌤!

청도 아, 하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게 인사하는 둘 사이, 쑥 지나가는 설아.

#5. 아이봄 병원/배양실(낮)

'연구원 박청도'라 박힌 푸른 유니폼 입고 있는 청도, OPU 챔버에 앉아서
정자 상태 보고 있고 설아는 배양기 안의 시험관들 수치 확인하고 있다.

청도 들었지, 핸썸. 잘생긴 박 쌤.

설아 상태 어때?

청도 잘생긴 박 쌤한테 물어보는 거야?

설아 (빤히)

청도 (현미경 보며 한숨) 안 좋지. 오전에 이 환자 컴플레인 있었다며?
우리가 채취할 때마다, 패스박스부터 OPU 챔버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는 척만 하는 거냐니.
내 일에 이렇게 기도를 했음 난 벌써 이 건물 샀다.

설아　환자라고 하지 말라니까. 아픈 것도 아닌데.
청도　저기요 원장님? 봐봐.

INSERT
모니터, 힘없이 미세하게 꿈틀대는 정자 모습.

청도　이게 아픈 거 아님 뭐냐?
설아　(현미경에서 눈 떼며) 그냥… 잠깐 정체된 거라 하자. (나간다)
청도　철학자야 뭐야. (설아 뒷모습에 대고) 어디 가는데?

#6. 아이봄 병원/주차장(낮)

띠딕, 설아, 자동차 리모컨 누르면 구형 소형차에 불 들어온다.

#7. 설아의 환상. 차 안(낮)

운전석에 앉으며 무심코 파일을 대시보드에 올린다.
시동 걸려는데 옆에서 손 하나가 쑥 들어온다. 스물다섯의 홍이다.

홍　또 또, 대시보드에 이런 거 올려두지 말라니까.
(#2의 소지품 정리대 옆에 놓으며) 중요한 건 여기에 놔!
(룸미러 만지며) 뒤에 잘 보여? (작은 거울 붙이고)
어때, 더 잘 보이지? 자, 이제 천천히…
설아　(스틱 움직이며 옆을 보면 아무도 없다)

설아, 멍한 얼굴. 차 안은 그때 물건들 그대로 한결 낡은 채다.

청도(E)　야!!!!

그때 갑자기 문 팍 열리며,
차 안으로 땀범벅 청도 얼굴 쑥 들어온다.

청도　(허억허억) 진짜… (휴대폰 던지며) 이럴 거면 목에 걸고 다녀!
설아　(한 박자 늦게) 어? 내 거야?
청도　그럼 내 거 주러 뛰어왔겠냐? (가려다 돌아보며) 아오… 때릴까.
설아　(시동 걸면 탈탈탈 소리) …땡큐.
청도　그 똥차나 좀 바꿔!

탈탈탈 출발하는 소형차, 서서히 어두운 주차장 나선다.

#8. 연말의 도로 풍경 + 자동차 안(낮)

운전 중인 설아, 카메라 넓어지면 눈발이 흩날리는 한남대교 풍경 펼쳐진다.

라디오(E)　2020년의 마지막 날,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겨울 눈이 참 안 오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함박눈이 내리네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저희 방송이 드디어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9. 납골당 주차장+자동차 안(낮)

'강서납골당' 표지판, 서행하며 주차장 도는 설아.

라디오(E)　그래서, 다음 주에는, 15년 전 첫 방송 날에 들어왔던 사연들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 사연 보내셨던 분들,
지금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분들은 제 실수 만발 첫 방송,
기억하실까요?

#10. 자동차 안+영등포교도소/주차장(낮)

자막 — 2005년 겨울

주차장에서 차 한 바퀴 돌면, 15년 전으로 세월 거슬러 새 차로 바뀌어 있다.
낡은 표지판에는 '영등포교도소', 라디오 소리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라디오(E) (어버버) 어? 여태 제 소개 안 했어요? 저는 '오후의 최신가요'
새롭게 디제이를 맡은 박정아입니다. 2005년 12월 1일, 첫 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주 1위, 나얼의, 귀로!

차에서 내려 휑한 주차장 가로지르는 설아.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홍과 스친다.
무심히 돌아보는 설아의 눈에 홍의 백팩에 달린 스펀지밥
열쇠고리 보인다.

#11. 영등포교도소/접견실(낮)

풍채 좋은 설아 부, 매서운 눈빛으로 수의 입고 나온다.
꾹 다문 표정이 설아와 닮았지만 훨씬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다.

설아 부 … (굵은 저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법조인 시키는 건데,
괜히 의대를 보냈다. (사이) 집은.
설아 …시키신 대로 처분해서 벌금으로 냈어요.
설아 부 넌.
설아 보라네 있어요.
설아 부 (쿨럭거린다) 걱정되냐?
설아 …명의신탁은 중범죄라고…
설아 부 빽없이 사업하다 보면 다 그런 거야. 한 끗 차이로 합법이 불법
되는 거고. 가진 거 없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냐.
넌 공부에만 집중해. 주변은 다 경쟁자다. 대학생이랍시고
어울리며 시시덕대지 말고.
설아 …
설아 부 대답.
설아 …네.
설아 부 (매섭게 다가온다) 애비가 물렁거렸으면 혼자서 너 못 키웠다.
이럴 때일수록 강해져야 돼. 남들처럼 쓸데없이 감정 타령이나
하는 순간 뒤처진다.

그 말 듣고 있는 설아의 건조한 얼굴 CLOSE UP,

설아(NAR) 그때라도 물어볼걸. 왜 꼭 강해져야 하는지…

설아 부 개인 병원 차릴 때까지 10년은 내달려야 하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12. 현재. 납골당(늦은 오후)

한결 수척해진 병원복 차림의 설아 부 사진,
그 옆에 7살 설아와 젊은 설아 부 손잡고 있는 사진 붙어 있다.
휑한 납골당에 조화 넣는 설아.

INSERT
(E)옆 칸에 조문 온 사람들, 흐느끼다 점차 엉엉 우는 소리.

그들과 설아 부 사진 번갈아 무심히 바라본다.

설아(NAR) 오래 눌린 감정들이 펑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전화벨 울린다. '김 간호사'

설아 네. (사이) 아 그거요… 어디 뒀더라… 그냥 내가 다시 갈게.
아냐, 괜찮아요.

#13. 아이봄 병원/대기실(늦은 오후)

병원 문 열고 들어서는 설아, 머리에서 눈 툭툭 턴다.

김 간호사 죄송해요. 원장님. 제이미 님 채취 기록 넣으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차트가 없어서.

설아 여기요. 차에 있더라고. 오늘 좀 정신이 없네.

김 간호사 그러실 만도 하죠. 연말에 늘 무리하시잖…

그때 제이미, 두 사람 사이 훅 끼고 들어오며,

제이미 (O.L.) 어? 원장님!

설아 아직 안 가셨네요.

제이미 우리 오빠 채취하는 거 기다렸어요. 너—무 잘 됐다! (뒤돌아)
오빠! 인사해~ 여기, 우리 닥터!

제이미가 몸 살짝 비키면 제이미 남편, 웃으며 선다.
3—2—1,
제이미, 웃으며 조잘대는데, 순간 모든 소리 사라진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설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륵 떨어진다.
홍이다.

설아(NAR) 어느 날 펑… 터지면… 난 어떻게 되는지…

#14. 과거. 한적한 주택가(낮)

라디오(E) 2005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밤새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도심 곳곳이 마비가 됐죠?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구요,
드디어 7년 만에 패닉 4집이 나왔네요. 한 곡 듣겠습니다. 눈 녹듯.

책 잔뜩 들고 장갑 끼고 위태롭게 걷는 설아, 한 발 더 내딛다 눈길에 다리
찢어지듯 미끄러지면, 슥, 소리와 함께 설아의 팔을 잡는 손.
보면 동네에서 청바지, 패딩에 고글을 쓰고 스키 타고 있는 홍이다.

홍 (서글한 얼굴) 조심하세요.

설아 (멍. 이 사람 뭐지?) …

홍 눈 밑은 빙판이에요. (고글 올리면 보는 사람 설레는 얼굴)

설아 (표정은 그대론데 양볼에 홍조가) 아…

홍 좀 들어줄까요?

설아 (눈썹을 긁적인다) 아, 아뇨…

다시 뒤뚱뒤뚱 걸어가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설아,
책더미 고쳐 들다 책 사이에서 해골 모양 클립 여러 개 바닥에 떨어진다.
홍, 가려다 말고 돌아서서 헨젤이 과자 줍듯 총총총 클립 줍는다.

#15. 의대 해부 실습실(낮)

해골 모양 클립이 해골 그림이 되어 실습실 창문에 붙어 있다.
그림 아래에는 '위험! 들어오지 마시오!'
'김태용 교수의 시신 해부 특강'
뚜껑 열면 시신에 복부만 빼고 위아래로 천 두 개 씌워져 있다.
시신을 중심으로 의대생 열 명 남짓 동그랗게 모여 있다.
주변으로 조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상황 체크한다.
그 사이, 촌스럽게 나름대로 한껏 멋 부린 젊은 청도.
호기롭게 서 있다가 교수가 천을 휙 걷자 다리 힘 풀려 주저앉는다.

교수 여기 있는 조교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수업이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액만 제거한,
리얼한 신체다. 부패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눈 떼지
말고 잘 보도록. 과탑 어딨지?

두려움에 떠는 학생들, 포르말린 냄새에 코 막는 학생 등,
공포 분위기 자자한데, 교수가 시선 주자 메스로 망설임 없이
시신의 배를 쭉 가르는 설아다.
학생들 "으아아아" 낮은 탄성 지르고,
누구는 못 보고, 입 막고, 조교들 조용하라고 지적하고, 상황 다양하다.

교수 (당황해서) 저… 정확하게 잘 갈랐네… 모여.

청도, 발이 안 떨어지고, 다른 학생들도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울고, 기겁하는
반응인데 설아 홀로 진지하다.

설아 (내장들, 코앞까지 가서 바라보며) 담낭이 없네요. (뒤적뒤적하며)
간은 괜찮아 보이는데… 췌장 전이도 없고… TNM 분류면 2기
아니에요? 담낭암은 아닌 것 같고. 절제 부작용인가요?

교수 어어… 내가 그 설명을 하고 후면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신 얼굴에 덮인 흰 천 벗기며) 결정적 사인은 두개골 함몰이다.

머리가 반밖에 없는 시신의 모습에 청도 입 틀어막고
좌중도 함께 "으아아악!" 뒤로 넘어간다.

설아 (와중에 홀로 심각해서) 교통사고? 이 정도면 10톤 트럭인가.

#16. 교정(낮)

화려한 코트에 스펀지밥 백팩 메고 교내 가로지르는 홍.

#17. 도서관(낮)

큰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 사이에 홍 끼어 있다.
탁, 소리와 함께 홍 앞에 해골 클립으로 잔뜩 끼워놓은
각종 인체 내장 실사 뭉치. "헉!" 기겁해 홍이 고개 들면 설아 앉는다.
홍, "어?" 반가운 표정으로 변한다.

#18. 몽타주. 도서관(낮)

— 설아가 앉아 있는 큰 책상 앞쪽에 가방 툭 내려놓는 홍.
터틀넥 뒤집어 입어 뒷모습 같은 설아
홍, 그 옷이 자꾸 신경 쓰이는데,

눈 마주쳐 인사하려 하면 설아, 휙 나간다.
나간 자리에 안경집 놓여 있자, 홍은 "이거!"

— 다른 날, 눈 슥슥 털며 도서관 들어오는 홍,
설아와 스쳐 지나가는데, 설아가 앉았다 나간 책상에는
텀블러 뚜껑 놓여 있다.

— 홍, 도서관 들어가는데 설아가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 앉아 있다.
조금 실망한 얼굴, 바닥 보면 의자 다리 옆에 설아가 꼈던
장갑 한 짝 떨어져 있다. 반가운 표정으로 바뀌고.

#19. 도서관/안내데스크(낮)

뺑뺑이 안경 끼고 촌스러운 스타일의 보라,
바쁘게 도서관 사서 알바 중이다.

홍 저… 제가 어떤 여자분 분실물을 습득했는데요.

보라 (하던 일하며 보지도 않고) 걍 거기 두세요. 모았다 한 번에 주게.

홍 누구 건지 아세요?

보라 있어요. 저기 의과대에 좀 모자란 애.
또 어디 엄한 데 찾고 다닐 텐데—

홍 그럼 (연락처 적으며) 오시면 여기로 연락 좀…

보라 (그제야 고개 들고 홍 훑으며) 엥? 에이~ 멀쩡한 분이 왜 그래요.
(검지 흔들며) 걔 못 써요. 노노. (간다)

홍은 호기심 어린 얼굴로 분실물 다시 들고 도서관 나간다.

#20. 의대 복도+실습실(낮)

"의대…" 건물 복도에서 두리번거리는 홍.
"으아아아아!" 소리에 이끌려 실습실 앞에서 발걸음 멈춘다.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설아가 내장 들고 있는 모습 본다.
호기심을 넘어 호감이 가득한 표정이다.

#21. 의대 건물 앞(밤)

해부 실습 마치고 우르르 나오는 학생들.
두 명의 여학생이 청도 부축하며 나오고,
설아가 동기들에게 “밥 먹자” 물으면 좌중 격분,
“배고프다고?” “니가 사람이야?” “당분간 난 아무것도 못 먹어.”
“나 그냥 관둘까?” “아직도 울렁거려.” 등등.
동기들 우르르 떠나고 혼자 남은 설아, 그때 뒤에서 톡톡 치는 손가락,

홍(E) 저기요.
설아 (무표정으로 돌아보다 미세하게 커지는 동공) …?
홍 밥 나랑 먹을래요?
설아 (표정은 그대론데 얼굴 빠르게 붉어진다)

#22. 대학가 백반집(밤)

설렁탕과 오징어덮밥 툭툭 식탁 위에 올려진다.
음식 나오자 설아, 홍 한 번 음식 한 번 번갈아 보며 잠시 망설이지만
어느새 손은 소금 팍팍 넣고 깍두기 국물 쪼르르 붓고 파 팍팍 넣는다.

홍 (피식) 맛있게 드세…

이미 노비처럼 수저 들고 후르륵 후르륵 설렁탕 퍼먹고 있는 설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홍,
설아의 흰 니트에 깍두기 국물 튀자 얼른 물수건 뜯어서 건넨다.
물수건 받아 전혀 다른 곳을 슥슥 닦는 척만 하는 설아.

홍 거기 아닌데 (도와주려 하면)

설아 (반대쪽 아무 데나 슥슥 닦으며) 괜찮아요.
홍 남의 도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설아 … (눈썹을 긁적이다, 다시 밥 푹푹 퍼먹는다)
홍 (피식) 배 많이 고팠네. 전공서 보니까 03이던데. 나돈데.
난 호경대 산디.
설아 …왜 안 먹어요?
홍 실은 밥 먹었어요. (보다 밀어주며) 드실래요?

설아, 사양 않고 오징어덮밥 퍼먹는다.

홍 방금 제 소개는 들은 거죠?
설아 (먹다 내려놓으며) 아, 네. 배고프면 머리가 하얘져서. 얼른 먹어야 또 할 일을 하니까…
홍 (웃음 터짐) 풉. 아, 미안요. 우리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인데.
설아 (조금 웃을 뻔) …호경대는 멀 텐데 왜 여기까지 와요?
홍 후문 바로 앞에 살아요! 동네가 좋잖아요. 예쁘고. 한결같고.
(쇼핑백 내밀며) 참 이거… 좀 오버 같긴 한데 남의 물건을 집에 두기도 그래서.
설아 (응시하다) ??
홍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려요. 이따 열어보세요. (시계 보다) 엇, 늦었다, 갈게요! (간다)

설아, 홍 뒷모습
(가방에 스펀지밥) 보며 조금 놀라는 표정.

#23. 설아 집/방(밤)

촌스러운 체크무늬 침구 위에 쇼핑백 올려둔다.
열어보려다 책상에 앉아 과제하고, 열어보려다 옷 갈아입는다.
눈은 계속 상자에 가 있지만 선뜻 만지지 못하는 설아.

#24. 영등포교도소/뒷벽(밤)

자원봉사 조끼 입고 학생 몇몇과 열심히 교도소 벽화 작업 중인
홍(오른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다). 애니콜 휴대폰 사진첩 열어 도안 보고
내려놓다가 메시지 확인하고, 내려놓는 듯하다 또 휴대폰 쳐다본다.

#25. 설아 집/방(밤)

씻고 나온 설아, 더 이상 궁금함 못 참고 쇼핑백 열어보면 상자 있다.
열면 설아가 그동안 잃어버린 반쪽짜리 물건들
(안경집, 텀블러 뚜껑, 장갑, 우산케이스 등) 들어 있다.
맨 밑에는 독특한 패턴 인쇄된 파우치와 함께 쪽지.
'짝이 있어야 하는 물건들이라 찾아드립니다.
담을 곳이 필요하면 여기에! 017-334-2331'

설아 (생각나) 어?!

급하게 방 구석구석 뒤지며 물건 찾는다.
그때 통화하며 등으로 방문 밀고 들어오는 보라.

보라 (애교 가득) 나 지금 집에 들어왔어. 벌써? 나두우.
(돌아서 방 보면 난장판) 얼래? 도둑 들었나? 자기야, 일단 끊어봐!

침대 밑에서 설아, 먼지 뒤집어쓰고 나온다.

보라 깜짝아! 너 뭐해?
설아 혹시 (상자 가리키며) 이것들 짝 못 봤어?
보라 (침대 위 쪽지 들어) 이건 뭐야? (쪽지와 설아 번갈아 보며 미소)
어머머, 우리집에 도둑이 들긴 들었네!
설아 줘어!
보라 (웃으며) 어어??!! 알겠다~ 그 반반한?

#26. 동네 카페 앞(밤)

카페 입구에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밥 먹고 있다.
스윽 캔 하나 내미는 손, 홍이다.
잠시 후 어설프게 바닥 치는 설아의 발끝.

#27. 동네 카페 안팎(밤)

점원, 커피 두 잔 들고 온다.

점원 여기, 쓰리샷 라떼, (설아 주고) 여기 (홍에게)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설아 (무심히 홍 보면)
홍 카페인 알러지가 있어서. 커피 진하게 드시네요?
설아 잠이 많아서….
홍 (무심결에) 귀엽다. 잠 많은 거.
(민망해서) 맞다! 여기서 보자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간판 없어서 동네 사람 말곤 모르는데.
설아 이 건물 2층에 살아요.
홍 우와 완전 가깝네. 전 바로 건너편에 살아요.
후문 10분 거리. 자주 봐요.
설아 (또 발그레)
홍 난 이 동네가 좋아요. 눈도 많이 오고 경사도 높고….
설아 …스키도 타고요? (2초 후 얼굴 붉어진다)
홍 (씩 웃더니) 난 바로 알아봤는데—

CUT TO
두 사람 앞에 먹다 남은 케이크 접시 두어 개 놓여 있고,

홍 스키 선수가 꿈이었는데 까불다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명치
가리키며) 여기까지 깁스를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정신병
걸리겠더라고. 다신 안 타기로 가족들과 약속하고. 그 뒤로 꿈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이에 있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큰 행복?

설아 … (말을 고르느라 입만 달싹인다)

홍 말이 너무 많은가. (괜히 두리번) 여기가 이상하게 편해서…

설아 …이름이 뭐예요?

홍 와 이름도 말 안 하고 여태 떠들었다! (화색) 홍이요! 기, 홍.
(보며) 김설아죠? 책에 써 있던데.

설아 (끄덕)

홍 예뻐요… 이름.

설아 (참다, 뜨거워진 얼굴 만지다, 허공에 대고 몰래 피식한다) 흡…

홍 동갑인데 말 놓을까 우리?

CUT TO

꾸벅꾸벅 조는 점원. 테이블 위 케이크는 싹 비워져 있고,
빈 맥주병도 몇 개 놓여 있다. 밖은 완전히 캄캄하다. 취기 오른 두 사람.

홍 부모님이 마흔다섯에 나를 가져서, 동네에 난리가 났었대.
큰형하고 열여섯 살 차이 나거든. 지금은 다 밴쿠버에 사는데,
난 한국에 남는다니까 온 가족이 완전 눈물바다…
할머니 집에 살겠다고 우겼는데 가끔은 잘한 건가도 싶고.
(하다 초롱초롱 쳐다보는 설아를 본다)
넌 지금 어때? (턱 괴고) 마음이.

설아 … 마음이…?

설아(NAR) 너는, 그날 이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던 내 마음을 물어본,
최초의 사람.

INSERT

장례식장.

젊은 여자의 영정사진 옆, 작은 상복 입은 7살 설아와 젊은 설아 부,
주변 사람들만 목 놓아 울고 두 사람은 경쟁하듯 눈물 없이 뻣뻣하게 섰다.

다시 현재.

설아 …내가 안 우니까 아버지도 안 울고, 아버지가 안 우니까 나도 계속
그러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내가 강해서 다행이라고 하셨어.

홍 (안타까운, 그러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설아 (부끄럽고) …나도 이상하게 여기가 편해서.

홍 이별이 뭔지 몰랐던 거 아닐까?

설아 …

홍 그래서, 지금도 마음을 참는 중인가.

설아 (놀라는 얼굴) 어…?

그때 점원이 다가온다.

점원 저희 영업 끝나서요.

홍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가방 챙기며) 내 번호 알지?
나한테 궁금한 거 있음 언제든지 전화해. 궁금한 거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아 (나가다 멈춰 서서) 하나 있는데…

홍 (좋아서) 뭔데?

설아 (홍의 가방에서 열쇠고리 본다) 이거… 바지 입은 치즈야?

홍 어어? 이거 몰라? (활짝 웃는다) 스펀지밥!

설아 …? (정말 모르는 얼굴)

홍 얘가 또 마성의 캐릭턴데 말이야! 스키 장비 다 버리고,
좀 막막해서 가까운 극장에 들어가서 아무 영화나 봤거든. 그게
하필 '보글보글 스펀지밥'이었어. 스펀지 주제에 앞뒤도 안 맞는
도전과 모험을 계속하는데 애가 항상 신나게 웃고 있어. 다 보고 돈
날렸다 하면서 극장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나도 기분이 괜찮아지는
거야. 에이 딴 거 하지 뭐, 스펀지도 저렇게 좌절을 모르는데!

설아 (자기도 모르게 빤히 보며 웃는다)

홍 (반가워서) 봐봐! 너도 웃지? 스펀지밥이 그렇다니까.

설아 (민망해서 얼른) 눈이 또 오네…

홍 (번뜩) 아! 내일 밤에도 눈 많이 온다는데, 내가 뭐 보여줄까?

#28. 카페 앞+뒷산(밤)

목도리 칭칭 감고 카페 앞에 서 있는 설아,
우다다 달려와 설아 팔 잡고 뒷길로 올라가는 홍, 한 손에는 보드 들려 있다.
눈이 많이 쌓인 뒷산에서 보드를 바닥에 놓고 앞뒤에 앉아
눈썰매처럼 내려오는 두 사람.
앞에 앉은 설아, 무표정에서 점점 신나는 표정으로 변하고,
뒤에 앉아 설아를 감싸 안은 홍, 소리 지르며 피터팬처럼 신났다.
착지하며 우당탕탕 넘어지고, 두 사람이 자연스레 포개지면
아래에 있던 홍, 두 손으로 설아의 얼굴 끌어 입 맞춘다.

#29. 단골카페 안팎(낮)

자막 — 2006년 겨울

홀쩍 큰 성인 고양이, 같은 그릇에 밥 먹고 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 이어폰 하나 같이 끼고 라디오 듣는 설아와 홍.

라디오(E) 오늘은 '○○동 스펀지밥' 님의 사연입니다. 오, 첫 키스
사연이네요. 언제 들어도 가슴 떨리는 일이죠.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나서 함께 보드를 탔는데 넘어지면서…'

홍 (신나서) 오예! 소개됐으!
설아 (이어폰 빼며) 이런 사적인 걸 여기에 보냈다고?
홍 그러엄! 좋은 건 널리 알려야지!
이제 온 세상이 우리가 작년에 첫 키스 한 사이라는 걸 안다고!
설아 …흐음.
홍 (손으로 설아 입꼬리 올리며) 참지 말고 웃어, 이럴 땐 웃으면 돼~

#30. 설아의 집(밤)

(E)쿠오오오학학, 좀비 소리,
(E)쩝쩝쩝쩝, 음식 먹는 소리.

바닥에 놓인 DVD에는 '2006년 신괴물 출몰!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은!'
소파에 앉아 담요 덮고 좀비 영화 보는 설아와 홍.
홍은 귀 막고 눈 막고 어쩔 줄 몰라하고,
설아는 다큐 보듯 그릇 들고 음식 한 입 크게 넣는다. 육회다.

홍 (기겁) 지금 이 순간에 하필 그게 입에 들어가는 거야?
설아 (우적우적) 뭘 그렇게 감정이입하고 그래. 어차피 가짠데.
홍 감정으로 돈 벌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럼 넌 완전 거지야.
설아 (피식) 괜찮아. 니가 재벌이니까.
홍 어디서 빌붙을라고. (영화 보며) 으으, 그만 보자아.
난 저런 거 보면 막 내가 아픈 것 같고 잠도 못 자겠어.
설아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잖아. 난 너만 안 다치면 돼.
홍 (심쿵) 뭐야아… 완전 선수…
설아 (다시 영화 보며) 넘 허술하다. 사람은 개구각이 한정적이라 아무리
빡빡 씹어도 절단면이 저러지 않거든. 무슨 상어한테 물린 것도
아니고. (와중에도 육회 퍼먹고, 영화에선 잔인한 장면 쏟아진다)
홍 (으아아) 설아야, 나 오늘 그냥 자고 가면 안 돼?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어… 응? 응?
설아 안 돼애~ 보라 올 시간이야!

CUT TO
보라, 설아, 홍 순서로 나란히 누워 마스크팩 하고 있고,
설아, 작게 코 곤다.

보라 (누워서 땅콩 까먹으며) 걸어서 10분 거린데 못 간다는 거지?
홍 (끄덕) 남자가 밤길에 혼자 걸어가다가 좀비한테 물어뜯겨서
뼈만 남는 영화였어.
보라 (버럭) 뼈로 곰탕을 끓여 마셨대도 이건 아니지! (우는 척) 그저께

깨진 내 앞에서!!

홍 (휴대폰 연락처 뒤적이며) 보자… 군필자가 낫나 연하가 낫나?
체대 스타일, 아님 모델 하는 친구도 있고…

보라 (슬며시 일어나 반색) 아니~ 우리 베리 임포턴트 퍼슨께선,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부자리 쿠션감 괜찮아요?

그사이 설아 코 드르렁 소리 조금씩 커진다.
보라가 쿠션으로 설아 얼굴 덮어버린다.

보라 어쩌다 (설아 보며) 저런 거한테 빠져서는… 이쁘자앙—하니까
처음엔 다들 스윽 다가왔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데,
넌 멀리도 왔다.

홍 (흐흐) 우리 설아 이쁘지…

보라 내가 오—랜 짝사랑에 고백했다 뻥 차이고 일주일을 식음 전폐하고
울고불고 했을 때도, 어? 단 한 번도 괜찮냐고 물어본 적 없는
년이야 (땅콩 우적우적 씹다 절레절레) 저거 사람 아니다.

홍 하하~ 둘이 아버지 대부터 친구랬지?

홍이 설아의 마스크팩 벗기자,
좋은 꿈 꾸는지 실룩실룩 아기처럼 웃으며 자는 얼굴.

보라 걍 내가 대를 이어 희생 중이지. 우리 아빠가 얘네 아빠 회계
담당이었는데 뭔 신탁 알아봐줬다가 다 망했대나 어쨌대나.
내가 이래 고와 봬도 나름 험한 길을 걸어왔지…
근데, 아 맞다 완전 히트! 지 아빠 빵 갈 때도 쟤 아무 표정이
없었어! (혼잣말) 근데 요새 아침에 눈 마주치면 실실 쪼개.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아무튼, (팩 떼며 일어난다) 난 동아리방 간다.
저기 뭐냐. 그… 서로서로 잘 책임지고. 흠흠.

홍 야야 아니야, 이 야밤에 혼자 어딜 나가! 내가 집에 갈게!

보라 (이미 신발 신는다) 너 집에 가면 또 둘이 밤새 통화할 거 아냐!
그게 더 싫거든? 그냥 있어! 이런 날 애들이랑 술이나 퍼먹는 게
청춘의 모범 행동 아니겠니? 내가 이래 봬도 모범생이라.
(서둘러 문 쾅)

#31. '미래 예측' 동아리방/밤

대학생 네댓 명 거나하게 술판 벌어진 동아리방.
"미래엔 연애라는 거 자체가 없을껄?" "아무도 안 만나고 막 일도
집에서 하고 그런다니까?" "맞어. 어차피 2020년쯤엔 결혼율보다
이혼율이 더 높아져." "2020년이 오겠냐?" 등등.
보라, 청도 포함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청춘들은 점점 취해가고
왁자지껄 널브러져 사랑이 뭐니 청춘이 뭐니 부르짖는다. 그 위로,

설아(NAR) 너는, 내 청춘의 외로운 순간을 온기로 채워준 사람.

#32. 거리+설아의 집 안팎(밤)

함박눈이 내리는 거리, 컴컴한 골목에 설아의 집만 따뜻한 불빛 내뿜는다.
그 위로 깔리는 홍의 기분 좋은 속삭임.

홍(E) 설아야… 김설아… 김설아…

설아(E) (졸음 섞인 웃음소리)

쭉 뻗은 설아의 손을, 팔을 맨살로 천천히 만져보는 홍의 손.
손목시계는 새벽 3시 반을 가리킨다.

홍 손도 이렇게 작은 게… 뭐 그렇게 열심히 뭐가 되겠다고…

설아 나중에 행복하게 살라구… 근데… 왜 항상 시계를 오른손에 차?

홍 그게 멋이거든. 누구나 왼손에 찰 때 난 오른손에 차는 멋! (웃음)

설아 (피식)

홍 또 물어봐줘. 니가 물어보면 당연했던 것들도 다시 생각해서
대답하게 되고, 그럴 때 설레.

설아 난… 다 너한테 배워.

홍 (설아 안으며) 그러니까, 이제 나 책임질 거지?

설아의 팔을 베고 품에 파고든다.

홍의 얼굴을 꼭 끌어안는 설아, 머리에 입을 대고 입김을 호— 분다.

홍 따뜻하다. (씩 웃는다)

설아(NAR)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속삭이고 싶은 사람.

#33. 현재. 아이봄 병원(늦은 오후)(#13 연결)

돌처럼 굳은 설아를 황당한 얼굴로 보는 제이미, 서둘러 달려오는 보라.

제이미 왜… 우세요?
설아 아… (당황해 눈물 닦는데 오른 손목에 시계 차고 있다)
홍 (슬쩍 보지만 외면한다) 가자.
보라 (다급하게 끼어들며) 저기 원장님, 그… 교수님 장례식장! 얼른 가보셔야죠. (제이미 보며 어색하게) 원장님이 눈물이 원-체 많은 분이라… (홍 슬쩍 보는데 원망의 눈길 스친다) 두 분, 가서 쉬세요. 병원 마감 시간이에요.

#34 과거. 학교 도서관(낮)

자막 — 2007년 겨울

도서관 서가 정리하며 어딘가를 강렬히 째려보고 있는 빵빵이 안경의 보라.
나란히 앉아 사이좋게 공부하는 설아와 홍.

홍 (인체해부도 그리며. 잘 그린다) 이렇게 맞아? 여기가 간이야?
설아 아니, 간은 여기. 이게 위… 췌장… 심장… 그리고… (피식) (귀여운 남자아이 모양 그려 넣고는) 여기, 너.
홍 (심장 잡으며) 으!! 심장 멎을 뻔. 써놔야지, 이게 김설아, 여기 나.
설아 근데 너 글씨 되게 특이하게 쓴다…
홍 이제 봤어? 이게 또 비하인드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받아쓰기하잖아. 갑자기 획순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글씨체를 완성했지. 이름하여 (눈 부릅뜨며) 홍체!

설아 피식하면 보다 못한 보라, 정리하던 책더미를 홍 앞에 툭 놓는다.

보라 (속삭) 넌 학교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냐?
홍 아 군대… (털썩) 얘 데리고 갈까? 설아 없이 어떻게 살지?
보라 애지간히 해! 3년째 안 지겹냐?
요즘 같은 인스턴트 시대에 보는 내가 다 지겹다!

키득키득 웃는 설아, 그 얼굴 위로

설아(NAR) 헤어지는 일 같은 건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35. 홍의 집(밤)

장식장에 물건이 꽉 찬 맥시멀리스트의 집, 홍의 물건들 구경하는 설아,
바닥에서 다림질하고 있는 홍.

홍 엄마는 아침마다 우리 가족 팬티랑 양말을 다 다리셨거든.
그걸 입으면 너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서 엄마가 다리미 꺼내면 형들이랑 쪼르르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
설아 …엄만 그런 거구나.
홍 (짠해서) 결혼하면 나도 아침마다 니 팬티 다려줄까?
설아 어? (생각하다) 응!
홍 (말하고 본인이 부끄러워) 애가 사양이 없어….
(테이크아웃 커피 홀짝홀짝 마신다) 이 커피 향 진짜 좋다.

삐, 주전자 물 끓는 소리

홍 (싱크대로 가서) 어? 잠깐만 있어. (요리한다) 이걸 데치고…

설아　(물건들에 정신 팔려) 이거 다 니 꺼야? 전부 다?

홍　(칼질 삼매경) 응, 그게 다아 하나하나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
내가 그 시간을 살았다는 증거물이고….
너, 내가 예전에 돌려준 것들, 다 찾았어?

설아　…

홍　버렸어? (눈 비비고 목 벅벅)

설아　(안 보고 딴청)

홍　(목소리 잠긴다) 흠흠, 이제부터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마.
물건이든 사람이든. 니가 애착을 가진 게 곧 너니까.

설아　이제부턴 그럴게. 애착은 니가 처음이라.

홍　(알러지로 얼굴 벌겋다) 윽, 또 훅 들어온다… 아 왜 이러지….
(눈 자꾸 비벼 흐릿해지다 아보카도 칼이 손가락으로 푹 박히며
피 솟구친다) 어… 어어…!!

설아,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는데,
잠시 멍하다가,
3—2—1,

갑자기 모든 소리가 제거되면서 화면 뿌옇다(설아의 눈물 고인 시선).
급하게 달려가 입고 있던 옷으로 홍의 손가락 둘둘 마는데
흰옷이 순식간에 빨갛게 물든다. 홍, 숨 못 쉬고 꺽꺽거리고,
설아, 인공호흡을 하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전화기 찾느라 허둥지둥하느라 홍의 물건 다 떨어뜨린다.
다리미 옆에 놓인 테이크아웃 잔도 쓰러지면서
안에 있던 커피 쏟아져 다림질하던 속옷 적신다.
119에 전화하며 울부짖는 설아의 모습 위로 수술방 사인 뜬다.

#36. 세브란스 병원/외과수술실(낮)

간호사　(서둘러) 하행대동맥박리 재수술입니다! PK 선생님들 들어오세요.

수술 복장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4명의 본과생들,
표정 안 좋은 설아, 청도가 툭 치면 정신 차린 듯 자세 바로잡는다.

피 범벅된 환자의 봉합 수술 지켜보는데,
설아의 눈에 환자의 얼굴이 자꾸 홍의 얼굴과 오버랩되고,
환자의 피가 온 바닥을 적시는 환영 보인다.
식은땀 흘리며 하얗게 질리는 설아, 참지 못하고 수술실 박차고 나간다.

#37. 의국 교수실(낮)

화난 교수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설아.

교수　야 이 새끼야, 본과 3년에 벌써 이러면 앞으로 인턴, 레지던트는
어떻게 할래? 에이스라고 떠들고 다닌 내 얼굴이 뭐가 돼?

설아　…죄송합니다.

교수　다신 의사 가운 못 입을 거 봐주는 줄 알아. 앞으로 넌 수술방
논스톱으로 들어가. 그거 지금 극복 못 하면 평생 발목 잡혀.
알았어?

설아　…네, 알겠습니다.

#38. 설아의 집 앞(새벽)

터덜터덜 녹초가 되어 들어가는 설아,
우편함에 쌓인 각종 세금 독촉 고지서들, 뭉텅이로 꺼내는데 우편물에
코피가 주르륵 떨어진다. 고개 들며 우편물로 코피를 슥슥 닦는 설아,
작은 한숨이 푹, 삶이 버겁다.

#39. 단골카페 앞(낮)

자막 — 2008년 겨울

어른 고양이 옆에 새끼 고양이 2마리 있다.
그들과 놀고 있는 홍의 손, 손에 길게 꿰맨 큰 상처 보인다.

#40. 카페 안(낮)

머리 밀고 모자 쓴 홍, 견출지 수십 개에 '03 김설아' 쓰고 있고,
옆에서 홍의 눈치를 보며 조금 어색해하는 설아.
둘의 기류가 전과 다르게 냉랭하다.

홍 눈치 그만 봐. 나 괜찮아. 신검도 무사통과했잖아.
설아 …알러지 하나도 체크 못 하는데 무슨 의사를 한다고….
홍 (O.L.) 그런 말 하지 마. 너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어딨어.
전공은? 정했어?
설아 아직.
홍 너 하고 싶은 거, 아님 잘할 수 있는 거 해.
둘 다 없는 사람도 되게 많다?
설아 넌. 찾았어?
홍 그게 바로 나다? (웃다가) 제대하기 전엔 찾겠지. 야! 근데 넌
나 군대 가는 거 슬프지도 않아? 무려 2년을 못 보는 거야!
설아 2년이 뭐가 길어. 평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홍 (오버해서) 으악, 또 훅 들어오구. (설아 양볼 잡으며)
너, 진짜 변하면 안 돼!
설아 (빤히 보다) 니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변해.
홍 (꼭 안으며 속삭인다) 너를 잃은 바엔 차라리 바보가 될래.
설아 …응?
홍 스펀지밥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야. (보며 미소)

#41. 아이봄 병원/설아 진료실+대기실 일각(저녁)

슥슥, 책상에 앉아 커다란 종이에
'2016년'까지 쓰다가 모니터 화면 응시하는 설아의 뒷모습.

INSERT
모니터 속 페이스북 화면.
밴쿠버의 스키장, 설원에 앉아 있는 홍의 뒷모습.
옆자리에는 누군가 벗어둔 스키 장비 놓여 있다.

그때 창밖 옥외광고판에서 휘황찬란하게 상영 중인 ‹스펀지밥 3›
영화 예고편, 모니터 화면에 비치며 설아의 슬픈 표정과 오버랩된다.

설아(E) 차라리… 바보가 될까…

대기실,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하는 청도가 문 닫힌 설아 진료실 본다.

청도 아직 안 끝났어?
보라 몰라, 따스한 의사가 되겠다고 방해하지 말래. (2015년 달력 떼고
2016년 새 달력 걸며) 어째저째 1년 자알 버텼다~ 김설아 저거
바로 망할 줄 알았는데, 다~ 우리 연구원님 덕분입니다?
청도 (웃으며) 진짜 김설아 노동량 소화하느라 죽을 뻔… 재입대가 낫지.

청도, 설아 진료실 노크하고 하고 문 연다.
청도 모습에 은근히 놀라 모니터 끄는 설아,
책상 위 종이에 다시 끄적대기 시작한다.

청도 안 가? (다가가 쓰는 모습 보며) 이제 보니 너 글씨 진짜 특이하게
쓴다. 어디서 이렇게 근본 없이 배웠어?
설아 (열중) 근본이 없다니. 이게 획순이 효율적이거든?
청도 뭐가 효율적이야, 왔다 갔다 엄청 불편해 보이는데.
설아 (쓰다 말고) …그런가. 습관이 돼서. (다시, 쓰기에 몰두하며)
신경 끄고 퇴근이나 해. 너 좋아하는 동기들 기다린다.
청도 같이 가자. 애들이 송년회 좀 나오라던데.
설아 이따 애 봐야 돼. (문밖 보라 보며) 누가 날 이동식 탁아소로
알거든.
보라 (한껏 치장한 채, 머쓱해서) 아고~ 선생님들, 전 그럼 퇴근합니다!

해피뉴이어~!

보라, 가다 돌아보면 숙제 중인 초등학생들처럼 티격태격한 설아와 청도.

청도 '받으십시오'가 뭐야, 상소문 올려? 늦게까지 있을 거니까 와.
설아 (본격적으로 색연필 꺼내 글씨 색칠하면서) 봐서.
청도 오라면 와라. 좀. 야, 복 자는 노랑으로 가야지. 병신년엔 왜 또 피칠갑을 해놨어. 아오— 이렇게 센스 없어서 일상생활 가능하냐?
설아 세상이 님 생각처럼 그렇게 무지갯빛이 아니에요….
청도 (색연필 뺏으며) 으휴 갖고 와봐. 색채감각하면 또 박청도…
설아 (O.L.) 아 정신 사나워, 너 빨리 가!

#42. 아이봄 병원/설아 진료실(저녁)

한껏 멋 부린 여덟 살 소년, 빙수 맛있게 먹고 있다.
설아는 차트 점검하며 한 번씩 소년을 귀엽게 바라본다.

설아 안 춥니?
소년 완—전 맛있어. 이모도 먹어봐.
설아 난 추운 거 싫어.
소년 그거 왠 줄 알아? 쏠로라서 그래. 외로워서.
설아 휴 다행이다. 늙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이모 집에 가서 디즈니 만화 볼래?
소년 (쩝쩝) 헐, 아니! 근데 이모는 왜 일만 해?
설아 이모는… 세상에 아픈 사람은 없고 너 같은 어린이가 많았으면 좋겠거든. (슬쩍 웃는다)
소년 뻥~ 데이트 없어서 그런 거 아냐? 엄마 말대로 (속삭) 진짜 자웅동체야?
설아 (같이 속삭) 니네 엄마한테, 담주에 사표 들고 오라 그래.
소년 사표가 뭐야? 근데 혹시 그, 도망갔다는 아저씨 아직도 기다리는 건 아니지?
설아 … (눈 깜빡이며 미세하게 화 삭이는 중) 밥이나 먹으러 가자.
소년 미안한데 저는 다빈이네서 저녁 같이 먹기로, (핸드폰 울리자) 델러 왔다! 여덟 시까지 이모네로 가께! 엄마테 비밀이야! (뛰어간다)
설아 야아! 안 돼! 더 빨리 와! 나 집에서 기다린다!

홍(E) 빨리빨리 안 다닙니까?

#43. 설아 집 앞(밤)

자막 — 2009년 겨울

군복 입고 서 있는 홍. 설아, 한 박자 늦게, 어!! 하며 뛰어온다.

홍 (끌어안으며) 왜 이렇게 말랐어? 연락도 안 받고, 죽을래?
설아 (웃으며) 벌써 휴가 때가 됐어?
홍 (포옹 풀며) 벌써어? 나 이거 좋아해야 돼, 걱정해야 돼. 우리 오늘 며칠 됐는지 알아?
설아 …우리?
홍 1466일! 지금 몇 년도인지는 알고 사는 거지?
설아 2010년?
홍 그건 나 제대고. 아직 2009년이야!
설아 뭐가 중요해. 춥다, 들어가자~
홍 (따라가며) 아주 그냥 능구렁이 다 됐구만!

#44. 단골카페(밤)

홍 (O.L.) 같이 살자고. 우리 집 들어와. 할머니 요양원 가시고 집 비어 있잖아.

INSERT
(E)으웨엑! 켁켁켁! 윗층에서 들리는 보라 입덧 소리.

홍　보라도 배 불러오기 전에 결혼할 텐데.
너 이사하는 거 보고 복귀할 거야.

설아　아냐. 어차피 맨날 병원에서 자는데…

홍　그러니까! 더 고민할 필요 없네.

설아　(망설이며) 그래도… 돈도 없고…

홍　(손잡는다) 혼자 있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 나 있잖아. 니 가족.

설아　그러네. 나한테 너 있다. (웃음)

#45. 몽타주. 이사+군대+제대

— 문 닫힌 전자제품 전문점 앞. 홍, 냉장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 팔 부분 뚫고, 옷처럼 입고 아장아장 걷는다. 설아의 박스 옷도 만들어 입히면 나란히 아장아장 걷는 두 사람.
— 홍의 집. 여러 짐 박스와 책상 두 개 연이어 들어오고, 칫솔 두 개 꽂히고, ‘Hong’s cabinet’, ‘Snow’s cabinet’ 나란히 들어온다.
캐비닛 시선에서 홍이 첫 칸 조심조심 채울 동안 설아는 몇 개 대충 던지고 ‘아 배고파!’ 하며 일어선다.
— 주방. 홍은 식사 준비하고 설아는 옆에서 라디오 켠다.

설아(NAR)　너는, 태어나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가족.

— 다른 날, 홍의 집. 부대 복귀 차림의 홍이 캐비닛 열어 각 잡힌 옷들 사이에서 옷 하나 찾는데 보이지 않고,
— 의국. 맞지도 않는 홍의 옷 입고 공부 중인 설아.
— 홍의 집. 설아, 캐비닛에 병장 홍의 사진, ‘제대 100일!’ 써 붙이다가, 급하게 콜 받으며 캐비닛에서 옷가지 대충 몇 개 꺼내 가방에 넣고 문 닫는다.

설아(NAR)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있을 첫사랑.

암전.

자막 — 2010년 겨울

— 부대. 공중전화에서 추위에 떨며 전화 중인 병장, 홍.
몇 번 더 걸어보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선다.
— 부대. 다시 전화 중인 말년병장 홍, 이번엔 짜증 팍 내며 전화 끊어버린다.
— 홍의 집. 열리지 않는 캐비닛.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는 빈집.
— 대학병원 당직실. 가운 입고 여기저기 좀비처럼 쓰러져 있는 동기들.
혼자 외출복 입고 가방까지 멘 채로 구석에 잠들어 있는 설아.
— 부대 앞. 사복 입은 무리가 제대자 한 명 헹가래하고 있다.
옆에서 그 모습 바라보며 홀로 서 있는 홍.
— 홍의 집. 다른 날, 청소기 돌리는 홍, 반쯤 열린 설아의 캐비닛, 엉망이다.
주변에 설아 물건들 캐비닛에 마구 넣고 문 쾅 닫는다.
(E)‘띠리리리’ 휴대폰 소리.
— 장례식장. 할머니 영정사진 있고, 홍은 상복 입고 앉아 있다.
휑한 장례식장, 담배 들고 밖으로 나가는 홍.

#46. 장례식장 앞(낮)

자막 — 2011년 겨울

담배에 불을 붙이는 홍, 마구 달려가는 설아 본다.

홍　김설아!

설아　(홍 쪽으로 달려오며) 수술이 길어져서… 헉헉…
문자 보자마자 온 건데 괜찮아? 가족들 귀국하셨어?

홍　뛰지 마. 넘어져.

설아　…너 담배 피워?

홍　(말없이 끈다)

설아　일단 들어가자, 내가 도와줄…

홍　(O.L.) 괜찮아.

설아　어?

홍　(냉랭하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 피곤할 텐데.

설아　아냐, 아직 시간 있어.

홍　가족들 곧 와. 오면 설명할 것도 많고, 정신없잖아.

그때 문상객 몇 오고, 홍과 인사 나눈다. 옆에서 뻘쭘한 설아.

홍 가. 나중에 전화할게. (가버린다)

들어가는 사람들 멍하게 보는 설아. 뒤에서 홍의 문상객들이
"누구? 여자친구 아니야?" 묻는데 홍의 대답 안 들린다.

#47. 홍의 집(밤)

홍에게 전화 거는 설아. 홍이 받지 않자 알람 뜬 홍의 페이스북 사진 본다.
가족들과 여행 중인 모습, 친구들과 파티하는 모습 등.
한없이 웅크린 설아의 뒷모습.

CUT TO
적막을 깨우는 바깥 소음에 깜빡 잠에서 깨는 설아.
창밖은 삼삼오오 연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시끄럽다.
부러운 시선 거두고 짐 챙기려 캐비닛 앞에 선다.
온갖 물건 가득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돼 있는 홍의 캐비닛,
설아의 흔적 눈에 띄게 줄었다.
대조적으로 엉망진창인 설아의 캐비닛,
하나씩 정리하려 물건들을 꺼내보지만 뒤죽박죽 엉켜 있다.
각종 스트랩들 들러붙어 당길수록 단단히 꼬인다.
꽈아악 힘주다가 어느 순간 붉어지는 설아의 얼굴,
투둑, 눈물이 떨어진다. 휴대폰 울리는 소리에 반가워 보면 또 병원,
꼬인 뭉치 다시 넣고 문 닫으려는데 닫히지 않자,
애꿎은 캐비닛 문만 쾅쾅 때리다 점점 커지는 슬픔,
설아는 짐승처럼 펑펑 울기 시작한다.

#48. 기홍 브랜드 오픈식 안팎(밤)

자막 — 2012년 겨울

친구1(E) 기홍의 디자이너 겸 CEO 데뷔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은 지하 창고 안, 오픈 파티. 들어오는 사람들 의식한 듯 쳐다보다,
얼큰히 술 취해 웃고 있는 홍.

친구2 오늘 그림자 여친 오냐? (만류하며) 야, 그만 마셔, 시작한다.

'2012 Hong cabinet Grand Open!' 플래카드 아래로
친구들 계속 들어오고, 문 열릴 때마다 홍은 괜히 흘끔거리며 본다.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제이미가 웃으며 들어오자 친구 1이
다가와 홍에게 제이미 소개한다. 제이미, 좋아서 눈빛 반짝 빛난다.

CUT TO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파티장, 모두 떠나고 널브러진 술병 사이에서
몸 가누지 못하고 반쯤 누운 홍, 전화 들고 설아 누르고 문자를 쓰다 지운다.
이내 전화기 던지며 눈 감는데, 살짝 열린 문틈으로 제이미가 웃으며 얼굴
빼꼼히 내밀며 들어간다.
그 시각, 차마 문 열지 못하고 작은 꽃다발 문 앞에 두고 돌아서는 설아.

#49. 현재. 자동차 안(밤)

홍, 제이미 태우고 운전 중이다.

제이미 왜 자길 보고 울어? 이상한 여자야, 평소엔 별 표정도 없더니…
홍 (앞만 보며) …원장 이름이 뭐랬지?
제이미 김지원. 오빠 진짜 모르는 사람 맞지?
홍 내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어딨어…
제이미 흐음~ 조울증 뭐 그런 건가? 갱년기? 뭐, 이상하면 어때, 의느님
넘어 의물주라는데, 능력만 좋음 됐지. (자동차 시계 보고) 어?
오빠 좋아하는 거 하겠다. (라디오 튼다)

라디오(E)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15년 전

‘오후의 최신가요’ 첫 방송에 소개됐던 사연들을 다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소개된 분들 근황이 너무 궁금했는데, 첫사랑 사연이 왔네요~

홍 (툭) 끄자.

설아 아아~ 들을래~ (다시 켜며) 한국 라디오 너무 좋아. 포근해— (눈 감는다)

라디오(E) “저는 그때 연애를 처음 해봐서,
아니,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나빴습니다.
그대로만 있으면 끝까지 지켜지는 건 줄 알았어요.”

끄려던 손길 거두고 생각에 잠기는 홍.

설아(E) 나랑 밥 먹을래?

#50. 홍의 회상. 빌딩 앞(밤)

멋진 정장 차림의 홍, 남녀 동료 몇과 이야기 나누며 나온다.
후줄근한 차림의 설아가 그 앞에 서 있다. 홍이 먼저 본다.

홍 어?

동료들 누구?
오~ 그 의사 여친?
진짜 피곤해 보이신다.
먼저 갈게!

홍 (어색해서) 인턴 동기들…

설아 밥 먹자.

홍 어디서?

#51. 홍의 집(저녁)

사람이 안 사는 집처럼 짐이 다 정돈된 상태.
어설프게 차린 밥상, 주방에서 쭈뼛대는 두 사람.

설아 (주방에 서서) 국만 데우면 돼.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 (옆에 서서) 가족들이 오늘에야 출국해서…

설아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

홍 그런 건 아닌데…

홍이 식탁에 음식 놓는 사이, 어색한 분위기 흐르다,
설아가 뒤에서 슬며시 끌어안는다.
멈칫하는 홍.

설아 (홍의 등에 입을 대고 입김을 후— 분다)

홍 …

설아 따뜻하라구.

홍이 착잡한 표정으로 돌아보고 설아의 얼굴을 만진다.
설아가 그 손을 잡자, 두 사람 오랫동안 키스한다.

#52. 현재. 아이봄 병원/설아 진료실(밤)

진료실 맨 마지막 서랍, 열쇠로 열면 홍이 그동안 준 물건들
(쪽지부터 별 의미 없는 티켓들까지) 그대로 한가득 있다.
설아 역시 생각에 잠긴다.

#53. 설아의 상상. 부대 앞

2010년. 친구들이 헹가래 치고 내려놓으면 뒤에서 짠, 하고 꽃다발 들고
폴짝 뛰어 홍에게 안기는 설아.

설아(NAR) 시간과 감정을 쓰는 일,

#54. 설아의 상상. 번화가

2011년. 당직실에서 잠든 설아,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달려나가면 정장 입은 홍이 우산을 접고 반갑게 맞이한다.

설아(NAR) 크고 작은 일상을 공유하는 일,

#55. 설아의 상상. 브랜드 오픈식

2012년. 당당하게 문을 열고 홍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설아.

설아(NAR) 무엇보다, 그 곁을 지키는 일… 그런 게 니가 원한 사랑이라는 걸,

#56. 현재. 아이봄 병원/설아 진료실(밤)

설아, 물건들 박스에 우르르 다 쏟아 넣는다.
결심한 듯 진료실 문을 닫고 나간다.

#57. 아이봄 병원/배양실(밤)

배양액 줄줄이 나열돼 있다.
설아, 뭔가를 찾다가 제이미 이름 앞에서 멈춘다.
떨리는 손으로 배양기 문을 잡는다.

INSERT #4

설아(E) 제가 눈앞에서 배양액을 꺼내 보여드린다 한들
본인 건지 알 수나 있을까요?

떨리는 얼굴로 한참을 바라본다.

설아(NAR) 이제야 알았어.

#58. 단골 카페 앞(저녁)

자막 — 2013년 겨울

'—당분간 쉽니다—'
붙어 있고 내부 수리 중인 문 닫힌 카페,
겨울비가 보슬거리는 거리,
녹아 밖으로 뚝뚝 흐르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들고 있는 화난 표정의 홍.
그때 달려오는 설아.

홍 …
설아 (쩔쩔) 오늘인 줄 몰랐어. 전화를 하지!
(전화 보면 꺼져 있다. 미안한.)
홍 갈게.
설 아…알잖아. 연말엔 환자가 너무 많아서…
홍 (케이크 팍 바닥에 던지며) 또 알려줘야 돼? 이럴 땐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힘들 땐 힘들다고 하는 거고, (사이) 때가 되면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설아 !!
홍 너… 왜 맨날 라디오 틀어놔?
설아 ?
홍 듣지도 않으면서 왜 틀어놓냐고!
설아 그냥…
홍 내가 그렇지?
설아 뭐?
홍 (도저히 못 참겠고) 내가 너한테 그렇잖아! 그냥 틀면 나오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잘 듣지도 않으면서
매일 같은 채널 그냥 틀어놓고, 시끄러우면 꺼버리고.
난 너한테 그 정도라고!

설아 (붙잡으며) 잠깐만…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홍 할 필요 없어, 늦었거든. (돌아서는데, 설아 흰옷에 묻은 볼펜 자국 보인다) 그리고 너, 흰옷 입지 마.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가버린다)

#59. 현재. 리모델링된 카페(단골 카페 자리)(낮)

카페 앞에서 망설이며 바닥을 콩콩 차는 설아의 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다 카페로 들어간다.

#60. 카페 안(낮)

앉아 있는 홍에게 걸어가는 모습, 긴장돼 보인다.

설아 내가 좀 늦었네… 요…

홍 (표정 없이 바라본다)

설아 (당황해 두리번거리며) 여기 참 많이 변했네….

홍 …뭐 마실래? 난 주문했어.

점원, 커피 한 잔 들고 다가온다.

설아 저는 라떼 주세요. 쓰리샷으로….

홍, 커피 받아서 향 맡는다.

설아 (놀라서 다급) 디카페인 맞아?? 여기 없을 텐데!

홍 …괜찮아 (으쓱) 나이 먹으니 없어지더라.

설아 (어색하게 보며) 아…

홍 할 말 있다며.

설아 아, 어… 캐나다에서… 잘 지내?

홍 응.

잠시 정적 흐른다.

홍 (망설이다) 혹시 배양 중에 다른 병원으로 바꿀 수 있어?

설아 …아니. 배양기를 통째로 가져간다 해도 위험해.

홍 (작은 한숨) 그래.

설아 …

홍 이름이 달라서… 넌 줄 몰랐어.

설아 (컵 만지작) …어릴 때… 엄마가 부르던 이름인데.

홍 (슬쩍 바라본다)

설아 …왠지 그게 더 의사 이름 같아서.

홍 (옅게 피식) 길에서 보면 모르겠다.

설아 …그런가. (눈썹을 긁는다)

홍 아닌가.

설아 넌… 좀 마른 것 같은데.

홍 시차 때문에, 피곤해서.

설아 …그때 …너 갑자기 사라지고…

홍 그런 얘기면 하지 말자, 지난 일인데.

설아 …

홍 (잠시 보다 옆에 놓인 모자 다시 쓰며) 더 할 말 없음 가볼게.

설아 (결심한 듯 바라보며) 미안해….

홍 (모자 쓰는 손, 주춤한다) …

설아 늦었지만, 미안해. 너무 오래 지난 말이긴 하지만, 그때 미안했어.

홍 …사과 안 해도 돼.

설아 (결심한 듯 준비한 듯) 졸업만 하면, 인턴만 끝내면, 전공의만 따면, 성공하면… 계속 너를 뒤로 미룬 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 줄 거라 믿은 거, 다 미안해. 꼭 지켜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흘려보냈어….
열다섯 번의 겨울을 겪어보니 이제 알겠어. 눈은… 녹거나 어는데, 늘 그대로일 거라고, 내가 착각했어.

홍 …

설아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듯) 하아… 그때 이 말을 못 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말할 기회가 없어서… 꼭 한 번 만나고 싶었어.

홍 …

설아 (눈 조금 붉어진다) 참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너처럼 살았어. 그래서 할 말도 많았는데, 막상 하려니 생각이 안 나네….

홍 …

설아 (눈물 그렁하며 미소) 이제, 나는, 진짜 너랑 헤어질 수 있겠다.

홍 … (모자 만지는 손이 조금 떨린다)

설아 내 첫사랑이 너라서… 난 좋았어… 잘 지내… 홍아.

홍 … (드디어 눈을 마주 본다) 너도.

서둘러 일어서 급하게 나가는 홍. 카운터에 서서야 짧은 한숨 내쉰다.
지갑에서 카드 꺼내는데, 지갑 안에는 설아의 낡은 해골 클립 꽂혀 있다.

아련한 표정의 설아, 홍의 커피 컵을 본다.
한 입도 마시지 않은 그대로의 커피.
설아는 조금 후련해진 표정으로 창밖을 본다.

#61. 카페 외관(낮)

커다란 통창 통해 보이는 설아의 옆모습,
모자 푹 눌러쓰며 창밖에서 그 아래를 천천히 걸어 지나가는 홍,
두 사람 스치는 모습 천천히 지나가며 카메라 점점 멀어진다.

#62. 아이봄 병원(밤)

어둠 속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설아. 탁, 환하게 불이 켜지면, 그 자리에 청도서 있다. 손에는 도시락 봉투 들려 있다.

#63. 아이봄 병원/대기실(낮)

제이미, 씩씩거리며 앉아 있다.
인근에 보라, 다른 고객들과 이야기하다 제이미 눈치 본다.

보라 오…오셨어요? 다른 병원 가신다고…

제이미 (날카롭다) 벌써 소문 난 거예요?

보라 뭐… 뭐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접수는 하셨는지….

김 간호사 (O.L.) 제이미 님, 들어오세요.

#64. 아이봄 병원/설아 진료실(낮)

제이미 어쩐지 (삐죽대며) 이 방에 눈에 익은 아이템이 너무 많더라! 오빠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직감이 좀 무섭냐구. 그때 그 그림자 여친… 맞잖아요!

설아 (차트 보며) 무슨 말씀인지.

제이미 이렇게 된 거, 나도 한 번은 담판 짓고 싶었어요. 언니가 오빠랑 헤어지기 전부터 제가 좋아했어요. 첫눈에 반했고, 제 이상형이고, 지금도 오빠를 보면 설레요. 아시다시피, 그럴 만한 사람이잖아요. 제 모든 걸 줄 수 있고요, 아마 오빠도 그럴 거예요.

설아 축하합니다.

제이미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죠. 그런 사랑, 세상에 둘도 없… (!)

설아 수치가 80이 넘으면 임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현재 피검사 수치 160입니다. 쌍둥이일지도 모르겠네요.

제이미 네? 저…정말요??

설아 서 코디가 서류 챙겨드릴 거예요. 이제 다른 병원 가세요. 저도, (쉬고) 더는 보기 싫고요. 징징징 말 많은 스타일 딱 싫거든. 그리고,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요. 박 쌤이 한 거예요.

제이미 (안 들린다, 만세) 꺄아!!!!!!!!

#65. 아이봄 병원/대기실(낮)

대기하던 사람들 놀라서 “뭐야, 됐나 봐! 좋겠다”, “역시 의물주”하며
웅성웅성. 진료실 앞에 서 있던 보라, “쓸데없이 미친 능력” 중얼거리며
고개 절레절레 젓는다.

#66. 아이봄 병원/탕비실(밤)(#62 연결)

청도가 가져온 도시락 먹는 설아.

설아 (밥 양껏 입에 넣고) 어디 거야? 맛있다.

청도 한결같이 식사량 좋다, 넌.

설아 (쩝쩝) 근데 너, 퇴근 후에 왜 이렇게 얼쩡거려?

청도 기껏 사다줬더니 얼쩡… (참으려다) 야! 너 나한테는 말 되게,
서보라처럼 하는 거 알아? 내가 니들보다 두 살이나 많은 거 알지?

설아 예전에… 보라가 너한테 고백하자마자 뻥 차인 거 복수하는
중이거든.

청도 헐… 언제 적 얘길 하는 거야. (빤히) 넌 진짜 지나치게 우직하다.
차도 15년 타, 복수도 15년 해…. (하며 배양실 슬쩍 본다)

설아 왜…? 미련도 15년이나 떨까 봐?

청도 …

설아 …

설아 (먹다 멈추고 머쓱) 아 왜에—

청도 니 추억의 숙주는 걔가 아니고 너 자신이야. 너는 너로 충분해.

설아 (다시 먹으며) …그거 알아? 감정표현불능증 있잖아, 병 아니래.

청도 나도 의사다.

설아 간지럼 안 타려고 훈련한 사람 같은 거래.

청도 안다고.

설아 뭘 아는데.

청도 …너 간지럽다는 거. 너도 슬프고, 너도 무섭고, 너도 기쁘고, 좋고,
외롭고, 그런다는 거.

설아 … (조금 감동한 표정, 그러나 다시 쩝쩝거리며) 이거 뭔데 맛있냐?

청도 (무심코) 명이나물.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 원장, 배양실은 내 소관이다. 앞으로 허락받고 들어가.

설아 (피식) 네, 연구원님.

웃으며 밥 푹푹 퍼먹는 설아, 그런 설아 바라보는 청도,
카메라 멀어지면, 창밖으로 눈발이 가득 날리고,
그 위로 두 사람의 대화 작게 흐른다.

설아 참, 너 이따 시간 돼?

청도 왜?

설아 차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한 500 받겠지?

청도 너 진짜로 일상생활 가능하냐? 그걸 누가 사, 폐차비 안 내면
다행이야, 걍 버리고 내 차 타.

설아 니 차를 왜 타. (쩝쩝쩝) 깍두기 좀 많아 달라 그러지.
(옷에 또 튀고)

청도 (설아 옷 끌어당겨 물티슈로 벅벅 닦는다) 아휴 턱받이 해라, 그냥.

#67. 에필로그. 설원(아침)

꽁꽁 언 개울가 아래로 물 녹아 흐른다.
그 모습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 ‘2021 아이봄 신년 워크숍’
새겨진 단체 티 입은 청도다. 눈 뭉치 하나가 청도의 등에서 팡, 터진다.
고개 돌리면 멀찍이 떨어진 설아가 예의 무심한 얼굴로 바라보다 피식,
웃는다.

설아 누가 워크샵 와서 이렇게 늦게 일어나래? (한 뭉치 또 던진다)

청도 아! 하지 맙— (한 뭉치 날아와 얼굴에 맞는다)

설아 박청도! (기분 좋게 웃으며) 나랑 놀래?

청도 (얼굴에 묻은 눈 닦으며) 하지 말랬다— 오빠가 경고했다—

설아 아~ 맞다. 너 삼수했지? (웃음) 멍청이~ 겨우 의대를 삼수했대요~
삼수나 했대요~

청도, 조금 화난 듯 성큼성큼 걸어오면 설아, 살짝 당황한다.
청도,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설아를 바라만 본다.
설아, 잠시 보다가 천천히... 팔 잡고 청도에게 입 맞춘다.
입술 떼고 서로 빤히 바라보는 두 사람.

청도, 설아의 얼굴 끌어와 조심스레 키스한다.
입술만 떼고 딱 붙어 서 있는 두 사람.

청도 …왜 안 피해?

설아 왜 피해? 따뜻하고 좋은데—

청도가 웃자 설아는 청도의 얼굴에 묻은 눈을 조심스레 닦는다.

설아 다 녹았네… 눈이.

키스하는 두 사람 뒤로 설아가 떨어뜨린 스펀지밥,
물속으로 뽀르르, 들어간다.

끝.

작가 후기

"수없이 고친 대본이 바로 초초초고야."
"작가는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지."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막 엄청난 작가, 될 수 있잖아요?"
오펜에서 들은 귀한 말이자 수정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린 세 문장.

수정이라는 이름의 작가 훈련이었다.
가장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세 가지 버전을 써봤는데,
아무래도 첫 느낌을 버릴 수 없어 어느 선에서 타협했다.
수정에는 끝이 없으니까. 적당히 만족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
역시 작가에게 필요한 스킬이라고 합리화를 해보면서.

엄청나게 추운 겨울날, 꽁꽁 언 강을 지나다가 ‹눈녹듯›의 줄거리를 떠올렸다.
분명 강이 얼어 있는데 세찬 물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따라갔다.
두껍게 쌓인 눈 아래로 얼음이 녹아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아무리 얼리려 해도 끝끝내 살아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 쓰자.

그것이 설아에게는 사랑이었고,
나에게는 작가라는 꿈이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자연이 조금씩 성장하듯
끝나가는 사랑이 우리를 꽃피울 때의 감상을,
신인작가로서 전해보고 싶었다.
단막 안에서 아홉 번의 겨울을 표현하느라 형식은 과거와 현재를 다소 복잡하게
오가는데, 뒤죽박죽 불완전한 추억의 형질을 표현하려는 시도로 봐주시면 좋겠다.

노력과 소망이 잘 전달되었기를.

고치면서 더 정들어버린 김설아와 기홍에게, 박청도와 서보라에게,
외로운 지망생의 시간을 견디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오펜을 통해 작가가 된 걸 천운으로 생각한다.
감동 어린 리뷰를 주셨던 센터장님, 대리님, 동기들, 엔젤 K님, 그리고 구기동
주민들까지. 덕분에 나는 정말 좋은 작가가 되겠다.

대리인간

: Proxy Emotion

차이한

작의

당신에게도 대리인간이 필요한가요?

감정을 대신하는 대리인간이 된 한 여자가
다른 사람이 되길 선택하면서 벌어지는 비극적 이야기.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우리의 욕망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각종 대행업체들이 생겨났고 그 한가운데 감정을 대신해주는 ‘감정 대행’
업체까지 나타났다. 너무 바빠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감정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감정대행업체는 효도를 대신하고,
이별을 대신하고, 사과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러다 미래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더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내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내 기억이 담겨 있는 기억칩을 인식한 채,
나를 대신해 사과하고, 효도하며, 이별을 한다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대신하는 감정과 기억이 진짜가 된다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쩌면 생겨날지 모르는 대리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온전히 내 것이었던 기억과 감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순간
나 자신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보려고 한다.

등장인물

차영(30세, 여) 대리인간 한 달 차
회사 로비의 안내원으로 5년을 살았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비상계단에서 종종 만나던 한 남자 덕분에 위안을 얻으며 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보증을 잘못 서고 도망간 부모 때문에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 노숙자가 된 그녀의 앞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대리인간.
다른 선택권은 없었다. 의뢰인인 서림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녀의
앞에 비상계단의 남자가 다시 나타난다. 의뢰인의 애인으로.

신서림(31세, 여) 영의 의뢰인, 잘나가는 로펌 변호사

흙수저 가정에서 자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성공하는 것뿐이었다.
동료도 친구도 그저 그녀의 인생을 조금 나아지게 만들 수단일 뿐이었다.
그런 그녀의 인생에 갑자기 들어온 재호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재호를 이용해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오로지 그녀의 목표일 뿐이다.

윤재호(34세, 남) 서림의 남자친구, IT업계 CEO

지나가던 사람들도 돌아볼 정도로 잘생긴 얼굴에, 다정하고 착실하기까지.
누가 봐도 완벽하다. 그의 집안에서 서림을 반대하지만, 서림과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정민채(30세, 여) 대리인간

대리인간 회사에 들어온 지 6개월 차.
사업을 하다가 망해 노숙자 신세로 1년을 지내다가 대리인간 회사에 들어왔다.
영과 친하게 지내며 그녀와 속마음을 터놓는 사이이다.

줄거리

"바쁜 당신에게 필요한 대리인간.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대신해드립니다."

멀지 않은 미래, 첨단 기술은 점차 발전하게 되고 삶은 더 편리해져갔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늘어났고, 더욱 바빠졌으며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어려워졌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대리인간이 생겨났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대리인간 서비스를 위해 회사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뽑아 이용한다. 24시간 관리당하는 대리인간들은 의뢰인의 얼굴을
하고, 기억칩을 인식한 채 의뢰인을 대신해 효도, 이별, 사과 등을 한다.

"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다른 사람으로 살 기회."

부모님이 떠넘긴 빚을 갚지 못해 노숙자로 살다가 대리인간이 된 영.
영의 의뢰인 중 한 사람인 서림은 잘나가는 로펌의 변호사이다. 영은 서림의
애인인 재호를 만나 결혼 준비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다. 영은 의뢰
수행 중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신의 기억 때문에 재호를 좋아하는 마음이
자신의 마음인지 서림의 마음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호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한 영은 결국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당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기억은 당신 게 아니야.
평생 가질 수 없어 그건. 내가 되지 않는 이상."

영은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재호와의 하룻밤이 담겨 있는 기억칩을
숨기지만 이 모든 사실이 발각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 서림은 자신의
얼굴로 재호와 하룻밤을 보낸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영은 빈털터리로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 재호와 함께한 기억을 모두 부정당한 영은
진짜 서림이 되기로 결심하는데….

대리인간: Proxy Emotion
차이한

#1. 주택가 도로(밤)

고층 아파트 단지. 어둠이 짙게 내린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군데군데
퍼져 있다. 아파트 위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휙 떨어진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피가 바닥에 흘러내리는데, 따라가보면 쓰러진
여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미동 없는 여자의 나이트가운이
벌겋게 물들어간다. 여자의 손끝은 불에 덴 듯 문드러져 있고 손목에는 빨간색
스마트 워치 채워져 있다. 그런 여자를 향해 다가오는 하이힐 소리, 쓰러진
여자 앞에서 멈추더니 무심한 시선 던진다. 카메라 뒤로 서서히 빠지면 쓰러진
여자와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 영(30, 여)이다. 영의 손목에 하얀색 워치가
채워져 있다. 쓰러진 여자를 바라보는 영의 목 뒤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이며

타이틀. ‹대리인간 : proxy emotion›

#2. 도시 전경(낮)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길거리를 걷고 사람들, 손목에 검은색, 흰색의 스마트 워치 차고 있다.
카페에 앉아 있는 한 남자, 워치 화면을 허공에 띄워 뉴스 헤드라인 보고 있다.
‘주택가 살인사건.’ 누르자 동영상 재생되는데

앵커(E) 어젯밤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 빌딩 앞(낮)

근처 건물 전광판에 뉴스 흘러나오고 있다.
하이힐에 매끈한 슈트 입고 뛰어가는 영. 영의 가슴에 변호사 배지 달려 있고

손목에는 빨간색 워치 차고 있다. 뛰어가던 영, 높은 하이힐이
돌 틈에 걸려 휘청거리다 발목 꺾인다.
아파할 만도 한데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달려간다.

앵커(E) 경찰은 피의자인 김모 씨가 대리인간 업체 의뢰인으로부터 청부
살해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4. 빌딩/엘리베이터 안(낮)

영, 가까스로 엘리베이터에 올라 숨 고른다.
사람들, 엘리베이터 한쪽에 떠 있는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 보며 이야기한다.

남2 (뉴스 보며) 저 사람 정신병으로 감형받으려고 그런다는 거 같던데.
여1 (고개 저으며) 대리인간이 말이 돼?
남2 찌라시 돈 거 못 봤어? 돈 많은 인간들은 이미 이용한대잖아.
여1 (고개 저으며) 그걸 믿어?
남2 믿고 싶다. 대리인간이 있으면 나 대신 회사 좀 나가라고 하게.
여2 혹시 너 (눈 흘기며) 대리인간 아니야?

세 남녀 키득거리며 웃는다.
그때, 영의 워치 울린다. 영, 황급히 워치 진동 끄고는 조심스럽게 본다.
화면에 ‘5시 — 윤재호’

#5. 호텔/엘리베이터(낮)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서림(31, 여) 내린다. 영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가슴에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다. 손목에 하얀색 스마트 워치 채워져 있다.
익숙한 듯 1031호로 향해 문 열고 들어서려는데 그 순간, 누군가
서림을 안쪽으로 확 잡아당긴다. 닫히는 문틈으로 한 남자와 진하게
키스 나누는 서림.

#6. 레스토랑 앞(낮)

엘리베이터에서 다급하게 내린 영.
레스토랑으로 뛰어가다가 멈춰 서서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 보고 옷매무새 가다듬고는 다시 입구로 향한다.

직원 예약하셨습니까?
영 네, 윤재호요.
직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 직원 따라서 들어간 곳에 재호(34, 남) 앉아 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띄는 외모. 레스토랑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재호를 흘끔흘끔 바라본다. 재호, 영을 발견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짓한다.

#7. 호텔/룸(저녁)

흐트러진 침대 위, 남자는 가운 입고 있고 서림은 침대에 앉아 블라우스 입고 있다. 그런 서림의 뒤로 다가와 목에 키스하는 남자.

서림 (슥 밀어내며) 그만해. 나머지는 다음에.
남자 너무 튕기는 거 아니야?
서림 (블라우스 입으며) 튕기는 건 상대방한테 뭘 원할 때나 하는 거지.
남자 (찡그리며) 사람 비참하게 만든다.
서림 (남자 어깨 쓰다듬으며) 비참함을 느낄 정도로 나한테 마음이 있긴 해?
남자 (씩 웃으며) 진짜 말로는 못 당한다. 그 남자 만나러 가? 결혼할 사람?
서림 (찡그리며) 그 얘긴 하지 말자, 나 지금까지 기분 좋았거든.
남자 그 남자 어디가 좋아? 나한테 다른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멋있나?
서림 누구랑 비교를 하니?
남자 비교도 안 될 정돈데, 나를 왜 만나?
서림 다른 재미랄까? (거울 앞에 가서 립스틱 바르다가 웃더니) 혹시 나한테 다른 마음 생기면 말해.
남자 왜? 그럼 사랑해주게?
서림 아니, 다신 안 보게.

서림, 재킷과 핸드백 들고는 차갑게 웃더니 룸 밖으로 향한다.

#8. 레스토랑(저녁)(#6 연결)

식사하고 있는 두 사람. 재호의 시선은 오로지 영을 향해 있다.
영, 재호의 눈치 보더니 소매 올려 손목 본다. 붉게 알레르기 올라와 있다.
이내 소매 다시 내리고는 파스타 위에 올려진 생토마토 아무렇지 않게 먹는 영.

재호 맛있지? 자기 토마토 제일 좋아하잖아. 오늘 꼭 같이 오고 싶었어.
영 (웃으며) 고마워.
재호 다른 거 더 먹고 싶으면 말해. 요새 통 제대로 못 먹었잖아.
영 응.

직원, 다가와 인사하더니

직원 음식은 입맛에 맞으십니까?
재호 네,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직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잘 챙겨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인사하고 가는)
영 아는 분 레스토랑이었어?
재호 L 호텔 회장님이랑 친분이 있으셔서, 연락 한 통 드렸어.
영 (괜히 주눅 드는) 그랬구나.
재호 우리 며칠 만에 같이 밥 먹는 건지 알아? 나보다 더 바빠.
영 미안해, 시니어가 코앞이라서….
재호 미안하라고 한 말 아니야. 걱정돼서 그래. 드레스는 언제 보러 갈까?
영 그때 알아본 샵이 난 좋던데. 디자인이나 가격도 적당하고…

재호　(O.L.) 거기 말고, 더 좋은 데 알아놨어.
한 번뿐인데 특별하게 입어야지.

영　아, 그래?

재호　반응이 왜 그래? 결혼하고 싶은 거 맞아?

영　당연하지!

재호　(웃으며) 농담이야, 농담. 부담 가지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영　(씁쓸하게 웃으며) 응, 고마워.

재호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영　나도 사랑해.

영, 재호의 손 내려다보는데, 어느새 미소 사라지고 무심하다.
그때 영의 워치 울린다.

영　(확인하더니 화면 가리고는) 나 잠깐 화장실 좀.

영, 황급히 가방 들고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9. 레스토랑/화장실(저녁)

영, 화장실 안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는 알림 메시지 본다.
'의뢰인 — 5분 안에 도착.' 떠 있다.
영, 한숨 내쉬고는 손 씻으려고 워치 돌리는데 빠지지 않는다.

#10. 빌딩 밖(저녁)

재호, 팔짱을 끼고 누군가와 함께 나가는데 영이 아닌 서림이다.
서로를 바라보고 웃는 두 사람. 누가 봐도 연인 사이이다.
그런 둘을 지켜보는 영의 뒷모습.
영, 뒤돌아서자 영의 얼굴, 어느새 서림의 얼굴로 바뀌어 있다.
(이하, 서림의 얼굴을 한 영은 '영(서림)'으로 표기)

영(서림)　(스마트 워치에 대고) 의뢰 완료. 기억 전송.

영(서림)이 말하자 워치에 '대리만남 — 입금 금액 60만 원'이라고 뜬다.
영(서림), 서림과 재호가 간 방향과 반대로 걸어가는.
세 사람 한 화면에 잡히면 서림과 영, 얼굴, 입고 있는 옷,
몸매까지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만큼 똑같다.
그런데 영(서림)의 손목에는 빨간색 워치가,
서림의 손목엔 흰색 워치가 채워져 있다.

#11. 병실(낮)

침대에 가까스로 호흡기를 매달고 누워 있는 늙은 여자.
그런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단발머리의 여자.
팔에는 빨간색 워치를 차고 있다.
무표정한 얼굴로 늙은 여자를 보다가 가방을 내려놓고는
이불을 끌어 올려 덮어주는

단발 여자　(얼굴을 쓸어주며)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죽을 때가 되니까 자식이
그리웠어? 아님 돈이 필요했나?

늙은 여자　(손을 들어 팔을 잡으려고 하는)

단발 여자　(귀에 대고) 난 매일같이 기도했어, 빨리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어.

늙은 여자 호흡 가빠지더니 기계 경고음이 병실 가득 메운다.
단발머리 여자, 뛰어 들어오는 의사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간다.

담당자(NAR)　대리인간이 필요하신가요?
사과, 효도, 분노, 그 어떤 불필요한 감정 소비도 대신해드립니다.

#12. 병원 비상계단+병원 복도(낮)

병원 비상계단으로 들어서는 여자. 주변을 살피더니 워치 버튼을 누른다.

그러자 단발머리 여자 얼굴이 순식간에 영의 얼굴로 바뀐다.

영 (워치에 대고) 기억 폐기.

기억이 폐기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리 만남 — 50만 원'
입금이라는 알림이 뜬다.
영, 슬쩍 계단을 열어보는데, 베드에 실려 나가는 늙은 여자.
차마 못 보겠다는 듯 눈 질끈 감고 문 닫는 영.

담당자(NAR) 얼굴, 체형, 웃는 모습, 목소리, 신체적 결함까지.
의뢰인과 동일한 모습의 대리인간이 의뢰를 수행합니다.

#13. 대리인간 회사 앞+안(낮)

'세계로 뻗어나가는 IT 혁신 기업'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회사에 걸려 있다.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워치 버튼을 누르며 일제히 얼굴 바꾼다.
사람들 틈으로 함께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영.
엘리베이터에 올라 워치 인식하자 지하로 내려가는 버튼이 생긴다.
B5층 누르는 영.

담당자(NAR) 모든 의뢰와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며,
의뢰 수행 후 원하는 감정만 선택해서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14. 대리인간 회사/기억의 방(낮)

일렬로 줄지어 있는 작은 서랍 형태의 저장장치. 각 장치마다 번호가 적혀 있다. 22—A(신서림)라고 적혀 있는 장치 앞에 서는 영. 워치를 인식하고는 자신의 목 뒤를 더듬더니 무엇인가를 꺼낸다. SD카드처럼 생긴 빨간색의 기억칩이다. 장치에 칩을 넣는 영.

담당자(NAR) 의뢰인의 모든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의뢰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15. 대리인간 회사/사무실(낮)

유리벽 너머 담당자와 남자 의뢰인이 대리인간을 보고 있다.
대리인간들은 의뢰인을 볼 수 없는, 취조 관찰실 같은 형태.
남자 의뢰인과 똑같은 체형과 얼굴을 가진 대리인간들 세 명 정도가 서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

담당자 대리인간, 이용하시겠습니까?

남자 의뢰인, 담당자에게 손가락으로 한 남자 가리킨다.

#16. 대리인간 회사/사무실 앞 복도(낮)

회색 옷으로 갈아입은 영, 사무실 앞 의자에 앉아 있다.
여러 구역의 담당자들 지나다니지만 아무도 영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때, 사무실 문 열리고, 담당자와 남자 의뢰인 나온다.
검은색 테 안경을 쓰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담당자.

담당자 (웃으며) 좋은 선택하신 겁니다.

남자 의뢰인, 말없이 거만하게 웃으며 가는.
의뢰인 사라지자 웃음 지우는 담당자.

담당자 22호, 들어와요.

#17. 대리인간 회사/사무실(낮)

책상과 소파 그리고 한쪽 벽면에 전시되어 있는 레터 나이프들.

취조실 유리처럼 되어 있던 벽은 블라인드가 내려와 가려져 있다.
담당자, 워치 차고 있는데 영과 다른 파란색이다.
담당자, 소파에 앉아 영이 의뢰를 수행한 기억들을 보고 있다.
병원에서의 상황에서 화면 멈추는 담당자.

담당자 일한 지 한 달 된 사람치고는 능숙하게 잘하네요.
근데 저 환자 죽은 거 알아요?
영 (놀라 보는)
담당자 의뢰인이 연락 왔어요. 누가 진짜 죽게 만들라고 했냐고 화를 내더라구요. (어깨 으쓱이며)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영 죄송합니다.
담당자 어차피 돌아가실 양반이 죽은 건데, 안타깝게 22호 컴플레인 하나가 추가됐네요. 신서림 씨 의뢰는 어때요?
영 괜찮습니다.

담당자, 손가락으로 화면 치우는 모션 하자, 영상 바뀌며 재호와 식사하는 장면 나온다. 그러다 이내 멈추더니 팔 확대하며

담당자 (영의 팔 보더니)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알레르기가 참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영 주의하겠습니다.
담당자 (일어나 영에게 다가오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 자기도 모르게 누굴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제어하기 어렵잖아요.

담당자, 흘끔 화면 속 재호의 얼굴을 바라본다.

영 (재호 바라보다가) 아무런 마음도 없습니다.
담당자 (흥미롭다는 듯 보며) 알던 사이였다면서요.
영 (망설이다가) 거짓말하는 게 조금 걸릴 뿐입니다.
담당자 (웃으며) 거짓말이라는 게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거예요? 아님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주는 거?
영 (고민하다가) 속이는 거요.
담당자 (심각해지더니) 의뢰를 수행하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가요?

영 아뇨.

담당자, 손가락으로 화면 휙 치우더니,
영의 기억에 관련된 데이터 화면 띄운다.
화면 속 메모리 수치 'SYSTEM 30: USER 70'으로 되어 있다.

담당자 메모리 수치는 정상이네요. 혹시라도 의뢰 수행할 때 그런 생각이 들면 말해요. 의뢰인 기억 수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겠어요.
영 알겠습니다.
담당자 (어깨 토닥이며) 내가 처음 뽑은 대리인간이라 그쪽한테 애정이 큰 거 알죠? 22호는 볼수록 신서림 씨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영 (의아한) 제가요?
담당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해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의뢰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담당자, 책상 의자에 앉고는 이만 나가보라고 눈짓한다.
영, 일어나서 나가려다가 이내 다시 돌아보는데,

담당자 (시선 느끼고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영 제가 오기 전에 5개월 동안 있던 사람은 왜 그만뒀나요?
담당자 그만뒀다? (레터 나이프를 빙빙 돌리며) 살아남지 못한 거죠. 살아남으려면 결국 쓸모 있거나, 쓸모가 없어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싱긋 웃으며) 22호가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컴플레인 두 번 더 들어오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 명심해요. (나가라고 손짓하는)

영, 사무실 나가는데 영과 비슷한 체형의 여자,
민채(30, 여)가 사무실로 들어선다.
민채, 영을 흘끔 보더니 사무실로 들어간다.

#18. 대리인간 회사/사무실 근처 복도(저녁)

영, 복도를 지나는데 복도 끝에서 노숙자들
네 명이 직원 뒤를 따라 들어오고 있다.
노숙자들, 경계심 많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영, 스쳐 지나가다가 노숙자 한 명과 눈 마주친다.

#19. 과거 1개월 전. 길거리(저녁)

해지고 지저분한 옷 입고 미친 듯이 도망치는 영.
그런 영의 뒤를 쫓는 남자들.

빚쟁이 너 거기 안 서! 네 부모가 못 갚으면 너라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영, 거칠게 사람들 밀치며 도망치고,
영의 지저분한 몰골에 사람들 소리치며 피한다.

#20. 과거 1개월 전. 지하도(저녁)

벽 쪽으로 일렬로 누워 있는 노숙자들. 추위를 이기기 위해 박스와 신문지,
구멍 나고 해진 이불을 겹겹이 덮고 있다. 제일 구석에 얇은 박스 덮은 채
웅크리고 누워 있는 영. 그런 영의 앞에 멈춰 서는 발.

담당자 차영 씨?
영 (눈 뜨고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눈 감으며)
담당자 다시 제대로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영, 귀찮다는 듯 일어나 짐 들고는 담당자 지나쳐서 간다.

담당자 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다른 사람으로 살 기회.

영, 천천히 돌아본다. 담당자, 그런 영에게 손을 내민다.

#21. 대리인간 회사/22호실(밤)

침대와 책상, 의자만 덩그러니 있는 공간.
양쪽 벽면은 스크린으로 되어 있다.
한쪽 화면에 서림의 다양한 표정들이 나타나 있고
버릇, 특징도 함께 떠 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법률 관련 서적들이 있다.
영, 다른 쪽 벽 화면을 통해 서림이 재호와 데이트한 기억 보고 있다.
재호의 얼굴에서 화면 멈추고 빤히 보다가,
이내 고개 돌려 다른 쪽 스크린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 바라본다.

영 난 차영이야, 차영. 저 사람은 나를 몰라.

영, 무릎에 고개 파묻는다.
카메라 화면, 문밖으로 빠져나가며 방문 닫힌다. 문에 '22'라고 적혀 있고,
각 방문마다 번호 적혀 있다. 층 전체 비추면 영의 방과 똑같이 생긴 방이
수십 개 있고, 아래층으로 계속 이어진다.

#22. 서림의 로펌/파우더 룸(낮)

서림, 화장 고치고 있는데, 여 후배 둘이 들어선다.

후배1 여기 계셨네요.
서림 (흘끔 보더니 다시 화장 고치는)
후배2 선배, 다음 달에 시니어 될 거 같다고 그러던데, 진짜예요?
서림 입조심 할래?
후배2 (새초롬하게) 선배 이제 일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잘나가는 IT업계 CEO가 남편 될 사람인데?
서림 신데렐라 콤플렉스 있니?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도

욕먹는 거야.

후배2 (당황해하며) 네?!

후배1 (후배2, 옆구리 툭 치며) 남편분도 멋지신데 일까지 잘하시니까 노하우 좀 알려달라는 거죠. 저희는 맨날 가사 소송만 하는데.

서림 뒤에서 내 욕하면서 노하우는 알고 싶나 봐.

서림, 화장품 정리하고는 밖으로 나간다.
후배1·2 인사하고는 휙 돌아서서 인상 구긴다.

후배1 저 가식 좀 봐.

후배2 자기도 민망한 거지. 윤재호 대표한테 일부러 꼬리친 거 누가 몰라?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면서.

후배1 밑바닥에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만족해야지,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

후배2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한 사람 어디 갔니?

후배들, 서림을 흉보며 낄낄거리고 웃는다.

#23. 대리인간 회사/식당(낮)

배식대 앞, 워치를 인식하면 의뢰인에 맞춰 다른 식단이 배정된다.
영, 사과와 두유, 샐러드가 올려진 식판을 들고 빈자리에 가서 앉는다.
사람들 서로 보지 않은 채 밥만 먹고 있다. 영의 워치 진동 울리더니 의뢰 뜬다.
'대리 만남 — 5시, 윤재호.'
영, 확인 완료 누르고는 밥 먹으려는데 영의 앞에 앉는 누군가.
영, 고개 들어보면 민채다.

민채 (앉으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어제 사무실에서 봤는데. (스마트 워치 보이며) 나도 같은 대리인간, 정민채예요.

영 (민채 보더니 무시하고 밥 먹는)

민채 (어깨 으쓱하고 웃으며) 의뢰인이 엄청 말랐나 봐요.

(식판 가리키며) 난 계속 이렇게 먹다간 뛰쳐나갈 거 같은데.

영 길거리에서 살았던 때보다는 낫죠.

민채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 (사과 먹으며) 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길바닥에서 한 열 달 정도 지내다가 들어왔어요. 그쪽은?

영 (고개 들어 빤히 보더니) 원하는 게 뭐예요?

민채 의심이 많으시네. 밖에서 사기라도 당하셨나?

영 한 달 동안 나한테 말 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민채 (풋 하고 웃더니) 지금 잔뜩 겁먹은 강아지 같은 거 알아요?

영 (일어나더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민채 (장난스럽게) 다 안 먹었잖아요. 저녁에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나?

식판 챙겨 자리 떠나는 영. 민채도, 그런 영을 따라 일어난다.

#24. 대리인간 회사/PT실(낮)

영, 러닝머신 뛰고 있고 그 옆에서 같이 뛰고 있는 민채.
화면에는 영의 목표치 운동량이 씌어 있다.
민채도 같은 목표치의 운동량이 씌어 있다.

민채 그쪽 의뢰인은 순진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못 해서 의뢰했나?

영 (말없이 러닝만 하는)

민채 직업은 선생님? 아니면 변호사? 내 의뢰인은 법조계에 있었는데.

영 (O.L.) (주변 둘러보며) 의뢰인에 대해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민채 이미 죽었는걸요.

영 (놀라는) 죽어요?

민채 죽었다니까 흥미롭죠?

영 (다시 앞 보고 뛰는) 아니요.

민채 (귀엽다는 듯 웃으며) 자살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못 나간 지 한 달 넘었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 (조금은 안쓰럽고 신경 쓰이는) 그래서 언제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민채 밖에 나갈 때까지?

영 다른 사람 알아봐요.

민채 친구 하나 두는 거 나쁘지 않을 텐데.

영 친구는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민채 의심 진짜 많네? 당신만큼만 사람들이 의심이 많으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 대리인간이라는 걸 알아볼 텐데.

FLASH CUT #8 레스토랑

재호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현재.

영 (중얼거리며) 사랑하는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그때, 어디선가 남자의 절규 들린다.

대리인간(E) 안 가! 난 못 나간다고!

통로 쪽에서, 한 남자가 덩치 큰 직원들에게 붙잡힌 채 끌려나가고 있다.
남자의 절규에도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다.
익숙하다는 듯 다들 자기 할 일만 할 뿐이다.

대리인간 다시 길바닥에서 살 바엔 죽는 게 나!
(계속 끌려나가자 울부짖으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남자의 외침에도 아랑곳 않고 끌고 가는 직원들.
영, 그런 남자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본다.

민채 처음 봤구나. 일주일에 몇 번씩 있는 일이에요.

영 저렇게 쫓아내도 괜찮아요?
밖에 나가서 떠벌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민채 누가 노숙자 말을 믿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씩 웃으며) 그리고 진짜 살아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영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채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민채, 묘하게 웃더니 다시 뛰기 시작한다.
영, 대리인간이 사라진 곳 바라본다.

#25. 드레스 숍(낮)

커튼 뒤 드레스 입은 채 긴장한 얼굴로 서 있는 영(서림).

서림(E)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처럼 굴면 돼요.

커튼 열리고 턱시도 입고 있는 재호, 영(서림)을 바라보는데
그저 한없이 다정하다.

재호 너무 예쁘다.

영(서림) 어떤 게 제일 나아? 난 이게 제일 나은 거 같은데?

재호 (진지하게 보더니 직원에게)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더 좋은 걸로 준비해줘요.

영(서림) (얼굴 굳는) 별로야? 벌써 열 벌째인데….

재호 지금도 예쁜데 더 완벽하고 좋은 걸로 해야지. 한 번뿐이잖아.

영(서림) (씁쓸하게 웃으며) 아, 고마워.

재호 고맙기는. (장난스럽게) 뭘 입어도 잘 어울려서 고르기 어렵다.

직원2 두 분 참 다정하세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직원의 말에, 재호 냉큼 영(서림)에게 팔짱 끼며 다정하게 선다.
영(서림), 다리 저려와 순간 비틀거리는데,

재호 (영(서림)의 손잡으며) 괜찮아?

영(서림) (애써 웃으며) 괜찮아, 떨려서 그래.

재호 (귀엽다는 듯 보며) 신서림이 떨린다고?
재판할 때도 안 떠는 사람이?

영(서림) 장난 그만 치고 앞에 봐.

직원 찍을게요.

재호, 영(서림) 환하게 웃으며 사진 찍는.

#26. 서림의 아파트 앞/재호의 차 안(저녁)

영(서림), 조수석에 앉아서 사진 빤히 보고 있다.

재호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들어?

영(서림) (팔짱 끼며) 아니, 정말 마음에 들어. 재호 씨 덕분에 잘 골랐어.

재호 그 정도는 언제든 해줄 수 있어.
(손잡으며) 아버지 이번 달에 한국 들어오신다는데 언제 시간 돼?

영(서림) (조금 날 선) 재호 씨 아버지?

재호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불편할 거 같아?

그 순간, 순식간에 영의 기억 튀어나온다.

INSERT
과거. 영의 집.
영의 부, 술에 취해서 물건 던지며 소리 지르고,
영의 모, 영을 감싸 안고 있다.

영의 부 키워줬으면 돈을 가져와야지! 네가 내 돈 받아먹은 게 얼만데?!

영 (벌떡 일어나며) 난 더 이상 못 줘!
지금까지 진 빚 갚는 것도 짜증 난다고!

영의 부, 영의 뺨 때린다.

영의 모 (놀라, 영의 얼굴 만지며) 영아, 괜찮아?

고개 돌아간 채로 서 있는 영, 입술 꽉 깨물어 피 흐르고 있다.

재호(E) (어깨 붙잡고 흔들며) 서림아, 괜찮아?

현재.
영(서림), 순간 팍 정신 들고, 보면 입술 너무 꽉 깨물어서 피 나고 있다.
황급히 닦아내는데.

재호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영(서림) 미안, 잠깐 다른 생각 했어.

재호 (끌어안으며) 미안해, 내가 괜히 아버지 얘기해서.
힘들 거 같으면 안 찾아봬도 돼.

영(서림) (고개 저으며) 재호 씨가 뭐가 미안해…
내가 재호 씨 부모님 마음에 들기에 부족한 집안이잖아.

재호 그런 말을 왜 해. 당신 부모님 바르고 성실하신 분들이잖아.
(손잡으며) 다들 나한테 당신같이 완벽한 사람 어떻게 만났냐고
능력 있다고 그래.

재호, 영(서림)을 바라보며 싱긋 웃더니 끌어안는다.

재호 그거 알아? 요새 자기 많이 달라.

영(서림) (당황하며 재호 슬며시 밀어내며) 다르긴 뭐가 달라.

재호 그래서 좋아. (눈 맞추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까칠하더니,
더 많이 따뜻해진 기분이야.

영(서림) 그땐 바빴잖아. (시선 피하며) 이제 그만 가, 늦었다. (내리는)

재호 (창문 열고) 사랑해.

영(서림), 다정하게 웃으며 손 흔든다.
재호, 차 출발하고 멀어지자, 영(서림), 워치 눌러 영으로 돌아온다.
영, 손에 들고 있던 사진 보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재호.

#27. 과거 3년 전. 회사 로비(낮)

꺅, 비명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영.
안내데스크 유니폼 앞섶이 뜯어져 있다. 영, 황급히 부여잡는데,

여자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못 들어간다는 거야!
영 (일어나서 벌벌 떨며) 약속을 하고 오셔야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자 이게 진짜,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여자, 빽 소리치자, 지나가던 사람들 수군거리며 본다.
영, 도움의 눈길로 바라보지만 다들 지나갈 뿐이다.

여자 (다가가 툭툭 치며) 내가 이 회사 오너 와이프라고.
영 사장실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데스크로 가려는데)
여자 (머리 잡으며) 야! 너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영, 붙잡힌 머리채 잡고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신발 한 짝까지 벗겨진 채로
끌려다닌다. 정문에서 동료들과 들어오던 재호, 그 모습을 본다.
영, 재호에게 간절한 눈빛 보내는. 재호 가서 말리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직원 내려 게이트 밖으로 나온다.

직원 사모님!
여자 (영 머리채 놓고 홱 돌아보는) 김 비서. 이년 당장 잘라.

영, 놀라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직원 다가와

직원 (작게 귓속말로)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얼른.

영, 주위 둘러보는데, 수많은 사람들 구경꾼처럼 서 있다.
자존심도 상하고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여자 이거 봐! 잘못한 것도 모르고, 당장 잘라.

결국 망설이다가 무릎 꿇는 영.

영 (눈물 꾹 참고) 죄송합니다….
그런 영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재호.

#28. 과거 3년 전. 비상계단(낮)

영, 유니폼 앞섶, 옷핀으로 고정하며 계단 한쪽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다.

영 (훌쩍이며) 바보 같아… (소리 지르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거기서 무릎을 왜 꿇어, 이 등신아!

그때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 들리고,
황급히 눈물 자국 지우는데 불쑥 건네지는 캔 커피.
보면, 재호다. 영의 옆에 앉아 손수건과 함께 캔 커피 건넨다.
영, 받지 않고 뭔가 싶어 보는

재호 받아요.
영 (꾸벅 인사하면서 받는)
재호 나도 여기 자주 오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좋은 곳이죠.
영 (눈물 훔치는)
재호 아까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영 괜찮아요, 도와줬으면 그쪽이 곤란해졌을 거예요.
재호 사람들이 겉모습이랑 위치만 보고 참 막 대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신입사원이라 동네북이거든요 지금.
영 (조금 기분 풀려) 그래도 나보단 낫겠죠.
재호 (뭐라 위로할 말이 없는, 겉옷 건네며) 일단 이거라도 걸쳐요.
영 (손사래 치며) 괜찮아요.
재호 (무릎에 올려주고는) 다음에 보면 줘요.
여기서 자주 볼 거 같은데.

다시 비상계단 올라가는 재호.

영, 손에 들린 손수건과 커피,
재호의 뒷모습 번갈아 보다가 슬며시 웃는다.

#29. 서림의 아파트 앞(밤)

영(서림) 따뜻한 건 그쪽이지, 여전히.

영, 이내 돌아서서 워치에 대고 의뢰 완료 말하려는데,
진동 강하게 울리며 화면에 '의뢰인과의 거리 2m 안'이라고 뜬다.
영, 놀라서 돌아보면 서림, 초밥집 쇼핑백 들고 서 있다.

서림 이제 끝났나 봐요. 잠깐 들어갔다 가요.

#30. 서림의 아파트/거실(밤)

거실 베란다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층 아파트.
거실 한 면은 책장으로 되어 있고, 주방은 와인바처럼 되어 있다.
어색하게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영.
천천히 집 안 둘러보다가 책장에 있는 재호와 서림의 사진에 시선 간다.
서림, 나이트가운만 입고 방에서 나와 와인 냉장고에서 와인 꺼내 딴다.

서림 (소파에 앉으며) 이쪽으로 와요.
영 (다가가 테이블 위에 사진 올려놓는) 드레스는 이걸로 했습니다.
서림 (와인, 글라스에 따르며) 잘 골랐겠지 뭐.
윤재호가 안목은 있으니까.

서림, 와인 한잔 마시고는 초밥 꺼내 열더니 영의 앞으로 내민다.

영 저는 저녁을 먹어서…
서림 난 안 먹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초밥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
영 (멀뚱히 초밥 내려다보는데)

서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쪽이 대신 먹으라고, 지금 먹으면 살찌니까.

영, 워치 눌러 서림의 모습으로 변한다.
영(서림), 초밥 먹기 시작한다. 속 더부룩해 천천히 먹는.

서림 좀 맛있게 먹어봐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집에서 사 온 건데.

영(서림), 심호흡하고는 웃으며 맛있는 척하며 먹는다.
그런 영(서림)을 보며 마치 영상 보듯 즐기는 서림.

서림 맛있죠? 난 이 집 초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와인 마시고는) 그쪽도 한 잔?
영(서림) 괜찮습니다.
서림 진짜 매번 봐도 새로워. (얼굴 만져보더니 웃으며) 진짜 나 같다.
나 이거 다 먹고 싶으니까 꼭 다 먹어요.

CUT TO
서림, VR 안경 끼고는 소파에 누워 와인 마시면서 웃고 있다.
와인 한 병 다 비워져 있는.

INSERT
VR 안경 속 화면.
#25. 드레스 입은 서림을 바라보는 재호의 모습
#26. 차 안에서의 재호

현재.
한쪽 소파에 어색하게 앉아 있는 영. 소화가 안 되는지 가슴을 툭툭 치고 있는.

서림 (VR 안경 벗으며) 그놈의 부모님 얘기 지겹지도 않나. 우리가
거지 같은 부모를 두고 싶어서 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영(서림) (당황하는) 그게 무슨…
서림 나도 당신에 대해 알 만큼은 알아. 부모가 있어도 문제인 서글픈
인생이잖아요, 우리 둘 다.

영(서림) (얼굴 굳으며, 일어나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가? 빚까지 떠넘겨서 노숙자로 살게 만들었는데, 설마 연민하는 건 아니죠?

영(서림) …그러면 안 되나요?

서림 (인상 찌푸리며) 자기 처지는 생각 못 하는 건가?

영(서림) 같은 상황이라고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서림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감상적인 구석이 있네.

영(서림) 저는 신서림 씨랑 다릅니다.

서림 그래요? 하긴 다른 거 같더라. 난 윤재호 배경 보고 만난 건데. 그쪽은 재호 씨가 쓰다듬어줄 때 정말 사랑에 빠진 거 같더라고요.

영(서림) (시선 피하며)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말할 뿐입니다.

서림 (눈 바라보며) 내 입장? 사랑한다는 말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떤데? 막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고 애달픈가?

영(서림), 속내를 들킨 거 같아, 얼굴 벌겋게 달아오른다.
그런 영(서림)을 매섭게 바라보던 서림, 갑자기 웃음 터뜨린다.

서림 (웃음 그치며) 거짓말도 제대로 못 하면서 사람들은 잘도 속이네?

영(서림) (맞는 말이라 정곡 찔려 비참한, 말없이 서 있는)

서림 지금처럼 그렇게 착하고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 굴어줘요. 신서림이 윤재호를 사랑한다고 믿게.

영(서림) 다음 주에 예물 맞추러 가는 것도 안 가실 건가요?

서림 (짜증 내며) 내가 직접 할 거면 당신 같은 거 필요 없겠지.

영(서림) 그래도 결혼 준비는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림 왜? (다가와 빤히 보며) 그 남자가 불쌍해?

영(서림) 아닙니다.

서림 (툭툭 치며) 왜 말을 하다가 말아? 진짜 다른 마음이라도 있는 거야?

영(서림) 취하신 거 같네요. 그만 드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서림 (O.L.) 명령하지 마. 대리인간 주제에.

영(서림)과 서림 사이에 긴장감이 맴돈다.

영(서림) 죄송합니다.

서림 (피식 웃더니) 저거나 치우고 가요.

가라는 손짓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버린다.
영(서림), 닫힌 방문 바라보다가 돌아선다.

#31. 서림의 아파트 앞(밤)

아파트 정문 빠져나오는 영.
속 울렁거려 급하게 하수구 쪽으로 가 토하려고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
영, 지친 마음에 벽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아파트 올려다보다가

영 (워치에 대고) 의뢰 완료.

'대리 만남 — 금액 60만 원'

#32. 대리인간 회사/식당(아침)

어수선한 분위기. 식당 문 앞을 덩치 큰 남자들이 지키고 있다.
영, 민채와 함께 앉아 밥 먹고 있다.

민채 어제 바빴어요? 저녁 시간에도 안 보이던데.

영 의뢰 때문에 나가 있었어요.

민채 (주위 둘러보더니 작게) 어제저녁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탈출한 거 알아요? 워치까지 풀고 나가서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워치, 테이블에 내리치며) 깨지지도 않는 걸 어떻게 풀었는지 몰라.

영 (듣는 둥 마는 둥) 그래요.

민채 어제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눈 가늘게 뜨며) 돈? 가족? 아니면 남자?

영 (눈 피하며) 그런 거 없어요.

민채 남자구나? (웃으며) 맞죠?

영 그쪽은 어떤 의뢰까지 해봤어요?

민채 어떤 의뢰? 하기 싫었던 거? 아니면 거지같았던 거?

영 하기 싫었던 의뢰 있었어요?

민채 자기 대신 남자친구 만족시켜달라고 했던 거?
(몸서리치며) 그땐 나한테도 대리인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영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민채 (푸하하 웃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영 (주위 둘러보며, 시선 쏠리는 게 부담스러운) 조용히 좀 해요.

민채 (웃음 가까스로 그치며) 귀엽잖아, 그쪽이. 내 감정, 내 몸뚱이는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거가 아닌 거 잊었어요?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우리 일이라구요.

영 나도 알아요.

민채 하기 싫다 생각 들면 돈 들어오는 걸 생각해봐요. 그래도 정 하기
싫으면 말해요. 당신 대신 그 일을 할 사람은 많으니까. (주위
둘러보며) 여기 있는 대리인간들, 그리고 (찡끗하며) 나까지.

영, 민채의 말에 주위 둘러본다. 수많은 대리인간들 갑자기 낯설게 다가온다.

#33. BAR/화장실(저녁)

하이힐 신고 아슬아슬하게 짧은 치마 입은 영.
신경 쓰이는지 연신 치마를 아래로 끌어내리는데 자꾸만 올라온다.

여자(E) 어떻게든 잘 보여야 돼요. 제 승진이 걸려 있어요.

영, 깊은 숨 내쉬더니, 워치 눌러 얼굴 바꾼다.
긴 웨이브 머리의 여자로 바뀐 영.

영(의뢰인) 김유진, 나이 서른다섯. 기억 공유.

INSERT
공유되는 기억.
김유진의 얼굴로 된 모든 기억들이 빠르게 필름처럼 훑고 지나간다.
그중에 한 늙은 남자가 유진의 어깨를 주무르는 모습 포착된다.

현재.
영(의뢰인), 무표정한 얼굴로 있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화장실 문 나선다.

#34. BAR(저녁)

바에 나란히 앉아 있는 남자와 영(의뢰인)
이미 많이 취해 있는 남자, 술 따라서 영(의뢰인)에게 건넨다.
영(의뢰인), 잔 부딪치고는 남기지 않고 마신다.

남자 우리 김 대리, 일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술도 잘하시네?

영(의뢰인) 아닙니다. 이사님 덕분이죠.

남자 (허벅지 슬쩍 터치하는) 김 대리,
아니 우리 유진 씨는 결혼 안 할 거지?

영(의뢰인) (살며시 손 치우며 술 따라주는) 그럼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남자 나는 이렇게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영(의뢰인) 감사합니다. (마시는)

남자 이거 봐. 얼마나 화통해. 내가 이래서 유진 씨를 참 좋아한다니까.

남자, 영의 몸을 노골적으로 만지기 시작하는데, 영(의뢰인),
어쩔 수 없이 미소로 응대하며 참는다.
그러던 중, 다른 테이블의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데, 재호다.
영(의뢰인),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의 기억 순식간에 튀어 오른다.

INSERT
#28. 재호 "아까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현재.
영(의뢰인), 놀라 고개 휙 돌린다. 하지만 재호의 시선이 느껴진다.
영(의뢰인), 혼란스러워하는데 그 와중에 남자,
영(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영(의뢰인) (놀라 뒤로 몸 빼며) 술 한 잔 더 주세요, 이사님.
남자 (따라주며) 유진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영(의뢰인) 아닙니다. (술 마시려는데)

남자, 이번엔 영(의뢰인)의 허벅지에 손 올리더니 노골적으로 더 만진다.
영(의뢰인), 몸 굳는데.

남자 (귓속말로) 이만 어디 조용한 데로 옮기는 거 어때?
영(의뢰인) (손 막으며) 이사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남자 (능글맞게, 팔 더듬으며) 너도 다 알면서 나온 거잖아.
괜히 빼는 척하지 말고.
영(의뢰인)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같네요. (일어나려고 하자)
남자 (확 잡아당기며) 정신 차려, 승진하고 싶어서 여기 나온 거잖아.
영(의뢰인) (부들부들 떨며 팔 빼내려고 하는데) 이거 놔요.
재호(E) 여기는 사람을 아무나 막 들이나 봐.
가려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남자, 짜증 난다는 듯 휙 돌아보는데,
재호, 어느새 바 옆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

재호 추하게 뭐하는 짓입니까?
남자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재호 정중하게 행동하셔야죠.
남자 네가 무슨 상관이야?
재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보네.

재호, 술잔 내려놓고 다가와 영(의뢰인)의 팔을 잡고 있는 남자 손을 잡아
뒤로 비튼다. 남자, 비명 지르고 영(의뢰인) 놀라 뒷걸음치는데,

남자 (비명 지르며) 야! 이거 안 놔!
재호 이 손이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가?
남자 (버둥거리며) 놓으라고!

재호, 남자 휙 밀치며 손 놓는다. 그 바람에 바닥에 철퍼덕 넘어지는 남자.
BAR 안에 있던 사람들 작게 키득대며 웃고, 남자, 창피한지 벌떡 일어난다.

남자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재호 (다가가 정중하게) 창피당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남자, 씩씩거리더니 재호 휙 지나쳐, 옷 낚아채고는

남자 (영(의뢰인)에게) 김 대리,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남자,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영(의뢰인)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고 있는데,
재호, 부축해서 의자에 앉힌다.

재호 (씁쓸하게 보며) 다음부턴 이런 자리 나오지 마세요.
영(의뢰인) (무슨 말인가 싶어 보는)
재호 한번 그런 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영(의뢰인) 네?
재호 원하는 걸 얻으려고 자기 자신까지 버리진 말아야죠.

재호, 영(의뢰인)을 둔 채, 자리로 돌아가는.
영(의뢰인), 창피하고 다 들킨 것만 같은 마음에 얼굴 확 붉어지는,
재빨리 밖으로 나간다.

#35. 길거리(밤)

영, 멍한 얼굴로 정처 없이 거리를 걷고 있다.
하이힐 때문에 뒤꿈치 다 까져서 벌겋게 부어올랐다.

FLASH CUT
#27. 무릎 꿇는 영. 영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재호.
#34. 재호 “원하는 걸 얻으려고 자기 자신까지 버리진 말아야죠.”

현재.

영 난 매번 최악이네….

영, 고마움과 창피함이 뒤엉켜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다 하수구에 힐이 걸려 넘어진다.
영, 일어나려다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다고 느낀다.
눈물 꾹 참으려고 하지만 결국 울어버린다.

#36. 대리인간 회사/사무실(낮)

#34, 재호의 모습에서 화면 멈추는. 담당자 한숨 쉬더니 영을 보고는

담당자 투 아웃. 변수가 있었지만 의뢰인의 승진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보상은 지금까지 22호의 임금 전체로 마무리했습니다.
영 (놀라 보며) 전체요?
담당자 그것도 부족해서 회사에서 나머지 비용은 처리했어요.
영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했던 거죠??
담당자 의뢰인 대상자랑 나갔으면 해결됐을 일이죠.
영 (망설이다가) 기억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담당자 의뢰 수행 중에 22호의 기억이 인식됐다는 건가요?
영 네, 잠깐이었지만 그랬어요.
담당자 (스크린으로 상태 체크하며)
기억 장치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영 왜 그런 거죠?
담당자 의뢰인과 자신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종종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신이 연기해야 하는 감정에 속아서 마치 진짜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돼죠.

영 (눈빛 흔들리는) 그런 적은 없어요.
담당자 그럼 다행이구요.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해요.
영 네.
담당자 (화면 치우고는) 이제 기회는 한 번뿐이네요.
잘 버티길 바랄게요.

담당자, 워치 톡톡 치자, 영 워치 울린다.
‘대리만남 — 윤재호 6시’

#37. 길거리(저녁)

원피스 입고 멍하니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영(서림).
그러다 문득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본다.
영의 얼굴과 오버랩되는데,

영 (심호흡하고는) 한 번. 기회는 한 번뿐이야 이제.
재호(E) 여기 서서 뭐 해??
영(서림) (돌아보며) 언제 왔어?
재호 방금, 내가 저 앞에서 손 흔들었는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했어?
영(서림) 내일 재판 있어서 그거 좀 생각하느라.
재호 (손잡으며) 오늘 같은 날은 일 생각 그만하고 나한테 집중해 줄래?
영(서림) (웃으며) 알겠어.

재호, 영(서림) 이끌고 간다.

#38. 몽타주

— 쥬얼리 숍.
재호와 영(서림), 함께 반지 고르고 있다.
서로 다정하게 끼워주며 연신 미소 짓고 있다.
— 백화점 안.

재호, 영(서림), 각종 신혼살림 함께 고르며 투닥거리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 아기용품점.
재호, 앙증맞은 신발 들고 와서 영(서림)에게 보여준다. 영(서림),
부끄러워하며 자리 피하는. 재호, 귀엽다는 듯 보며 쫓아간다.

#39. 길거리(저녁)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는 두 사람,
재호의 손에 아기 옷 브랜드 쇼핑백 들려 있다.

영(서림) 도대체 그건 왜 산 거야?
재호 귀엽잖아. 너 닮은 애가 이거 신고 아장아장 걷는다고 생각해봐.
영(서림) 나 애 안 좋아해.
재호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지.

그때, 워치 강하게 진동하고 영(서림) 놀라서 보면,
'의뢰인과의 거리 100m 안' 뜬다. 급하게 주변 둘러보는 영(서림),
건너편 길목에서 한 남자와 팔짱 끼며 나오는 서림을 발견한다.
영(서림), 얼굴 하얗게 질리며 휘청이는데,

재호 (부축하며) 괜찮아?

재호, 영(서림)을 살피느라 아직 서림을 보지 못했다.
밖의 두 사람을 보고 망설이는 영(서림).
신호등 바뀌고 사람들 건너기 시작하고,
서림이 남자와 함께 건너오기 시작하는데,
영(서림), 재호를 붙잡아 돌려 키스한다.
영(서림), 슬며시 눈떠 남자와 서림이 지나
가는 모습 바라본다.

#40. 서림의 아파트/거실(밤)

영, 거실에 긴장한 채로 서 있다.
서림, 소파에 서류 쌓아둔 채 VR 통해 재호와 데이트한 영상 보고 있다.

서림 (안경 벗으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었네.
덕분에 재호 씨가 보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나?
영 죄송합니다. 다른 대리인간을 원하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서림 아뇨, 날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쪽을 왜 잘라요.
(일어나 와인 꺼내며) 설마 다른 마음 있어서 키스한 건가?
영 그런 거 아닙니다.
서림 정말? 기분 좋지 않나, 잘생긴 사람이랑 그러면.
영 (망설이다가) 윤재호 씨는 신서림 씨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서림 (갑자기 깔깔대고 웃는) 사랑? (웃음 멈추더니)
나도 사랑해, 아주 많이.
그 남자가 가진 것들을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사람 입맛에 맞추려고 비싼 대리인간까지 고용하면서.
뭐가 더 필요한데?
영 왜 다른 남자분들을 만나시는 거죠?
서림 일종의 보상? (와인 마시고는)
윤재호도 참 좋지만 난 가끔 그 사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쪽도 알 거 아니야, 따뜻한 척하면서 결국 자신이 더 위에 있다는
걸 매번 느끼게 하잖아,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 난 그게 진짜 짜증 나.
영 윤재호 씨가 알면 상처받을 거예요.
서림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쪽이 있는 거잖아.
영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림 (O.L.) 하기 싫으면 말아요. 다른 대리인간 쓰면 되니까.
윤재호는 또 속겠지.
영 (두 손 꽉 쥔 채, 화 참는)
서림 근데 하기 싫어도 난 당신을 계속 쓸 거야, 윤재호가 상처 받을까
봐 걱정하는 그쪽이 아주 마음에 들었거든. 당신 덕분에 진짜가
되는 거잖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서류 넘겨보며)

앞으로도 사랑스러운 애인 역할 잘 해줘요.
(손짓으로 이만 가라고 하는)

영, 발걸음 떨어지지 않지만 돌아선다.

#41. 대리인간 회사/PT실(낮)

민채와 영,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다.
영, 생각에 잠긴 채 기계처럼 뛰고 있는데,
FLASH CUT #40 서림의 아파트/거실

서림 당신 덕분에 진짜가 되는 거잖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서림 설마 다른 마음 있어서 키스한 건가?

현재.

민채 그래서 정말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키스했는데?
영 (대답 없는)
민채 (영에게 다가와 속도 줄이고) 뛰다가 죽을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길래 옆에서 하는 소리도 못 들어요?
영 (전원 끄고 내려가 땀 닦으며 물 마시는) 미안해요.
민채 그 남자 좋아하죠?
영 (사레들려 캑캑대다가) 네?!
민채 (영 따라 하며) 아니에요. 또 이러려고?
(물 마시고는) 나도 헷갈릴 때 많았어요.
나로 말하는 건지 그 사람으로 말하는 건지.
내가 싫은 건지 의뢰인이 싫은 건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의뢰인으로 좋아하는 건지.
영 그런 거 아니에요.
민채 아닌데, 왜 걱정을 해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거나 말거나.
영 내가 그 사람을 속이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민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영 나도 잘 모르겠어요.
민채 대신 헤어지기라도 할 생각은 아니죠?
영 (고민하는)
민채 잘못되면 길바닥에 나앉는 건 결국 그쪽이에요.
다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여기 들어온 거 잊지 말아요,

영,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42. 재호의 회사 앞(저녁)

영(서림), 손에 도시락 들고 재호를 기다리고 있다.

서림(E) 대신 도시락 좀 전해주고 와요. 급하게 회의가 잡혀서 못 가니까.

회사 입구에서 재호, 뛰어나온다.

재호 갑자기 여기까지 웬일이야?
영(서림) 지나가다가, 저녁은…?
재호 아직 못 먹었어.
영(서림) (도시락 보이며) 많이 바빠?
재호 (시계 보더니) 한 삼십 분 정도 시간 있어.
영(서림) 그럼 올라가서 직원들이랑 챙겨 먹어.
재호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같이 먹자.

재호, 영(서림)의 손 잡고 회사 안으로 이끈다.

#43. 재호의 회사 로비(저녁)

재호, 영(서림)을 데리고 들어선다.
영(서림), 들어서다가 로비 프런트 보고 멈춰 선다.

INSERT
과거. 영의 기억
로비 프런트에 서 있는 영의 모습.

현재.
영(서림), 또다시 순식간에 들어온 기억에 당황하는데
재호, 그런 영(서림)의 손을 잡고 문 통과한다.

재호 올라가기 전에 갈 데가 있어.

재호, 영(서림)과 엘리베이터 지나쳐 비상구 쪽으로 가는데.

#44. 재호의 회사/비상계단(저녁)

나란히 앉아 있는 영(서림)과 재호.
재호, 영(서림)의 어깨에 기대서 눈 감고 있다.

재호 여기 내가 자주 오는 곳이야.

또다시 영의 기억 튀어나오는데,

FLASH CUT #28 비상계단

재호 나도 여기 자주 오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좋은 곳이죠.

현재.
영(서림), 뭔가 이상한 느낌에 워치 보는데, '오류'라고 뜨고 있다.
황급히 손으로 가리고는

재호 여기 내가 자주 오는 곳이야. 힘들거나 지친 날에 여기에 오거든.
(장난스럽게) 대표가 직원들 있는 데서 울 순 없으니까?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부터 버릇이었어. 그땐 로비에서 일하던 분이랑
나랑 둘이 자주 이용했었지.

영(서림) 오늘 많이 힘들었어?

재호 (서림 바라보며) 내가 여기에 오는 것처럼 당신이 날 찾아오길
바랐어. 근데 난 아직 당신한테 한참 부족한 거 같아.

영(서림) (어색하게 웃으며) 재호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재호 (일부러 밝게) 근데 이 근처에 무슨 볼일이 있었어?

영(서림) 그게…

그때 또 갑자기 영의 기억 튀어나온다.

INSERT
영의 기억.
— 워치 오류 메시지 계속 뜨는.
— 비상계단에서 영을 보며 웃는 재호.
— 무릎 꿇는 영을 바라보는 재호.
— BAR에서 도와주는 재호.
— 서림, 서류 넘겨보며 "앞으로도 사랑스러운 애인 역할 잘 해줘요."
— 노숙자인 영의 모습.
— 서림 "다른 대리인간 쓰면 되니까. 윤재호는 또 속겠지."

현재.
워치에 오류 메시지 계속되고 영(서림), 영의 기억으로 채워진다.
영(서림), 당황스러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는데,

영(서림) 그만.

재호 (영(서림)흔들며) 서림아? 왜 그래?

영(서림) 그만둬요.

재호 (얼굴 굳으며) 뭐…?

영(서림) 더 이상은 못할 거 같아.

영(서림), 도망치듯 가려는데,

재호 (가로막으며) 그게 무슨 말이야.

영(서림)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재호 서림아…

영(서림) (혼란스러워하며) 내가, 내가 그동안 당신을…
(정신 차리려고 하지만 워치 오류 계속 뜨는) 미안해.

재호 갑자기 왜 그래, 서림아.

영(서림) 미안해, 당신은 날 도와줬는데, 나는 계속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어.

재호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영(서림) (화내며) 당신이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했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재호 서림아, 우리 집안 때문인 거면 내가 더 노력할게. 이러지 마.

영(서림) 당신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재호 (단호하게 붙들며) 아니어도 괜찮아.

영(서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런 말 못 해.

재호 아니, 난 알아.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진짜야.

재호의 말에 영, 흔들린다.

FLASH CUT #42 대리인간 회사/PT실

민채 그 남자 좋아하죠?

현재.
어느새 워치의 오류 사라지고 영(서림),
서림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자신의 본심)으로 재호를 대하고 있다.

영 (조금 진정된) 거짓말.

재호 (끌어안고 다독이며) 다른 건 알고 싶지 않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면 돼.

영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후회할지도 몰라.

재호 난 너 없으면 안 돼.

영 …

재호 (영과 눈 맞추며) 사랑해.

영, 재호의 말에 두근거린다.

재호 사랑한다고.

영 (떨리는 목소리로) 나도… 사랑해.

재호, 영에게 천천히 다가가 키스하려고 한다.
영의 두 눈 살며시 감긴다.

#45. 대리인간 회사/회의실(아침)

여러 담당자들 앉아 있고, 영의 담당자도 함께 있다.
그들 건너편에 앉아 있는 영. 분위기 살벌하다.
화면에 위치 추적기에 찍힌 루트와 시간 떠 있다.

담당자 윤재호 씨와 만난 다음에 회사로 돌아오는 도중 습격을 받았고,
그래서 기억칩이 분실됐다?

영 네.

담당자2 23시경, 윤재호 씨 집에는 왜 간 거죠?

영 다툼이 있었어요. 얘기가 길어져서 집에 가게 됐어요.

INSERT
재호의 집.
영(서림), 재호와 키스하며 옷을 벗는다.

담당자2(E) 윤재호 씨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죠?

현재.

영 결혼 문제였는데, 윤재호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진정시키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INSERT
재호의 집.
재호, 영(서림), 서로를 매만지는 손길 점점 거칠어진다.

담당자(E) 그 이후에 약 네 시간 넘게 윤재호 씨 집에 머물렀다.

현재.

담당자3 누군가 쫓아오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그날 회사를 나설 때부터.
영 (생각에 잠겨 있는)
담당자 22호.
영 (정신 차리며) 없었습니다.
담당자2 이 사실이 밖에 유출되거나 의뢰인이 알게 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물론 차영 씨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영 네.
담당자 당분간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대기하세요.

담당자들 빠져나가고 영, 눈빛 생기 있게 빛난다.

#46. 대리인간 회사/복도(아침)

영,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 복도 걸어가는데,
갑자기 영을 누군가 확 잡아당겨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47. 대리인간 회사/화장실(아침)

영, 놀라서 황급히 뿌리치려고 하는데 민채다.
민채, 조용히 하라며 손가락으로 입 막고는 화장실 안에
누가 있는지 살핀다.
아무도 없다는 거 확인하고는

영 뭐예요, 놀랐잖아요.
민채 아까 아침에 나 봤죠?
영 아뇨. (나가려는)
민채 기억칩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48. 과거. 대리인간 회사 옆 골목길(새벽)

영(서림), 주변 둘러보며 감시카메라 있는지 확인한다.
주변에 감시카메라 보이지 않자,
목 뒤 더듬어 기억칩 꺼내서 보더니 하수구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는데,

민채(E) 뭐해요?

영(서림) 놀라,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춘다.
민채, 담배꽁초 눌러 끄더니 툭툭 털고 일어나 영(서림)에게 다가온다.

민채 손에 있는 거 기억칩 같은데.
영(서림) (당황스러운) 여긴 어떻게 나왔어요?

영(서림)의 말에 민채, 의아하게 얼굴 가까이 들이민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거 알고는 황급히 돌아서려는데

민채 나 알죠?
영(서림) 아뇨, 몰라요. (가려는)
민채 (붙잡으며) 그쪽도 대리인간 맞죠?

영(서림), 대답하지 않고 급하게 골목을 빠져나간다.

#49. 대리인간 회사/화장실(아침)(#47 연결)

민채 회사 뒷골목에서 나 봤잖아요.

(다 안다는 듯 장난스럽게)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봐놓고는.

영 그런 적 없어요.

민채 기억칩을 어디에 숨겨뒀으려나?

영 나 아니라니까요.

민채 그래요? 그럼 어디든 뒤져보라고 얘기해야겠네. (나가려고 하는)

영 (망설이다가) 당신도 들키면 안 될 텐데, 회사 밖으로 나간 거.

민채, 씩 웃으며 돌아본다.

#50. 대리인간 회사/식당(낮)

영과 민채, 밥 먹고 있다.

민채 그쪽 의뢰인 엄청 예쁘던데,
그 얼굴로 밖에 돌아다니면 기분 좋겠다.

영 어차피 내 얼굴도 아닌걸요. 근데 밖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민채 (주위 둘러보고는 작게) 그때 어떤 사람이 탈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통로 알아냈거든요. (담배 피우는 시늉하며)
한번 중독된 건 빠져나오기 어렵잖아요.

영 겨우 그거 때문에… (답답한) 그러다가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민채 설마 가서 얘기하려구요? 그럼 나도 얘기하지 뭐.

영 정민채 씨.

민채 기억칩 어디 숨겼어요?

영 잃어버렸다구요.

민채 (눈 흘기며 장난스럽게 보는) 어제 의뢰인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한 거 같은데?

영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민채 그쪽이 말했잖아요.

영 내가 언제 말했어요?

민채 지금 그게 중요한가. 기억칩을 없앨 정도의 일이 있었다는 건데….
설마, 그 남자랑 잤어요?

영 (시선 피하는) 아니요.

민채 헐, 대박. 진짜?!

영 정민채 씨!

민채 (낄낄대고 웃으며) 미안 미안, 너무 놀라서. 뭐, 이해해요. 우리도
사람인데.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하다 보면 진짜 감정이 막 생겨날
수 있죠.

영 진짜일까요, 그런 감정이.

민채 그 사람이랑 함께한 기억의 절반 정도는 그쪽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굴은 아니어도.

영 …여기서 나가면 달라질까요?

민채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 어쩌면…

민채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어떻게든 도와줄게요.

영, 고개 끄덕이고는 밥 먹는데, 그런 영을 바라보는 민채.

#51. 서림의 로펌/사무실(낮)

분주하게 서류 보고 있는 서림.
누군가 서림의 사무실 문 두드리는데, 보면 후배1이다.

서림 (흘끔 보고는 다시 서류로 시선 돌리며) 왜?

후배1 선배 손님 오셨어요.

서림 누군데?

후배1 남자친구분이요, 윤 대표님…

서림, 후배1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나간다.

#52. 서림의 로펌/라운지(낮)

서림, 라운지 문 거칠게 열고 들어서는데
재호, 로펌 사람들에게 음료와 샌드위치 나눠주고 있다.

재호 왔어? 자기도 와서 이것 좀 먹어.

서림 말도 없이 무슨 일이야?

재호 청첩장 나와서 갖다주려고, 자기 요새 바쁘잖아.

상사 윤 대표가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나?

재호 신 변이 멋진 사람이잖아요. 제가 잘해야죠.
(웃으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후배2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멋지고 다정한 애인이라니 부러워요.

서림 (조용히)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

서림, 먼저 나가고, 재호 미소 띠며 인사하고는 뒤따라가는.

#53. 서림의 로펌/주차장(낮)

서림, 재호의 차 앞에서 멈춰 선다.
재호, 무덤덤한 얼굴로 서림 바라보고 있다.

서림 어떻게 된 거야?

재호 로비에 맡기고 가려고 했는데,
후배들이 올라가서 주고 가라고 그래서 잠깐 간 거야.

서림 (다정한 척하지만 날 선) 갑자기 이렇게 말도 없이 오면 어떡해?

재호 (서림의 손 잡으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을까?

서림 (손 빼내고 말투 바꾸며) 미안,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말없이
찾아오진 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싫어. 안 그래도 밤새 소송
준비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시달릴 거 생각하면…

재호 (O.L.) 밤새웠다고?

서림 그래, 내일 중요한 재판 있어서 바빠.

재호 (혼란스러운) 당신 어제 나랑 같이 있었잖아.

서림과 재호 사이에 정적 인다. 서림, 황급히 시선 피하는

서림 (당황하며) 정신없어서 착각했어. 이만 가. (가려는데)

재호 (붙잡으며) 서림아,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서림 (시선 피하고는) 나 바빠서 이만 올라갈게, 미안.

서림, 재호 둔 채 도망치듯 빠져나간다.

#54. 서림의 로펌/사무실(낮)

서림, 급하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데
후배, 재호가 가지고 온 샌드위치 책상 위에 놓고 있다.

후배 선배, 남자친구분이랑 결혼하시면 일 그만두시는 거 아니죠?

서림 그럴 일 없어.

후배 네?

서림 (히스테릭하게) 너네 앞길은 닦아주고 나가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 자리 차지할 기대하지 말고 나가.

후배, 떨떠름한 얼굴로 나간다.
서림, 책상 위에 올려진 샌드위치 보는데,

FLASH CUT #53 서림의 로펌/주차장

재호 (혼란스러운) 당신 어제 나랑 같이 있었잖아.

현재.
서림, 샌드위치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짐 챙겨 나간다.

#55. 대리인간 회사/22호실(저녁)

영, 침대에 앉아 재호의 사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리고 보안요원과 함께 담당자와 서림 들어선다.

담당자 22호, 나오세요.

영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담당자, 한발 물러나자 보안요원들 들어와 방 뒤지기 시작한다.

영 뭐 하는 짓이에요!

영, 막으려고 하지만 보안요원들에게 붙잡힌다.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초조한 마음에 입술 깨무는데,
보안요원, 책상 뒤지다가 재호의 사진 떨어뜨린다.
액자 깨지고 영,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한다.

서림 (영의 모습 보고) 그만.

서림, 천천히 다가가서 깨진 액자를 툭툭 건드린다.
유리 파편 사이에서 기억칩 나오고 영,
망연자실한 얼굴로 눈 질끈 감아버린다.
보안요원들 방 밖으로 나가고, 영 주저앉아버린다.

서림 둘이 있고 싶은데.
담당자 그건 규정상 어려운…
서림 (O.L.)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있나?

담당자, 말없이 밖으로 나간다.
서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영의 얼굴 부여잡는다.

서림 이렇게 생겼구나? (얼굴 거칠게 놓으며) 얼마나 잘났나 했더니,
재미있네. (기억칩 보며) 윤재호랑 아주 좋았나 봐.
꽁꽁 감춰두고 싶을 만큼.
영 (주먹 꽉 쥐고 부들부들 떠는)
서림 나인 척하면서 몇 명이랑 자고 다녔어요?
영 그런 적 없어요.
서림 그래?

서림, 화면에 기억칩 연결한다.

영 그만해요.

서림, 아랑곳 않고 화면 재생시킨다.
영상 속, 침대에서 재호가 영(서림)의 얼굴 쓰다듬고 만지며
사랑을 나누고 있다.
영, 수치스러움과 당혹감에 얼굴 벌게진다.

영 (책 집어서 화면에 던지며) 그만하라고!

화면 깨지더니 멈춰버린다.

서림 창피한 건 아나 봐? 뭐 사실 윤재호랑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영의 얼굴 붙잡고) 근데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 당신이
내 얼굴을 하고 그 짓을 했다는 거야. (영 얼굴 거칠게 놓는) 진짜
나라도 된 것 마냥.
영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서림 그래? (까르르 웃으며) 그럼 정말 윤재호가 좋아서 그랬다는 거야?
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영 자기 감정도 책임지지 못해서 남한테 시키는 당신만큼 불쌍할까?
적어도 난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서림 (웃음 그치며) 그래봤자 넌 대리인간이야. 윤재호의 기억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영 (이 악물고는) 아니, 당신이 가지지 못한 기억이 그 사람이랑
나한테는 있어.
서림 그럼 가서 물어볼까? 널 사랑하냐고. 어때? 궁금하지 않아?
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노려보는)
서림 (불쌍하다는 얼굴로) 못하겠지. 그 사람은 나인 줄 아니까.
당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기억은 당신 게 아니야. 평생 가질 수
없어 그건. 내가 되지 않는 이상.

서림, 방 나간다.

영 아니, 내 기억이야 그건.

영, 눈물 뚝뚝 흘리며 멀어지는 서림을 차갑게 노려본다.

#56. 대리인간 회사/사무실(저녁)

담당자와 영, 마주 보고 앉아 있다.
담당자가 레터 나이프로 책상을 툭툭 치는 소리만 사무실 안을 울린다.
그러다 영 쪽으로 옷 내미는 담당자. 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입고 있던 낡은 옷이다.

담당자 차영 씨. 규칙을 어기기고 의뢰 이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의뢰 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회사에 끼친 손해가 만만치 않아 정산될 금액은 없습니다.
영 네.
담당자 다른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영 없습니다.
담당자 다들 어떻게든 버티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라도 하는데.
영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담당자 난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랐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구요.
영 …어떤 게 새로운 삶인 거죠?
담당자 차영 씨에게 원한 건 한 가지였어요. 대리인간으로 충실히 사는 것.
영 전 충실했어요.
담당자 (일어나며) 그 이상을 꿈꿨죠. 윤재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의뢰인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을 줄 뻔했잖아요.
영 그건… 제 기억이에요.
담당자 안타깝네요. (일어나 레터 나이프 장식장에 진열하는)
영 새로운 22호는 누가 되나요?
담당자 이제 그쪽이랑 상관없는 일인 거 같은데.
영 (장식장 쪽으로 다가가는) 저보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담당자 그건 곧 알게 되겠죠. 얼마큼 신서림 씨처럼 되느냐에 따라.

담당자, 인식칩 꺼내려고 책상 옆 서랍으로 다가가는데
영, 순식간에 장식장에 있던 레터 나이프 들어 담당자의 목에 겨눈다.
단숨에 찌를 듯이 날카롭게 날 서 있는 나이프.

담당자 뭐하는 짓이에요.
영 당신 말처럼 신서림이 되어보려고.
담당자 이러면 그쪽만 힘들어져요.

영, 담당자가 말을 듣지 않자, 나이프 더 찌른다.
목에 생채기 나면서 피 흐르기 시작한다.

영 서랍 열어요.
담당자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해요.
영 조용히 하고 열기나 해.

세 번째 서랍 열자, 인식칩이 있다.

영 꺼내.

담당자, 순순히 꺼내서 건넨다.

CUT TO
유리에 비친 모습 보며 옷매무새 다듬는 영, 담당자의 옷 입고 있다.
영, 빨간색 워치 주머니에 넣고 담당자의 파란색 워치 찬다.
담당자, 의자에 옷으로 결박되어 있다.

영 너무 억울해하지 마요.
저마다 다 쓰임새가 있는 거니까.

영, 사무실 불 끄고는 밖으로 나간다.

#57. 서림의 아파트/침실(밤)

침대에서 자고 있는 서림.
서림, 뒤척이다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듣고는 일어난다.

서림 재호 씨?

아무런 대답이 없는.
서림 침대에서 내려와 방 밖으로 나간다.

#58. 서림의 집/주방(밤)

서림 밖으로 나오는데, 주방에 불 켜져 있다.

서림 (조심히 다가가며) 재호 씨, 재호 씨야?

주방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 보이는.
천천히 고개 돌리는 여자.
영(서림)이다.

서림 당신 뭐야?
영(서림) (인덕션에 냄비 올리며) 신서림 씨 좋아하는 토마토 스튜예요. 데우기만 하면 돼요. 앉아요.
서림 의뢰한 적 없어요. 나가요.
영(서림) 난 먹고 싶은데.
서림 뭐?
영(서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쪽이 대신 먹으라고, 지금 먹으면 살찌니까.
서림 설마… 당신…
영(서림) (그릇 꺼내고 스튜 담을 준비하며) 이렇게 이 집 문도 열고 들어올 수 있고, 집 안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싫은지 좋은지도 아는데, 어때요? 내가 이 집 주인 같지 않아요?
서림 당장 나가.
영(서림) 사람들은 우리 둘 중에 누가 진짜라고 생각할까요?
서림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영(서림) 윤재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나였고, 초밥을 먹으면서 즐거워한 것도 나였어. (끓은 스튜 담으며) 드레스를 고르러 간 것도 나였고, 그 사람이랑 사진을 찍은 것도, 같이 밤을 보낸 것도 나였는데, 내가 당신이 못 될 이유는 없잖아요.
(식탁에 그릇 올려놓으며) 앉아요.

영(서림), 앉으며 소매 걷어 올리는데, 서림의 하얀색 워치 차고 있다.

서림 그걸 왜 당신이 갖고 있어?
영(서림) (수저 건네며) 안 먹을 거예요?
서림 (숟가락 던져버리고는 워치 풀려고 하며) 내놔!

서림과 영(서림), 몸싸움 일어난다. 주변의 물건들 떨어지고 깨지면서 점점 격렬해진다. 식탁 의자에 걸려 영(서림) 넘어지자 서림,
주방 밖으로 나간다.

#59. 서림의 집/거실(밤)

서림, 뛰쳐나가려는데 그 순간 머리채 잡는 영(서림).
그 바람에 서림, 뒤로 넘어지고 그 충격에 일어나지 못한다.
영(서림), 서림의 한쪽 팔 잡고는 주방으로 질질 끌고 간다.

#60. 서림의 집/주방(밤)

영(서림), 서림을 식탁 의자에 억지로 앉게 한다.
그러고는 다시 수저 건넨다.

영(서림) 내가 먹고 싶다니까? 얼른 먹어봐.

서림, 그릇 쳐버린다.

영(서림) (일어나 막으며)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서림 당신이 이런다고 달라질 거 같아? 내 기억을 가졌다고 해서 진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그건 내 기억이야.

서림, 영(서림) 밀치고 주방을 비틀거리며 걸어 나가려고 한다.
그러다 이내 무언가에 맞고 쓰러진다. 보면, 영(서림) 스튜 담겨 있던 그릇 손에 쥐고 있다. 영(서림), 주머니에서 기억칩 꺼내더니 서림의 목 뒤에 넣고는 빨간색 워치를 팔에 채운다.

영(서림) (인덕션 위 냄비 치우며) 당신이야말로 착각하나 본데,
당신 기억은 없어. (인덕션 온도 더 높이며) 그건 내 거야.
내가 만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느낀 내 기억.

서림, 기어서라도 주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이내 발목 잡힌 채 끌려온다.
영(서림), 서림을 억지로 인덕션 앞에 세운다.

영(서림) 난 당신 얼굴만 필요할 뿐이야.

영(서림), 서림의 손을 인덕션 위로 가까이 가져간다.
서림, 안간힘 쓰며 버틴다.

서림 하지 마… 하지 마! (비명 지르는)

하지만 서림의 손, 인덕션 불 위로 점점 가까워지는.

#61. 주택가 도로(밤)(#1 연결)

나이트가운만 입은 채 이미 죽은 듯이 굳어 있는 서림.

서림의 손끝 문드러져 있고, 손목에 빨간색 스마트 워치 채워져 있다.
그런 서림을 향해 다가오는 하이힐 소리.
무심하게 쓰러진 서림을 바라보는 시선.
영(서림), 쪼그려 앉아 서림을 내려다본다.
영(서림)의 손목에 하얀색 워치가 채워져 있다.
영(서림)의 손끝도 불에 덴 듯 문드러져 있는.

영(서림) 이제 당신 건 아무것도 없어. 잘 가요.

영(서림), 천천히 일어나 걸어간다.

#62. 결혼식장(낮)

음악 흘러나오고, 영(서림), 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 위를 걸어가고 있다.
버진 로드의 끝에 재호, 설렘이 가득한 얼굴로 서 있다.
버진 로드의 끝에서 재호의 손을 잡는 영(서림), 얼굴에 미소 가득하다.
두 사람 손을 맞잡는데 영의 목덜미에서 붉은빛이 반짝인다.
천천히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
그리고 환하게 웃는 재호의 목덜미에서 붉은빛이 번쩍이며.

끝.

작가 후기

‘누군가 내 감정을 대신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 작은 생각에서 출발한 글이 세상에 나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 기뻤지만 글을 고치면서 수없이 많은 고민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 생각에 공감할까? 공감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하고 싶은 말들을 가득 채웠던 원고를 둔 채, 여러 번의 수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일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직 한없이 채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부족함과 마주했고, 그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글을 머리로 쓰지 않고 마음으로 써야 한다는 말을 새기며
오로지 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도움 주신 김지일 센터장님,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신 오펜 식구들,
글을 써오는 내내 지켜봐주고 응원해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매화 진 자리

모성은

작의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다.
엄마는 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냐고.
세월 좀 살아보고, 남자 좀 골라보고 결혼하지 그랬냐고.

세상에서 가장 쿨한 척 꺼낸 말이었지만 내심 두려웠다.
젊은 날의 실수나, 후회, 한탄이란 단어들로 내게 돌아올까 봐.
엄마는 내게 오징어 다리를 물려주며 그랬다.
"너네 만날라고 그랬는갑지."

엄마는 딸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는 소망을 품기도 하고,
딸은 엄마에게 잘 자라봤자 당신처럼 될 거라는 원망을 쏟기도 한다.
남들은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묘한 감정을 나누는 변태 같은 사람들.

이 이야기는 흔해 빠진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죽음보다 죽음 뒤에 남겨질 자식들을 걱정하는 엄마와
이제야 엄마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딸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은 웬수가 아닌 내 인생의 동반자, 나의 엄마를 위하여.

등장인물

김홍(36세, 여) 마취과 전문의
모자란 학비 때문에 평생을 울 거라면, 차라리 넘치는 돈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현실주의자. '피곤함'이 성격이 된 대학병원 마취과 의사로, 대학 입학부터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 살고 있다. 매일 보는 게 환자지만 정작 엄마가 환자일 줄은 몰랐던 홍. 엄마의 전화를 받고 광주로 내려간다.

김정매(60대, 여) 삼 남매의 엄마
매번 바람처럼 왔다 폭풍처럼 떠나는 남편 대신 방직공장에서 일하며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박복한 팔자라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정매의 엄마가

그랬다.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견뎠기 때문일까. 자식 농사가 잘 돼 한참 동안 어깨를 펴고 다녔다. 자식 농사만 한 복은 또 없으니까.
그런데 폐암 말기라니? 정매는 고심 끝에 10년간 집에 온 적 없는 홍이를 집으로 부른다. 정매 인생의 마지막 매실장아찌를 만들기 위해.

김백(33세, 여) 고등학교 국어교사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정매의 둘째 딸. 같은 학교 교사와 결혼해 깨를 볶다가 엄마의 병을 알게 됐다.
좁은 병상에서 엄마를 꼭 껴안고 자는 천상 둘째.

김형원(24세, 남) 대학생
커다란 덩치와는 달리 순둥함의 끝판 왕이다. 누나들의 경제적 지원 하에 딱히 모자람 없이 자랐다. 누나들이 모자람을 담당했기에 가능했단 걸 본인도 안다. 아낌없는 지원은 엄마한테 잘하라는 말이라는 것도.
친척보다 먼 홍이의 귀향이 낯설고 어색하다.

호진 아저씨(60대 후반, 남) 정매의 오랜 친구
방직공장 작업반장 일을 그만두고 부동산을 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 외
백의 남편 기혁 등

줄거리

"엄마가 죽는단다. 홍아. 엄마 죽기 전에 매실장아찌 좀 담그자."
3주 만의 오프 때문일까, 아직 덜 깬 잠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두 달 만에 통화한 엄마의 '죽음선포' 때문일까. 엄마가 죽는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고, 어디로 튈지 모르던 엄마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게 도무지 적응되지 않는다. 배신자라고, 짜증난다고 소리를 쳐도 엄마는 그저 자신을 안아줄 뿐이다. 아. 엄마가 정말 죽을 때가 됐구나. 눈물이 날 것도 같았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옆 침대 환자의 하찮은 근심거리를 고민해주는 엄마를 보니, 홍이는 돌아버릴 지경이다.

"왜 나한텐 이제야 말해?"
퇴원한다는 엄마도 화가 났지만 어쩌 된 게 동생들은 오래전부터 병을 알고 있다는 듯 굴면서 퇴원하겠단 걸 말리지 않는다. 홍이는 홧김에 사표를 내고 왔다고 말하고, 모녀는 대판 싸운다. 외톨이가 된 것 같은 홍. 쫓겨나다시피 돌아온 고향 집은 여전히 후지고 구리고 찌들어 있다.

"병원 좀 가라 할 걸."
전화 목소리가 이상한 걸 알고 있었다. 자꾸만 머리가 아프단 말에, 새벽에 TV를 틀어놓고 자서 그렇다고 말한 게 마음에 걸린다. 내가 바빠서, 피곤해서 무시했을 뿐. 그래서 홍은, 엄마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다. 엄마에게 자유를 찾아주기로.

"난 다음 생엔 새가 될 거야."
이젠 정매를 보내줘야 할 시간이 됐다. 정매의 잘 자란 열매들은 그가 원하는 대로 방방곡곡에 정매의 흔적을 남긴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웃고 떠들면서.

매화 진 자리
모성은

#1. 화장터 앞(낮)

화장터 앞 공터.
엉엉 울며 옷소매로 콧물을 닦는 백이와 벽에 기대 주저앉은 형원.
지친 기색의 홍, 갑자기 춤을 춘다. 가만히 홍을 보던 형원이도 춤을 추고.
울음을 참다가 나온 딸꾹질과 함께 새처럼 날아다니는 홍.
춤추는 두 사람을 보다가 백이도 근본 없는 막춤을 춘다.
지나가던 사람들, 미친 사람을 보듯 지나가고.
일행인 노인 하나만 우뚝 멈춰 선다.

노인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며) 저 집은 엄마가 죽었나 보네.

타이틀. ‹매화 진 자리›

#2. 병원/병실(낮)

“어머니!” 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지나 2인실 병실로 카메라가 이동하면,
숏컷에 모자를 쓴 환자 정매가 평온하게 목도리를 뜨고 있다.
의사 가운을 입은 홍은 보호자 의자에 앉아 정매를 노려본다.

홍 배신자. (정매 들은 척도 안 하면) 배신자.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
짜증 나. 짜증 나. 알아? 왜 그렇게 살아? 엄마 진짜 싫… 아!!!!

정매, 놀라서 뜨개질바늘 떨어뜨리고 보면,
옆 베드 환자, 커튼을 확 젖히며 홍이의 등을 후려갈겼다.

홍 왜 때려요!
옆 베드 환자 니 같은 딸은 처음 봐서 근다. 옴메 잡것이네잉. 어서 엄마한테!

옆 베드 환자, 홍이를 한 대 더 때리려는데. 정매가 홍이를 안아 감싼다.

정매 내 딸이여. (홍이 등 맞은 자리 쓰다듬고) 많이 아팠제?
홍 (안겨서) …배신자.

#3. 병원 건물 앞(낮)

병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백과 형원. 담배를 입에 무는 백.

백 (담배 건네는) 원, 담배 펴?
형원 (고개 가로젓는) 누나 여기 병원.

아차! 싶은 백, 서둘러 집어넣다가 뭐가 웃긴지 피식 웃는다.

형원 ?
백 웃겨서. 아빠는 그렇게 술 담배 했어도 그것 땜에 죽진 않았잖아?
엄마는 담배 한 번 안 폈고.
형원 아빠 우물 빠졌잖어… 그 정도면 뭐, 술 땜에 돌아가신 거 맞지.
근디 누나, 담배 핀가?
백 (고개 젓는) 어제 우리 반 애들 거 압수한 거. 라이터도 없어.
형원 엄마… 왜 큰누나한테 아프단 거 말 안 했을까?
백 몰라. 그 둘을 어찌 알겠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 둘.

형원 엄마 살 수 있을까?

#4. 병원/스테이션(낮)

중앙 스테이션 앞, 줄줄이 놓여 있는 의자.
환자, 보호자들이 앉아 다 같이 TV를 본다.

동시에 웃고, 동시에 무표정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중에 멍하니 끼어 있는 홍.
홍이의 의사 가운엔 '마취과 전문의 김홍'이라 새겨져 있다.

담당의(E) CT 보셔서 아시다시피,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림프에 전이는 됐구요. 뇌로도 전이 가능성 있단 거 아시죠?
아시다시피 이 정도면 항암은…
홍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5. 과거. 병원/마취과 의국(밤)

매실장아찌 하나에 컵라면을 먹는 홍.
졸면서 먹는다.
콜 오자 바로 받는.

홍 네.
정매(F) 하아… 홍아!!
홍 (그제야 핸드폰 확인하고, 괜히 받았나 싶다) 어 …무슨 일 있어?
정매(F) 암 일도 없제. 반찬 다 먹었나 싶어 가꼬. 없으면 내일 부칠라고.
아니, 니는 맛이 있음 맛이 있다 하고, 없음 다른 거 해달라 하제.
어쩜 말이 하나 없냐. 아휴, 무심하다 무심해.

정매, 다다다 말을 쏟아내는데 쇳소리가 나고 호흡이 거칠다.

홍 (멈칫) 목소리는 왜 그래?
정매(F) 아이, 계단 올라온께 겁나게 벅차야. 엄마도 이제 늙었는갑다.
홍 (별일 아니란 듯 넘긴다) 근께, (멈칫)
그러니까 이사 가라고 했잖아.
집 사라고 돈 준 거는 어디다 두고?
정매 아야 홍아! 반찬 있냐고!
홍 (마른세수하는) 그 집이 뭐가 좋다고 오기를 부려.

#6. 병원/병실(낮)

정매 (환자복 벗는) 그럼 평생을 살았는디 안 좋으면 쓰겄냐?
뭣하고 섰냐. 가가꼬 간호사선생님 좀 불러와야?
주사 다 들어갔응게.
홍 (정매 말리는) 엄마, 진짜 왜 그래? 집에 가서 뭐하게!
정매 (당연하다는 듯) 느이 밥 줘야제. 집에 반찬 하나도 없이야?

홍, 할 말을 잃는다.
때마침 들어오는 백과 형원, 싸우는 소리에 서둘러 다가온다.

백 (정매 달래는) 엄마, 쓰러져서 왔잖아. 응? 내일 퇴원하더라도…
(비틀거리는 정매, 서둘러 부축하고) 오늘은 입원하자. 제발, 어?
홍 (걸린다) 퇴원하더라도? 퇴원을 하겠다고? 그 몸으로?
정매 (홍은 안중에도 없다) 매실 따다 말고 왔이야.
벌레 먹어블믄 큰일난디.

형원이 간호사 불러오면. 간호사에게 링거 맞은 팔 내미는 정매.

홍 (간호사에게) 표적치료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NGS 검사 해주세요.
간호사 김 교수님께 말씀드릴게요. (하고 나가는)
정매 (단호하다) 안 한다. 뭐든 안 해. 엄마 병원 지긋지긋해.
홍 (쏘아붙이는) 오기 그만 부려. 이게 오기 부린다고 될 일이야?
아니다. 서울로 가자. 괜히 사람들 병나면 서울로 오는 거 아니야.
큰 병원 가서 항암도 하고, 내가 엄마 간병할 테니까.
정매 워매. 니가 내 간병을 어찌한대? 니는 일 안 하냐? 글고!
거기 가면 지금처럼 맨날 애들 오도 못한디 뭐다러 자꾸 가재?
서울까정 올라갈 힘도 없고 엄마는 집에 갈란다.
홍 엄마.
정매 (버럭) 안 한다 안 하냐, 니 알고 있잖애!!!!!!!

정적이 감도는 병실.

정매　여기 있는다고 되는 거 하~나 없단 거 알잖애. 니가 봐서 알잖아!
오기는 지가 부리고 있고만 누구한테 썽이여 썽이? 이제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가고 싶다고. 그게 잘못이여, 어?

홍　엄마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백·형원　(동시에) 언니 / 누나!!!!!

멀찌감치 선 홍이는 정매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정매　그래, 환장했다. 니네 셋 키우느라 죽고 싶어도 못 죽었는디!!!
이제 쉴 수 있단디 그것도 못하게 막어? 서울 가면 당신 병 없소,
하겄냐. 아님 당신 수술할 수 있소 하겄냐.
니는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제? 잔말 말고 서울 올라가.

홍　내가 선배들 통해서 폐암 쪽에…

정매　가라고, 김홍. 오늘은 집에서 쉬고 내일 돌아가.
정 엄마 걱정되면, 내일 퇴원할 때 델러나 오고.

홍　(개미 목소리로) …그만뒀어.

정매　뭐라고?

홍　병원 그만뒀다고!

#7. 병원/주차장(낮)

씩씩대며 걷는 홍, 신발 한 짝은 운동화에 한 짝은 병원 실내화다.
걷다가 차키를 찾는데, 몸 구석구석을 살펴도 차키가 없다.
들리는 삑— 소리.
돌아보면 형원, 홍의 짐 가방 들고 서 있다. 어색하게 웃는 형원.

#8. 달리는 차 안(낮)

운전 중인 홍. 조수석에 앉은 형원이 고개를 돌리다 홍과 눈 마주친다.
어색한 남매.
형원, 돌아보면 서류박스니 옷가지니 난장판이다.

#9. 동네 계단(낮)

끝도 없는 계단을 올려다보는 홍. 내리쬐는 햇빛이 강렬하다.
형원은 트렁크를 들고, 앞서 올라가다가 돌아본다.
홍, 결심했단 듯 크게 심호흡하고 올라간다.

#10. 정매의 집 전경(낮)

벽화마을 중턱. 담벼락에 붉고 하얀 매화꽃들이 그려진 정매의 집.
파란 대문을 들어서면 매실이 주렁주렁 열린 매화나무 한 그루 보인다.
나무 아래엔 매실을 담아둔 바구니가 뒤집어져 있다.
빨랫줄엔 정매의 옷가지가, 마당엔 매실 몇 개가 굴러다닌다.
홍, 지긋지긋하단 듯 둘러보고 있고.

#11. 정매의 집/주방(낮)

형원, 싱크대를 뒤지며 가스레인지를 켜는데,
타다닥— 불꽃만 튀다 멈춘다.

형원　(의아한) 여기 있었는데?

홍　(다가오는) 뭐 찾아?

형원　라면요. (개수대 밑 칸 열고) 원래 여기에 라면 있었는데.

홍　(익숙하게 다른 칸 열면, 라면 딱 하나 있다) 여기…
(집 둘러보며) 달라진 게 없네… (하고 벽 들여다보면)

냉장고 옆 벽, 아이들의 키를 잰 자국들이 보인다. 가만히 쓸어보는 홍.

#12. 병원/병실(밤)

백의 등을 쓸어주는 정매. 백이 정매에게 찰싹 붙어 품을 파고든다.

정매　남 서방이 서운해하겄다. 맨날 여기 와 있는다고.

백　그런 놈이면 갈라서야지~ 나한텐 엄마가 제일 소중한데.
맞다 엄마, 원이한테 문자 왔는데, 어색해서 숨 막힌대.

킬킬대는 두 사람. 옆 베드 환자가 깰까 황급히 숨죽이고.

정매　뭐 먹었대?

백　마가린밥 먹었다는데?

정매　(한숨, 속상하다) 니네 언니는 먹어도 꼭 그런 짜잔한 거 먹는다.

백　(속상한 정매 보다가) 돈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반찬 해먹기엔 귀찮았나 보지. 내가 집에 갈걸 그랬나?

정매　(백이 머리 만져주며) 아녀. 둘이 있어봐야제.
그나저나 반찬을 해놓을걸 그랬다.

백　얼씨구. 쓰러질 것도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애들아 나 오늘…
(울컥한 거 가라앉히는) …창고에도 매실 가득 있다며.
아! 김홍 또 매실 다 버리는 거 아니야? 유리병 깨고 막!

정매　(고개 젓는) 니 언니 내 말 잘 들어.

백　헐! 김홍이 무슨 말을 잘 들어. 성에 안 차면 말 씹고, 잠수타고.
상견례 땐 수술 있다고 안 와, 형원이 입대할 땐 학회 있다고 안 와.
남 서방은 지금까지 언니 딱 세 번 봤다. (투덜) 뭐가 이쁘냐?

정매　홍이는 그래. 너랑 달라.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지. 쭉 그랬어.

#13. 정매의 집/마당(밤)

매화나무 노려보던 홍.
흙이 묻은 매실들과 나무 아래 바구니 주워 평상에 둔다.
씩씩대던 홍, 이번엔 빨랫줄에 걸린 옷들을 걷어 평상에 앉는다.
홍이 빨래를 개고 있으면, 형원이 다가와 같이 옷을 갠다.
정매의 낡고 큰 면 팬티를 개는 홍.

형원　누나.

홍　응.

형원　너무 무서워요. (왈칵 터진) 엄마 진짜 죽어요?

홍　(손에 들린 팬티로 눈물 닦아주려다 좀 그런가… 수건 건네는)
…넌 언제 알았어? 김백은?

형원　한 달 전에요.

홍,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다시 빨래 개는. 형원인 한참을 운다.

#14. 병원/로비(밤)

통화 중인 백의 눈가를 손수건으로 조심조심 눌러주는 기혁.
입 모양. '언니?'

백　(끄덕이는) 나랑 형원인 엄마 하자는 대로 할 거야.

#15. 동네(밤)

텅 빈 동네, 운동화 한 짝에 병원 실내화를 신은 홍이 달리기 중이다.

홍　(블루투스 연결해놓고) 어디서 개가 짖어.

백(F)　뭐라고???

고요한 동네에 들리는 개소리.

홍　진짜 개가 짖어서.

백(F)　알아보니까 표적치료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어야 한다며.
엄마는…

홍　(말 끊는)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도대체 너네 지금까지 뭐했어? 한 달 전에 알았다며.

백(F)　언니, 왜 화내?

홍　화내는 게 아니라… 엄마 이 상태 되도록 왜 방치했냐는 거지.

백(F)　방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거 같아? 그래서 지금 화난 거야?

홍　(격앙된) 화내는 거 아니라니까?

백(F)　지금 화내고 있잖아!!! 언니 넌 뭘 잘했다고!! (툭, 전화 끊는)

CUT TO

홍, 여전히 달린다. 탁— 탁— 한 걸음 건너뛰고 들리는 슬리퍼 소리.

유난히 크다.

#16. 회상. 병원/병실(낮)(#6 연결)

정적 속에 들리는 가습기 소리.

말해놓고 아차 싶은 홍, 그래도 괜히 지기 싫다.

정매　(대뜸 일어나) 환장하겄네. 가자.

형원　엄마 어디 가?

정매　어디긴. 서울 가야지. (홍이 잡아끄는) 나와 김홍.

(기침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가서 없던 일로 해달라고 빌자.

무릎이라도 꿇고 빌자고! 얼른 나와! 안 나와?

홍　(잘못한 줄 알지만 지기는 싫다) 병원 옮기자 할 땐 안 가겠다면서!

정매　갈치맨키로 지 승질 못 이기고! 지 아빠랑 똑~같애, 아주.

홍　(정매 손 뿌리치는) 뭐라고?

형원　(정매 넘어지지 않게 막는다) 누나, 왜 그래요!

백　엄마, 참아. 언니도 그만해. 응? 엄마 혈압 오른단 말이야.

홍　사과해, 사과하라고! 아빠랑 내가 어디가 똑같아?

정매　내가 니를 모르냐!

홍　뭘 아는데?

나에 대해 그렇게 잘 알아서 아빠 입관하는 날 연락했어?

정매　그래, 시험이고 뭐고 때려 쳐블고 올까 그랬다!

다 버리고 주저앉을까 봐! 나같이 살까 봐!!

#17. 동네(밤)

달리던 홍이 멈춰 숨을 고른다.

괜히 땅을 쿵쿵 차고, 그도 안 풀렸는지 자기 뺨 때린다.

숨을 고른 홍, 백에게 문자한다.

'퇴원해.' 고함지르며 달리면 온 동네 개들도 화답한다.

#18. 정매의 집/주방+거실(밤)

해가 다 뜨지 않은 새벽. 씻고 나온 홍, 킁킁대는데.

뛸 때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다.

형원　(거실 한쪽에서 부스스 일어나, 잠이 덜 깼다) 누나?

홍　수업 있지? 아침 먹고 수업 가.

형원　응? 네… (하고 상을 보면, 아침상 차려져 있다) 요리하셨어요?

홍　혹시 내가 입을 만한 옷 있을까? (냉장고 문 여는데)

#19. 과거. 정매의 집/주방(밤)

여름, 냉장고에서 뚜껑에 '매'라고 쓰인, 페트병을 꺼내는 12살의 홍.

냉장고 불빛을 조명 삼아 얼마 남지 않은 원액을 쪼르르 따라 물과 섞는다.

능글능글한 홍, 현재와는 다르게 사투리 조가 강하다.

홍　(의사인 듯) 금방 나을 겁니다. 환자분!

#20. 과거. 정매의 집/거실(밤)

안방 겸 거실.

라이터에 바늘을 지지는 정매와 그 앞에 끙끙대며 누워 있는 9살의 백.

정매의 머리맡에 보이는 검정 핸드백, 낡은 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좋아

보인다. 손을 따는 게 싫은 백이 칭얼거리고.
매실 가지고 온 홍은, 정매 옆에 앉는다.

홍 환자분! 이건 겁나 쉬운 수술이에요.
(백의 손을 끌어 정매 앞에 두고)

백은 바늘을 보곤 무서워 손을 빼려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정매 앞에 손을 대령하는 홍.
정매, 신중하게 백이의 엄지손가락을 딴다.
이내 손끝엔 검붉은 핏방울이 맺힌다.

정매 기껏 짜장면 사줬더니 체하면 어떡허냐. 니가 물짜여?
홍 (엄마 따라하는) 물짜여?
내가 니 혼자 만두 세 개 먹을 때 알아봤다.
정매 (백이 배 만지는)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매실 좀 마셔봐야.

백이 마시는 거 보고 자기도 페트병에 남은 원액 탈탈 털어먹는 홍.

홍 으엑.

홍의 과장된 액션에 백이는, 울다가도 헤헤 웃는다.
홍, 재밌어하는 백의 반응에 일부러 거실을 굴러다니고.

#21. 과거. 정매의 집/방(밤)

아이들의 방.
약을 먹고 조용히 자는 백이 옆엔, 갓난아기인 형원이 누워 있다.
정매는 백이가 그린 가족 그림을 벽에 붙인다.
아빠의 모습은 뒷모습뿐이다. 홍이는 책가방을 챙기는데,

홍 (책가방 챙기다) 엄마!!! (큰소리 내려다 애들 보고 참는) 김백이

크레파스 조사 브렀어. (금방이라도 울 듯) 내일 학교 안 갈래.
정매 (홍이 달래는) 엄마가 고쳐줄게.

테이프를 꺼내 크레파스 감는 정매.
엉성한 크레파스를 다시 포장지에 살살 끼운다.

정매 아나! (크레파스 주는데)
홍 (시큰둥하고)
정매 (머쓱) 아빠 월급 받으면 우리 홍이 크레파스 좋은 걸로 사줄게.
응?
홍 (말없이 손가락 내민다) 애들은 파스텔도 쓴디…
정매 약속할게. (하고 손가락 걸고)

홍, 벌러덩 누워 정매의 손을 자기 배에 가져다댄다. 정매, 의아해하면.

홍 남이 좋은 거 쓴단께 배가 아프네요.
나도 해줘… 엄마 손이 약손.

정매, 싱긋 웃으며 홍이의 배를 문질러주는데, 밖에서 들리는 난동 소리.

아빠(E) 야!!!!!

#22. 과거. 정매의 집/마당(밤)

공사장 인부 차림의 아빠,
술에 취해 휘청하는데도 손에 든 소주병을 놓지 않는다.
정매의 부축을 마다하고 고성을 지르는 중이다.

아빠 너, 니가 문제야. 알아? 니까짓 거 만나서 내가!!
정매 (달래는) 아이, 홍이 아빠. 동네 사람들 깨!
아빠 내가 말야. 우리 집 3대 독자인 내가 말야!
널 만나서 인생이 꼬였다고.

정매　　알았어, 알았어. 얼른 들어가. 내일도 일하러 가야지!

아빠, 정매의 손에 이끌려 집에 들어가려다가
평상에 놓인 매실 바구니를 본다.

아빠　　(문득 울컥해) 내가 일하는 기계야!! 집에만 있는 주제에
뭘 안다고! (바구니로 정매 때리는) 너가 뭘 알아, 뭘 알아!
구질구질한 게.

#23. 과거. 정매의 집/방(밤)

무서운 홍, 벌벌 떨면서 형원이의 귀를 가려준다.
뭣도 모르고 방긋방긋 웃는 형원.
밖에서 들리는 싸움 소리,
자기 귀를 막던 백이는 엉엉 울며 이불 속으로 숨는다.

정매(E)　　아!!!! 홍이 아빠! 아파!!

홍, 달려 나간다.

#24. 과거. 정매의 집/마당(밤)

정매의 머리채를 잡은 아빠를 밀치는 홍. 슬리퍼 한 짝만 신은 채다.
홍이의 행동에 잠시 주춤한 아빠. 이내 더 분노한다.

정매　　(헝클어진 머리에 벌벌 떨며) 얼른, 들어가. 홍아! 얼른 자야!
아빠　　(주위 둘러보며 때릴 거 찾는) 니가 내 욕했지. 맨날 집에서 애들만
끼고서 내 욕했지? (방망이로 정매 때리려는데)

홍, 있는 힘껏 아빠에게 몸통 박치기를 한다. 아빠, 휘청거리다 넘어지고.

홍　　엄마, 도망가. 도망가라고!!!

정매, 잠깐 멈칫하다 도망간다. 그 모습을 본 홍은, 문득 두려워진다.
아빠가 정매를 쫓아가려 하자,
정신이 든 홍은 아빠의 허리를 잡고 놔주지 않는다.
열려 있는 대문에 시선이 고정된 홍.

#25. 과거. 정매의 집/마당(낮)

마당 곳곳을 돌아다니며 떨어진 매실을 주워 바구니에 넣는 홍.
말리려고 밖에 놔둔 아빠의 신발을 보다가 캬악— 가래침을 모은다.
조심히, 길게 늘어뜨리는 침. 이때, 누군가 홍이의 등짝을 세게 때린다.

홍　　아!! (자기 옷에 침 묻은 거 보고 휙 돌아보는데)

정매다. 홍, 멍하니 보다가 괜히 두리번거리며 매실 찾고.

정매　　(머쓱한) 우리 딸~ 잘 있었어?
홍　　(울컥한) 아빠 목포 간대서 갔어.
정매　　(머쓱한) 미안. 어디 봐봐. 다친 데는 없어?
홍　　(강한 척) 없어. 아빠가 우리 때리겄는가?
정매　　(말없이 보다 홍 안는) 엄마 이제 일할 거야. 크레파스도 사주고,
홍이 중학생 되면 교복도 사줄 거고.
홍　　(괜히 퉁명스러운) 왜 돌아왔어. 가란께.
정매　　가긴 어디 가. 너네가 여깄는데.
(괜히) 에이, 엄마 없다고 옷도 안 갈아입었어??
(홍 어깨 잡는) 홍… 다시는 아빠한테 그러지 말어.
엄마는 그래도 너네는 그럼 안 된다.
홍　　엄마!
정매　　아빠가 엄마한테 서운해서 그런 건께…
한 번만 더 아빠한테 대들어.
(차마 꼬집진 못하고) 너한텐 아빠여. 알았어?

홍, 토라져 입을 삐죽이면. 정매, 다시 한 번 홍 안는다.

CUT TO

평상에서 고기 굽는 정매. 홍이는 형원이를 어화둥둥 안고 돌아다닌다.
버너에 올린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어 백이 들고 있던 종이에 자국을 남긴다.

백 아!! (기름 지우려는) …튀었어.
홍 근께 그걸 왜 여기에 갖고 와. 숙제는 방에서 하라고. (둘러보면)

고기를 놓는 상 옆에 새 크레파스와 백이의 숙제가 널려 있다.
백이의 숙제 들여다보면 비뚤비뚤한 글씨로 쓰인 '나의 장례희망'

홍 (초록색 크레파스로 고친다) 아이 애. 살벌한 소리허고 자빠졌네.
백 (괜히 홍 째려봤다가, 스케치북 넘기는) 종이 또 있거든?
홍 엄마, 엄마는 뭐였어?
정매 (한참을 고민해도 대답을 못 한다) 고기 탄다. 먹어.
홍 엄마?
정매 생각해본 적이 없네… 지금은, 돼지 세 마리 잘 키우는 거.
홍 그럼 다음 생엔??
정매 (웃다가 진지해지는) 엄마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백 (손 번쩍 들고) 김백 엄마!!!
정매 (고개 가로젓는다. 어딘지 쓸쓸한) 엄마는 새가 될란다.
가고 싶은 데 가고, 날고 싶을 때 날아가블고.

홍, 정매를 지그시 바라본다.

성인 홍(NAR) 그때 알았다. 우린 정말 훌륭한 인질이구나.

#26. 도로(낮)

운전하는 홍, 도로에 비둘기 한 마리가 꿈쩍 않고 앉아 있다.
오도 가도 못하는 홍의 차.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들.

홍(NAR) 아무 데도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정해진 끝이 없는 인질극의 주연들.

한참 동안 여유를 즐기던 비둘기.
홍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그제야 날아간다.

#27. 부동산 앞(낮)

커다란 이삿짐 박스가 몇 개 쌓여 있다.
난감한 호진, 상자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그때, 부동산 앞에 멈춘 홍의 차. 홍이 내린다.

호진 …김 군?

홍, 고개만 슬쩍 숙여 인사한다.

#28. 부동산 안(낮)

벽에 붙은 사진 한 장. 방직공장 앞에서 여럿이 찍은 사진이다.
사진 속 모두가 웃는데,
가운데서 꽃을 든 호진과 제일 끝의 정매는 씁쓸해 보인다.

호진 (반가운) 돌아왔단 소식은 들었어~ 이게 몇 년 만이야?

믹스커피 타주는 호진.
무심결에 커피 봉투로 저으려다 얼른 티스푼으로 휘휘 젓는다.
홍, 호진이 건네는 커피 마시지 않고 보고만 있다.

홍 엄마가 집 내놨다면서요.
호진 (얼른) 나도 김 군이랑 이야기할 생각이었어.
재개발 묶이는 건 알지?

어머님은 집값 잘 쳐줄 때 팔고 싶으신가 봐.

홍 (부동산 밖 보는) 애들은 알아요?

호진 그럼, 백이랑 형원이도 알지. 정매, 아니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대. 그래도 김 군이 제일 어른이니까 동생들이랑 상의해봐.

홍 …아저씨는 언제 알았어요? (사이) 엄마 아픈 거. 아저씨가 제일 먼저 알았다면서요. (커피 마시려는데)

호진 (머쓱한) 그냥… 목소리가 안 좋길래. 알잖아,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가야 하는 거. 김 군은 의사니까… 어머님 봤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홍, 커피 마시는 손이 덜덜 떨린다.

#29. 정매의 집/마당(낮)

짐을 창고에 옮겨놓고 나온 호진 앞에, 홍이 매실청 탄 물을 들이댄다.
시원하게 들이켜는 호진, 얼굴엔 땀범벅이다.

호진 (개운한) 난 이제 가겠네!

홍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네…

호진 (집 둘러보고, 고개 끄덕이고) 김 군.

홍 네.

호진 (용기 내, 멋쩍은) 정매 씨 퇴원하시면, 한번 들러도 될까?

CUT TO
홍, 평상에서 매실을 다듬으며 통화 중이다.
매실 하나를 소매로 깨끗하게 닦고 십자로 칼집을 낸다.

홍 (골치가 아프다) 김백, 소리 지르지 말고 말해. (전화 끊기는)

홍은 한숨 한 번 쉬더니 빈 소주병으로 매실을 친다. 과육과 씨가 분리되고.

#30. 과거. 학교/복도(낮)

엎드려뻗친 홍의 엉덩이를 죽도로 때리는 담임.
홍의 교복치마는 엉덩이 부분이 닳고 닳아 반짝인다.

담임 (불만이 가득하다) 야, 김홍.

홍 (덜덜 떨리는 목소리와 팔) 죄송합니다.

담임 똑바로 엎드려, 똑바로!!!! 김홍. 넌, 공부 잘하면 의대 갈 수 있는 줄 알지? 너가 나라면, 니 추천장을 써 줄 것 같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게 어떻게 의대에 가?

시끌벅적한 교실. 담임, 창문 열고.

담임 반장이 이 모양으로 눈치가 없으면 너네라도 잘해야지. 조용히 안 해?

계속되는 매타작. 복도에 전지 크기의 '기말고사 성적' 붙어 있다.
김홍, 1등이다.

#31. 과거. 거리+부동산 앞(낮)

부은 눈의 홍, 엉거주춤하게 걸으면.
홍의 친구는 등 앞뒤로 홍의 책가방까지 멨다.

홍 엄마랑 목욕 간다매. 여기까지 델다 줬음 됐이야. 가봐.

친구 (멀리 홍의 동네 올려다보고) 분명 가기 싫었거든? 근데 너네 동네 올라가느니 목욕 가는 게 낫겠다. 넌 안 가?

홍 이 꼴로? (하고 엉덩이 살짝 들어 올리는)

친구 하긴 속상하시겠네. 니 빵댕이땜시.
(가방 건네고 가다 말고) 김홍! 너도 엄마한테 말해봐. 담임한테 성의 안 보이는 고3부모가 어딨냐?

CUT TO
부동산 쪽으로 터덜터덜 걷던 홍, 앞서 걸어가는 정매가 보인다.
방직공장 점퍼와는 어울리지 않는 #20의 핸드백을 든 정매.
정매를 부르려는데.

홍(NAR) 언젠가 이 안전한 인질극이 끝날지도 모른단 두려움이 들었던 날.

이때, 부동산에서 허겁지겁 나온 호진,
다른 손에 들린 정매의 짐을 대신 들어준다.
침을 꼴깍 삼키는 홍. 조용히 따라가는데, 불안하기만 하다.
부동산 문에 붙은 '외출 중' 옆, 크레파스로 칠한 하트가 눈에 들어온다.
정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홍.

홍(NAR) 그날 담임한테 맞지 않았다면, 성의란 말이 내 생활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엄마를 뺏길지 모른단 불안감을 몰랐을까?
여전히 난 완벽한 인질이라는 안락함 속에서 살았을까.

#32. 과거. 동네 계단(밤)

집 앞 계단에서 멈칫, 올라가지 못하는 홍.
이내 카메라에서 사라진다. 한 바퀴를 돈 듯 다시 나타난 홍.
몇 번이나 카메라에서 사라진 뒤에야 올라간다.

홍 (주문 외우듯, 떨리는) 이젠 통하지 않아.
언제 떠나도 이상할 게 없지. 엄마 행복하길 바라잖아.
괜찮아. 괜찮아. (긴장감 속에서 대문 열면)

#33. 과거. 정매의 집/마당(밤)

평상에 앉아 소주병으로 매실을 깨는 중학생 백과 정매.
정매, 비닐장갑을 낀 채다.

깊은 숨을 내쉬는 홍. 안도하면서도 짜증이 난다.

정매 (소중히 매실 닦다가) 아따 여간 씨게 치네. 백이, 뭔 불만 있냐?
(평상에 흩어진 매실조각 주워 담는) 애들이 다 도망가겄다.
백 아 왜! 이왕 칠 거 세게 쳐야지!
정매 (자신의 매실과 백이의 매실을 들어 보인다) 봐봐야.
엄마 건 깨끗하게 떨어지잖애. 적당히 힘을 줘야제. 아 이만하면~
믿고 장아찌가 되어도 쓰겄네요. 이렇게. 근디 너는…
백 (거의 짓이겨진 백의 매실, 재빨리 건네고) 그럼 이건 엄마가 해.
(멍든 매실 발견한다) 엄마 이거 멍들었는데. 버려?
정매 아니, 따로 놔둬. 바로 먹게. 너는 이쑤시개로 여기, 꼭지 따.
백 (홍 발견하고) 언니! 왜케 늦게 옴?
홍 (냉담하다) 뭔 상관이야. (들어가려는데 정매에게 잡힌다)
정매 너 왜 울어?
백 언니 울어?

정매, 매실 닦던 것처럼 홍이 눈물 닦아주려는데
정매 손 마다하는 홍.

홍 냄새나. (하고 들어가 버리는)

정매, 자기 손 냄새 맡고.

정매 기름 냄새나? 일부러 장갑 꼈는디?
백 (킁킁대 맡고) 아니?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괜히 지랄이야 저게.
정매 (식겁해) 김백! 언니한테!
백 엄마는 이 와중에도 언니 편이야?

#34. 과거. 정매의 집/방(밤)

신경질 나는 홍. 교복 아무 데나 벗고.

옷장 열어 새 티셔츠 고르는데, 티셔츠에 기름얼룩이 졌다.
다른 옷 봐도 마찬가지고.

#35. 과거. 정매의 집/마당(밤)

폭발한 홍. 블라우스 들어 보인다.

홍 엄마!!!!!!!! 엄마 옷이랑 내 꺼랑 같이 빨지 말랬잖아!
백 왜 엄마한테 승질이야!
홍 기름 냄새난다고, 얼룩진다고!!몇 번을 말해야 돼! (교복 던지고)
정매 김홍!
홍 짜증 나. 짜증 나! (서럽게 우는)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정매 (화난) 김홍, 너 엄마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홍 (속상한) 수학여행이다 수련회다 남들 다 가는 거 나는 왜 못
가는데? 내가 문제집을 많이 사길 해. 메이커 가방 사 달라 해?
그지같은 애들도 대학 가겠다고 담임한테 돈 주는데!!!
엄마 학교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 나는 매일같이 욕 들어.
내일은 또 무슨 핑계 대고 미워할지 상상도 안 가.
근데 엄마는 교복 하나도 제대로 못 빨아줘?

정매, 자신의 손을 하염없이 만지작거린다.

백 (홍이 때리고) 엥간치 하고 엄마한테 사과해.
돈이 없고 싶어서 없냐?

씩씩대는 홍과 백. 정매는 황망하다.

홍 그럼, 난? 난 없고 싶어서 없었냐? 넌 나처럼 쪽팔리지 말라고,
짝퉁을 사도 너한테 줬어. 너라도 교복 새로 사라고… 적어도 얻어
입은 내 꺼 물려 입지 말라고, 다른 학교 가라고 기도했어. 미술
시간에 사람 그려본 적도 없어. 웬 줄 알아? 살색이랑 검은색이
제일 빨리 닳거든!! 그럼 너 못 쓰거든. 엄마는 새 크레파스 사줄
돈도 없으니까!
홍, 쾅! 소리 내며 집으로 들어가면. 정매, 묵묵히 교복을 주워서 턴다.

#36. 정매의 집/현관+주방(낮)

다시 현재. 멀리서 현관문이 쾅! 소리 나며 닫힌다.
소리부터 지르며 홍이 찾는 백.
거실 창으론 정매를 업고 마당에 들어서는 형원 보이고.

백 언니! 미쳤어? 그걸 왜 찬성해?
홍(E) (부엌에서) 엥간치 해라. 김백.
백 (홍에게 다가가는) 지는 의대 간다고 홀랑 서울로 토꼈으면서.
집에 자주 오길 해, 전화 한 번 살갑길 해?
갑자기 짐까지 다 들고 와서는!!
홍 (장이 든 통에 코를 갖다 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엥간치 하라 했다 김백.
백 엥간치 안 하면 어쩔 건데!!!!!!!
(사이, 울컥) 병원을 몇 군데를 돌았는데. 깡 시골에서 요양할까
집까지 알아봤다. 일은 그만둬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는데.
뭐 했냐고?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엄마, 몇 년씩 늙어서 나와.
내가 좋아서 퇴원하재? 얼마나 무서웠는지 니가 알아?
홍 (달래려는데) 언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자며.
백 그래도. 엄마가 화장해달라잖아…
화장해서 아무 데나 뿌려달라잖아! 그건 다르지! 언니가 거기에
찬성하면 안 되지. 언제부터 엄마 편이었다고 대뜸 그러래?
언니는 엄마 안 보고 싶을지 몰라도. 나는 보고 싶다고!!!
집도 없고 엄마도 없음! 엄마 보고 싶을 때 난 어디로 가는데!

백, 다가와 홍이 등에 머리를 쿵— 쿵 박는다.

홍 엄마한테 우리 협박, 이젠 안 먹혀. 알잖아.
백 그래도 엄마한테 미쳤다 그래.

아빠 옆 싫음 납골당이라도 가라고 해.

홍 …창고 가서 양파 가져와. 밥 내일 먹을래?

백 (왈칵 또 울음 터진다) 형원이가 니 요리 지옥에서 온 것 같대.
짜증 나 진짜.

백, 주방에서 사라지면.
홍이는 들고 있던 통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다.

홍 (어이없는) 똥인지 된장인지… (뚜껑을 닫으면 정매의
글씨로 '똥'이라 적혀 있다) 맡아봐야 알지…

#37. 정매의 집/거실(밤)

저녁 먹는 가족. 정매 앞엔 죽 그릇. 정매는 홍이 앞에 고기를 놓아주고.

정매 (홍과 백 보며) 너네 목욕 가야 되는데.

형원 (홍이 몰래 된장찌개에 물 넣다가) 나도!

백 (고기 정매 앞으로 다시 두는, 홍이 들으라는 식)
엄마 목욕 가도 되나?

홍 엄마 면역력 약해서 감기 걸리면 큰일 나.

백 (부러 더 맑은) 엄마 목욕하고 싶어?

정매 언제 니네 등 밀어주겄냐. (침울해지면)

홍, 주변 둘러보면 여전히 자신에게 날 서 있는 백,
어색한 형원, 아픈 정매 보이고.
한숨 쉬며 나가는 홍을 보며, 의아한 가족들.

CUT TO
욕실에서 참방대는 소리 들린다.
노트북으로 암에 좋은 음식 알아보는 형원,
이미 빼곡한 노트에 옮겨 적는다.

정매(E) (괜히) 뭐다러 돈 주고 이런 걸 사 와!

홍(E) 엄마 좀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마. 정 그럼 나중에 가지고 가든가!
아니 거기 내가 밀었다고~ 등만 남았다니까?

정매(E) 했는데 이러냐? 그대로고만?
(때수건으로 등짝 때리고) 이제 니가 해!

정매, 개운하단 듯 나와 소파에 앉는다.
백, 소파에 누워 있다가 정매 옆에 딱 달라붙고.

정매 (힘들지만 신난) 아따, 세상 좋다. 욕조도 접을 수 있네잉.
언니 씻고 나옴 너도 물 받아서 몸 뿔려놔. 알았제?

백 (욕실 째려보다) 엄마 약 먹을 시간 안 됐어?

홍(E) (큰 목소리) 삼십 분 뒤에!

백 (일부러) 근데 엄마. 언니 일 진짜 그만뒀을까?

정매 내가 니 언니를 모르냐? 쟈는 내 일이라면 천 리 밖에서도
달려올 애여. 근께 내가 아프다고도 말을 안 했지.
다 버리고 올까 봐. (언성 높이는) 봐라! 저 짐 다 싸 들고 온 거.

홍 (욕실에서 나오는) 뭐! 또 왜!

백, 약 올리듯 어깨 으쓱하고 욕실로 들어간다.

백(E) 아 물 좀 받아놓지!

#38. 정매의 집/마당(밤)

접이식 욕조를 펼쳐 말려놓는 형원과, 평상 위의 정매와 백.

형원 (조용히 있다가) 엄마. 난 엄마 납골당에 모시고 싶은디.
뭐랄까… 엄마 아무 데나 버리는 거 같잖아.
아무리 뼛가루라도 엄만데. 우리한텐.

정매 (헛웃음) 아야. 내가 변기에 내리라 하디.
아님 쓰레기통에 버리라 하디?

백 수목장은?

정매(E) 그것도 싫어. 이 나무가 그 나무고 그 나무가 이 나문디?
글고, 그 나무 아프면! 또 엉엉 울면서 (연기하듯) 우리 엄마가
죽어서도 아프네~ 이럴라 글잖어. (백이 이마 콩— 때리곤)
안 봐도 비디오다 이 맹꽁아.

형원 납골당은?

정매(E) 하이고! 그 째까난 데에 들어가라고?
엄마는 이 째까난 집에 사는 것도 지겹다!

형원 암튼 난 싫어.

백 언니한테 아픈 거 말하지 말래서 말도 안 했잖아.
병원 싫대서 이렇게 집으로 모셨잖아.
하나 정도는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정매, 웃으며 고개 젓자 대화도 끊긴다. 수건으로 욕조의 물기를 닦던 형원.

형원 (외롭다, 조용히) 나도 등 밀어야 하는데…

#39. 정매의 집/거실(밤)

동이 트기 전, 피곤해 보이는 백이 출근 준비 중이다.
거실 한쪽의 커다란 대야엔, 매실이 가득하고.
백이는 소금을 뿌려 대충 버무려놓는다.

백 점심 먹고 절이면 되겠다.

홍 (거실 한쪽에서 자다가, 뒤척이며) 이불 개고 가.

백 그이 왔는데, 올라오라 할까?

홍 돌았냐. 이 꼴로?

홍, 아무 말 없는 백이 이상해 이불 밖으로 빼꼼 고개 내밀면.
백, 홍을 보는 시선이 퍽 다정하다.

홍 (잠 덜 깨) 뭔데. 왜 그렇게 보는데.

백 …언니! (하고 홍에게 달려드는)

홍 (백 떼어내는) 징그러워. 왜 이래!
(백이 손, 입에 들어가고) 아 짜! 야!!!

백, 다른 쪽 구석에서 자는 형원을 팡팡 때려가며 깨운다.

형원 아, 미안허네. 아따 잘못했어… 누나 좀 자자… 미안… 응, 미안.

백 (밝은) 일어나, 일어나! 학교 안 가?

형원 휴강이야… 진짜야… 휴강이야.

#40. 정매의 집/방(밤)

현재 정매의 생활공간이다. 문가에 서서 곤히 자는 정매를 보는 삼 남매.
아직 잠이 덜 깬 홍이와 형원. 형원이 하품을 한다.

백 (코 막고) 으 입 냄새.

형원 (아랑곳 않고 후— 백에게 내뿜는다)

백 (질색하다가) 언니, 엄마 좀 나은 거 아닐까?
왜 그런 사람들 있다며. 병원 가서 검사 한 번 받아볼까?

홍 (한참 정매 보는데, 씁쓸하다) …출근해. (정매 품에서 액자 보고)

품에서 액자를 조심히 빼면, 바닷가에서 찍은 젊은 정매의 사진이다.
생각에 잠기는 홍.

#41. 정매의 집/마당(낮)

홍, 형원. 창고에서 커다란 유리병들을 들고 나온다.
정매는 평상 가득한 매실과 설탕을 들여다보고.
이어 매실과 설탕을 켜켜이 번갈아 넣으며 병을 채우는 홍과 형원.

CUT TO
고추장을 푸는 형원,
정매의 눈치를 보다가 '더'라는 입 모양에 맞춰 한껏 푼다.
홍이 대야에 손질한 매실을 넣고 버무리는데 성에 안 찬 정매.

정매 (비키라 하고 버무리는) 이렇게.
아 버무리는 것도 못하냐! 이 물짜야!

형원, 빵 터져 웃다가 홍이 눈치보고 정색하는.
정매, 홍이를 어려워하는 형원이 안타깝고.

정매 형원아. 가서 니 꺼 카메라 좀 갖고 와봐.

CUT TO
카메라 앞, 어설픈 웃음 짓는 홍. 안 웃는 게 더 나을 지경이다.
형원, 정매와 팔짱 낀 홍을 찍으려다 말고.

형원 누나… (로봇 같은 팔 가리키며) 좀 자연스럽게.
홍 (포즈 바꾸는데 더 이상하다) 이렇게?
형원 웃는 것도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포즈 잡아주는)
이렇게! (답답해하는) 누나가 로봇인가?
(말해놓고 놀란다) 앗 그게 아니라요.

홍과 정매, 웃음 터지고.

#42. 동네(밤)

조깅 중인 홍. 운동선수같이 안정된 호흡에 일정한 보폭.
어디선가 형원이 따라붙는다.

형원 누나.
홍 뭐야? (달리기 멈추는)
형원 호진 아저씨 왔어요. 누나가 초대하셨다고 하시던디.
홍 초대는 무슨. (숨 고른다) 그럼 지금 집에 엄마랑 아저씨랑…
형원 네.

홍, 고개 끄덕이더니 다시 달린다.

형원 (따라붙어) 누나.
(사이) 아빠 돌아가시고, 작은누나는 엄마랑 목욕 가고.
나는 갈 사람이 없었는디.
홍 (말없이 달린다)
형원 아저씨가 내 등 밀어줬어요. (홍 앞질러 달리는)

홍, 형원 따라 열심히 달린다. 동네 슈퍼 앞에 멈춰 선 형원.

#43. 슈퍼 앞(밤)

형원 (슈퍼 앞 평상에 앉아) 난 아빠도 좋았거든요? 나만 보면 웃어서.

홍, 형원과 거리 두고 앉는다. 맥주 마시는 홍과 형원.

형원 누가 그랬는디, 남편과 아빠는 다른 사람이라고.
아빠여도, 3대 독자의 아빠랑 딸 가진 아빠랑도 다른갑더라구요.
어릴 땐 몰랐지마는. (홍이 바라보며) 미안해요.
홍 (피식) 뭐가 미안해. 니가 때렸어?
형원 나는 누나들 돈으로 대학 다녀요. 누나들 돈으로 카메라 사고,
렌즈도 사고. 출사도 다니고. 누나는 수학여행도 못 갔다면서요.
홍 엄마가 그래?
형원 술 마시면 하는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근데도 누나가 미워 갖고…
친구들한테도 욕했네. 우리 큰누나는 아부지 입관할 때
침 뱉었다고.

홍, 적응 안 되는 분위기에 괜히 맥주나 마신다. 이때 차에서 내린 백.

백 여기서 뭐 해?

홍 (운전석 백의 남편과 눈 마주친다) 안녕하세요.

백 (기혁에게) 자기야! 먼저 가서 엄마랑 인사하구 있어~
(허공에 뽀뽀하고 난리 났다) 사랑해~
(돌아보면, 썩은 표정의 홍, 형원)

형원 호진 아저씨 와 있어.

백 아 그래? (하고 홍 눈치 보는) 언니 괜찮아?

홍 …안 괜찮을 게 뭐야. 우리도 올라가자.
(백에게 손잡아 달라 내밀고)

#44. 동네(밤)

천천히 길을 오르는 삼 남매. 백, 앞서 걷다가 뒤돌아본다.

백 엄마랑 아저씨. 그냥 친구야.

형원 (의아한) 갑자기 그 말을 왜 해?

백 나 대학교 때, 글쓰기 시간이 있었거든? 하루는 교수가 앞에 나와서
내가 쓴 걸 읽어보라는 거야. 주제가 사랑이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묻더라. 진짜 바람도 사랑이라 생각하냐고.

홍과 형원, 가만히 듣는다.

백 그때는 오기로 그렇다 했는데. 나도 왜 그렇게 썼는지 몰랐거든?

홍 (멈추고) 바람도 사랑이라고?

백 감싸고 싶었나 봐. 엄말. 그래서 그날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바람 폈어? 알지? 나 돌려 말하는 거 못하잖아.

형원 엄마가 뭐래?

백 친구래. 그래서 그냥 믿기로 했어. 언니. 엄마 우리 안 버렸어.
(머쓱한) 아! 괜히 걸어간다 했어! (힐 벗는) 김형원! 챙겨 와!
(달린다)

#45. 동네 계단(밤)

백과 형원, 올라가는데. 홍, 올라가지 못한다.

형원 누나, (힘겹게 말 놓는) 안, 들어와?

홍, 결심한 듯 올라가려는데 마침 집을 나선 호진과 마주한다.

호진 (백과 형원, 인사하고 들어가면) 김 군.

홍 (홍, 올라가려다 말고) 안녕…하세요.

#46. 거리(밤)

멋쩍은 호진과, 거리 두고 떨어져 걷는 홍. 말없이 걷기만 하는 둘.

호진 저… 김 군. 할 말 있어?

홍 난 아저씨 안 좋아해요.

호진, 그러려니 이해한다.

홍 난 아빠를 싫어한 거지, 아저씨가 좋았던 적 없어요.
김백이랑은 달라서 의심도 많고 단순하지도 않아요.
김형원이랑 달라서 아저씨랑 서로 등 밀어줄 일도 없구요.
아저씨는 우연히, 엄마 병 발견한 거예요. 엄만 아저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랑하는 게 행복했던 거고.
상황이 웃겨서 웃었을 거고. 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호진 김 군. 김 군 말 맞아. 그러니까… 울지 마.

홍 (눈물 거칠게 훔치는) 그래도, 고맙단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허리 숙여) 고맙습니다.

CUT TO
터덜터덜 걷는 홍.

어디선가 거칠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47. 과거. 정매의 집/거실+방(새벽)

이른 새벽의 겨울, 거실에서 방직공장 점퍼를 벗지도 않고 자는 정매.
아끼는 검정 핸드백을 머리맡에 두고 코를 골고 있다.
방에서 공부하던 홍, 연결된 기기가 없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코 고는 소리가 신경 쓰이는데,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한참 후에도 조용하고.
홍, 재빨리 나가 정매에게 간다. 정매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는 홍.
대뜸 드르렁— 다시 코 고는 정매. 홍, 안심하는데.

아빠(E) 의대는 무슨!!!!

#48. 과거. 정매의 집/마당(새벽)

아빠, 술에 취해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다.
대야가 쏟아지고. 시끄러운 동네.
홍, 다급히 나와 아빠 데리고 가려는데. 머리채 잡힌다.

아빠 내가 의대 보낼 돈이 어딨냐! 그 돈 있음 나한테나 좀 줘봐.
계집애가 무슨. 적당히 돈 벌다 시집가면 되지.

홍, 이 악다물고 아빠 팔 잡아 들어가려는데.

아빠 (홍 밀치는) 야 이 개년아.
홍 …저 홍이에요. 아빠 딸.
아빠 (들리지도 않는다) 개년. 배운 것도 없는 거 데려다 살아줬더니.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바람이나 피는 년. 자식새끼 때문에 도망은
못 가고.
홍 (무섭지만 버틴다) 그만 하세요.
아빠 (홍 머리채 잡는) 애들이 널 보고 뭘 배우겠냐?

홍 (벗어나는) 아빠보단 많지.
정매 애한테 왜 그래! 술 마셨음 들어가서 자!

정매, 달려 나와 홍에게 달려드는 아빠를 떨어뜨려놓는다.

아빠 오냐. 니들이 편을 먹는다 이거지? (홍이 가리키며)
너, 너 대학 안 보내. 나도 너 같은 거한테 한 푼도 못 준다.
두고 봐 너. 내가 돈 안 준다는데 대학에 어떻게 가!!

아빠, 홍이를 때리려는데. 이번엔 정매가 아빠의 뺨을 때린다.

정매 (덜덜 떨며) 내 딸 손대지 마! 내 딸이여.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딸!
(집에서 나오는 백에게) 가서 엄마 가방 가지고 와. 얼른!

아빠한테 머리채가 잡힌 정매, 굴하지 않는다.

정매 (같이 머리채 잡는) 나한테 화내. 나한테! 왜 내 딸한테 그래!

#24의 홍이처럼,
이번엔 백이가 아빠의 허리를 잡고 정매에게서 떨어뜨리려 한다.
형원, 현관에 서서 아빠가 내는 큰소리에 움찔움찔하기만 하고.

아빠 세상에서 나처럼 불쌍한 놈이 어딨다고. 너 같은 거랑 만나서!!!

홍, 발끈해 달려들려는데.
정매, 백이 가지고 나온 검정 핸드백을 홍에게 던진다.

정매 (고함) 홍아 가. 얼른! 너는 나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가.

홍, 잠시 멍해 있다가. 가방 들고 뛰쳐나간다.

#49. 거리(밤)

여기 저기 쥐어터진 #48 과거의 홍, 죽어라 달린다.
#46에 이어, 현재의 홍이 저 멀리 이를 악물고 뛰어오는
과거의 홍과 마주하고.
과거의 홍, 현재의 홍을 스쳐 지나간다.

어린 홍(NAR) 엄마가 날 버리기 전에, 내가 엄말 버릴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홍, 뒤돌아보면.

#50. 과거. 부동산 앞(밤)

문을 닫으려던 호진. 새빨간 홍이의 발을 보고 놀란다.

호진 김 군! (얼른 자신의 신발을 홍에게 신겨준다)
홍 (횡설수설) 엄마. 우리 집. 엄마. 우리 집.
호진 여기 있어. 응? (하고 달려가는)

홍, 맨발로 달려가는 호진의 뒷모습을 보는데.

#51. 정매의 집/창고(밤)

#50 홍이 신은 호진의 신발을 보는 정매.
홍의 물건들이 담긴 박스를 정리하고 있다.
박스에서 꺼내진 물건들 중엔 정매의 낡은 검정 가방도 있다.
가슴 아린 정매, 슬쩍 호진의 신발을 쓸어보는데.

형원(E) 엄마! 큰누나 왔어!

정매, 창고를 나간다.

돌아와 잠시 멈칫하더니 호진의 신발을 쓰레기봉투에 넣는다.

#52. 정매의 집/마당(밤)

평상 위의 다섯 사람.
양푼에 흰 쌀밥. 정매는 김에 대충 밥과 반찬들을 싼다.
삼 남매, 아기 새라도 된 듯 일제히 입을 벌리면 정매가 하나씩 먹인다.
정매가 기혁의 입 앞에 김밥을 들이민다. 백의 남편, 쑥스럽다.

백 오빠가 외동이라 모르나 본데. 여긴 정글이야. 강한 놈만
살아남거든?
셋, 둘, 하…
기혁 (재빨리 받아먹는다) 감, 큽, 감사합니다 장모님.

화목한 분위기의 가족들.

#53. 정매의 집/거실+방(낮)

백이의 교과서, 형원의 카메라 등 집 안 곳곳 물건들이 쌓여 있다.
세균 하나라도 더 없애겠다는 양 꼼꼼히 청소하는 홍.
앉은 채로 몸을 끌어 장롱을 연 정매는 자신의 빨간 투피스를 꺼낸다.
화장대 거울에 옷을 대보는 정매. 수척한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붉은 옷.
머리를 정돈하려 손으로 빗는데, 극심한 두통이 밀려오고.
그대로 게워내는 정매.

정매 …홍아!

홍, 침착하고 재빠르게 방 한구석의 비닐봉지를 입에 대주고,
토사물을 받아낸다.
천천히 등을 두드리는 홍.
이내 정매의 구역질이 잦아들면… 얼른 걸레로 토사물 훔쳐낸다.

홍　(멍하니 정매 보다가) 엄마. 우리 바다 갈까?

#54. 바다(낮)

붉은 투피스를 입은 정매. 화사하게 화장도 했다.
바다를 거닐던 정매와 아이들. 형원은 계속해 정매를 카메라에 담는다.
아이들, 해안가에 밀려오는 파도에 서로를 밀치며 노는데.
맨발의 정매, 하염없이 바다만 보고 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바다로 들어간다.

형원　누나!!!!!!

바다로 들어가던 정매를 뒤에서 안는 백.
홍은 놀라 자리에 철퍼덕 넘어진다.
놀란 네 사람,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 파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

#55. 달리는 차 안(낮)

운전 중인 홍과, 조수석에 앉은 백. 쫄딱 젖은 네 사람.
뒷자리 정매는 형원의 무릎을 베고 자는 척 중이다.
정매만 옷을 갈아입었고.
정매의 위엔 담요를 잔뜩 덮어놓았다.
숨죽이며 우는 형원과 창밖만 보는 백.

홍　(달래는) 울지 마. 말기 환자들 중에 환각 보는 사람들 많아.
엄마가 외할머니가 보고 싶었나…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고)

백, 라디오 켜버린다. 흘러나오는 곡, 밥 딜런의 ‹노킹 온 헤븐스 도어›.

정매　(손끝으로 시트 톡톡 때리는) 노래 좋네.

#56. 동네 계단(밤)

형원, 지친 정매를 업고 올라간다.
홍, 정매의 짐 가방을 들고 따라 올라가는.
계속해 밥 딜런 노래 흥얼거리는데, 그것도 후렴 부분밖에 모른다.

정매　(흥얼거리다가) 아들, 무거워?
형원　(울까 봐) 아니. (정적 이어지면)
백　(분위기 푸는) 그래~ 언니는 돈 써, 나는 머리 써,
너는 몸이라도 써!

#57. 정매의 집/거실(밤)

소파에 길게 누워 자는 정매.
정매와 소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백.
정매의 등에 얼굴을 묻는다.
홍, TV 옆에 있던 탁상달력 보는데,
정매가 날마다 적어놓은 혈압수치들 보인다.

정매　(잠에서 깨) 좁아!
백　이렇게 있을 건데~

형원, 소파 아래서 과일을 작게 깎아 접시에 놓는다.
정매, 자리에 앉더니.

정매　있잖아. 엄마 죽으면 오늘 간 바다에도 뿌려줘.

홍은 아무 말 없이 TV만 보고 있고. 형원, 과일을 차마 깎지 못하고.

백　(울음기 가득하다) 엄마, 꼭 그 말을 해야 해?

백, 울면서 자리를 뜬다. 형원도 나가버리고.

홍　(남몰래 눈물 닦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과일 먹을래, 엄마?
정매　…홍아. 애들한테 가봐.

#58. 정매의 집/마당(밤)

히끅히끅 우는 소리 들린다. 홍, 다가가보면. 담벼락에 기대 우는 형원과 백.

형원　(서럽고 서운한) 아프고 나서 우는 걸 본 적이 없어.
백　왜 저렇게 태평해? 언니, 엄마 우릴 떠나는 게 아무렇지 않나 봐.

둘 사이에 앉는 홍. 동생들을 안아준다. 홍에게 안겨 우는 백과 형원.

홍　엄마 검정 백 알지? 그거, 결혼할 때 외할머니가 자기 패물 팔아서
사준 거야. 나중에 도망이라도 가라고 사줬다는데, 웃겨 정말…
애들아. (단단하게 애들을 안지만, 본인도 무섭다) 엄마도…
우리 떠나는 건 처음이야. 우리까지 엄마 무섭게 하진 말자.

#59. 몽타주. 정매네의 일상

방. 정매의 바지를 입은 백. 허리를 억지로 크게 줄여놓은 박음질이 보인다.
한숨을 폭, 쉬는 백. 웃으며 거실로 나간다.
거실. 병상을 거실로 옮겨놨다. 정매 옆에서 자는 홍. 밤늦게 들어온 형원이
가방만 내려놓고 살금살금 욕실로 들어가고.
욕실. 게워내는 정매. 홍이 옆에서 정매의 등을 쓸어내린다.
욕실. 씻다가 우는 형원. “괜찮아”를 연달아 말하며 표정관리 하고 나간다.

#60. 정매의 집/주방(낮)

형원, 겉절이를 만드는 중이다. 의자에 앉아 지켜보는 정매.

형원　(배추 썰어 보여주는) 이 정도?
정매　파랑 고추도 좀 씻쳐봐.
홍이 너는 양념해. 액젓이랑, 다진 마늘 넣고.
홍　액젓은 얼마나 넣어? 멸치액젓?
정매　(손가락으로 2 만든다) 고춧가루는 한 세 번 넣어.
매실도 있음 한 큰술 넣고. 글고 마지막엔 참기름이랑 깨 치고.
홍　(따라 하다 멈춘다) 까먹을 것 같은데.
정매　(작은 배추를 한참이나 오물거리다가)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
철 되면 딱,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을란께.

홍, 형원. 하던 일 멈췄다가. 동시에 킬킬대는 셋.

#61. 정매의 집/거실(밤)

정매, 형원이 찍은 정매의 사진들을 보다가 잠들었다.
그 주변에서 자는 백과 형원.
홍은 자는 정매의 코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댄다.
안심하고. 병상 바로 아래 눕고.

CUT TO
깜빡 잠든 홍이 눈을 뜨면. 자신을 보고 있는 정매가 보인다.
정매, 죽음이 머지않아 보인다.

홍　엄마?
정매　(쉿! 하고) 매화가 폈어. 빨갛고 하얀 매화.
홍　무슨 소리야?

홍, 창밖을 보는데, 낙엽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다 문득 울컥한 홍.

정매　(환각 보는) 안 보이냐? (나가려는) 내 눈엔 여간 잘 보인디.
홍　(눕히려는) 아침에 보자 엄마.
정매　아가. 부엌에 그릇 넣어둔 칸 있지. 그 칸 가장 안쪽에… 엄마

보험이랑 통장 있어. 엄마 패물도 있은께 너가 정리해줘.

홍, 열심히 고개 가로젓는다. 정매, 홍의 얼굴을 감싸 자신 보게 하고.
쇳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게 힘들어도 이상하게 기력이 넘친다.

정매 엄마 요즘 열심히 기도해. 아프지 않게 데리고 가라고.
자고 있을 때, 너네 깨우지 말고 데리고 가라고.
신이란디 그거 하나는 들어줘야제. 글지? (사이) 홍아.

홍 …응.

정매 바람 좀 쐬자.

#62. 정매의 집/마당(밤)

정매, 옷을 여러 겹 덧입고. 휠체어 탄 채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본다.
정매, 일어나 나무 향해 가는데. 아파 보이지 않는다.

홍 애들 책임질게. 형원이 대학 졸업하려면 아직 좀 있어야 하니까.
내가 광주 내려와서 자리 잡고, 일하면서…

정매 (단호한) 아니. 애들 다 컸어. 니 인생 살아. 애들 책임질 필요 없다.
엄마 책임질 필요는 더더욱 없고. 니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홍 엄마 때문 아니야.

정매 (나무 쓰다듬는)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디. 알면서… 용기가
안 났어. 용기를 내야 헌디, 엄마 삶이 팍팍해서. 니한테 큰 짐을
지웠다. 천금 같은 내 새끼한테. 미안혀 우리 딸.

홍 (분위기 풀려는) 후회하는 게 있어.
엄마랑 우리랑 밤에 도망쳤을 땐데.

정매 (호응해주는) 그런 날은 너무 많아야?

홍 (웃는) 그날 놀이터에 숨었거든? 아빠 자면 들어가려고. 내가 아빠
밥 먹었을까, 불쌍하다 했다? 미안해. 엄마가 우릴 버리고 갈까 봐
그랬어. 알잖아.나 이기적인 거. 엄마도 버리고 가는 나쁜 년인데.
암튼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후회하는 말이야.

정매 첫 번째는 뭔디?

홍, 말 못 하고 있으면.

정매 나도 있지. 언제였더라. 뭐 백이가 아팠던가 그랬는디.
하여간 니 아빠랑 싸우는데, 쥐콩만 한 게 튀어나와서 아빠를
여간 세게 밀치냐? 도망가라고 아주 소리 소리를 지르는디. 왐마.

홍 기억나.

정매 그 인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너가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게… 후회돼. 며칠 있다가… 갖고 있던 돈 다 써서…
집에 갔는데. 니 등에…

#63. 회상. 정매의 집/마당(낮)(#25의 상황)

머리가 산발인 정매, 조심히 들어온다.
매실을 줍고 다니는 홍이를 부르려는데.
매실을 줍는 홍이의 등짝엔 성인 남성의 신발자국이 제대로 찍혀 있다.

정매(E) (울컥한) 신발자국이 떡하니 찍혀 있냐. 망할 인간.
지 새끼를 어떻게 밟어. 그거 털겠다고 니 등을 때렸는디.
그때 홍아, 엄마는 니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64. 정매의 집/마당(밤)

정매, 그때의 홍이를 보는 듯 아파하고.

홍 그러고 보면 참… 훌륭한 인질이었어. 우리가? (정매 안는) 엄마.

정매 오야.

홍 우리 놔두고, 아저씨랑 도망가고 싶었던 적 없었는가?

정매 있제.

홍 아따 겁나 아슬아슬했네잉.

정매 도망가고 싶다가도 니 등짝만 보면… (눈물 참는) 아이고,
환장하겄네.

홍　(정매 업어주려는) 이 등짝만 보면 도망을 못 가겠다 이거제?
업혀~ 엄마 천국 못 가게 내가 딱 잡고 있을란께.

정매, 홍에게 업히고. 홍, 천천히 마당을 돈다.

정매　홍아. 엄마는… 매화 피는 것만 보고 갔음 쓰겠다. 준비는 됐응게…
홍　(우는) 난 안 됐어.

#65. 정매의 집(아침)

새가 지저귀는 평온한 아침. 집 안엔 따스한 햇볕이 가득하다.
파인 방 문턱, 고장 난 정매의 옷장문과 삼 남매의 성장 과정이 담긴 작은 사진 등, 집 안 곳곳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보인다. 벽에 붙은 종이를 비추면.

INSERT
큰 새를 따라가는 세 마리의 새끼 새 그림. '나의 장례희망'이라 씌었다.
그 옆엔 초록 크레파스로 나무를 그려놨다. '쉼터' 라고 쓰여 있고.

투피스 정장을 입고 불편하게 자는 백과, 새우잠을 자는 형원.
이때, 뒤척이며 깨는 홍. 기지개하는데, 불현듯 불안감이 밀려온다.
옆을 보면 평온한 정매가 보인다. 정매 코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홍.
이어 정매의 심장에 귀를 바짝 붙인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처럼 우는 홍.

#66. 동네 계단(낮)

정매의 집 앞, 담벼락에 붙은 '김정매'의 호패.
담벼락의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정매의 호패 옆엔 나무판에 서툴게 음각 처리된 호패 셋.
'김홍', '김백', '김형원'
대문을 나서는 사람들. 관을 옮기듯, 매화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형원, 백, 호진 아저씨와 기혁, 동네 주민들이 뒤따르고.
홍이가 맨 앞에서 나무를 든다.

정매(NAR)　애들아. 밥 잘 챙겨 먹어라. 먹어야 힘을 쓰제.

#67. 화장터 앞(낮)(#1 연결)

춤을 추는 아이들. 새가 될 정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춘다.

정매(NAR)　많이 웃고, 많이 울고. 그러다 가끔. 가끔 엄마 생각 좀 하고.

#68. 바다(밤)

형원, 아무도 없는 바다에 멍하니 해변에 앉아 있다.

정매(NAR)　산다는 게… 이 나이가 돼도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겄드라.
난줄 아플 걸 알았겄냐. 그랬음 애진작에 집 팔아블고 하고 싶던 여행이나 갔을 건디. 그래도 애들아. 계속 가야 헌다.

형원, 준비된 듯 정매의 편지로 접어둔 약 종이를 꺼낸다.
주위를 둘러보고, 약 종이를 바다에 탈탈 턴다. 조용히 '잘 가'라는 형원.

#69. 백의 집/마당(낮)

작은 주택, 마당에 심어진 정매의 매화나무. 기혁에게 기대 우는 백.

기혁　내가 할까?
정매(NAR)　엄만 너네 그라고 키웠은께… 니네 인생 살라고. 넘어져도 일어나라고.
백　내가 해. 내 엄마니까. (나무 아래 파고 살살 정매 분골 털어 넣는)

#70. 산(낮)

집 안 선산, 묘지 몇 개가 열과 행을 맞춰 있다. 그중 하나 앞에 선 홍이.
손에는 정매의 편지 들려 있고. 가래침을 거하게 모으는 홍.
가래를 뱉으려는데...

정매(NAR) 너넨 엄마 말 잘 들은께… 그럴 거여. 글제?

차마 뱉지를 못한다. “으— 으!” 무덤만 발로 구르다 돌아서는 홍.

#71. 과거. 홍의 오피스텔(밤)(과거+현재)

사람 손이 안 탄 오피스텔, 주방 식탁엔 알림판이 하나 놓여 있다.
알림판에 가득한 종이들. 정매의 쪽지들이다.

INSERT
쪽지 내용, ‘체할 때 머글 꺼. 매실’, ‘고구마 신문에 감싸라.
귀찬타고 생각 말고 하나씩 감싸라.’,
‘표고버섯은 한 번 뿔려서 먹어라. 마싯다.’, ‘똥’

쪽지가 나뭇잎 떨어지듯 하나씩 떨어지고, 다시 새로 붙이는 과정이 반복된다.
냉장고를 열어 안을 보던 홍, 잠이 덜 깬 채 통화 중이다.
오래 열렸다는 냉장고 알람음. 하지만 홍이는 멍하니 서 있다.

홍 뭐라구?
정매(F) 엄마, 암이란다. 홍아… 홍아… 엄마 죽는단다…
(하며 펑펑 우는)
홍아 엄마 무서워. 엄마한테 와줘. 보고 싶어 내 새끼.
엄마 너무 무서워. 너희 두고 어찌 갈까. 홍아…

CUT TO
현재, 냉장고 들여다보는 홍.

냉장고엔 도자기단지 들어 있다. 한참을 들여다보면.

백(E) 매실 가지고 오라니까 뭐해?

홍, 도자기단지 꺼낸다.
홍이 뒤돌면, 왁자지껄한 홍의 오피스텔.
형원이 음식 만들면, 백이는 옆에서 뺏어먹는다.
기혁이 음식을 나르고.
호진, 아이랑 놀고 있다.
도자기단지를 소중하게, 그리고 뿌듯하게 감싸 안는 홍.

끝.

작가 후기

매화 진 자리를 시작할 때처럼 지금 제 입엔 오징어 다리가 물려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드라마가 뭔지 더더욱 모르겠단 겁니다.
점점 이에 씹히는 이 구리구리한 기분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글이라는 게 참 어렵기만 합니다. 이젠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게 어휴, 환장하겠네요.
'드라마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당선이 되고도 답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엉엉 울고 싶은데 쪽팔려서 그러지도 못하구요.
결국 요 몇 년을 묶어 가장 사춘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별 도리가 있나요.
그냥 써야죠, 지금껏 했던 것처럼.
전 드라마를 쓰는 동안 계속 저 질문을 던지고,
답이 없는 질문에 허우적댈 겁니다.
그때마다 처음 이 고난을 건네준 오펜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펜 식구들뿐 아니라 한 분 한 분 감사함을 말하고 싶은데요.
직접 전하는 게 더 큰 도전인 사람이라…
찾아뵙고 감사하단 인사 전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글은 오타를 수정해 올리는 당선작입니다.
하찮은 신념일수도 있고, 수정에서 도피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모자란 글을 써낸 주제에 부탁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분명 존재할 정매와 홍, 백과 형원이 행복하길 바라주세요.

번쾌의 난

김혜정

작의

인사과 야망녀 윤희진. 승진을 위해, 무임승차 중인 꼰대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추진하는데. 어라?! 정리해고자 명단에 뜬 건 꼰대들이 아닌 내 남편! 승진이냐, 남편이냐, 희진의 위험한 외줄타기가 시작된다!

"무슨 일 하세요?"라고 누가 물으면 다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라고 말한다. 과연 평범한 직장생활이라는 게 있을까? 쏟아지는 업무, 밀려오는 스트레스, 도처에 깔려 있는 적들, 모르면 바보 되는 사내 정치까지.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도 뭐 하나 한 방에 가는 일도 없다. 마음 같아서는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지만, 현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 우리.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말로 하자니 치사하고, 참자니 원통한 백만 가지 감정들을 가슴에 안고 퇴근했을 당신. 이 드라마를 안주 삼아 맥주 한 캔 하면서 힘겨운 하루를 보낸 동지들이 여기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느꼈으면 한다.

등장인물

윤희진(37세, 여) 태강 그룹 인사과 과장
똑똑하고 다부진 성격이며, 회사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큰 인물이다. 회사의 조직 문화가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정리해고안을 기획한다.

오진호(40세, 남) 태강 전자 모바일 사업부 책임 연구원
다소 소심하고 수동적인 성격이다. 윤희진과 입사 동기이자 부부 사이. 모바일 연구소가 세종시로 이전해 현재는 주말 부부이다.

강 전무(53세, 남) 태강 그룹 기획 조정실 전무
냉철하고 침착한 성격의 기획 조정실 전무. 사내 정치에 대한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 사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윤희진과 뜻을 같이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훈희(50세, 남) 태강 그룹 인사과 부장

별명 조레기. 부하 직원에게 서슴지 않고 막말을 던지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지만, 윗사람에게는 입안의 혀가 따로 없다.
특히, 인사실장인 노 상무의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상무 라인.
똑 부러지는 성격에 할 말을 하는 윤희진과의 사이가 매우 안 좋다.

신광수(42세, 남) 태강 전자 모바일 사업부 책임 연구원

매우 똑똑하고 성실하며, 자존감이 강한 인물이다.
윤희진, 오진호와 입사 동기다.

김윤서(39세, 여) 신광수의 아내

윤희진, 오진호, 신광수와 입사 동기이다. 착하고 정이 많은 성격.
원래 태강 전자 모바일 사업부 개발자였지만,
현재는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살아간다.

최일류(45세, 남) 태강 그룹 회장

전임 회장의 급작스러운 와병으로 3개월 전 갑자기 태강 그룹 회장으로 부임.
4대째 이어온 가업인 태강 그룹의 부활과 가업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강하다.

그 외

교육 지원팀 한상진 차장, 인사 실장 노승준 상무, 오진호의 동료 이동렬,
정 팀장, 김 대리 등

줄거리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태강. 인간 중심, 정도 경영이 기업의 모토이긴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부진으로 태강 전자의 손실이 만만치 않다. 인사과 과장
희진은 태강 그룹의 위기는 나태한 기업 문화 때문이라 판단하고 의욕적으로
정리해고안을 제시하지만, 4대째 정년을 보장해온 보수적인 기업 문화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유일하게 희진을 지지해주는
강 전무의 전폭적 지원 덕분에 정리해고안을 강행하게 되고,
파격적인 승진까지 보장받는다. 탄탄대로를 눈앞에 둔 그 순간,
남편인 진호가 자신이 설계한 정리해고의 대상자가 됐다는 걸 알게 된 희진,
충격에 빠지는데. 아직 회장의 최종 컨펌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
희진은 본인의 성공을 위해 정리해고안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남편을 살리기 위해 포기할 것인가?

번쾌의 난
김혜정

#1. 할매네(밤)

시끌시끌한 식당 한쪽에 식탁 여러 개 붙이고 앉아 있는 진호 팀 사람들.
한창 떠들고 있는데 다들 취했다.
그때 동렬의 전화벨 울리자 액정에 '쏘패' 뜨고.

동렬 (자살골 먹은 표정으로 '통화' 터치) 네, 팀장님.
(사이) 여기 할매넨데요. (사이) 네, 살펴 오십쇼.

동렬이 전화 끊자 팀원들 탄식하는데, 진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진호 (시계추처럼 상체 흔들며) 야! 나 소시오패스랑 겸상 못 해! 간다!
동렬 (진호 니트 당겨 앉히며) 앉아, 형. 아침에 소패한테 쪼였다매.
여기서 풀어, 기냥. 소패가 뒤끝은 없자너.
진호 야, 2분 지각했다, 2분.
그게 뭐라고 아침부터 사람을 개 잡듯 잡고 말이야… 쏘패 시끼…

그때, 식당 문 열리면서 정 팀장 들어온다. 다들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인사하고, 정 팀장, 진호 맞은편에 비어 있는 자리에 앉는다.

동렬 (소주병 들며) 팀장님, 한잔하시죠.
정 팀장 (술 받고, 소주병 건네받아 진호에게) 진호, 한잔 받아라.
진호 (팀장 안 보려 고개 숙이고 있다가 놀라 천천히 고개 든다) …
정 팀장 (소주병 흔들며) 받아. 팔 아파.
진호 (잔 내밀며) 네…

CUT TO
팀원들 다 가버리고 정 팀장과 진호만 남아 있고. 진호, 정 팀장 옆에 붙어
앉아 팀장 가슴에 얼굴 파묻고 칭얼거리고 있다.

진호 형~ 내가 형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정 팀장 (진호의 머리 쥐어뜯듯이 쓰다듬으며) 야~ 오진호 이 새끼!
내가… 새끼야… 너 이씨… 미안하다…
진호 아냐~ 아냐~
(손바닥으로 자기 가슴 쩍쩍 때리며) 내가! 내가 더 잘 하께, 형!

두 사람 부둥켜안고 버둥거리는데. 주인 할매 그 모습 바라보다가.

할매 아휴… 아주 지랄을 헌다. (알바생 보며) 야, 대리 불러.

#2. 할매네 앞(밤)

진호 낑낑거리며 정 팀장을 뒷좌석에 밀어 넣고 차 문 닫는데.
차창 열리며 정 팀장 얼굴 튀어나온다.

정 팀장 타, 오피스텔에 떨궈주께!
진호 오피스텔 가봤자 마누라도 없는데요, 뭘… 그냥 회사 가서 잘게요.
(경례 붙이며) 들어가십쇼! 단!결!

#3. 세종 모바일 연구소/수면실(밤)

협소한 침대에서 팬티 바람으로 자고 있던 진호, 뭔가 불편한 듯 뒤척이다
더듬더듬 핸드폰을 찾아 액정 보는데, 5시.

진호 (다리에 휘감긴 이불 박차며) 아유… 더워… 뭔 난방을…

#4. 태강 세종 모바일 연구소/사무실(밤)

전면 유리로 된 사무실. 안쪽 구석 수면실 문 열고 나타나는 진호. 어둠 속에서
어슬렁거리며 걸어와 자기 자리에 스탠드 켜고 앉는다.

잠시 멍 치고 있던 진호의 시야에 책상 구석에 놓인 유리공이 들어오고.
잠시 보다가 손 뻗어 집어 든다.

INSERT
유리공에 새겨진 글씨.
'태강 신입사원 교육 —최고 팀워크상— 김윤서, 신광수, 오진호, 윤희진'

INSERT
회상. 신입사원 교육 시절. 앳된 모습의 진호, 희진, 광수, 윤서, 무거워
보이는 군장을 메고 행군 중인데, 앉아 쉴 만한 바위가 나타나자 진호 그대로
기어가서 바위 위에 뻗고.

진호 아휴~ 난 더 이상 못 가겠어! 먼저들 가.
희진 아직 1키로도 안 왔거든. 엄살 피우지 말고 가자.
윤서 (군장 뒤지며) 물 줄까?
광수 (진호 군장 벗겨 자기 배에 메고) 야, 우리 회사 모토가 뭐냐.
인간 중심 정도 경영 아니냐. 우리가 너 혼자 두고 갈 거 같아?
(진호 일으키며) 천천히 가도 함께 가는 게 정도니라.

현재.
아련하게 씩 웃던 진호, 유리공 다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는 사무실 나가고.
유리공, 받침대에 잘못 걸쳐져 위태로워 보인다.

#5. 태강 세종 모바일 연구소/화장실+사무실 앞 복도(밤)

진호, 화장실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용무 보고 사무실로 돌아와 유리문을
당기는데 열리지 않는다. 당황한 진호, 유리문을 흔들어보지만 꿈쩍도 않고.

진호 (손잡이 옆 카드 인식기 보고) 아, 아이디카드!
(헐벗은 자기 상태 확인하고) 아… 씨…

추워서 덜덜 떨던 진호의 시선이 한 곳에 가 멈춘다.

캄캄한 사무실에 핀 조명을 쏜 듯 환한 자신의 자리.
볼록 튀어나온 배 위에 두 손 얹고 멍하게 바라본다.

진호 태강에 들어와 보겠다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이제 떡~ 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네… 장하다, 오진호.
(다시 덜덜 떨며)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 왜 가서 앉지를 못하냐….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자신의 자리를 바라보는 진호.
진호의 입김이 유리창에 서리자 진호 자리가 뿌연 서리 속으로 사라지고.

INSERT
그때, 진호의 책상 위에 꽂혀 있던 책 한 권 옆으로 쓰러지면서 유리공
건드린다. 유리공, 받침대를 벗어나 데굴데굴 구르더니 '퍽!' 바닥에 산산조각
나고. 흩어졌던 유리 조각들이 움직이더니 글자를 만든다.

타이틀. ‹번쾌의 난›

#6. 태강 본사/인사과 사무실(낮)

일과 시작으로 분주한 사무실. 희진, 복도를 지나 인사과로 들어서는데.
그때, 희진의 시야에 들어오는 조 부장 얼굴. 벌겋게 상기돼 잡아먹을 듯
희진에게 달려든다.

조 부장 야,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니미, 공채 합격자 발표가 장난이야?
합격자랑 불합격자를 거꾸로 통보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어?!
희진 (침착, 김 대리에게) 어떻게 된 거야?
김 대리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대로 결재 올렸는데….
조 부장 뭐? 제대로 올려? 지금 사달 난 거 안 보여?
희진 (침착) 2차, 3차까지 검토한 내용입니다. 착오가 나도 다른 쪽에서
났을 겁니다. (김 대리에게) 서버 관리팀 연락했어?
김 대리 네, 지금 전산 기록 확인 중이랍니다.
조 부장 야! 이번 공채에서 떨어진 게 몇 명이야?

희진　전국 만 이천 명입니다.

조 부장　(희진 이마 검지로 밀며) 그래, 만 이천 명! 무려 만 이천 명한테 태강 합격 통지를 보내? 니 목 위에 붙어 있는 거, 그건 머리가 아니라 똥통이냐?! 어?!

희진　(분노 누르며) 언행 삼가주십시오, 부장님.

고성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조 부장 무안해서 더 펄쩍 뛰며.

조 부장　뭐어? 아니, 내가 딸 같아서 충고 한마디 하겠다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언행을 삼가?!

노 상무(E)　(날카롭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씩씩대며 들이닥친 노 상무의 등장에 놀라는 조 부장과 희진, 김 대리.

노 상무　(조 부장에게)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조 부장　(노 상무에게 엉겨 붙으며) 상무님 나오셨습니까. 그게… (슬쩍 희진 째려보고)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노 상무　강 전무가 나 견제하는 거 몰라? 당신 누구 라인이야? 강 전무 라인으로 갈아타고 지금 나 엿 멕이는 거야?

조 부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실은… 윤 과장이 합격자랑 불합격자를 거꾸로 결재를 올리는 바람에…

희진　(놀라 조 부장 보는데)…

노 상무　(희진 노려보며) 뭐야?! 윤 과장,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희진　(황당) 부장님! 그게 무슨…

조 부장　(O.L.) 자넨 가만있어. 어디, 윗사람이 보고하는 데 입을 놀려! (노 상무에게) 아랫사람 불찰도 다 제 불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직접 사과 성명 내고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노 상무　(한풀 꺾여) 강 전무한테도 직접 보고하는 거 잊지 말고.

조 부장　아유, 당연한 말씀이지요. (희진에게) 뭐해, 사과드리지 않고!

희진　(입 꾹 다물고 땅만 보며)…

노 상무　(못마땅) 됐고! 윤 과장이랑 김 대리, 시말서 제출해!

희진　…

조 부장　(노 상무 눈치 보며 희진에게) 뭐해, 얼른 대답하지 않고!!

강 전무(E)　무슨 일인가?

일동 돌아보면 기품 넘치는 강 전무 서 있다.

노 상무　(당황) 전무님 나오셨습니까! 그게…

그때 전화벨 울리고.

김 대리　(급히 받고) 네, 인사과 김준희입니다. (사이) 네. (사이) 네, 알겠습니다. (끊고 조 부장 눈치 살피는데)

희진　(불안한 눈빛) …뭐래?

김 대리　…그게… 부장님께서 결재하시는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었다고….

조 부장　(전무, 상무 눈치 보며) 그, 그럴 리가 없는데… (희진 슬쩍 째려보며) 윤 과장이 나 모르게 결재한 거 아냐?

희진(NAR)　하… 그게 전무님 앞에서 할 소리니?

강 전무　조 부장.

조 부장　(버쩍 얼어) 네, 전무님.

강 전무　결재권자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조 부장　(당황) 아, 네… 그게… 그러니까…

강 전무　(조 부장 어깨 토닥이지만 굳은 표정) 태강의 브랜드 가치까지 무너뜨리는 실수는 없어야 하지 않겠나.

조 부장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

강 전무　(O.L.) (노 상무에게) 가지.

#7. 태강 본사/복도(낮)

강 전무의 한 걸음 뒤에 따라오는 노 상무.
두 사람 엘리베이터 앞에 나란히 서는데.

강 전무　지금 실검 1위가 태강 합격자 발표더군.

노 상무　…면목 없습니다…

강 전무　나한테 면목 없을 거 뭐 있나. 임원 인사… 다음 분기라고 했나?

노 상무　(심기 불편) …네

강 전무　(나직이) 젖은 장작에 불쏘시개 얹어달라고 하는 거.
그게 면목 없는 짓 아니겠나.

노 상무　(순간 차갑게 식는 표정) …

강 전무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타지.

노 상무　먼저 올라가시지요. 전 남은 일이 있… (O.L.)

그대로 닫히는 엘리베이터. 노 상무, 엘리베이터를 노려본다.

노 상무　건방진 놈…

#8. 태강 본사/비상계단(낮)

초조한 낯빛의 노 상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조 부장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비상계단으로 들어온다.

노 상무　(소근) 아, 어떻게 된 거야!

조 부장　(난처,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상무님! 조카분을 합격으로
바꿔놓는다는 게 그만 전체 합불을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노 상무　윤 과장 그 빠꼼이가 눈치챈 거 아냐?

조 부장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9. 희진의 집/거실(밤)

호중과 정현, 이 방 저 방 뛰어다니는데.
희진과 윤서, 티타임 중이고 진호와 광수, 야구 경기에 열 올리고 있다.

윤서　정말? 조 부장이 이젠 인사 청탁까지 받는단 말야?

희진　말도 마. 진짜 그 인간은 나쁜 쪽으로는 진화 능력이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해. 완전 암세포야! 암세포.

윤서　호중 아빠 세종으로 내려가서 혼자 애 보기도 힘들 텐데
조 부장까지 거들어서 어쩐다니. 주말 부부 쉽지 않지?

희진　핸드폰 사업도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거지 뭐. (부럽) 언닌 좋겠다.
광수 오빠가 떡하니 중앙 연구소로 갔으니. 광수 오빠, 좋죠?

광수　(빙긋이 웃고) …

희진　중앙 연구소에 남는 자리 없어요? 이건 뭐 회사가 아니라 지옥이야,
지옥. (얼음물 벌컥 마시고 얼음 씹어대고)

진호　아유, 자기야, 그러다 라미네이트 나가. 그게 얼마짜린데…

희진　지금 라미네이트가 문제니? 피가 거꾸로 솟는데?

광수　(혼잣말) 여기두… 지옥이야…

#10. 태강 본사/전무실(낮)

강 전무, 노 상무, 조 부장, 소파에 앉아 있다.

강 전무　태강 창립 이래 최악의 상황입니다. 경영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회장님께서도 해결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노 상무　계속 푸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 전무　조 부장.

조 부장　(멍 치고 있다 놀라) 네.

강 전무　이 상황에서 인사과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봤나?

조 부장　(당황해서) 경영실적이 저조한 게… 내부 원인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이라…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텨보는 게….

강 전무　브레인스토밍 어떤가?

조 부장　네?

강 전무　인사과 직원들이 모여서 직급에 관계없이
해결방안을 쏟아내보는 거지.

조 부장(NAR)　(떨떠름하게) 왜 자꾸 일을 벌려….
네, 진행하겠습니다.

#11. 태강 본사/회의실(낮)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인사과 사람들. 브레인스토밍 중이다.
관심 없는 듯 멍 치고 있는 조 부장과 노 상무.
회의실 구석 창틀에 걸터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 강 전무.

김 대리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면 사원들의 사기 진작도 되고, 신입 지원자들도 몰리게 돼서 우수 인재 영입과 기업 경쟁력 강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희진 (조 부장 슬쩍 보고) GE의 CEO 잭 웰치는 사원들 중 하위 10프로를 꾸준히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GE의 시장가치는 40배나 올라갔죠. 평생 고용을 보장해주신 회장님의 뜻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게 오히려 사원들의 자기 개발 의지를 퇴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고인 피를 뽑아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창밖을 보고 있던 강 전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희진을 바라본다.

노 상무 (못마땅) 윤 과장, 지금 정리해고라도 하자는 겁니까?

희진 자유롭게 안을 낸 겁니다. 태강의 주력 사업인 핸드폰의 부진을 보십시오. 이번에 출시된 TG 7도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태강 전자만이라도 정리해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부장 (버럭) 야! 우리 회사가 대대로 고수해온 경영 철학이 뭐야?!

희진 (침착) 인간 중심 정도 경영입니다.

조 부장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정리해고를 해결책이라고 갖고 와? 너 계속…

희진 (O.L.) 윤 과장입니다. 직급으로 불러주십시오, 부장님.

조 부장 (눈 부릅뜨고) 이게 또 어디서! 하여간 여자들은 이래서 문제야. 어디서 같지도 않은 인터넷 기사 몇 줄 읽고 쪼르르 달려와서는…

희진 (O.L.) 부장님, 지금 브레인스토밍 중이잖습니까? 다른 사람 의견을 비판하시면 안 되죠!

조 부장 야! 그러는 넌 왜 날 비판해! (부라리며) 이게 어디서 되바라지게!

니미, 너부터 잘라야지 안 되겠다! 넌 그냥 애 똥 기저귀나 빨아!

희진 (분노 게이지 쫙 오르고) 지금 말씀 다 하셨습니까!

희진, 벌떡 일어나자 조 부장도 희진 쪽으로 삿대질하며 쫓아온다.
두 사람 멱살이라도 잡을 듯 가까워지자, 김 대리가 희진 안아 돌려세우고,
사원들이 조 부장 뜯어말리느라 엉망 된 회의실.

CUT TO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 희진, 분한 듯 앉아 눈물 찍고 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강 전무.

강 전무 (따뜻한 미소 머금고) 괜찮나.

희진 (놀라) 전무님! (얼굴 붉히며) 죄송합니다.

강 전무 죄송하긴. (가만히 희진 보다) 근데… 10프로는 너무 과하군.

희진 (?! 놀라 강 전무 표정 살피다가 정신 들어) 3프롭니다! 인재의 선순환을 위한 최소한의 3프로만…

강 전무 (흥미로운 듯) 하위 3프로 제거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희진 (찬스다!) 보고서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강 전무 (흐뭇하게 희진 보며) 젊은 친구가 강단이 있어. 이번 건 디벨롭해서 전무 직보로 진행해봐.

희진 (벅차) 네!

희진, 전무에게 꾸벅 인사하면, 푸근한 미소 짓는 강 전무의 얼굴.

#12. 태강 본사/여직원 휴게실(낮)

김 대리, 큰 잔에 냉수 찰찰 넘치게 받는데, 문 벌컥 열고 들어오는 희진.
소파로 달려가 쿠션에 얼굴 박고 무음 샤우팅 발산하며 몸부림친다.
김 대리, 찬물 들고 대기하고.

김 대리 (딱하다) 그걸로 되겠어요? 어떻게, 오늘 지대로 한번 달려봐요?

희진 (벌떡 얼굴 드는데 환희에 찬 표정) 김 대리, 아니, 준희야, 짐 싸.

이제 우리 헬 탈출이야!

김 대리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사표 내시게요?

희진 (환희에 젖어) 강 전무가…

김 대리 전무님이 사표 쓰래요?

희진 전무님이 나한테… 전무 직보로 진행하래…

김 대리 뭘 전무 직보로 진행해요?

희진 정리해고 말이야, 나보고 추진하래!!

김 대리 진짜요?! 그럼, 진짜 전무라인 잡으신 거예요?!

희진 (목소리 낮추며) 쉿! 대외비로 진행하라시니까 입단속 잘해.

김 대리 (소리 낮춰) 그럼 저도 이제 전무 라인 꼬랑지 등극인가요?

희진 당연하지. 같이 가자 준희야.

#13. 희진의 집/거실+현관(밤)

잠옷 바람의 진호와 호중, 소파에 늘어져 있고 희진, 노트북만 파고 있다.

진호 뭐, 호떡집에 불났어? 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희진 (휙 돌아보며 신나서) 그게 있잖아, 나… (아직 이르다) 아니다.
나중에. (다시 일하려다) 참, 자기, 이번 고과 문제없지?

진호 (움찔) 어? 어… 뭐… 쏘쏘야, 쏘쏘. (말 돌리며) 호중이 콜라 줘?

호중 (팔짝 뛰며) 응!

희진 하긴, 자기야 머리도 꼬리도 다 싫고 오로지 몸통인 사람이니까.

진호 (당황) 어… 그, 그치. 딱 몸통이야, 몸통.

#14. 희진의 집/안방(밤)

호중을 사이에 넣고 꼭 끌어안고 누운 희진과 진호. 어둠 속에서 진호와
호중의 자는 모습 보고 있는 희진.

희진 (혼잣말) 오진호, 넌 퇴직할 때까지 개발만 하고 싶댔지? 그래,
자긴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해. 별은 내가 달 테니까. 내가 별 달면
우리 호중이 영어 유치원부터 자기 스타트업까지 싹 다 밀어준다!

#15. 몽타주. 태강 본사+태강 세종 모바일 연구소

싸늘한 표정의 조 부장 자리 뜨면, 열심히 자료 조사하는 희진.
책상 위 어지럽게 놓여 있는 핸드폰들 사이에서
열심히 툴을 짜고 있는 진호.
블라인드 쳐진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희진과 김 대리.
회의실에서 협력업체와 화상 회의를 하는 진호와 팀 사람들.
늦은 밤, 햄버거 씹어가며 홀로 보고서를 쓰고 있는 희진.
늦은 밤, 팀 사람들과 맥주에 치킨 뜯으며 신나 하는 천진난만한 진호.

#16. 태강 본사/전무실(낮)

고풍스러운 책상에 앉아 있는 강 전무. 그 앞에서 보고하는 희진.

희진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전무님.

강 전무 며칠 동안 별일 없었나?

희진 네, 말씀하신 정리해고안도 태강 전자에 발송했습니다.

강 전무 (인자한 미소) 결재 올린 거 봤어. 일 처리가 시원시원하던데.
전자 쪽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 오면 다음 단계 진행해.

희진 (자신 있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전무 창사 이래 첫 정리해고야. 신중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거 잊지 말게.

희진 네, 걱정 마십시오.

#17. 태강 세종 모바일 연구소/사무실(낮)

하루 업무를 시작하느라 분주한 사무실. 서로 등지고 앉은 동렬과 진호. 진호,
머리 뒤로 젖히고 자다가, 체조 방송이 나오자 놀라 허둥대며 깬다. 동렬,
어리바리한 진호 일으켜 세우고 방송에 맞춰 체조한다.

진호 (건성으로 허우적) 동렬아, 그만하고 컵라면이나 먹고 오자.
속 쓰리다.

동렬 (허리 뒤로 젖히면서) 메일 하나만 확인하구요.

CUT TO
동렬 메일 확인 중이고,
진호, 팔짱 끼고 잠깐 졸려고 폼 잡는데 전화 오자 받는다.

희진(F) 오빠, 아침 먹었어?
진호 (하품하며) 어…
희진(F) 술 진탕 먹고, 컵라면으로 해장하고 그러면 혼난다, 진짜!
진호 (영혼 없이) 귀신이네…
희진(F) 뭐야, 어제 또 술 마셨어?
진호 아니… 술은 무슨…
희진(F) 오빠, 정말 고과 문제없는 거지? 확실하지?
진호 (뜨끔) 그렇다니까… (얼른 끊고 싶다) 어, 나 회의 들어가야 돼.
희진(F) 어, 그래. 팀장 눈 밖에 안 나게 조심 또 조심하고. 알았지?
진호 어… 그, 그래… 끄, 끊는다. (끊고)

진호, 불안한 눈빛으로 핸드폰을 물끄러미 본다.

진호 앤 삽살개도 아니고… 뭔 냄새를 귀신같이 맡어… 사람 불안하게.

#18. 태강 본사/본부장실(밤)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본부장.

INSERT
회상. 며칠 전. 소파에 앉아 있는 임원들과 본부장. 다들 어두운 표정이다.

본부장 이번 정리해고는 대외비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
각 팀별로 고르게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세요.

연구소장 연구소도 진행하는 겁니까?
본부장 연구소가 주요 타깃입니다. 모바일 개발자들을 대거 물갈이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데… (뭔가 찝찝한 표정) 암튼,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현재.

본부장 이상해. 너무 급하단 말이야…
(인터폰으로 비서에게) 노 상무 연결해.

#19. 고급 일식집/룸(밤)

창밖으로 정원이 보이는 고급스러운 방. 깔끔하게 차려진 상 앞에
앉아 있는 노 상무와 조 부장. 그때 미닫이문 열리면서 본부장 들어오고.
노 상무와 조 부장 벌떡 일어나 맞이한다.

노 상무 (두 손 뻗으며) 아이구, 우리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하하.
본부장 (노 상무 손 덥썩 잡고) 왜 이래~ 사석에선 편하게 해.
동기 사랑 나라 사랑 아니냐! 허허.
노 상무 (조 부장에게) 인사드려, 모바일 사업부 본부장님. (본부장에게)
인사과 조 부장이라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잘 좀 봐줘.
본부장 (조 부장과 인사하며) 내가 뭐 힘이 있나~ 반가워요.

CUT TO

노 상무 (화들짝) 아니, 정리해고안이 벌써 거기까지 갔단 말야?
본부장 (놀라며) 그럼, 노 상무도 몰랐어?
노 상무 회의 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어도, 정리해고라면
회장님 컨펌이 떨어질 리가 없다 싶어서 신경도 안 썼지…
본부장 대외비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왔길래 진행은 하고 있는데…
조 부장 (실눈 뜨고) 윤 과장이 뻔질나게 전무실을 드나들더니만…
다 꿍꿍이가 있었나 본데요.

노 상무　정리해고자 명단도 보냈어?

본부장　오늘 보내긴 했는데… 보내고 나니깐 뭔가 찝찝한 거야.
(생각 굴리다가) 이거, 나중에 탈 나는 거 아냐?

노 상무　(점점 노기가 짙어지며) 강 전무…

FLASH BACK(#11 연결)
직원들, 흥분한 조 부장을 데리고 우르르 회의실 빠져나가고. 노 상무, 혼자 앉아 있는 희진을 슬쩍 보고는 회의실 나가려는데, 회의실 구석에서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는 강 전무가 눈에 들어오지만 잠시 갸우뚱하다가 나간다.

현재.

노 상무　니 멋대로 쥐고 흔들어보겠다… 이거지…

조 부장　(노 상무 반응에 야비한 미소가 번지고) …

#20. 태강 본사/인사과 사무실(낮)

바쁘게 서류와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희진.
앞자리 김 대리도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고.

김 대리　과장님, 모바일 사업부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 결재 올렸네요.
한번 봐주세요.

희진　(결재창 버튼 누르며) 그래, 김 대리는 혁신 교육 결재 올려.

김 대리　네.

희진, 첨부 파일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 파일 열어서 쭉 내리며 보는데, '세종 모바일 사업부' 명단이 뜨자 스크롤 멈추고 찬찬히 본다.
그때 명단에 '신광수'라는 이름 CLOSE UP. 희진, 눈 커지며 표정 굳고. 다시 천천히 화면을 내려 보는데 '오진호'라는 이름 CLOSE UP.

희진　(놀라 마우스 던지며) 악! 뭐야 이거!

#21. 태강 세종 모바일 연구소/구내식당(낮)

식사 중인 진호, 동렬, 팀 사람들. 진호, 태강 팀 야구 잠바 입고 있다.

진호　(육개장 한술 뜨고) 어우~ 좋다. 동렬아,
태강 경기 티켓팅 좀 해줘라.

동렬　오늘 단체 관람도 가는데, 또 가게요?

직원1　오 책임님, 태강 광팬이신가 봐요. 지금 9연패라 관중석이 텅텅 비어서 우리가 단체 관람 가는 거라던데.

동렬　말 마라. 이 형 원래 동산 팬이었는데 입사와 동시에 태강 광팬 됐잖아. 애사심이 아주…

진호　(뚝배기째로 들이켜고) 으어~ 돼, 안 돼?

동렬　언제로 해줘요?

진호　5월 5일. 어른 넷에 애들 둘.

동렬　눈물겹다, 진짜. 어린이날까지 거길 가겠다고? 세 살짜리를 델꼬?

진호　(육개장 한입 가득 물고) 으흐흐, 이 집 잘하네….

#22. 태강 세종 모바일 연구소/사무실(낮)

동렬, 야구 예매하고 있고 진호, 칫솔 입에 물고 이메일 확인 중인데.
별생각 없이 새 메일 열어보는 진호.

INSERT
진호 노트북 화면. '그동안 태강 그룹에 쏟아주신 오진호 님의 열정과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오진호 님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정리해고 대상자를 위한 혁신 교육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물고 있던 칫솔을 떨어뜨리고 입안의 치약도 그냥 꿀꺽 삼켜버린 채 화면을 보는 진호. 얼굴에 절망감이 깔리고.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데.

동렬(E)　형, 5월 5일 어른 넷, 어린이 둘이랬지?

진호　(안 들리고) …

동렬　(의자째로 밀고 와) 형, 맞아?

진호　(멍하게 동렬 보다가) 하지 마… (빽) 예매하지 말라고! 하지 마!!

동렬　(놀라) 형… 왜…

직원들 놀라 모두 진호 보는데.
진호, 헐떡이며 정 팀장 쪽으로 시선 던진다.
진호 보고 있던 정 팀장, 순간 고개 숙이고. 진호,
원망 어린 눈빛으로 정 팀장 보다 그대로 사무실 뛰쳐나가버린다.
정 팀장, 고개 들지 못하고.

#23. 태강 세종 모바일 연구소/화장실(낮)

변기 뚜껑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는 진호.

진호　(힘 빠지는 소리) 아… 하… 으윽…

고개 드는 진호, 얼굴이 눈물범벅이다.
문짝에 붙은 거울에 비친 진호 얼굴.
처량하고 짠하기 그지없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멍하게 보다가,
갑자기 허겁지겁 야구 잠바를 벗는 진호.
잠바에 원한이라도 맺힌 듯 구겨버리는데 등짝에 태강 마크가 눈에 들어오고.
순간 멈칫해서 보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24. 중앙 연구소/옥상(낮)

직원 몇몇이 담배 피우며 대화 중이다. 담배 무리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
홀로 서 있는 광수, 노을 진 하늘을 올려다본다. 담담한 표정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흐른다. 누가 볼까 얼른 눈물 닦고,
담배 무리 보는데, 담배 무리 애써 광수의 시선 외면한다.

#25. 태강 본사/전무실(밤)

책상에 앉아 있는 강 전무. 그 앞에 초조하게 서 있는 희진.

강 전무　(미소) 혁신 교육 말이야,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 정리해고 대상들, 자연스럽게 내보낼 명분도 되고. 좋아. 기대 이상이야.

희진　(초조한 기색 애써 감추고, 확실히 하려는 듯) 교육생의 10프로는 교육 성적을 통해 구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 전무　(서류를 뒤적이며 건성으로) 그래, 그렇게 하지.

희진　(전무의 눈치를 살피다가) 저… 전무님.

강 전무　응?

희진　교육 강도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강 전무　(희진의 의중을 알려는 듯 잠시 보다) 정리해고안 제시했다고 누가 윤 과장을 비난하던가?

희진　(답답)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강 전무　(O.L.)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일어나 책상 앞으로 가 희진 가까운 곳 책상에 걸터앉아) 윤 과장, 그거 아나? 이번 구조 조정, 회장님은 모르고 계시네.

희진　(놀라 강 전무를 쳐다보고) 네?!

강 전무　새로운 회장님 부임하신 지 이제 겨우 석 달이야. 근데… 그 사이에 경영실적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지. 이 와중에도 회장님은 평생 고용을 고집하고 있지만. 그건 최악의 수야. 누군가는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윤 과장 기획안을 받아들였지.

희진　(불안한 듯) 그치만…

강 전무　(희진에게 다가가 어깨 토닥이며) 불안할 거야, 윤 과장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어선 안 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회장님껜 결과물로 보여드리는 거야. 알겠나.

희진　(뭔가 더 말하고 싶지만) …네…

#26. 태강 본사/인사과 사무실(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몰래 희진의 서랍에서 결재 파일들을 뒤적이고 있는

조 부장.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한 듯, 파일 하나를 꺼내 펼쳐보더니 재빨리 핸드폰 꺼내 사진 찍고. 그때 멀리서 김 대리와 희진이 대화하며 다가오는 소리 들리자, 서둘러 파일을 서랍에 넣고 기어서 자기 자리로 가는 조 부장.

CUT TO

자리에 앉아 있는 희진.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 물어뜯고 있다. 그때 노 상무가 몇몇 상무 라인을 거느리고 사무실 통로를 지나가는데 고개 들고 있던 희진과 눈이 마주친다. 희진이 움찔하며 인사하자, 노 상무 인자한 표정으로 웃어주며 지나간다.

희진(NAR) 저렇게 평화로운 걸 보면… 노 상무도 전혀 모르고 있다.
노 상무 쪽에서 눈치챘으면 벌써 난리가 났겠지.
강 전무 단독 플레이라….

희진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조 부장, 자리를 뜬다.

#27. 태강 본사/상무실(밤)

노 상무와 조 부장 외 몇몇 상무 라인 사람들 소파에 둘러앉아 조 부장의 핸드폰에 찍힌 서류 사진들 보고 있다.

상무 라인1 (흥분해서) 정리해고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기획 회의 때 잠깐 나온 걸 아무도 몰래 진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무 라인2 그걸 실행할 거면 최소한 전체 회의에서 의견 조율은 했어야지! 아니, 회장님 컨펌도 없었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노 상무 (사람 좋은 미소 띠고) 너무 마음 쓸 것 없어요. 일단 사장님 미팅을 잡아뒀으니까 기다려들 보세요. (표정 싸늘해지며 낮은 소리로) 어디서 분탕질을… 미꾸라지 같은 놈.

조 부장 (노 상무의 표정 보며 일이 재밌게 돌아간다는 표정)

#28. 태강 세종 모바일 연구소/사무실(밤)

벽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야구 모자며 야구 잠바 입는 사람들로 들뜬 분위기. 정 팀장이 "얼른 출발해, 차 막혀!" 하자 우르르 사무실 빠져나가는 사람들.

CUT TO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짐을 싸고 있는 진호. 상자에 개인 물품들 담고 있는데. 머그잔을 상자에 넣으려다 머그잔에 찍힌 글씨 본다. '태강 모바일 사업부 오진호.' 진호, 깊은 한숨 쉬고, 상자에 넣으려는데.

동렬(E) 왜, 영영 안 돌아오게?

진호, 놀라 돌아보면 동렬 서 있다.

진호 왜 왔어… 조용히 사라질랬더니…

동렬 (다가오며) 형 당첨됐다며…

진호 (머그잔 보며) 희진이가 탐내길래, 연말에 또 받으면 새걸로 줄랬는데… 그냥… 이거 줘야겠다…

동렬 (욱) 연말에 또 받으면 되잖아! 혁신인지 지랄인지 교육도 있대매! 그거 받고 돌아와!

진호 그래서 살려줄 거면 자르긴 왜 잘라…

동렬 인사과 친구가 그러더라, 10프로는 복귀시킨다고. 형수도 알 거 아냐, 형수한테 아직 말 안 했(어? 하려다)…구나…

진호 (울컥)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으흑…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달렸는데… 다 알아줄 줄 알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달렸는데.

동렬 (가슴 아픈) 형…

진호 으흑… 이딴 컵 던져주면서 가족이네, 동반자네 떠들어대길래, 믿었지… 진짜 가족이라도 된 줄 알고… 근데 그깟 고과 한 번에…

INSERT

얼마 전, 사무실 복도. 정 팀장과 얘기 중인 진호.

정 팀장　(진호 눈치 보며) 알잖아, 박 책임 진급 코앞인 거….
내년엔 잘 챙겨줄 테니깐 한 번만… 니가 양보하자…

진호　…그래요… 우리 회사가 고과로 사람 자르는 데도 아니고.
(불안한 기색 역력하고)

현재.

진호　그게 무슨 개소리냐고 반박 한 번 못한 내가 병신이지 뭐… (울컥)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아무렇게나 막 내다버려도 되는 거냐고!

진호, 머그잔을 던져버리려는데, 동렬, 진호의 손목을 잡는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동렬 보던 진호, 털썩 주저앉고. 동렬 눈물 훔치고는 상자 속 물품들
꺼내 다시 제자리에 놓다가 너무 낡아 납작해진 칫솔 보고.

동렬　드러워서 여기 안 앉을 거니까, 얼른 돌아와.

#29. 평택 공장/교육실(낮)

서른 명 남짓의 사람들 말없이 앉아 있는데. 그 속에 하루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진호 앉아 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진.
거침없이 단상에 올라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는 마이크 잡는다.

상진　혁신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혁신 교육을
담당하게 된 교육지원팀 과장 열정 상진입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들, 예상치 못한 상진의 오버에 쳐다보는데.
처져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열정 발산 중인 상진.

상진　(격앙된 톤으로) 태강에 입사한 순간부터, 저는 태강을 위해!
이 한 몸 불싸지를 각오로! 한상진이 아닌 열정 상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이번 교육에 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0. 태강 본사/사장실(낮)

노 상무, 사장과 소파에 앉아 대화 중이다.

사장　다음 주 공장 시찰은 어딘가?
노 상무　평택 공장으로 가시죠, 사장님.
사장　(의아한 듯) 평택? 거긴 지난달에도 갔잖나.
노 상무　이번 TG 7 판매 실적이 저조해서 공장 사람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사장님께서 한번 방문해주시는 게…
사장　(갸우뚱) 내가 가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노 상무　오히려 평소 뵙기 힘든 사장님이 자주 방문하시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자부심이 올라갈 겁니다.
사장　그럴까 그럼?
노 상무　(만족한 듯) 그렇게 하시죠.

#31. 평택 공장/생산라인(낮)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오는 핸드폰에 나사를 조이는 교육생들.
진호, 나사를 조이는데 잘 안 되고. 옆에서 가르쳐주던 여공이 짜증을 낸다.

여공　아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방금 가르쳐드렸잖아요, 방금.
진호　(쭈글) 죄송합니다….
여공　(진호 짠하고) 다시 하면 되죠. 뭘 목까지 없애가면서 쫄구 그래요.
광수(E)　제가 같이하면서 봐줄게요.

소리 나는 곳으로 돌아보는 진호. 역광을 받고 서 있는 한 남자.
자세히 보니 광수다!

진호　(놀라 벌떡 일어나며) 형! 형이 여긴 왜 왔어!
광수　(옆자리 앉으며) 갱생하러 왔다…
진호　(어이없고) 황금 라인 탄 사람이 왜?!
상진　(멀리서 진호 보고) 거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호 (얼른 앉으며) 죄, 죄송합니다. (소근) 어떻게 된 거냐니깐.

광수 (피식) 입사 동기가 퇴사 동기 되게 생긴 거지 뭐.

#32. 몽타주. 평택 공장

공장에서 열심히 나사 끼우는 진호와 광수.
상진, 매의 눈으로 감시하며 돌아다닌다.
화장실 청소하는 진호와 광수.
진호 변기 닦다가 주저앉으면 광수가 대신 닦아준다.
늦은 밤 다들 보고서 쓰고 있고,
진호, 허벅지 꼬집어가며 보고서 쓰다가, 졸고 있는 광수를 깨워준다.

위 장면들과 함께 나가는

희진(E) 새벽 5시 기상. 6시부터 18시까지 쉼 없이 생산라인에 투입하도록 하세요. 1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그날의 노동을 통해 느낀 점과 업무 개선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시구요. 당연히 A4 스무 장 이상은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90퍼센트 이상이 제 발로 나가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33. 태강 본사/인사과 사무실(밤)

희진, 허공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다.

희진(NAR)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오진호, 살아 있긴 한 거니? 그걸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거야? 독한 년! 난 미친년이야… (머리 쥐어뜯다 고개 저으며) 아냐, 그래도 오빠가 근성은 있잖아?! 그래, 오진호도 살아남고 나도 승진하고. 그럼 되지. 아니, 그래야 돼!

김 대리 (희진 버둥대는 것 보고 놀라) 과장님, 괜찮으세요?

희진 (급 머리 다듬으면서) 괜찮아. 요즘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34. 평택 공장/주차장(낮)

주차장에 고급 세단 두 대 나란히 들어오고. 상진, 공장 쪽에서 주차장으로 헐레벌떡 뛰어온다. 앞 세단에서 사장 내리고, 뒤 세단에서 노 상무 내린다.

상진 (허리 꺾어 인사) 오셨습니까, 사장님, 상무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의전을 더 깍듯하게 준비했을 텐데.

노 상무 (사장 에스코트하며) 잘 돼가고 있죠?

상진 네! 교육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장 (멈춰 서더니 의아해서) 교육? 무슨 교육?

노 상무 (걸려들었다!) 오늘 여기 교육 있나?

상진 며칠 전부터 정리해고자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십니까?

노 상무 (놀라는 척) 정리해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장 (점점 불쾌해지는) 정리해고라니! 누가 나 모르게 그런 걸 진행해!

#35. 태강 본사/인사과(밤)

희진 업무 보고 있는데, 전화벨 울리자 받는다.

희진 네, 인사과 윤희진입니다. (사이) 네, 바로 가겠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는 희진, 급하게 사무실 나간다.

#36. 전무실(밤)

사장, 소파에 앉아 있고, 양옆으로 강 전무, 노 상무, 조 부장 서 있다.
그때 문 열리면서 희진 들어오고.

사장 (분노) 강 전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정리해고를 윗선 컨펌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해? 이게 말이 돼?!

강 전무　(고개 숙이고) 모든 게 다 제 불찰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 상무　(고소한 듯 보다) 전무님도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잠시 판단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으니…

사장　판단 착오? 이게 착온가? 오만이지.
(강 전무에게) 당신 눈엔 내가 뭘로 보이나!

강 전무　(쩔쩔매며)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　(벌떡 일어나며) 됐고! 지금 이 상황, 회장님께 그대로 보고 드릴 테니 그렇게 알아요! 지금 진행하던 정리해고 당장 중단해!
(나가려다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희진 보고) 누구야?

조 부장　(놓치지 않겠다는 듯) 이번 정리해고를 기획한 윤희진 과장입니다!

사장　강 전무랑 윤 과장, 회사에서 계속 보긴 힘들겠군.

조 부장, 희진에게 야비한 웃음 날리고 사장 따라 나가고.
노 상무, 강 전무를 딱하게 보다가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간다.
잠시 후 강 전무도 사무실 나가버리고, 희진 혼자 사무실에 주저앉아버린다.

#37. 일식집(밤)

술잔을 부딪치고, 호탕하게 웃으며 잔을 비우는 노 상무와 조 부장,
상무 라인1·2.

조 부장　(싱글대며) 축하드립니다, 상무님!
아니, 이제 전무님이라고 불러 드려야겠습니다~ 허허.

노 상무　(싫지 않은 듯) 에이, 거 사람 김칫국은…
(넌지시) 조 부장도 보따리 싸. 내 자리 비워줄 테니까. 하하하.

네 사람, 기분 한껏 올라 웃음소리 높아진다.

#38. 태강 본사/화장실(밤)

찬물로 거칠게 세수하는 희진. 물기 뚝뚝 흐르는 얼굴 들어 거울 보면,
빨갛게 충혈된 눈이 슬프게 일그러져 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던 희진, 삐져나오는 울음 참지 못하고
흐느끼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에 묻은 물과 눈물 닦아낸다.

희진　괜찮아, 윤희진! 사표 쓰라면 쓰지 뭐… (거울 보며 밝은 표정 지으려 애쓰며) 그래도 니 남편 밥줄은 건졌잖아… 그걸로 됐어… 됐는데… (다시 울고)

그때, 울리는 핸드폰 진동. 핸드폰의 발신자 확인하는 희진.

#39. 태강 본사/옥상(밤)

옥상의 가장 구석진 곳, 조명도 닿지 않아 캄캄하기만 한 곳의 벤치에 앉아 있는 강 전무. 그때 밝은 쪽에서 강 전무를 향해 걸어오는 희진.

희진　(어두워서 조심스럽게 걸어와) 여기 계셨습니까.

강 전무　(어둠 속에서 눈만 반짝이며) 앉지.

희진　(벤치 끝쪽에 조심스럽게 앉고) 전무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강 전무　(침착한 목소리)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보이나?

희진　(전무의 옷 보려 하지만 잘 안 되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 전무　(자신의 양복 보며) 이거, 꽤 비싼 거야… 전무 취임식 앞두고 마누라가 맞춰준 거지. 후훗.

희진　(영문을 모르겠고) 네…

강 전무　근데 전혀 알 수 없지, 내가 입은 옷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어둠 속에선.

희진　…

강 전무　윤 과장.

희진　네.

강 전무　윤 과장이 얼마나 좋은 인재인지 이런 암흑 속에서는 절대 알아볼 수가 없어. 빛이 필요하지. 윤 과장이라는 존재를 비춰줄 빛.

희진　(고개 돌려 강 전무를 본다) …

강 전무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만 어둠에서 빠져나와.

희진　(의중을 알아내려 애쓰며) 네?

강 전무　이번 건… 진행해.

희진　(놀라며) 사장님께서 당장 중단하라고…

강 전무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사위는 던져졌어. 그대로 밀고 나가. (사이) 모레 있을 전체 회의에서 회장님을 설득해보는 걸로 하지. 윤 과장이 백업 잘해줘.

희진　회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리해고도 문제지만, 전무님께서 회장님을 기만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강 전무　(빛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며) 그럼, 윤 과장은 이대로 회사를 나갈 건가? 그것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희진　(강 전무를 따라 걸으며) 그게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면.

강 전무　(가로등 아래서 걸음 멈추고) 어때, 내 옷. 멋지지?

희진　(걸음 멈추고) …네.

강 전무　윤 과장, 자네 능력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면 용기가 필요해.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올 용기. 어떡할 건가? 그냥 어둠에 묻혀 사라질 건가? 아니면 나를 따라 빛으로 나올 건가?

희진　(혼란스럽고) …

강 전무　(희진 빤히 보다가) 전체 회의에서 회장님 설득할 준비 철저히 해봐. 회장님 허락만 떨어지면, 기조실 내에 TF팀 꾸려서 윤 과장을 팀장으로 발령 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알겠나?

희진　(들을수록 복잡해지는 표정) …네.

#40. 평택 공장/운동장(밤)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보고 있는 진호. 그때 핸드폰 울리고.
화면에 '동렬이' 뜬다.

진호　(반가워) 동렬아, 어쩐 일이야.

동렬(F)　(안쓰러워하는 목소리) 형, 잘 지내고 있어? 교육은 잘 받고?

진호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럼. 내가 누구냐~

동렬(F)　그렇구나… (사이) 여긴 장난도 아냐…

진호　무슨 일 있어?

동렬(F)　형이 평택 내려가기 전까지 맡고 있던 동영상 이슈 말이야. 지금쯤이면 해결 났어야 되는데… 형이 없으니까 아직도 깜깜이야.

진호　동영상 이슈? (생각하다) 아, 그거! 나 그거 해결했는데! 팀장한테 보고도 못 하고… (힘 빠져) 이러고 있다…

동렬(F)　어… 형이 그때 그랬던 거 같기도 하다. 그때 툴도 만들었었지?

진호　그 툴 테스트도 해봤었는데. 이슈 해결되더라구. 너도 같이 봤잖아.

동렬(F)　그랬었지, 참… (사이) 형! 소패랑 나, 내일 그거 때메 평택 공장 가거든? 그때 형이 그 이슈 해결해보는 거 어때?

진호　내가? 잘려서 이러고 있는데?

동렬(F)　무슨 소리야! 이럴 때 한 방 터뜨려서 회사에 남아야지!

진호　(점점 희망에 부풀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툴도 지금 있어.

동렬(F)　잘 됐다 형! 형 노트북은 있어?

진호　있긴 한데 회사 게 아니라서 툴 돌리기가 쉽진 않겠다. 사람들 앞에서 시현하기 전에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는데…

동렬(F)　형, 그럼 그 툴 일단 나한테 보내봐. 내가 테스트 해볼게.

진호　아, 그러면 되겠네! 바로 보낼게.

동렬(F)　내가 보고 다듬을 거 있음 다듬고 PT 준비도 해서 갈게.

진호　(고마워서) 동렬아.

동렬(F)　어?

진호　(울컥) 고맙다… 절대 안 잊을게…

동렬(F)　…늦었어. 얼른 자.

진호　(눈물 찍으며) 어.

#41. 평택 공장/생산 라인(낮)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말없이 나사 조이고 있는 교육생들. 그때, 공장 구석 화장실에서 나온 진호,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데. 컨베이어벨트 끝에 의자 놓고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 상진의 등 뒤를 지나가다가, 상진이 짜증 내는 소리에 흘깃 쳐다보는데. 핸드폰 화면이 시야에 들어온다.

INSERT

상진 핸드폰 화면. 헐벗은 남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급작스럽게 정지된 화면 — 모자이크로 처리.

진호(NAR) (한심) 아주… 옆차기를 하세요.

상진 (짜증) 엊그제 산 폰이 왜 이래! 하여간 태강 폰은 사는 게 아닌데.

진호(NAR) (비웃음) 회사에 뼈를 묻으라더니만….

자리로 돌아와 나사 조이던 진호, 갑자기 생각난 듯.

진호(NAR) 아, 저 이슈… 동렬이 오기 전에 테스트나 해볼까?
(상진에게 다가가) 저, 과장님.

상진 (놀라 핸드폰 숨기며) 무슨 일입니까?

진호 좀 전에 보니깐 동영상이 멈췄던데…

상진 무슨 소립니까! 난 동영상 본 적 없습니다!

진호 아, 네… 근데 그 이슈는 일반 AS 센터에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고칠 수 있는데.

상진 (의심의 눈초리로 진호 보다) 고칠 수 있는 거 확실합니까?

진호 혁신적으로 고쳐놓겠습니다!

#42. 평택 공장/사무실(낮)

노트북으로 툴을 돌리는 진호. 상진과 직원 몇 명이 둘러서서 보고 있다. 능숙하게 테스트하는 진호의 모습을 신기한 듯 보는 상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면 속 헐벗은 남녀가 다시 움직이고.

일동 (핸드폰 액정에서 시선 떼지 못하며) 우와~~~~~

상진, 진호의 어깨 흔들며 좋아하다가 정신 차리고, 얼른 동영상 끈다. 진호, 이제 됐다는 듯 확신에 찬 표정. 그때, 직원1, 사무실로 들어오고.

직원1 과장님, 세종 연구소 사람들 도착했습니다.

상진 그래? 알았어.

상진, 나가고. 진호, 올 게 왔다 싶은 표정.

#43. 평택 공장/직원식당(낮)

진호와 광수,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직원 몇 명도 식사 중이다.

진호(NAR) (불안한 표정으로 핸드폰 보며)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나?

직원1 동영상 이슈 아직 해결 안 났지?

직원2 아유, 해결 났어요. 그러니까 제시간에 이렇게 밥을 먹지.

직원1 해결 났어? 어제까지도 죽겠다고 난리더만 어떻게 된 거래?

직원2 연구원들이 용하긴 용하데. 좀 전에 세종 연구소에서 몇 명 왔는데 해내더라고.

진호 (벌떡 일어나 밥알 뿜으며) 뭐라구요?! (그대로 뛰쳐나가고)

#44. 평택 공장/회의실 앞(낮)

진호, 회의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엿듣고 있다.

직원3(E)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할 거면서 왜 그렇게 뜸을 들이셨습니까.

정 팀장(E) 이동렬 수고했다. 이번에 큰 거 한 건 했어!

동렬(E) 뭘요. 근데 고생은 좀 했습니다, 후후.

정 팀장(E)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가시죠.

진호, 급히 문 옆 큰 화분 뒤에 숨자, 바로 회의실 문 열리고. 정 팀장과 동렬, 직원들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진다. 버쩍 얼어 있던 진호, 스르르 주저앉더니 숨죽여 흐느끼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며 회의실 문 잠그려던 상진, 진호를 발견하고는 다가오고. 말없이 보고만 있다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선다.

#45. 복어집(낮)

정 팀장과 직원들, 끓고 있는 복어탕 먹고 있는데, 음식에는 손도 안 대고 있는 동렬. 불편한 표정으로 남들 몰래 핸드폰을 본다. 부재중 전화 1건. '진호 형'.

정 팀장 (동렬 보며) 이 선임, 너무 좋아서 밥도 안 먹혀? 얼른 먹어.

동렬 (마지못해 숟가락 들며) 네…

INSERT

회상. 며칠 전, 동렬과 동료들 복도에서 커피 마시는데.

동료1 오 책임님은 실력도 나쁘지 않은데 왜 D를 받았을까.
성격도 좋고. 아까운 분인데.

동료2 사람이 좀 물러터진 건 있었잖아. 내년에 또 칼바람 불 거라며?

동료1 이번엔 D만 잘랐지만 내년엔 C도 안전하지 못하대. 살벌하다…

동렬 (! 불안한 표정)

FLASH CUT 이메일 속 고과 성적 화면.
태강 세종 모바일 기술 연구소 — 이동렬(선임) — 고과 C.

현재.
동렬, 국물 뜬 숟가락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지만,
끝내 먹지 못하고. 고개 떨군다.

#46. 태강 본사/대회의실(낮)

경영진들, 길고 웅장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고,
가장 상석에 굳은 표정의 회장 앉아 있다.

회장 (주먹으로 테이블 내려치며) 강 전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장 (근엄하게) 이번 일은 그냥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

경영진1 (흥분) 일개 전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정리해고를!

자기 선에서 추진했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회장 태강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영 철학과 이미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정리해고 당장 중단하세요!

회장의 말이 떨어지자 희진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갈등하던 희진,
고개를 들자 맞은편에 서서 희진을 비웃고 있는 조 부장과 눈이 마주치고.
희진, PT 자료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자, 종이가 구겨진다.
그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강 전무 저벅저벅 회장 앞으로 걸어가 회장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바로 무릎 꿇는다.

강 전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을 기만하고 정리해고를
진행한 점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비워야만 새로운 것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변화가 결국 이 위기에서 태강을 지키고
사원들을 지켜 줄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사장 (버럭) 정리해고가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요!

회장 (강 전무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괜한 짓 하지 말아요!
이건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나를 향한 아니,
태강 전 직원을 향한 모독입니다!

사장 징계 위원회도 다음 주에 바로 열겠습니다.

회장 (단호) 그렇게 하세요!

희진(E) 잠시만요!

사람들의 시선이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일어서 있는 희진에게 쏠리고.

희진 (90도로 꺾어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리해고 실무 담당자
윤희진입니다. 저 또한 회장님, 그리고 경영진 여러분께 지금 당장
무릎 꿇어 사죄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 전에 감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희진, 회의실의 불 끈다. 사람들의 무례하다는 항의로 소란스럽고. 그때, 벽에
걸린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진다. 음악 깔리며, 스크린에 공장을 시찰하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전 회장, 체육 대회에서 환하게 웃으며 공을 차고 있는 중년의 전 회장의 모습이 한 컷씩 이어진다. 어리둥절하던 사람들, 전 회장의 모습에 숙연해지고. 회장도 먹먹한 표정으로 스크린 보고 있다. 그때, 희진 스크린 쪽으로 다가간다.

희진 삼 개월 전까지 우리 곁에 함께하셨던 전 회장님, 평생을 직원들과 같은 눈높이로, 직원들을 그 큰 품에 품고 살아오신 분, 바로 현 최일류 회장님의 부친이신 최한품 회장님이십니다.

스크린에서는 뉴스 장면과 신문 헤드라인들이 이어지고. '태강 화학 울산 공장 폐쇄—부도설 불거져', '태강 전기 결국 법정 관리!' 행사장에서 연설하던 전 회장이 쓰러지는 컷, 의식을 잃고 병실에 누워 있는 컷.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 불이 켜지고.

희진 (회장 향해 간절하게) 저도 한 사람의 태강맨으로서 평생 고용을 보장해주시려는 전, 현 회장님의 배려에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한품 회장님께서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적절한 몸집 줄이기를 하셨어야 했음에도 사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애정이 과하셨던 나머지,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태강 화학과 태강 전기의 무수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전 회장님께서는 결국 쓰러지셨고 현재 혼수상태에 빠져…

노 상무 (O.L.)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디서 무례하게! 그것도 회장님 앞에서!

희진 (강단 있게)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경영진 여러분! 이번에 실시한 정리해고의 목표는 결코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을 거스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벼랑 끝에서도 사람만은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간 존중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회장 (스크린 속 전 회장의 병상 컷 보며 생각에 잠기고)

노 상무 (회장 눈치 살피며) 어디서 말장난입니까!

그때 무릎 꿇고 있던 강 전무, 간절하게 회장을 올려다보며.

강 전무 확실한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회장님!

회장 (눈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지못해) 가장 취약한 계열사에 한해서만. 파일럿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장의 태도 변화에 당황하는 경영진들, 회장의 눈치 살피며 머리 굴리다가 동의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노 상무, 치밀어 오르는 분을 눌러가며 무릎 꿇고 있는 강 전무를 노려본다. 희진, 입술 깨물며 고개 떨군다.

#47. 평택 공장/교육실(낮)

교육실 앞쪽 화이트보드에 '자아비판 교육'이라고 적혀 있다.
평소와 다르게 벽을 향해 놓여 있는 책상에 앉아 벽을 보고 있는 교육생들.
상진, 교육생들 책상 위에 책 한 권씩 올려놓는다.

상진 오늘의 교육은 자아비판 교육입니다.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 내적인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나가야 할지 스스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게 오늘의 일정 전부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상진, 교육실을 나가고. 교육생들 책을 읽으라는 말에 오늘은 편하겠다며 표정 밝아지고. 진호와 광수를 포함한 교육생들 책을 펼친다.

CUT TO
책을 읽고 있는 교육생들의 표정이 어둡다.

교육생1 (한숨 쉬며) 하아… 책 내용이 뭐 이러냐.

교육생2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참한 처지인 게 다 내 탓이라는 거네. 내가 나태하고,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됐다…

교육생2, 씩씩거리다 교육실 나가버리고. 다시 고요해진 교육실. 책을 보던

진호, 고개 드는데 표정이 없다. 고개 들어도 흰 벽뿐인 것에 좌절한 듯 한숨 쉬고 다시 고개 숙인다. 그 옆에 흰 벽을 멍하게 보고 있던 광수.

#48. 회상. 태강 세종 모바일 연구소(낮)

팀장과 언쟁 중인 광수. 그 옆에서 쩔쩔매고 있는 협력업체 사장.

팀장 야, 넌 그냥 시키는 일만 해! 뭔 말이 많아!

광수 핸드폰 폭발은 우리 쪽 설계 때문입니다.
협력업체한테 책임 전가하는 건 부당합니다!

업체 사장 (광수 셔츠 잡아당기며 울먹) 아유, 그만들 하세요….
이러다 저희 때메 쫓겨나시겠어요, 신 책임님….

광수 (팀장에게)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저도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팀장 뭐?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광수 정도경영팀에 제보하겠습니다!

팀장 뭐야?!!

#49. 회상. 몽타주

— '올해의 자랑스러운 태강상 시상식' 현수막 아래서 회장에게
상을 받는 광수.

회장 신광수 책임은 태강의 자정 능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태강의 심장부인 중앙 연구소로 발령 내는 바입니다.

— 옥상 전망대에 나란히 서서 이야기 중인 실장과 광수.

실장 공익 제보자라는 거, 말이 좋아 제보자지, 사측에선 변절자야.
이번에 정리해고가 있어. 우리 실에서도 누군가 하나는 자리를
빼야 되는데, 어쩌겠나. 다들 한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는데.
내 입장, 이해하지?

#50. 평택 공장/교육실(낮)

광수의 책장에 투두둑 눈물방울 떨어진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광수, 주먹을 꽉 쥔 손이 떨린다.

진호 (광수 보고 놀라) 형, 괜찮아?!

#51. 광수의 집/거실+주방(밤)

광수,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데, 정현이 쪼르르 달려간다.

정현 (광수에게 안기며) 아빠아~~

광수 (정현 안아 올리며) 아이쿠, 우리 공주님~ 잘 있었어요?

윤서, 주방에서 요리하느라 정신없다가 정현 안고 들어오는 광수 보고.

윤서 딸밖에 안 보이지?

광수 (윤서에게 다가가 볼 뽀뽀하며) 우리 마나님,
그간 기체후 일향 만강하셨사옵니까~ 하하.

윤서 암요~ 얼른 와서 앉아. 밥 먹게.

광수 그럴까? (사랑스러운 듯 정현을 빤히 보던 광수 앉는다)

#52. 희진의 집/서재(밤)

불 꺼진 어두운 방.
환하게 밝혀진 노트북을 초조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진호.

INSERT
노트북 화면. '오진호 님, 신진 전자 경력 사원 모집에 1차 합격하셨음을

알려드리며, 2차 면접 일정을 공지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안도하며 일어나려다가, 희진의 노트북이 켜져 있는 것 보고 노트북을 덮어주려는데, 화면에 띄워진 문서가 눈에 들어온다.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진호. 그때 희진 들어온다.

희진 자기야, 나 내일 특근이야. 냉장고에 찌개 있으니까 꺼내 먹고…
(진호 노트북 보고 화색) 뭐야, 자기 신진 전자 면접 봐?

진호 (싸늘) 너야? 정리해고 추진한 게?

희진 (말문 막히고) …

진호 너, 어떻게…

희진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야,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진호 왜, 정리해고 추진하면 팀장이라도 달아준대?
니 머릿속에는 승진밖에 없어?!

희진 (발끈) 그래, 나 승진에 미쳤다! 근데, 자긴? 고과 괜찮다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고과 엉망인 게 내 탓이야?

진호 정리해고만 없었어도 고과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리게 생겼어? 광수 형은 어쩔 건데!

희진 (미안함에 달래며) 10프로는 복귀할 수 있어.
내가 광수 오빠랑 자긴 어떻게든 살려볼게.

진호 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울컥)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 줄 알아? 혁신교육? 니들 명분용으로 만들어놓은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알고도 해보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명은 살려주지 않을까, 그게 혹시 나 아닐까 그러고 있는 거라고! 코끼리가 바늘구멍 바라보는 심정이 뭔지 니가 알기나 해?!

희진 (울먹이며) …자기야.

진호 나랑 광수 형만 가장이야? 거기 있는 사람 다 가장이야! 잘려도 되는 사람이 있는 줄 아냐고!

희진 …난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회사에서 일없이 떠다니는 조부장 같은 인간들 보면서 정리해고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래… 승진도 기대 안 한 건 아냐. 그러니까 회사에도, 나한테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야.

진호 너만 회사 생각하는 거 아냐. 나도 광수 형도 회사 위해서, 가족 위해서 정신없이 뛰었어. 아마 조 부장 청춘도 그렇게 바쳐졌겠지. 근데 니가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고 잘라내도 되는 거야?

희진 조 부장이랑 자긴 달라! 청춘은 태강에 바쳤을지 몰라도 지금은 연봉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그게 정상이니?

진호 사람이야, 니 맘대로 쓰다 버려도 되는 부속품이 아니라고! 더 고민했어야지, 다른 방법부터 찾아봤어야지!

진호, 차갑게 나가버리고. 희진, 절망한다.

#53. 신진 전자/면접 대기실(낮)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맨 뒷줄에 앉아서 다리를 떨고 있는 진호. 굳은 표정이다. 그때, 문 열고 헐레벌떡 들어오는 상진, 앞머리가 땀에 젖어 촉촉하다. 빈자리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며 들어오다가 진호 옆 빈자리를 보고 허겁지겁 앉는다.

상진 (두리번거리며 진호에게) 저기… 몇 번까지 들어갔습니까?

진호 (머뭇머뭇) 150번까지 들어갔는데요…

상진 (안도) 아, 네. 감사합… (그제야 진호 얼굴 보고 놀라)
여기 웬일입니까?!

진호 면접 보러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마)

상진 (당황해서 얼굴 달아오르고) 저는… (대뜸) 저야 당연히 요즘 다른 회사들은 면접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트렌드 조사차 왔습니다.

진호 (달달 떨고 있는 상진 발 물끄러미 보며) 아… 네…

상진 (시선 떨구고 있는 진호 토닥이며) 떨지 마세요! 면접은 이것만 머리에 새기면 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대답으로 응수할 것!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때, 진행요원 들어온다.

진행요원 한상진 씨.

상진 (손 번쩍 들고 일어나며) 네!

(진호에게) 면접이 뭔지 신진 그룹에 제대로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나가는 상진의 뒷모습 씁쓸하게 보던 진호, 대기실 나간다.

#54. 신진 전자/복도(낮)

진호,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가고.

#55. 신진 전자/면접실(낮)

세 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고 그 앞 의자에 홀로 앉아 있는 상진.
웃고 있지만 긴장한 기색 역력해 요상한 표정이다.

면접관1 (서류 뒤적이며) 한상진 씨, 지금 인사과 교육지원팀에 계시네요.
경험도 없을 텐데 저희 회사 마케팅팀에 지원하신 이유가 뭐죠?

상진 (이마에 땀 줄줄 흘리며 벌떡 일어나) 저를 열정 상진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어머니는 저를 한상진이라 이름 지어주셨지만, 신진
전자 마케팅팀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곳에 뼈를 묻는 열정 상진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면접관2 (서류 보다가 기분 나쁜 듯) 아니, 한상진 씨,
75년생이면서 왜 나이를 스물다섯으로 썼죠?

상진 (버쩍 얼어서) 저의 신체 나이는 마흔여섯이지만,
저의 열정 나이는 스물다섯이기 때문입니다!

면접관 일동 썩소 날리며 한심하게 상진 보는데.

면접관3 당장 나가요!!!

#56. 신진 전자/복도(낮)

진호, 화장실에서 나와 대기실로 오는데 상진,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 보인다. 진호, 놀라 상진에게 다가간다.

진호 면접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상진 (영혼 탈탈 털려) 다 끝났어요… 서로 못 본 걸로 합시다.

상진, 도망치듯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데.
그때, 진행요원이 진호에게 다가온다.

진행요원 오진호 씨 맞으시죠?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57. 신진 전자/면접실(낮)

면접관1 (서류 보며) 경력에 비해 업무 영역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
멀티미디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진호 (당황해서 생각 짜내다) 팀 내 총무를 3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면접관 일동 (진호 쳐다보지도 않고 피식 웃고)

면접관2 멀티미디어만 하셨다는데…
그럼, 코덱이나 재생 플레이어를 직접 만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막 — 코덱: 영상 압축 기술

진호 만들어본 적은 없지만… (자신 없고) 동작 과정은 이해하고 있습…

면접관3 (O.L.) 그럼, 저기 화이트보드에 동작 과정을 그려보세요.

겁먹은 진호, 주춤주춤 화이트보드로 간다. 마카를 들고 머뭇거리다가
뭔지 모를 모양을 그리는데. 바들바들 떨리는 진호의 손. 그러다 그린 것
얼른 지우고 슬쩍 뒤를 돌아 면접관을 보는데. 면접관 셋 모두 비웃음
흘리며 보고 있고.

진호 (마카 내려놓으며 들릴락 말락) 죄송합니다….

진호, 면접관에게 꾸벅 인사하고는 그대로 면접실 나가버린다.

#58. 광수의 집/거실(밤)

광수, 소파에 누워 멍하게 천장 바라보며 주먹으로 이마 툭툭 치고 있고,
소파 아래선 정현과 윤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윤서 (문득 생각난 듯) 자기야, 내일 놀이공원 가는 거지?
광수 (머뭇) …어…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정현 아빠아~ 놀이 공워어언~~
윤서 (정현 보며 미소) 가자~ 어린이날인데~ 이번 주 내내 놀이공원
노래를 불렀어, 우리 공주님이.
광수 (다정하게) 정현아, 아빠가 출장 때메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우리 정현이 생일에 가면 안 될까?
정현 (점점 떼쓰며) 어어~~ 놀이공원~ 아빠, 가자아~
윤서 자기야, 그냥 가자.
광수 (점점 지친다) 그냥 다음에 가…. 몸도 좀 안 좋고….
윤서 (포기한 듯) 알았어…
(흘리는 말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광수 (윤서 말에 멈칫하더니 불같이 화내며) 내가 뭐!
그동안 내가 하는 일이 뭐 어땠는데!
(핏대 올리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어! 어?!
정현 (놀라 어리둥절하다 운다) 으아앙~~ 아빠… 무서워…
윤서 (정현 귀 막고) 자기 갑자기 왜 그래! 별말도 안 했구만, 왜 화를 내!

윤서, 정현을 다독이며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바로 문 닫는다.

광수 (윤서에게 다가오며 버럭) 말해봐!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어땠는데!
내가 잘못 산 게 뭔데?
윤서 (황당하고)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 그랬다고 이래!
광수 나! 한눈 한 번 안 팔고 여기까지 왔어! 너랑 정현이! 우리 부모!
장인 장모! 전부 내 어깨에 얹고도 불만 한 번 없이 여기까지 왔어!
윤서 (발끈) 장인, 장모를 어깨에 얹어? 왜, 이번에 우리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린 게 그렇게 아깝디? 그래서 엄한 데서 터뜨리는 거야?!
광수 (분노 끓어오르고) 왜 불똥이 거기로 튀어! 그리고! 기껏
보내드렸더니, 뭐?! 너 그게 할 소리야?
윤서 (빽!) 그럼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데!!
광수 (버럭) 무시했잖아! 나 같은 게 하는 짓이 다 그렇다 그랬잖아!!
윤서 (어이가 없고) 내가 언제! 그리고! 그 정도도 말 못 해?!
니가 뭐가 그렇게 잘 났는데! 니가 뭔데!!

쨔악! 광수, 대차게 윤서의 뺨 때리고. 뺨을 맞은 윤서,
순간 숨까지 멎고 기막혀하다가 천천히 고개 들어 광수 본다.
광수 벌벌 떨며 윤서 노려보고 있고.

윤서 (뺨을 손으로 덮으며) 지금… 나… 때린 거야?
광수 (그제야 정신 나서) …윤서야…

윤서, 더 들을 말 없다는 듯 정현 방으로 가 방문 여는데. 겁먹은 정현이
굳은 채 서 있다. 정현을 안아 올리던 윤서, 뭔가에 놀란 듯 정현의 원피스를
더듬다가 바닥을 본다. 바닥에 정현의 소변이 흥건하고. 윤서, 원망스러운
눈으로 광수 본다.

광수 (수습 안 되는 상황에 더 열 받아) 어휴! 진짜!!!

광수, 쿵쾅거리며 서재 방으로 들어가더니 '쾅!' 문 닫아버리고.
윤서, 정현을 안고 울음 터뜨린다.

#59. 태강 본사/인사과 사무실(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철야 중인 희진.
한참 서류를 보고 있다가 핸드폰 시계 본다. 핸드폰 액정 '20:45'

희진 (액정 엄지로 닦으며) 뭐야…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60. 버스 안(밤)

한강 다리 위를 달리고 있는 버스 안, 뒤쪽 좌석에 앉아 창에 머리를 박고 있는 진호. 공허한 표정이다. 진호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빌딩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을 빤히 바라본다.

#61. 한강 다리 위(밤)

다리 난간 너머에 서 있는 진호. 양팔을 난간에 걸치고 위태롭게 서 있는데 바람에 넥타이와 재킷이 펄럭인다. 검은 물결을 내다보고 있는 진호의 괴로운 표정. 턱이 떨리고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검은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진호 야아아!! 이 더러운 새끼들아! 내가 니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니넨 뭐가 그렇게 다 잘났어! 어흑… 왜 날 비참하게 해! 왜… 으흑… (아래 보며) 잠깐이면 돼, 다 끝날 거야… (호흡) 후… 후…

천천히 울음을 그치고는, 눈 질끈 감고, 난간에 걸쳤던 양팔이 스르르 풀리는데. 두려움에 움찔하며 난간 다시 부여잡는 진호.

진호 (한심하다) 오진호… 끝까지 찌질하다…

다시 눈 감고 난간을 잡고 있던 팔을 푸는 진호. 서서히 몸이 앞으로 기우는데. 그 순간 울리는 전화벨. 화들짝 놀라 다시 난간 잡는 진호,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낸다. 환한 액정에 '엄마' 뜨고. 물끄러미 보던 진호, 아이처럼 울음 터지고. 주저하다 받는다.

진호 모(F) (다급한 목소리) 아유, 얘, 너 왜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어!
진호 (울음 삼키며) 어쩐 일이에요…
진호 모(F) 니들 아무 일 없는 거지? 호중이랑 에미도 잘 지내고?
진호 어… 잘… 지내지…
진호 모(F) (안도) 아유, 다행이다. 좀 전에 살짝 조는데 어찌나 꿈자리가 사나운지. 기분이 쌔해서는…
진호 (소리 죽여 운다) 으흐흑….
진호 모(F) (놀라) 여보세요? 진호야?! 너 울어?
진호 (울음 터지고) 엄마… 흑흑흑
진호 모(F) (덜컹) 무슨 일이야!
진호 내가 못나서 미안해… 흐흑… 엄마한테 끝까지 죄만 짓고…
진호 모(F) (화들짝) 죄를 짓다니! 너 그거 무슨 소리야! 거기 어디야!!
진호 엄마… 사는 게… 너무 버거워… 더 이상은 못하겠어…
진호 모(F) (고함) 진호야!!!!

#62. 광수의 집/서재(밤)

앨범을 넘기고 있는 광수. 건조한 표정으로 사진 하나하나 보고 있다.

INSERT
— 고등학교 교문 위에 걸린 '신광수 서울 공대 수석 입학' 플래카드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광수와 광수 부모의 사진.
— 파란 잔디 구장에서 수비수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공을 몰고 가는 광수의 사진.
— 호프집에서 광수, 진호, 희진, 윤서 어깨동무하고 유리공을 높이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광수, 천천히 앨범 덮는다. 평온해 보이는 광수의 얼굴.

#63. 희진의 집/현관+거실(낮)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초췌한 모습의 희진 신발 벗으며.

희진 자기야, 나 왔어~ (안방으로 가며) 면접은 잘 봤어?

#64. 광수의 집/거실(낮)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던 윤서, 서재 방으로 가 문 앞에 선다.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던 윤서, 결심한 듯 노크한다.

윤서 (조심스럽게) 자기야… 자?

#65. 희진의 집/거실(낮)

안방 문 여는 희진의 얼굴만 CLOSE UP.

희진 아직 자는 거야?

#66. 광수의 집/서재(낮)

서재 방문을 여는 윤서의 얼굴만 CLOSE UP.

윤서 아직 자는 거야?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뭔가를 보고는 공포에 질린 윤서의 얼굴.
서재 방 벽에 비친 그림자.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가는 그림자,
그 끝에 축 처진 채 매달려 있는 사람의 그림자.

윤서 아아아아아악!!!

#67. 희진의 집/안방(낮)

안방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는 진호. 희진, 그런 진호를 짠하게 보는데.
그때 울리는 진호의 전화벨. 꿈틀대던 진호, 더듬어 전화 찾아 받는다.

진호 (사이) …어, 윤서야… 어쩐 일이야… (사이) 어… (벌떡 일어나며)
뭐?! (사이) 아냐! 아닐 거야!! 내가 지금 갈게! 기다려!

전화 끊은 진호,
거친 숨만 몰아쉬며 갈피를 못 잡고 시선만 이리저리 더듬다가.

진호 (이불에 머리 박고) 으아아아아악!!!

#68. 장례식장(낮)

가쁜 호흡을 몰아쉬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희진.
여기저기 헤매다 누군가와 부딪히는데. 그 순간, 시선에 들어오는 영정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광수다! 그대로 굳어버린 희진.

희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빈소로 이끌리듯 들어서는 희진과 진호. 털썩!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희진. 진호, 절을 하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때 희진에게 자박자박 다가가는 정현.

정현 (희진 등 쓰다듬으며) 아줌마, 울지 마세요.
(윤서 돌아보며) 엄마, 아줌마 울어…
희진 (천천히 고개 들어 정현 보다가 정현의 머리 쓰다듬으며 우는데)
정현 (천진난만) 아줌마, 호중이는요?
희진 (울음 삼키고) 응… 집에 있어…
정현 아빠가~ 내 생일에 놀이공원 데려가준다고 했어요.
호중이랑 아줌마도 같이 가요.

희진 그래… 그러자… 우리 정현이 생일이 언제야?

정현 (곰곰) 어… 어… 몰라요…

정현의 맑은 표정에 복받쳐 정현을 당겨 안고 울다가
그대로 윤서에게 기어가 무릎 꿇는 희진.

희진 언니… 미안해… 다… 다 나 때문이야….

윤서 (영문 모르지만 희진 부둥켜안고) 그게 무슨 소리야… 흐흑…

희진 내가 죽인 거야… 광수 오빠…

CUT TO
진호, 기절한 윤서 업고 뛰어나가고, 친지들 몇이 따라 나간다.
희진, 회한의 눈물 흘리며 광수의 영정 사진을 보는데. 순간 맥이 풀려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희진. 상복 입은 사람들 희진에게 몰려오고.

#69. 태강 본사/인사과 사무실(낮)

출근하는 희진,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희진을 본 사람들 모두 힐긋대며
수근거린다. 희진,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와 앉는다.

김 대리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오늘은 댁에서 쉬시는 게…

희진 (담담) 괜찮아, 일해, 김 대리.

희진, 컴퓨터가 켜지자, 사내 게시판 들어가고.

INSERT
컴퓨터 화면. 사내 게시판 목록 중 '본인상 부고 공지—고(故) 신광수 책임'
클릭. 공지 글 아래로 수백 건의 댓글. 댓글 중 '윤희진, 살인마!' '윤 과장,
니가 원한 게 이거냐!' 비난 글 보는 희진, 괴롭다. 주저하던 손으로 댓글
작성란에 커서 띄우고. '작성자 윤희진' 아래로 뭔가를 써 내려가는 희진.
'열심히 칼을 벼렸어...'

CUT TO
글을 다 쓴 희진, 차마 '등록'을 클릭하지 못하고 망설인다.
몇 번을 주저하다가
'등록' 클릭하는데. 팝업 뜨고.

INSERT
팝업 내용.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희진 (팝업 보고 놀라) 김 대리 (화면 보여주며) 어떻게 된 거야?

김 대리 아… 이거… 방금 전무님이 게시물 내리라고 해서 삭제했어요….

희진 (분노) 뭐?! (자리 박차고 나간다)

#70. 태강 본사/전무실(낮)

문 벌컥 열고 들어오는 희진, 비서가 뒤따라 들어오며 희진의 팔을
잡지만 뿌리친다. 강 전무,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한 얼굴.

강 전무 (비서 보며) 괜찮아. 그만 나가봐요.

비서, 걱정되지만 문 닫고 나가고.

강 전무 주말 내내 보고서 작성하느라 고생 많았어.

희진 (분노에 차 대들고) 신광수 수석 부고 글은 왜 내리신 겁니까!

강 전무 (표정 굳고) 그 친구 일은 유감이야. 하지만 윤 과장…

희진 (O.L.)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무님! 정리해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구요! (단호하게) 이번 일에서 손 떼겠습니다.

강 전무 그게 무슨 소린가!

희진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강 전무 그래,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여기서 관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희진 그만두겠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는 거였지,
사람을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강 전무　(싸늘한 표정으로 천천히 희진 올려다보며)
그래… 그럼 신광수는 누가 죽인 걸까…

희진　(멈칫) 그건….

강 전무　정리해고를 처음 기획한 건 누구지? 회장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신광수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 건?

희진　(질린 듯 말문 막혀) 그건…

강 전무　(표정 풀며) 잊지 마.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그렇다고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 빌딩 숲 보다가)
윤 과장… 이완용이가 을사조약을 체결했을 때, 고종이 정말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하나?

희진　(뜬금없는 소리에 벙쪄서 전무 보고)

강 전무　이번 정리해고… 정말 회장님이 몰랐을 거라 믿었나?

희진　(?…!)

강 전무　지금 돌아가는 판, 회장님께서 짜신 거야.

#71. 회상. 태강 본사/회장실(낮)

소파에 앉아 있는 최일류 회장과 강 전무.

회장　먼저 정리해고부터 진행하세요. 내년까지 20퍼센트.

강 전무　(놀란 마음 감추고) 창립 이래 최악의 상황에서 취임하셨으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회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해요. 단, 절대 오너
가와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켜선 안 됩니다. 내 말뜻, 아시겠습니까?

강 전무　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판도를 뒤집어야 합니다.

#72. 태강 본사/전무실(낮)

강 전무　(희진에게 다가와 빤히 보며) 대대로 쌓아온 오너 가문과 회사의
이미지는 다치지 않으면서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

희진　(강 전무의 시선 피하지 않고 똑바로 본다)

강 전무　윤 과장, 동네에서 개나 잡던 번쾌가 어떻게 유방의 심복이 됐을까?

자막 — 번쾌: 한나라 고조 때의 공신

희진　(저의를 더듬다가, 강 전무 쏘아보고)

강 전무　(희진이 가소로운 듯 피식 웃고) 유방을 대신해서 망나니가
돼줬잖나. 유방이 묻혀야 할 피를 대신 묻힌 망나니. 우리에겐 바로
그 번쾌가 필요했어. 회장을 대신해 칼춤을 춰줄 망나니 번쾌가.

희진　(울화가 치밀어 꽉 쥔 주먹 부들부들 떨고)

강 전무　사실 처음부터 윤 과장을 타깃으로 했던 건 아니야.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윤 과장이 정리해고안을 들고 나오더군.
('그게 다야' 하듯 어깨 으쓱하고)

희진　(냉랭) 철저하게 절 이용하신 거군요.

강 전무　(비웃듯) 윤 과장, 이완용이도 결국은 고종 대신에 칼춤을 춘
번쾌일 뿐이야. 내가 보는 역사는 그래.

그때 울리는 전화벨.

강 전무　(전화 받고) 그래, 지금 가지. (끊고, 안쓰럽게 희진 보며) 너무
비참해하지는 말게. 그 잘난 한신도 유방에게 토사구팽 당했지만,
번쾌만은 개국공신으로 천수를 누렸으니까.

자막 — 한신: 한나라 무장

강 전무　(재밌다는 듯) 윤 과장, 곧 팀장으로 발령 날 거야.
아, 그리고 이건 역린을 건드린 자들에게 주는 선물.

강 전무, 서랍에서 종이 한 장 꺼내서 희진에게 주고 전무실 나간다.
희진, 넋 놓고 있다가 전무가 준 종이로 천천히 시선 옮기고.

INSERT
‘2020년 3분기 정리해고 예정자 명단’ 맨 위에 ‘태강 그룹, 인사과.
노승준 상무이사’, 그 아래 ‘태강 그룹, 인사과. 조훈희 부장’

#73. 태강 본사/대강당(낮)

단상 위로 ‘신입사원과 전무와의 만남’ 플래카드 붙어 있고. 단상에 서서
품위 있게 연설하고 있는 강 전무. 그 모습을 존경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신입사원들. 그 때 대강당 뒷문이 벌컥 열리고 중앙 통로로 희진이 저벅저벅
걸어 내려간다. 희진의 한 손에는 빵빵하게 채워진 쓰레기봉투가 들려 있고.
신입사원들 놀라 모두 희진 보는데.

강 전무 사람 중심의 경영을…

말하다가 희진을 발견하고 애써 침착하려 하는데. 단상 앞까지 온 희진,
단상에 올라가 강 전무 앞에 서더니, 강 전무의 넥타이 확 잡아당겨 코앞에
얼굴 들이대고 똑바로 쳐다보며.

희진 유방은 번쾌를 손에 피나 묻히는 망나니라 여겼을지 몰라도,
번쾌는 칼끝에 맺힌 핏방울이 모이면 망나니도 영웅이 되는 세상이
올 거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무님. 전무님의 번쾌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휘두르는 칼끝에 맺힌 핏방울이 모이면 망나니만도
못한 것들의 세상이 올 거라는 걸요.

희진, 말 끝내자마자 주먹으로 강 전무의 턱 제대로 날리고! 강 전무 그대로
날아가 쓰러진다. 희진, 가져왔던 쓰레기봉투를 쓰러져 있는 강 전무 위에다
찢어 터뜨리자 쓰레기들 와르르 쏟아져 강 전무 덮는다. 강 전무 찌질한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희진 올려다보는데.

희진 (목에 걸고 있던 아이디 카드 휙 벗어서는 강 전무 얼굴에
내동댕이치고) 뭐? 고종이랑 이완용이가 뭐가 어쩌구 어째?
놀구 자빠졌네!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들!

희진, 당당하게 뒤돌아 단상 아래로 내려와
유유히 강당을 빠져나가는 모습 위로.
#69의 사내 게시판에 희진이 작성했던 글이 오버랩되고.

희진(NAR) 열심히 칼을 벼렸어. 그 칼날 위에 심판이 필요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내가 어리석었어. 중요한 건 칼날이 아니라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란 걸 몰랐거든. 심판이 필요한 바로
그놈들이 칼자루를 쥐고, 내가 벼려놓은 칼날 위에 오빠를 세울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 아니, 뒤늦게 알게 됐지만 외면했어.
난 오빠의 명복을 빌 자격조차 없어. 나를 용서하지 마.

#74. 에필로그

주택가의 담 없는 아담한 주택. 가정집 그대로 사용하는데, 치킨집이다.
주방에서 열심히 닭 튀기는 진호. 그 옆에서 정신없이 치킨 포장 중인 희진.

희진 오늘 월드컵 경기 때메 주문 폭주니깐 부지런히 튀겨!
진호 어!

그때 쭈뼛거리며 가게 문을 열고 홀로 들어오는 한 남자의 뒷모습.

상진 저기…
희진 (포장하느라 남자 보지 못하고) 치킨 주문하시게요?
상진 (긴장한 듯) 알바 면접 왔는데요…
희진 (! 급 정색하고) 아, 네! 테이블에 앉으세요.

희진, 앞치마 벗으며 홀로 나가는데, 그곳에 상진이 서 있다.
서로를 알아보고 놀라는 두 사람.

희진 어머, 한 과장님! 여긴 어쩐 일로….
상진 (당황해) 윤, 윤 과장님…
(나갈까 말까 하며) 여, 여기가… 윤 과장님네 가게…

희진 (번뜩 정신 차리고, 사무적으로) 앉으시죠.

상진 (희진의 태도 돌변에 놀라 자리에 앉으며) 아, 네!

희진 (면접 톤) 배달 알바 해본 적 있으십니까?

상진 (정신 번쩍) 아, 네! 햄버거집에서 2개월, 중국집에서 세 달 반…

진호 (O.L.) (주방에서 치킨 한 접시 들고 나오며) 자기야, 이거 먹구 해… (상진 보고 놀라) 어! 한상진이다!

상진 (에라 모르겠다!) 저는 한상진이 아닙니다.
저를 열정 상진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 '열정 치킨'에서
저의 열정을 불싸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희진과 진호, 시큰둥하게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진 속을 태우다가.

희진 (닭 다리 치켜들고) 합격!!!

끝.

작가 후기

정리해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다른 데로 이직하면 되지…. 자식도 어린데 어떻게든 살았어야지….
이직도 할 수 있었고, 거둬야 할 가족도 있었던 그 사람이 왜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마음이 궁금해지면서 번쾌의 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희진과 진호이지만 사실 그 시작은 광수였던 거죠.
광수라는 인물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결국 가장이라는 존재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짜놓은 장기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 치는 말들, 그게 가장이라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살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고, 죽지 않기 위해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순간들을 맞이하는 가장들. 끝내는 살아남는 자, 끝내는 무너지는 자, 스스로 소멸하는 자.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가장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면 했습니다.
물론, 미천한 능력이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의 바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센터장님과 동료들과 함께한 수정의 시간이었습니다. 들을 땐 살짝 아파도, 거부할 수 없는 촌철살인의 멘트를 던져주시는 김지일 센터장님, 항상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로 저의 사그라드는 자존감에 불을 지펴주시는 임고은 대리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통영행 버스

김지안

작의

‘자식이 어른이 된다는 건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생긴다는 것이다.’
드라마 ‹통영행 버스›는 위의 문장으로 처음 시작된 단막극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맹목적인 데가 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거고, 내 자식은 언제나 착하며,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내 자식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맹목(盲目).
자식들은 커갈수록 부모의 맹목과는 다른 나를 찾아가지만,
그럼에도 부모의 맹목에 찬물을 끼얹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식들은 대신 침묵과 거짓말을 택한다.
부모가 모르는 비밀이 쌓이고, 부모가 모르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간다.
자식의 침묵은 부모의 맹목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말을 안 하니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 아슬아슬한 동상이몽은 한순간의 폭탄이 되어
떨어져 일상을 흔들어놓곤 한다.
그럴 때면 부모는 자식의 침묵을 탓하고, 자식은 부모의 맹목을 탓한다.

부모의 맹목이 자식의 침묵을 만드는가.
자식의 침묵이 부모의 맹목을 만드는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수준의 모호한 인과관계.
그 복잡한 인과관계 속 어느 지점을 들여다보는 드라마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부모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자녀에 대해
정말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녀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얼마큼 솔직하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등장인물

김경분(56세, 여) 국밥집 운영
남편은 일찍이 집을 나갔고 혼자서 딸 은아를 키웠다.
과부라는 콤플렉스로 딸 은아에 대한 애착과 기대 심리가 크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딸 은아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의 부고를 듣게 된다.

이민혜(28세, 여) 카페 운영
은아의 장례식에 나타난 의문의 여자. 경분이 알지 못했던 은아에 대해 아는 듯하다. 첫 만남부터 경분을 적대적인 태도로 대한다.

장은아(28세, 여) 소설 작가
경분의 딸. 경분에게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게 했지만 사실은 19금 소설을 쓰고 있었다.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김경애(54세, 여)
경분의 동생. 경분을 도와 국밥집을 함께 운영한다.

이민기(26세, 남)
민혜의 동생. 민혜와 함께 카페를 운영한다.

그 외
석현(28세, 남, 고시원 총무), 승준(30세, 남, 출판사 청운 직원),
박 실장(40대 후반, 남, 출판사 청운 실장), 집주인(40대 후반, 남) 등

줄거리

지방의 재래시장에서 동생 경애와 국밥을 팔며 사는 경분.
그녀에게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착하고 똑똑한 딸 은아가 최고의 자랑이다.
서울에서 공부하다가도 가끔 집에 내려와 식당 일까지 도와주는 착한 딸 은아.
그날도 경분은 식당 일을 더 돕겠다는 은아를 말려 서울로 가는 버스까지 태워 보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은아가 통영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대체 은아가 왜 통영으로 향했는지 알 수 없는 경분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다. 은아의 가방에서 나온 담뱃갑. 은아의 장례식에 찾아온 미지의 여자, 민혜. 은아가 썼다는 야한 소설까지. 은아의 세계에는 경분이 알 수 없는 것투성이다. 대체 내 딸이 왜 죽었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숨겨왔는지 알기 위해서 경분 역시 통영행 버스에 몸을 싣는다.

통영행 버스
김지안

#1. 시장 골목/은아 국밥 앞(낮)

거리에는 비가 추적거리게 내리고, 국밥집에서 나오는 중년 남자 둘.
그 뒤를 따라 나오는 경분.

경분 (가는 손님 뒤에 대고) 안녕히 가세요!

경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2. 은아 국밥 안(낮)

은아, 손님이 떠난 테이블에 철제 쟁반을 놓고 상을 치우고 있다.

경분 (은아에게 다가가) 어휴, 둬! 엄마가 하게. 얼른 가.
버스 시간 늦겠다.
은아 (계속 치우면서) 아니야. 아직 시간 좀 있는데 뭐.
경분 아니, 경애 이 기지배는 어딜 가서 안 들어와!

마침 경애,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경분 (경애에게 타박하며) 양반은 못 되네!
너는 어딜 쏘다니다 들어와! 은아 혼자 일 다 하게!
경애 (경분 잔소리를 귓등으로 흘리고) 언니 언니, 얘기 들었어? 순이네.
경분 순이네는 왜?
경애 순이네 오늘 난리 났어! 글쎄 순이네 딸내미가 엄마한테 할 말
있다고 앉혀놓더니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떡하니 내놓더래!
두 줄짜리!! 스물둘밖에 안 먹었는데!
경분 뭐어?! 아이고! 순이네, 그 집 딸내미 예전부터 발랑 까지게 하고
다니는 것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싶더랬어! 하여튼 간에 순이네도
순이네다… 아니, 어떻게 딸내미가 애를 가졌는데도 엄마가 몰라?
경애 에에? 언니.
아무리 자식이어도 입 꾹 닫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까?
경분 니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어서 모르나 본데
엄마들은 다 알게 돼 있어.
경애 (경분의 무시하는 투에 맘 상해서 씰룩)

김 씨, 밥 먹다 괜히 끼어든다.

김 씨 동생 미쓰여? 난 또 댕겨온 줄 알았네?
경애 하이고! 날 때부터 이 나이 때까지 호적 이사한 적 없그든요?
난 우리 엄마 아빠 호적에 그냥 인처럼 백였어!
은아 (아저씨 아줌마들 대화에 웃으면서 테이블 정리만)
김 씨 (은아 쓱 보고) 은아는 지금 만나는 사람 없어?
내가 줄 좀 이어줄까?
경분 (바로 커트) 아이고! 은아 남자친구 있어!
김 씨 있어? 잘생겼어?
경분 어휴, 그럼!
(카운터 쪽에 올려놓은 은아의 핸드폰을 찾아 들고 나온다)
은아 (경분 하는 거 보고 놀라서) 엄마아!
경분 아이참 괜찮아!

경분, 은아의 핸드폰 버튼 누르면.
잠금 화면에 나오는 은아와 석현의 단란한 투샷 사진.
경분, 사진을 김 씨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민망한 은아의 모습.

김 씨 잘생겼네!
경분 그치? 은아 임용고시 합격만 하면 바로 시집 보내버릴라고!
난 진짜 은아 걱정 하나도 안 돼. 여태까지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다니까?
경애 아이고? 왜 없어? 은아도 굵직굵직하게 두어 번 집안 뒤집었지?

경분　(경애 노려보는데)
경애　대학 다닐 때 작가하겠다고 한 번,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 (하는데)
경분　(경애의 팔뚝을 아프게 꼬집는다)
경애　아! 아파!

살벌하게 노려보는 경분에 경애 찔끔 입을 다문다.
순간 싸해지는 분위기.
김 씨, 차가워진 분위기에 무슨 일인가 눈동자만 데굴데굴 굴린다.
은아도 난처해서 눈치만 보는데.

경분　(경애를 계속 째려보다 은아의 손목 끌며) 가자.
괜히 빠듯하게 가서 버스 시간 서두르지 말고.
은아　(계속 경분의 눈치를 보며) 어? 어… (구석 의자에 놓은 허름한
백팩을 들고 경애에게) 이모, 그럼 나 갈게.

은아, 경애와 김 씨에게 인사하고, 먼저 자리를 나서는 경분을 쫓아나가는.
경분은 이미 입구 쪽에 놓인 우산꽂이에서 장우산 하나를 들고
가게를 나선다.

#3. 시장거리(낮)

자신보다 키가 큰 은아에게 맞춰 우산을 높이 드는 경분.
은아의 어깨에 걸린 가방마저 뺏어 들려고 잡아당긴다.

은아　(가방을 잡고) 아유, 엄마. 내가 들게.
경분　이리 내. 엄마가 이거라도 들어주고 해야지.
은아　(경분을 보다가 가방을 주고 우산을 뺏는)
그럼 우산은 내가 들게. 내가 키가 더 크잖아.
경분　(은아 엉덩이를 토닥토닥) 어이구,
우리 딸… 뭘 먹고 언제 이렇게 컸어.
은아　음… 엄마의 사랑?

경분과 은아, 웃음이 터지고.
사이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걸어 나가는 두 사람.

#4. 버스터미널 플랫폼(낮)

화기애애하게 버스 플랫폼으로 들어서는 경분과 은아.
플랫폼 근처 흡연구역에서 손가락에 담배를 끼운 채
핸드폰 통화하는 여자를 보고.

경분　(혀를 차며) 으이구.
저 부모는 딸내미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아나 몰라.
은아　(경분 보고)
경분　부모는 집에서 얼마나 딸내미 믿고 계실 거야.
부모가 불쌍하다, 그치?
은아　(씩 웃으며) 어, 그러게.

서울행 버스가 서 있는 플랫폼 앞.
경분,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흰 봉투를 꺼내 은아의 주머니에 욱여넣고.

은아　엄마! 안 줘도 돼. 얼마 전에도 용돈 보내줬잖아.
경분　어휴, 그건 그거고! 이건 엄마가 너 그냥 보내기 싫어서 주는 거야.
가서 밥이라도 든든한 거 사 먹어.
은아　됐다니까. 안 그래도 밥 잘 먹어.
경분　고시원에서 해주는 밥이 다 거기서 거기지. 가서 들어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 혼자서 먹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즘은 뭐, 그 혼밥인가 뭔가 해서 그런 거 흉도 아니라더라.
우리 가게에도 젊은 여자 손님들 혼자서 많이 먹고 가.
은아　(경분을 미안한 맘으로 보고)
경분　가끔씩 네가 석현이 밥도 좀 사주고.
너무 얻어먹기만 하면 남자도 힘들다. 사이좋게 지내.
은아　…미안해, 엄마.
경분　(은아를 아프지 않게 때리며) 미안하긴. 엄마는 너를 위해 살고,

너는 엄마 위해 살면 되는 거야. 엄마는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너 선생님 되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 잘 살면, 엄마 여태까지 고생한 거 다 보상받는 거야. 매일 뚝배기 들고 나르고… 그거 다 엄마는 너 보고 버텼어.

은아 (애틋하게 경분 본다)

경분 얼른 타. 춥다.

은아 (우산 건네며) 엄마, 우산.

경분 너 가져가. 엄마는 바로 앞인데 뭐.

은아 그래도. 비 많이 오잖아.

경분 (은아를 밀며) 엄마는 괜찮어. 얼른 타, 얼른.

은아, 못 이겨 버스에 오르고 바로 닫히는 버스 문.
은아가 자리 찾아 들어가는 대로 경분도 은아를 쫓아 비를 맞으며 나온다.
그런 경분을 보며 가라고 손짓하는 은아.
보고도 경분은 웃으며 똑같이 가라고 손짓하는.
서서히 플랫폼을 빠져나가는 고속버스.

#5. 달리는 고속버스 안(낮)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은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자연스럽게 남자친구 석현과 찍은 핸드폰 배경 사진을
은아, 민혜, 민기의 행복해 보이는 카페에서의 사진으로 바꿔놓는다.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꾸고 곧이어 고속버스 티켓 예매 어플을 찾아 누르는데.
(다른 버스 티켓 끊는 건 나오지 않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재빠르고 능숙한 게 한두 번 해온 게 아닌 것 같고.
한동안 톡톡톡 핸드폰 액정을 누르는 은아의 모습이 보이고.
은아, 핸드폰으로 모든 일을 끝낸 듯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다.
비 오는 풍경에 고속버스 유리창은 습기로 뿌옇고.
은아, 뿌연 창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한다.
다 쓴 글씨 보면, '엄 마' 라고 쓰인 두 글자.
글자 옆에 이마를 갖다 대는 은아, 근심이 많은 표정이다.
그런 은아의 얼굴 위로.

타이틀. ‹통영행 버스›

#6. 은아 국밥 안(밤)

손님들이 다 빠지고 한가한 국밥집 안.
경분과 경애, 공깃밥에 반찬통 그대로
밑반찬을 놓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식사하는 두 사람.

경애 은아는 잘 도착했대?

경분 도착하고도 남았겠지. 지금이 몇 신데.

경애 도착했으면 했다고 연락 좀 주지, 기지배.
은아 있다 가면 더 허전해, 그치?

경분 (마찬가지로 마음 허하다. 괜히 TV 채널로 말 돌리는)
얘, 딴 데 좀 보자. 뉴스는 죄 정치인들 싸우는 얘기만 나오고.
드라마나 틀어봐, 드라마.

경애 (리모컨 집으며) 응. (채널 돌리려는데)

INSERT
뉴스 화면. 뉴스 하단 자막으로 나오는.
'속보, 서울—통영행 버스 추락 사고'

앵커 속보입니다. 서울에서 통영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4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를
포함한 세 명이 숨지고, 이십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애 어머, 사고가 크게 났네…

경분, 입안 가득 넣은 음식물을 씹을 생각도 못 하고 뉴스 화면을 보는.
묘하게 숙연해지는 분위기.
그 분위기를 뚫고 갑자기 테이블 위 경분의 핸드폰이 소란스럽게 울린다.

경애 아이고! 깜짝이야! 누구야, 이 시간에.

울리는 핸드폰을 보는 두 사람 모습에서.

#7. 은아 국밥 앞(밤)

허겁지겁 국밥집에서 나오는 경분.
비는 아랑곳도 안 하고 무작정 시장 밖으로 뛰어나간다.
뒤쫓아 나오는 경애.

경애 언니! 언니!!

뛰던 경분,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지고.
뒤따라 나오는 경애가 벗겨진 슬리퍼를 집는다.
옆집, 과일 상회에서 김 씨도 소란에 놀라 나오고.

경애 (김 씨에게) 아저씨! 우리 가게 좀 봐줘요! (경분 쫓아가며) 언니!!

#8. 대학병원 안(밤)

자동문이 열리고, 쫄딱 젖은 행색으로 병원 안에 들어오는 경분과 경애.
구정물에 젖은 경분의 흰 양말에서 경분이 걸을 때마다 물이 찍찍 묻어
나오는. 병원 안은 뛰어다니는 의료진들, 환자, 기자 등으로 인산인해다.
천천히 걸어 들어가다가 급히 어디론가 가는 간호사 하나를 잡는 경분.

경분 저… 우리 애가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왔는데…
간호사 (급한 말투)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경분 장은아요.
간호사 (들고 있던 의료 차트를 보다가 안타깝다는 듯 경분 보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경분 …네?
간호사 사망하셨어요. 20분 전에…
경애 예에?!

경분 은아… 은아야…! (넋을 잃고 그대로 쓰러진다)
경애 언니!!
간호사 (쓰러진 경분에게 다가가) 어머니! 어머니!!

INSERT
병원 로비, 대형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화면.

앵커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스물여덟 살 장 모 씨가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네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9. 장례식장 전경(밤)

#10. 장례식장/빈소(밤)

은아의 영정사진.
그 앞에 승준이 절을 두 번 한다.
일어나서 상주에게 인사하려고 보면 비어 있는 상주 자리.
엉거주춤 서 있는 승준에게 음식을 나르던 상복 입은 경애가 다가오고.

경애 상주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바로 나와보라고 할게요.
(상주 방 들어가려고 하면)
승준 (손사래 치며 말린다) 아, 아닙니다. 바로 또 서울 올라가 봐야
돼가지고요. 저…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 자신의 명함을 주며)
언제 한번 연락 좀 달라고 전해주세요.

경애, 명함을 받아들면.
'출판사 청운. 김승준'

승준 (목례하며) 저, 그럼. (자리를 빠져나간다)
경애 아니… (가는 승준 보고 다시 명함 한 번 보고)

#11. 장례식장/상주 방(밤)

상복을 입은 채로 멍하니 앉아 있는 경분, 그새 얼굴이 파리하다.
경분의 앞에는 다 망가진 은아의 백팩과 구겨진 담배 한 갑.
초점 잃은 눈빛으로 담뱃갑을 보고 있는 경분.

(E)노크 소리 들리고.

경애 (조심스럽게 들어오며) 언니, 시장 분들 오셨어. 잠깐 나와봐.

#12. 장례식장/빈소(밤)

경분의 손을 잡고 슬퍼하는 시장 사람들.

김 씨 (눈 주변이 축축하게 젖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바로 전만 해도 그렇게 생글생글 웃던 애가…
(다시 눈시울 붉어지고)

경분, 김 씨의 위로를 멍하니 듣고만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자리를 보면.
손님 몇 없이 텅 비어 있는 테이블들.
몇 있는 자리도 젊은이들 몇 명만 어색하게 검은색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있다.
그중 구석에 앉아 있는 민혜를 보는 경분.
머리를 요란하게 염색하고 귀에는 주렁주렁 피어싱을 하고 있어
눈에 확 띈다.
민혜, 넋이 나가선 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한곳만 응시한다.
경분, 민혜의 시선을 따라가보면.
빈소에 놓인 은아가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만 멍하니 보고 있고.
그런 민혜를 보다 안 되겠는지 옆에서 민기가 일어나자며
민혜의 팔을 끄는데.
단호하게 팔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는 민혜.

민혜를 보고 한숨을 푹 쉬는 민기이다.
도무지 은아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의
두 사람을 의아하게 보는 경분.
그들에게 가보려는 경분을 끌어안으며 우는 시장 사람.

시장 사람 아이고! 딸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은아네 불쌍해서 어떡해!!
경분 (시장 사람이 곡하는 대로 안겨 있어준다)

경분, 시장 사람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민혜와 민기가 있던 자리를 보면.
이미 사라진 두 사람의 한 술도 뜨지 못한 장례식장 음식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13. 장례식장 건물 앞(밤)

시장 사람들을 배웅하는 경분.
사람들을 보내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분의 눈에
흡연구역에서 혼이 나간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민혜가 들어온다.

#14. 장례식장/흡연구역(밤)

조심스레 민혜에게 다가가는 경분.
민혜, 인기척에 경분을 본다.

경분 은아 보러 왔죠? 아까 안에서 있는 거 봤어요.
민혜 (말없이 보고. 눈에 영혼이 없다)
경분 (쭈뼛거리며) 저기…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보이며) 은아
가방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내가 알기론 우리 은아가 이런 거
가지고 다닐 애가 아니라서… 갑자기 통영 가는 버스를 탄 것도
그렇고… 엄마한테 말도 없이 그런 먼 데 가는 애도 아니거든요.
민혜 (경분의 말이 불쾌한지 움찔, 얼굴 근육이 사납게 굳는다)
경분 우리 은아랑 잘 알아요?

혹시 우리 은아가 왜 통영 가는 버스를 탔는지 아는 것 있어요?

민혜 이제 와서 알고는 싶어요?

경분 (당황한) …예?

민혜 이제 와서 은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긴 하냐고요.
아니면 은아 가방에서 담배가 나온 걸로 은아를 비난하고 싶은 건가? 잘 키운 내 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경분 아니… 아가씨…!

그때, 장례식장 건물에서 나오는 민기.
화장실을 들렀다 나왔는지 손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며 나온다.
경분에게 소리치는 민혜를 발견하고 급하게 뛰어오는 민기.

민기 (민혜 말리며) 누나!!
(경분에게 꾸벅 인사하며) 죄송합니다, 어머니…

민기, 민혜 끌고 자리를 뜨려는데.

경분 아가씨 뭐예요?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릴 해요?!

민혜 (민기에게 끌려가다 경분의 말에 뒤를 돌아본다)

민기 (멈춘 민혜를 다시 끌고 자리를 뜬다)

경분, 가는 민혜와 민기를 멍하니 본 채 그 자리에 굳어 서 있다.

#15. 은아 국밥 앞(낮)

국밥집 앞에 있는 큰 가마솥 열리고 김이 뿌옇게 올라온다.
김의 열기에 얼굴을 일그러뜨린 경분, 커다란 국자로 가마솥 안을 휘휘 젓고
밥과 부속고기가 들어 있는 뚝배기 안에 국물 옮겨 담는.

경분 (뚝배기 들고 들어가며) 보통 하나요!

과일 몇 박스 실은 고철 자전거 끌고 나서던 김 씨.

경분의 모습 보고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설설 젓다가 간다.

#16. 은아 국밥 안(낮)

빈 테이블을 집요하리만큼 행주질하는 경분.
경애, 그 옆에서 걱정스럽게 본다.

경애 언니, 고만 닦아. 테이블 뚫리겠다, 그러다!

경분 넌 그동안 행주질을 어떻게 한 거야. 기름때가 다 눌어붙었네.

경애 (답답해서) 어디! 어디 가! 언니 고만 좀 해.

경분, 경애의 말을 듣는 듯 행주질을 멈추는가 싶더니 주방으로 들어가고.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커다란 냄비를 큰 채반에 쏟아내면.
숟가락, 젓가락들이 삶아진 채 쏟아져 나온다.
젖은 숟가락, 젓가락을 마른행주로 닦아내는 경분.
경애, 그런 경분을 안타깝게 본다.

(E)가게 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경애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고) 어서 오세요… (하는데)

경분 (경애가 손님 맞기도 전에 나와서)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손님을 응대하는 경분을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의 경애.

#17. 경애의 방(밤)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경애.
갑자기 벌컥 경애의 방문이 열리고 형광등이 팟 켜진다.
무슨 일인가 비몽사몽 잠에서 깨는 경애.
보면, 경분이 경애의 가방이나 화장대 위 등을 살피며 무언가를 찾는다.

경애 언니… 뭐해…? 뭐 찾어…?

경분 (찾기 바쁘고) 네 핸드폰.

경애 내 핸드폰은 왜?

경분 은아한테 전화해보려고. 이 기지배, 나한테 토라진 게 있나 전화를 죽어도 안 받아. 계속 전화가 꺼져 있어. 그래서 네 걸로 해보려고.

경애 (경분이 무섭기까지 하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은아 갔잖아…!

경분 (제정신이 아닌 눈으로 경애 돌아본다) 가? 어딜 가?
은아 어디 간다고 하디? 지 엄마한텐 쏙 말도 안 하고?

경애 …

경분 (다시 핸드폰 찾는다) 아까는 김 씨가 나더러 괜찮냐는 거야. 뭐가 괜찮냐니까 은아 장례 치르고 잠은 잤냐. 미친놈… (점점 찾는 속도 느려지고. 격앙된다) 온 시장 사람들이 나 딱하게 봐. 글쎄 다 은아가 죽었대!! 저번에 우리 은아랑 집에서 봤던 영화 뭐니? 트루맨 쇼가 뭔가. 아무래도 지금 나한테 다들 그러는 것 같아. 죄다 짜고 나 골탕 먹이는 것 같아.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경애야? 응?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은아 그 기지배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고게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경애 (자리에서 일어나 경분에게 가 끌어안는다)

경분 내가 진짜 기가 막혀! 멀쩡한 내 새끼 죽었다고 세상이 나한테 구라를 친다, 경애야? 왜 하필 나한테 그런다니? 배부르자마자 남편은 딴 년이랑 바람나 도망가고 혼자 애 키우며 평생 박복하게 살았으면 됐지! 하나뿐인 생때같은 자식까지 뜯어놓고 김경분이 이년 어떻게 하나 구경하는 것 같아. 경애야, 네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 좀 해줘. 김경분이가 졌으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김경분이 이러다 숨넘어갈 것 같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니가 사정 좀 해줘!!! 너는 그 사람들이랑 연락할 거 아냐!!!

경애 (속이 미어지고. 경분 더 세게 끌어안는다) 언니 그만해…!

경분 (오열한다) 대체 은아가 통영엔 왜 가느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등신 같은 여편네는 딸내미 탄 차가 절벽에서 구르고 있는데 좋다고 밥을 처먹고 있었어…! 이 등신 같은 여편네가…!
(미치겠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여기에 불덩이가 있는데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가 아주 환장을 하겠네!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경분.
그런 경분을 더 세게 끌어안는 경애.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있는 두 사람.

#18. 민혜의 방(밤)

불이 다 꺼진 방, 무드 등 조명에 오르골 소리가 은은하게 울린다.
민혜, 침대에 옹크리고 앉아 침대에 펼쳐놓은 은아와의 사진들을 보고 있다.
멍하니 보고 있던 민혜, 무릎을 끌어안은 팔 사이로 고개를 파묻는다.

#19. 경분의 방(낮)

이부자리에서 퀭한 눈으로 누워 있는 경분.
경분의 시선 끝에는 열린 옷장에 삐죽 튀어나온 겉옷 하나가 보인다.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 사이에서 혼자 못나게 튀어나온 옷을
멍하니 보는 경분.
무기력하게 한참을 보다 결국 몸을 일으켜 옷을 정리하러 다가간다.
옷걸이째 꺼내 옷의 매무새부터 정리하는 경분.
옷을 걸어놓기 전 겉옷 주머니 속을 확인하다
약간 구겨진 승준의 명함을 보고.

#20. 경분의 집/거실(낮)

명함을 들고 거실로 나오면 마침 방에서 나오는 경애가 보인다.

경분 (경애에게) 이게 뭐야?

경애 (명함 보고) 아! 언니한테 얘기한다는 게 주머니에만 넣어놨네. 은아… (장례라고 말하기 어렵다. 경분 눈치 보며 대충 얼버무리고) … 때 어떤 남자가 주고 갔어.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언제 한번 연락 달라는데 말한다는 게 내가 깜빡했다. 보니까 거기서 화환도

보냈더라고.

경분, 명함을 뚫어져라 본다.
출판사 전화번호 밑에 작게 적혀져 있는 출판사 주소 보이고.

#21. 경분의 방(낮)

나갈 채비를 하는 경분이다.
가까운 거리는 아닌 듯 챙겨 입는 모양새.
문가에서 그런 경분을 걱정스럽게 보는 경애.

경애 서울이 어디라고 혼자 간다 고집이야.
경분 은아 살던 고시원에서 짐도 챙겨와야 하고.
경애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경분 너는 여기 있어. 나 혼자서… 나 혼자서 다녀오고 싶어.

경분, 경애를 스쳐 방을 빠져나간다.
경애, 몰래 챙겨놓은 가방을 들고 따라가려는데.
휙 뒤돌아 다시 당부하는 경분.

경분 따라오지 마. 나 혼자 갈 거야. (집을 나선다)
경애 (가는 경분 보면서) 아휴, 걱정돼 미치겠네…

#22. 서울행 고속버스 안(낮)

티켓 들고 줄 서서 버스에 오르는 경분.
사람들, 티켓에 있는 QR코드로 티켓 확인을 한다.
경분, 이런 건 생소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버스 기사, 무뚝뚝하게 경분 손에 티켓 뺏어 대신 찍어준다.

경분 고마워요…

자리를 찾아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경분.
티켓과 좌석 번호 확인하고 자리에 앉는다.
은아가 앉았던 좌석과 비슷한 창가 자리.
버스가 출발하고.
은아가 그랬듯 경분도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차창에 머리를 기댄다.

#23. 고시원 안(낮)

고시원 안으로 들어서는 경분.
현관은 이미 젊은이들의 운동화, 구두, 슬리퍼 등으로 포화 상태이고.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신발장도 꽉 차 있다.
빽빽하게 들어차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번에 그려지고.
그 모습을 보며 은아 생각이 나서 짠해지는 경분.
경분, 신발을 벗고 들어가 바로 앞에 있는 총무실의 창문을 똑똑 두드린다.
총무실의 창문이 열리고, 총무 석현이 고개를 삐쭉 내민다.

석현 네?
경분 (석현과 얼굴 마주하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석현을 본다)

경분, 석현이 은아가 보여줬던 사진 속 남자친구임을 알아채고.

경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 석현이! 석현이 맞지!!
석현 (소리치는 경분에 놀라서) 아… 네, 맞긴 맞는데…!
어머니 여기서 소리치시면 안 돼요! (총무실에서 나온다)
경분 (총무실에서 나온 석현의 손을 잡고) 아이고… 아이고…!
왜 장례식장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금세 울음기가 섞인다)
석현 (당황해서 우선 경분 모신다) 어머니!
우선 나가서 이야기해요, 나가서!

#24. 고시원 옥상(낮)

석현, 눈이 휘둥그레진다.

석현 네? 은아가 죽어요?

경분 (고개 끄덕이고)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또 눈물이 나오려)

석현 (놀라기는 했으나 덤덤한)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경분 (남 일 대하듯 하는 석현의 반응이 이상하지만) 혹시 우리 은아가 왜 통영에 가려고 했는지 아는 것 있니? (간절하게 석현 본다)

석현 (어리둥절해서) 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경분 (당황스럽다) …우리 은아 남자친구 아니에요?

석현 제가요?? (손사래) 어휴, 아니에요! 그냥 전에 고시원에서 동갑이라 친하게 지낸 것밖에 없어요.

경분 (혼란스럽고) 은아가 남자친구라고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석현 예에? (문득 생각나서) 아! 전에 엄마가 하도 남자 얘기를 꺼낸다고.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찍어줬는데. 그걸 아직도 써요?

경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석현의 말에 민망해서) 아… 내가 친구라고 한 걸 착각했었나 봐요…! 아무튼, 은아 방 어디에요? 내가 은아 물건 가지러 온 건데.

석현 무슨 방이요?

경분 은아 방이요. 고시원 은아 방.

석현 어머니, 은아 방 뺀 지 일 년도 넘었어요.

경분 (!) 아니… 그게 무슨… 내가 여기로 반찬도 몇 번이나 해다 보냈는데…

석현 아… 반찬이요…? 그게… 잠시만요, 어머니.

옥상에서 자리를 뜨는 석현.
경분은 그저 모든 게 당황스럽다.

#25. 고시원 건물 앞(낮)

고시원 건물에서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경분.
손에는 빈 반찬통이 든 쇼핑백 들려 있다.
시선을 내려 쇼핑백을 내려다보는 경분. 그 위로.

석현(E) 은아가 받으러 오기 곤란하다고. 그냥 고시원 사람들끼리 먹으라고 해서요. 반찬통은 혹시 몰라서 제가 싹 다 씻어가지고 따로 보관은 해놨는데.

반찬통 보는데 기가 막히는 경분, 은아와의 대화가 생각난다.

#26. 과거. 은아 국밥(낮)

식당 테이블에서 부추를 다듬는 은아와 경분.
경분, 문득 생각이 나서.

경분 너 보내준 반찬통은 왜 안 갖고 내려와.
다시 갖다줘야 거기에 새로 반찬해서 보내주지.

은아 어? 어… 내가 맨날 까먹네, 헤헤…
근데 엄마 반찬 안 보내줘도 된다니까.

경분 엄마가 밥장사를 하는데 반찬도 안 해 보내주면 돼?
전에 보내준 멸치 볶은 거는 어떻디?
호두랑 땅콩까지 넣어서 고소하게 해봤는데.

은아 (웃으면서) 응. 맛있더라.

#27. 고시원 건물 앞(낮)

경분,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인 건지 은아에게 부아가 치민다.
남들 먹이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반찬 해다 보냈던 건가 화도 나고.
고시원 건물 근처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는 경분.

플라스틱 버리는 곳에 들고 있던 쇼핑백 그대로 뒤집어 탈탈 쏟아버린다.
빈 쇼핑백은 패대기치듯 던지는 경분의 눈에 분이 차 있다.
경분, 핸드백에서 무언가 찾아 꺼내 보면.
승준이 주고 간, 구겨진 명함이고.

#28. 청운 출판사 안(낮)

작지만 깔끔한 분위기의 독립출판사.
그 가운데 놓인 롱테이블에 경분이 어색하게 앉아 있다.
출판사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기 바쁘고.
승준, 정수기 앞에서 녹차티백에 물을 따르며 경분의 눈치를 보고 있다.

승준 (녹차 가져다주며) 전화만 주셔도 됐을 텐데…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경분 우리 은아가 여기서 작가로 책을 냈다고 하던데…

승준 아 네! 이거랑… 이건데요.

승준, 테이블 끝에 디피된 책들 중 은아의 책 두 권 정도 찾아 경분에게 보여준다.
경분, 책 받아보면.
책 제목이 ‹거친 상사의 못된 플레이›‹엉뚱한 색마와의 동거›
두 권의 책 모두 표지 귀퉁이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딱지가 붙어 있다.
경분, 당황스럽고.

경분 이게… 우리 은아가 쓴 거라고요…?

승준 (경분의 반응 눈치채고) 아… 그게… 요즘은 이런 책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들 봐요…! 저희 출판사 매출의 대부분이 장 작가님 책인걸요… 인기 많아요…!
지금 일본이랑 중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요… 하하…

하는데, 마침 사무실로 들어오는 박 실장.

박 실장 나 왔다. (경분 보고) 누구…?

승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장 작가님 어머니…

박 실장 장 작가? (하다가) 아!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박 실장, 다짜고짜 경분의 손을 잡고, 경분은 어색하게 손을 붙들린다.

박 실장 제가 가봤어야 했는데 워낙 일이 바빴어 가지고. 어떻게, 장 작가 책들은 보여드렸어? (경분 손에 있는 책 보고) 아, 보여드렸네.
우리 장 작가가 참… 재능이 많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승준 (눈치 없는 박 실장에게 얼굴 표정으로 그만하라고 사인을 보낸다)

박 실장 (승준의 눈치 알아채고 말을 뭉뚱그리며) 어음… 그럼 나머지 얘기는 우리 김 대리랑 나누세요~ (급하게 자신의 자리로 가는)

승준 (눈치 없는 박 실장 뒷모습을 째리는데)

경분 저기…

승준 (표정 정리하며 경분 보고) 네, 네.

경분 혹시… 우리 은아 어디 사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승준 …예?

경분 여기에 은아 살던 집 주소라든지 있을까 해서 혹시…

승준 아… 계약할 때 간단한 신상명세를 받긴 하는데… 그게, 저희가 작가님들 개인정보는 회사 방침상 알려드릴 수 없게 되어 있어서요… (하는데)

박 실장 (자리에서 듣다가 불쑥) 그냥 알려드려.

승준 네?

박 실장 에이, 뭐 그게 별거라고! 상황이 상황인데. (경분에게, 약간은 한심하단 투로) 그나저나 어머님, 따님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세요?

경분 (이 상황이 그저 겸연쩍고, 부끄럽고, 망연하다)

CUT TO
품에 파일 하나를 들고 오는 승준.
경분은 현실감을 못 느끼는 얼굴로 자리에서 멍하니 넋 놓고 앉아 있다.
승준 오자 번뜩 정신 차리고.

승준 (은아의 이력서 펴 보이며) 이력서 주소에는 통영으로 되어 있네요.

경분 (통영이라는 말이 반갑다) 통영이요? 통영으로 되어 있어요?

승준 네. 혹시 필요하실까 봐 한 장 복사해 왔어요.
(사본 건네며) 여기요.

경분 (이력서 받아 들고) 고마워요. 그럼, 가볼게요.

박 실장 (건성이다) 예. 가세요.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박 실장 한 번 보고 사무실에서 나서려는 경분.
갑자기 울컥 박 실장에게 억하심정이 든다.
사무실 문손잡이까지 잡았다가 박 실장을 본다.

경분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박 실장 (그제야 경분 보고) 예에?

경분 엄마가 무슨 천지신명이에요?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아느냐고요!

#29. 경분의 집/주방(낮)

냉장고 청소를 하느라 반찬통들을 꺼내고 행주질하던 경애,
냉장고 문짝에 가려진 얼굴이 고개를 들자 튀어나오고.

경애 (통화하고 있는) 어딜 간다고?

#30. 교차.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분의 집/주방(낮)

터미널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경분, 손에는 통영행 티켓이 들려 있다.

경분 (경애와 통화 중) 통영. 통영에 갈 거야.

경애 혼자?
아니, 서울에 갔다 오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또 통영이야.

경분 경애야, 나 이대로 가면 진짜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아. 은아
요 기지배가 대체 뭘 하고 살았던 건지 내 눈으로 좀 봐야겠어.

경애 아니, 언니… 지금 이 마당에 그게 뭐가 중요해.

경분 난 중요해. 엄마니까 알아야겠어. 다 알아야겠어!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전화를 끊는)

경애 (끊긴 전화에 대고) 언니! 언니!! (걱정스럽다) 아이참 진짜…

터미널에서 경분, 통영행 티켓을 보는 눈빛이 다부지다.

#31. 은아의 옥탑 집 마당(저녁)

통영의 은아 옥탑 집을 찾아 그 앞에 선 경분.
은아의 이력서에 적혀 있는 '옥탑 층' 단어를 확인하고
옥탑 집을 기웃대 본다.
옥탑 집 안에서 은은하게 불빛이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경분, 조심스럽게 옥탑 집 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지만, 기척이 없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경분.

경분 계세요? (덜컹 열리는 문에 흠칫한다)

민혜 (문을 열며, 만취해 있다) 누구세요.

경분 !!

민혜 (경분 보고 놀라는. 표정을 굳히고 급하게 문을 닫으려고 한다)

경분 (결국 네 년이었구나!
분노한 얼굴로 문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당긴다)

문 하나를 놓고 실랑이하는 두 사람.
결국 경분이 문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간다.

#32. 은아의 옥탑 집/거실(저녁)

방 두 개가 딸린 작은 옥탑 집.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것이 마치 신혼집 같아 보이기도 하는.

곳곳에 있는 은아의 사진과 물건들을 보며
홀린 듯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분.

민혜 (경분의 팔을 잡아끌면서, 흥분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경분 (민혜를 뿌리치면서) 너지! 네가 순진한 우리 은아 꼬셔다
이런 데서 쓰레기 같은 글이나 쓰게 한 거지!!

민혜 (조소) 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경분 뭐… 뭐…?

민혜 내가 은아를 꼬셔? 은아는 누가 만들어준 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스물여덟이나 먹었는데도 선택권이 없어?

경분 (보면)

민혜 (말하면서 점점 격앙된다) 여기, 은아가 먼저 오자고 한 거야.
엄마가 만들어놓은 포장지 안에서 사는 게 답답해 죽겠다고!
엄마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고 싶다고! 언제까지 은아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갇혀 살 줄 알았어?!

경분 (혼란스럽다)

민혜 맨날 당신은 은아를 위해 살고 은아는 당신을 위해서 살자고
했다고? 은아가 그 말을 얼마나 소름 끼쳐 했는지 알아? 은아가 왜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렇게 사는 시늉이라도 하려다 은아가
그렇게 죽었단 말야!! 당신 때문에!!

경분 (눈물이 고인 채로 듣다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민혜에게 달려드는)

밀고 당기고 몸싸움을 하는 두 사람.
술에 취한 민혜가 비틀하는 바람에 선반에 그대로 등을 부딪치고.
그 바람에 덜컹하는 선반.
경분, 선반 위의 물건들에 시선이 가는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은아와 민혜의 모습이 담긴 사진 액자가 보인다.

경분 (액자 속 은아 보면서) 여태까지 지 에미 뒤통수를 갈겨 대놓고…
뒷구멍으로는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죽어서 돌아와?! 나쁜 년! 이 천하에 나쁜 년!!

눈이 도는 경분.

선반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쓰러뜨리고 던지고 보는 경분이다.
그러다 화분 하나가 그대로 민혜의 발등 위로 떨어지고.

민혜 (발을 부여잡고 쓰러지며) 악!!

민혜의 비명에 정신을 차린 듯 멈추는 경분.
헉헉 거친 숨에 산발이 된 머리로 발등을 잡고 쓰러진 민혜를 내려다본다.

#33. 병원 안(저녁)

엑스레이를 보는 의사와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민혜.
민혜 뒤에 민망한 얼굴의 경분.

의사 골절이네요. 한 달 정도는 깁스 착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민혜와
그 뒤에서 지친 얼굴의 경분이 난처한 모양으로 서 있다.

#34. 병원 앞 갓길(밤)

병원에서 쭈뼛거리며 나오는 경분.
이미 민혜는 깁스를 차고 목발을 한 채로 길가로 나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민혜의 눈치를 보며 다가갈수록 들리는 통화 소리.

민혜 미안한데, 나 이번 주도 가게 못 나갈 거 같아. (듣다가) 다쳤어,
조금. 술 먹고서. (듣다가) 알아, 나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는데… 좀 봐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쳐 있는 민혜의 목소리.
맥이 탁 풀리는 경분, 민혜에게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35. 은아의 옥탑 집 건물 앞(밤)

집 앞에 택시가 서고.
내리는 경분과 민혜.

민혜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세요.
(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36. 은아의 옥탑 집 건물/마당(밤)

옥외계단 앞에 선 민혜.
좁고 가파른 계단 앞에서 목발에 깁스하고 난처하다.
민혜, 깊게 한숨을 쉬고 계단에 목발을 짚어보는데.
불쑥 경분이 뒤에서 들어와 목발을 뺏어 들고 민혜를 부축한다.
순간 당황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경분의 부축을 받아 올라가는 민혜.

#37. 은아의 옥탑 집 앞(밤)

경분과 민혜, 낑낑대며 겨우 올라온다.
옥탑 집 문 앞엔 쪽지 한 장이 붙어 있고.

'연락 바람—집주인'

쪽지를 보자 떼어 한 손에 구겨버리는 민혜.
그런 민혜를 의아하게 보는 경분.

#38. 은아의 옥탑 집/거실(밤)

힘들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
막상 집에 들어오니 멋쩍다.

민혜 (한숨 푹 쉬고 은아의 방 가리키며) 오늘은 저 방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일찍 가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E)방문 잠그는 소리 들리고

민혜가 방으로 들어가고 덩그러니 혼자 남은 경분.
방을 둘러보면 아까 깨진 화분과 액자,
그리고 곳곳에 널린 술병들이 보이고.
발치에 떨어져 있는 은아와 민혜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주워 들어보는 경분.
이제야 둘의 미묘하게 가까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찰나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경분.
아닐 거야. 고개를 털고 도로 선반 위에 사진을 올려놓는다.

#39. 은아의 옥탑 집/은아의 방(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경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방.
경분, 피곤한지 한쪽에 개어놓은 이불 위에 쓰러지듯 눕는다.

경분 아이고… 우리 은아 냄새나네…

이불에 얼굴을 더 깊게 묻는 경분.

#40. 민혜의 꿈. 은아의 옥탑 집/거실(아침)

아침 식사 준비 중인 듯 식탁에 차리다 만 아침상.
음식들에서는 모락모락 따뜻한 김이 올라온다.
그런 아침상을 사이에 두고 은아와 민혜가 맹렬하게 싸우고 있고.
눈에 독기 서린 채 민혜를 노려보는 은아.
민혜, 식탁 의자에 걸려 있던 겉옷을 들고 자리를 떠버린다.

민혜가 나가기 직전, 돌아보면.
혼자 쓸쓸하게 자리에 남겨져 있는 은아.
그런 은아의 뒤로 칙칙칙 전기밥솥 밥 지어지는 소리만 들리고.

#41. 은아의 옥탑 집/민혜의 방(아침)

전기밥솥 소리 이어지면서.
칙—! 밥솥에서 김빠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민혜, 꿈을 꾸다 소리에 헉! 하고 잠에서 깬다.
눈가에는 눈물 흐른 자국이 남아 있고.
전기밥솥 돌아가는 소리에 무슨 소리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42. 은아의 옥탑 집/거실(아침)

민혜, 방문을 열고 나가보면.
거실에 딸린 작은 주방에 밥이 지어지고 있는 전기밥솥과
가스레인지 위엔 찌개가 끓고 있는.
널려 있던 깨진 화분과 술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싱크대 앞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은아의 뒷모습.
싸우지 않는 것만 빼면 민혜의 꿈속 장면과 똑같은 풍경이다.

민혜 (현실감각 없고) 은아야…?

뒤돌아보는 은아.
보면, 은아가 있던 자리에 경분이 민혜를 보고 서 있다.

CUT TO
식탁에 앉아 있는 민혜.
앞에는 밥 두 공기와 반찬 몇 가지.
바로 경분이 찌개 뚝배기를 식탁 가운데에 놓고 앉는다.
어색한 분위기의 두 사람.

민혜, 이제야 많이 상한 경분의 얼굴이 보인다. 안타깝고.

민혜 (먼저 사과한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취해서…

경분 나도 미안해요. (그래도 울컥) 같이 살던 친구가 그렇게 됐으니
아가씨 맘도 오죽하겠냐마는… 그래도 아가씨, 친구인 아가씨보다
엄마인 내가 속이 터지면 더 터지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민혜 (경분 보다가 고개 떨구고) 죄송합니다…

경분 (한숨 쉬면서) 여기 계단도 높은데 발 그래 가지고 괜찮겠어요?

민혜 괜찮아요.

경분 내가 너무 미안해서 며칠만이라도 있을까 하는데…

민혜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하는데)

경분 발 다친 거 나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은아 어떻게 살았는지도
궁금하고… 갈 때 여기 있는 은아 물건들… 다 챙겨서 가려면 짐도
싸야 하니까.

민혜 (!) 은아 짐을요?

경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은아 짐 계속 두고 지내는 것도 그럴 거
아네요. 그리고 몰랐으면 모를까, 여기에 은아 물건들 다 놓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가족이 챙겨가야지.

민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분 (그런 민혜 보다가) 들어요. 약 먹으려면 밥 먹어야지.

경분,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지만 민혜는 계속 굳어 있는 상태로.

#43. 은아의 옥탑 집/민혜의 방(아침)

절뚝이며 방으로 들어서는 민혜, 침대에 풀썩 앉고.
책상 위 은아와의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어본다.

민혜 (혼잣말로) 가족…

사진 보다가 다시 책상 위에 툭 내려놓는다.
책상 위엔 수많은 은아와 민혜의 사진들.

#44. 은아의 옥탑 집/거실(저녁)

걸레로 거실 바닥을 닦는 경분, 걸레질하다 문득문득 멍해진다.
그러다 문득 민혜의 굳게 닫힌 방문을 보고.
경분, 생각에 잠긴다.

#45. 과거. 은아의 옥탑 집/거실(새벽)(#40 연결)

아침 일찍 일어나 은아의 방에서 나오는 경분.
흑흑흑 흐느끼는 소리에 조심스럽게 민혜의 방에 귀를 대보면.

민혜(E) (꿈꾸는 중이다. 흐느끼며 잠꼬대) 은아야… 은아야…

마음이 안 좋은 경분.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한다.

#46. 은아의 옥탑 집/거실(저녁)

경분, 자리에서 일어나 민혜의 방으로 향한다.
노크하려 손을 들고는 잠시 또 망설이는데.
왈칵 문이 열리고.
놀라 서로를 보는 경분과 민혜.

민혜 할 말 있으세요?
경분 아니… 그냥… (걸레 들어 보이면서) 청소해줄라구…
민혜 (걸레 잠깐 보다가) 저기,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경분 (보면)
민혜 (입이 잘 안 떨어지는 듯) 은아 짐 말이에요… 생각해봤는데… (머뭇대다 차마 말 못 하고) 아니에요. 제 방 청소는 안 해주셔도 돼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경분 (다시 닫힌 민혜 방문 보고) 뭐야? …은아 짐 가져갈 것 없다고 어깃장 놓으려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다 은아의 방으로 향한다)

#47. 은아의 옥탑 집/은아의 방(저녁)

경분, 잽싸게 문을 닫아버린다.
구석에 세워둔 주워 온 박스 판지를 다시 접어 박스로 만든다.
박스테이프 꺼내 쭉쭉 붙여 이로 탁 끊어 마무리하고.
완성된 박스에 은아 책장에 있는 책들부터 담기 시작하는 경분.
이것저것 정신없이 담다가,
은아의 책상 서랍 쭉 열어 잡동사니 넣기 시작하고.
그러다 서랍 안쪽에서 밀려 나온 작은 선물 상자와 카드를 발견한다.
뭐지? 카드부터 열어보는 경분.

은아(E) 이민혜! 생일 축하한다!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자. 언제나 항상 사랑해.

카드 내용을 보고 혼란스러운 경분.
카드와 함께 있던 작은 선물 상자를 열어보려는데.
그때, 방문 밖에서 민혜 나오는 소리가 나고.
경분, 소리에 놀라서 선물 상자와 카드를 짐 싸던 박스에 넣어버린다.

#48. 교차. 은아의 옥탑 집/거실+민혜의 카페(저녁)

민혜, 방에서 나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다.
아직 깁스한 발이 익숙하지 않아서 비틀비틀.

민혜 (민기와 전화 통화) 네 선에서 해결 안 돼?

민혜의 작은 카페, 멀리 바다가 보이는 분위기 좋은 가게다.
민기,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민혜와 통화하면서 음료 내리고 있다.
뒤에는 아이들 데리고 온 엄마들 단체 손님이 테이블 붙여 수다 떨고 있다.
왁자지껄 정신없는 카페 안.

민기 내가 내 선에서 될 것 같으면 지금 누나한테 전화를 하겠어?
어우 정신없어. 빨리 와! (전화 끊고)

민혜,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깁스 안 한 발을 운동화에 욱여넣는다.
운동화 뒤축을 뒤꿈치 밖으로 빼려는데,
무게가 한쪽 발에 다 실려 있어 여의치 않고.
안 되겠어 현관에 세워진 목발을 짚고 쪼그려 앉아 뒤축 빼려는데.
그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결국 경분, 가서 민혜 세우고 쭈그려 앉아 운동화를 깔끔하게 신겨주는데.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민혜.
경분은 민혜의 신발을 신겨주면서
아까의 카드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은아(E)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워.

운동화에 쑥 들어가는 민혜의 발.
경분, 몸을 세워 민혜를 마주 보는데.

은아(E)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자.

경분, 민혜를 보는 눈빛이 복잡하다.

은아(E) 언제나 항상 사랑해.

경분, 참지 못하고 다시 뒤돌아 은아의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민혜 저기.
경분 (보면)

민혜 제가 지금 일하는 가게에 급하게 가봐야 하거든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은아도 가끔씩 와서 일했던 곳이라.

#49. 민혜의 카페 앞(저녁)

가게 앞에 서는 택시.
목발 짚고 택시 밖으로 나오려는 민혜.
반대쪽 문으로 경분이 나와 민혜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
야외 꼬마전구 조명이 설치된 카페 마당 테이블까지 손님이 만석인 가게.
눈이 휘둥그레진 경분, 민혜 부축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50. 민혜의 카페 안(저녁)

카페 조리대 안으로 들어가는 민혜.
민기는 이미 토마토해물스파게티를 볶고 있다.

민기 (앞치마 하는 민혜 보면서) 애기 손님들 크림리조또 하나 남았고,
밖에 손님들 맥주 두 병 나가야 해.
민혜 나더러 이 발로 서빙을 나가라고?
민기 (쥐고 있던 팬 손잡이와 볶음주걱을 민혜에게 내밀며)
그럼 이거 받아서 하든가.

가만히 보고 있던 경분, 음료 냉장고에서 맥주 두 병을 찾아 꺼낸다.

경분 이거 가져다드리면 돼요? 어디다가?
민기 (눈치 보다) 어… 저기 마당에 커플 손님인데요…

경분, 맥주 두 병 들고 마당으로 향한다.
엄마 단체 손님, 가는 경분에게 추가 주문한다.

손님 저기 애들 테이블에 사이다 한 잔 더 넣어주세요.

경분 네. 알겠어요.

우선 마당으로 맥주 들고 나가는 경분.
경분을 잠시간 보던 민혜, 리조또 만들려 팬에 기름을 두른다.

CUT TO
손님이 다 빠져나간 마감 분위기의 카페 안.
민기, 붙였던 테이블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테이블 위 닦고.
민혜는 조리대 안에서 음료를 내린다.
경분은 카페 한쪽에 있는 폴라로이드 포토존을 구경하고 있다.
손님들 사진 사이사이로 보이는 은아의 사진들.
경분, 사진 속 은아를 하나하나 쓸어본다.
그러다 커피 드립을 하는 은아의 뒤로
민혜가 개구지게 백허그하는 사진 보고.
순간 멈칫하는 경분.
경분은 은아와 민혜의 백허그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51. 과거. 경분의 집/경분의 방(저녁)

방으로 들어오는 경분,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메고 있던 핸드백을 벗어 바닥에 거의 내동댕이.
뒤로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은아가 한껏 쫄아서 따라 들어온다.

경분 (은아 홱 돌아보고) 너 너네 담임에게 밉보였니?
은아 (도리도리) 아니…
경분 근데 왜 사람 불러다 놓고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친구끼리 사이가 좋으면 칭찬을 해줄 것이지 어디 멀쩡한 남의 딸 정신병자 취급이야!
은아 (말도 못 하고 교복치마만 꼭 쥐어 잡는다)
경분 배웠다는 것들도 시장 아줌마들이랑 똑같네. 뚫린 입이라고 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씨부려…! 뭐? 정도를 넘어서게 친해?! 대체 그게 뭔데!!

은아 …
경분 너, 앞으로 그 주연인가 걔랑 어울리지 마, 알았어? 이상한 소문이나 돌구. 엄마는 전부터 맘에 안 들었어, 걔.
공부도 못하는 꼴통.
은아 (차마 대답 못 한다)
경분 알아들었냐구! 왜 대답을 안 해!
너까지 엄마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은아 (결국 고개를 주억거린다) 알았어… 알았다구… 엄마…

경분, 은아를 한참 보다가 다가가서 꼭 끌어안는다.

경분 은아야. 엄마 말 들어. 엄마는 너만 보고 사는데.
너한테 해로운 것 시키겠니? 응?
은아 (눈을 질끈 감는다. 팔을 들어 경분의 등을 꼭 끌어안는다)
응, 알았어…

#52. 민혜의 카페(밤)

경분, 옛 생각에 잠겼다가 정신을 차리고.
근처 다른 사진을 가져와서 은아와 민혜의 백허그 사진 위를 덮어버린다.
바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평범한 친구 같은 모습의 은아와 민혜의 사진이 백허그 사진 위를 덮는다.

민혜(E) 차 드세요.

민혜의 부름에 경분, 뒤돌아보면.
목발을 짚은 민혜가 한 손에는 찻잔을 들고
사진 속 은아가 앉아 있던 바 테이블 위에 올려준다.
경분, 묵묵히 가서 자리에 앉는다.
그 옆자리에 자리를 잡는 민혜.

민혜 은아가 좋아하던 자리예요. 가게에 오면 늘 그 자리에 앉았어요.

경분　(말 잘라내고) 내가 바쁜 일이 생겨서 얼른 은아 짐 챙겨
올라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라두.
민혜　네…? 이렇게 갑자기요…?

당황스러운 민혜와
냉정한 얼굴로 차를 한 모금 마시는 경분.
경분, 묻지도 않은 말을 한다.

경분　은아가요. 참 예전부터 여자친구들한테 살가웠어요.
애정표현도 잘하고, 스킨십도 잘하고. 친구가 하자는 건
웬만하면 거절도 못 하고.
민혜　(보면)
경분　여자애들끼리는 친구끼리도 팔짱 끼고, 끌어안고,
사랑한다고도 곧잘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민혜　(대답 않고 보고만 있다)
경분　(대답을 압박하는 듯) 친구 사이에도. 너무 친하면.
민혜　(결국 경분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다) 네, 그렇죠.

대화를 마치고 창밖 너머 바다를 바라보는 경분과 민혜.
은아와 민혜의 사진 속 모습과는 다르게 서로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53. 마트(낮)

마트 안으로 들어오는 경분.
마트 한쪽에 쌓여 있는 박스를 몇 장 집어 나가려는데, 직원에게 붙잡힌다.

마트 직원　아주머니! 여기 박스 가져가시면 안 돼요!
경분　가져가라고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둬서 뭐 하게. 몇 장 줘요.
딸 짐 싸려고 하는데.
마트 직원　아이참, 이거는 여기서 물건 사신 손님들께만 제공되는 거예요.
놓고 가세요.
경분　야박하게 구네. 그럼 두 장만 줘요, 두 장만. 응?

사정하는 경분과 난처한 얼굴의 마트 직원.

#54. 거리(낮)

결국 박스 두세 장 얻어 거리를 걷고 있는 경분.

#55. 은아의 옥탑 집 옥상 마당(낮)

옥외계단을 막 올라온 경분.
옥탑 집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집주인 보이고.

집주인　(혼잣말) 안에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 아니야?
(문 더 세게 두드리는)
경분　(집주인에게 다가가며) 여기 아가씨 오늘 병원 가야 해서 나갔는데.
집주인　(경분 보고) 뭡니까? 여기 사는 사람 알아요? 친해요?
경분　(어물거리며) 그냥 뭐… 친한 사이는 아니고… 그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내가 전해드릴게.
집주인　아니, 전부터 방 좀 빼라고 했더니 듣는 척도 안 하잖아요.
경분　방을 빼요…? 왜요?
집주인　재수가 없잖아요!
경분　…네?
집주인　와이프가 만삭인데 사람 죽은 집 위에 두고 어떻게 삽니까.
찝찝하게.
경분　(점점 화가 나는) 뭐, 뭐라구요?
집주인　(듣는 척도 안 하고. 혼잣말)
에이, 여태까지 더러워도 참고 냅뒀더만.
경분　아니, 여기 아가씨들이 왜 더러워요?!
집주인　그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자들끼리 아주 대놓고 연애질을 하는데
더럽다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경분　아저씨, 여기 아가씨들 그런 사이 아니에요. 원래 여자들은 친하면
유별나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구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더럽다 어쩐다고 해요?

집주인 (답답하다) 아이고, 아주머니. 그런 거로 눈 가리고 아웅이 됩니까?
예?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져요?

경분 아니, 이 아저씨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런대?!

집주인 아주머니야말로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 집 아가씨들 여기
동네에서 유명해요. 여자 둘이 뒤 포켓에 손 집어넣고 다니고. 사람
좀만 없다 싶으면 끌어안고. 쪽쪽거리고.

경분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다. 눈동자가 흔들린다)

집주인 집 올라가는 저기 계단에서도 서로 부둥켜안고 아주 그냥…! 어휴!
아무튼, 여기 사는 아가씨 오면 나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하세요!
(자리를 뜨는)

경분 (굳어 자리에 서 있다)

#56. 은아네 옥탑 집/현관(낮)

한 번 비틀, 하며 현관문 닫고 들어오는 경분.
애써 부정하던 진실에 무방비하게 얻어맞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아까 집주인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경분.

#57. 경분의 상상. 은아네 옥탑 집/옥외계단(밤)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드문 은아네 집 옥외계단.
은아와 민혜, 서로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며 장난을 친다.

집주인(E) 이 집 아가씨들 여기 동네에서 유명해요.

꺄르륵 웃음소리가 약간은 색스럽게 울리고.

집주인(E) 여자 둘이 뒷포켓에 손 집어넣고 다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끌어안는 두 사람.

집주인(E) 사람 좀만 없다 싶으면 끌어안고. 쪽쪽거리고.

금세 묘해지는 분위기다.
서로의 입술이 맞닿으려 하는 찰나의 타이밍에서.

#58. 은아네 옥탑 집/현관(낮)

경분,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젓는다.
은아와 민혜의 스킨십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거북함이 밀려오고.
경분, 속이 답답한지 주먹으로 가슴께를 퍽퍽퍽 치며 집 안으로 들어간다.

#59. 은아네 옥탑 집/거실(낮)

냉장고로 향하는 경분.
냉장고를 활짝 열어 문짝에 있는 콜라를 집어 병째 꿀꺽꿀꺽 마셔버린다.
그래도 속이 안 내려가는지 계속 가슴을 치는 경분.

#60. 은아네 옥탑 집/은아의 방(낮)

경분,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싸다 만 옷가지들을 박스에 마구 집어넣는다.

경분 은아 짐… 싸서 이 거지 같은 동네 얼른 떠버려야지…

옷을 넣는 손길이 점점 더 험악해지더니 결국에는 박스 위로 패대기친다.
벽에 기대 스르르 쓰러져 앉는 경분.
문득 옆에 놓인 잡동사니 담은 상자에 눈이 가고.
상자 구석의 은아가 민혜에게 전하지 못한
작은 선물 상자와 카드가 눈에 띈다.
카드를 열어 다시 읽어보는 경분.
카드 덮어 상자에 다시 넣고 눈을 감는다.

용기 내어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나란히 맞춰져 있는 커플링 한 쌍.
경분, 한 쌍의 반지를 꺼내 나란히 겹쳐본다.
사이즈 차이 별로 없는 두 개의 반지, 둘 다 여자 사이즈이다.
두 개의 반지를 꼭 쥐고 이마에 가져다 대는 경분.
그 모습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같기도 하다.

#61. 은아의 옥탑 집 옥상 마당(저녁)

민혜를 부축해서 옥외계단을 올라 옥탑 마당까지 올라오는 민기.
민기 한 손에는 족발 봉투가 들려 있다.
집 현관 바로 앞에서 민혜에게 족발 봉투를 건네주는 민기.

민혜 너도 먹구 가.
민기 (집 슬쩍 보고 고개 젓는다) 불편해.
민혜 (알겠다는 듯 피식)
민기 짐 진짜 다 갖고 올라가신대? 괜찮겠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아?
민혜 … (고개 젓고) 은아가 원하지 않을 거야.

민혜와 민기 사이에 어색한 적막이 흐르고.
민기, 어깨 한번 털고 민혜에게 인사한다.

민기 갈게.
민혜 그래, 조심히 가.
옥외계단으로 향하는 민기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민혜.

#62. 은아의 옥탑 집/거실(저녁)

집 안으로 들어가는 민혜,
불도 켜지 않은 컴컴한 집 안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민혜 어딜 가셨나…? …벌써 가신 건 아니겠지?

목발을 현관에 놓고 깁스한 발로 절뚝거리며 거실 불을 켜는 민혜.
식탁 위에 족발 봉투를 놓고 급하게 은아의 방으로 향해본다.

#63. 은아의 옥탑 집/은아의 방(저녁)

은아의 방 불을 켜보는 민혜.
짐을 싸다 만 어수선한 방 상태로 경분은 없다.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갸웃하는 민혜.

#64. 은아의 옥탑 집/민혜의 방(저녁)

경분, 민혜의 책상 등에 있는 은아와 민혜의 사진들을
정신 나간 듯 훑고 있다.
불도 안 켜고 가로등 불빛에 의존해 사진을 넘겨보는 모습이
무섭게 느껴지고.
그때 불이 탁 켜지면서 민혜가 뛰어 들어온다.

민혜 (경분 손의 사진 뺏으려 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분 (민혜를 뿌리치며) 놔!
민혜 (사진을 거칠게 뺏으며) 이건 제 거예요! 제 거라고요!!

경분, 손에 있는 사진들을 안 놓치려.
그 과정에서 이리저리 구겨지는 은아와 민혜의 폴라로이드 사진들.
하지만 결국 민혜에게 죄다 뺏기고.
민혜, 낙심한 표정으로 사진들 본다.

민혜 (어떻게든 구겨진 사진 펴려고 하면서) 어떡해…! 다 구겨졌어…!

경분, 그런 민혜를 향해 반지 두 개를 던져버린다.

민혜의 몸을 맞고 바닥에 또르르르 떨어지는 커플링.
민혜, 이게 뭔가, 반지들을 본다.

경분 아니길 바랐어… 끝까지 아니길 바랐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평범하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냐고 사진 속에 있는 기지배한테 욕을 한 바가지 하는데! (울기 시작한다)

민혜 (바닥에 떨어진 커플링을 주워든다. 같은 디자인의 커플링임을 확인하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경분 근데 걔가 지금 없는 애라는 게… 이제 없다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하고… 그럼 내가 배 아파 낳았던 그 아기는 어딜 갔나… 분명히 얼마 전까지도 엄마 엄마 하면서 나한테 안겼었는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혜 (눈물을 뚝뚝 흘린다. 반지를 만지작. 목이 메는 소리) 제가요… 요즘 은아 죽기 전날 꿈을 자주 꿔요. 그날 싸웠어요. 은아랑…

#65. 과거. 은아의 옥탑 집/거실(아침)

갓 잠에서 깬 모습으로 방에서 나오는 민혜.
은아는 아침상을 차리고 있다.

민혜 오늘 집에 다녀온다고? 그럼 내일 와?

은아 응. 엄마가 보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연락이 와서.

민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또 서울 들렀다 오는 거야?

은아 (아무렇지 않은 듯, 국그릇에 국 푸며) 엄마가 차 타는 것까지 보면?

민혜, 기분이 나쁘다.
괜히 식탁 위 은아의 핸드폰 버튼을 눌러보는데.
그새 핸드폰 배경화면이 은아와 석현의 사진으로 바뀌어 있다.
짜증이 나는 민혜.

은아 (짜증 난 민혜 못 보고 밝게) 내일 너 생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올게. 내가 아주 깜짝 놀랄 선물까지 준비… (하는데)

민혜 (짜증스럽게) 그 짓 좀 안 하면 안 돼?

은아 (민혜의 말투에 날이 선다) 무슨 말이야?

민혜 엄마 판타지에 맞춰 사는 짓, 안 지겹냐고. 매번 그게 뭐 하는 거야. 하루를 그냥 고속도로에서 다 보내고. 그러고 다녀오면 피곤해 죽으려고 하면서.

은아 네가 갔다 와? 내가 갔다 오는 건데 네가 왜 그래?

민혜 니 일 내 일 가르는 거야?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이렇게 산 지 벌써 일 년이 넘은 건 알아? 왜 솔직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구. (은아 핸드폰 배경 사진 보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은아 (핸드폰 뺏고) 다 너희 집처럼 잘 받아주는 건 아닌 거 알잖아.

민혜 그럼 연 끊고 살면 되지. 이제 네 집은 여기야. 내가 네 가족이라고. 피만 나눴다고 가족이야? 진짜 네 모습 보여주지도 못하고 말도 못 꺼내는데?

은아 (민혜 노려만 본다)

민혜 오늘 당장 가서 말씀드려. 너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은아 (계속 민혜 노려보는 채로) 난, 엄마한테 절대 말 못 해.

전혀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은아와 민혜의 신경전.
결국 민혜, 짜증 난다는 듯이 의자에 걸쳐져 있던 외투 들고 나간다.

민혜 (끝까지 감정적으로) 너 진짜 이럴 때마다 정떨어지더라.

민혜, 현관으로 나가다 잠시 은아를 돌아본다.
자리에 혼자 처량하게 서 있는 은아.
민혜, 마음이 아프지만 쾅! 집을 나서버린다.

#66. 은아의 옥탑 집/민혜의 방(밤)

민혜, 눈물이고 콧물이고 줄줄 쏟아지는 것 손바닥으로 닦아내기 바쁘다.
그런 민혜를 안타깝게 보는 경분.

민혜　은아가 사고 나기 전에 문자도 보냈었는데…

#67. 과거. 교차. 고속버스 안+민혜의 카페(낮)

(#5 장면) 민혜에게 문자메시지를 쓰는 은아.

은아(E)　(문자메시지와 함께) 어제 아침에는 내가 미안했어.
결국 난 이번에도 엄마한테 말은 못 했지만…
밤에 같이 맛있는 것 시켜 먹자. 생일 축하 겸 화해의 의미로
내가 쏠게. 나 11시면 도착할 것 같아.

카페에서 은아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민혜.
미리 보기로만 확인하고 답장하지 않은 채 폰을 엎어버린다.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은 얼굴.
뒤돌아 손님에게 음료 내놓으면서 미소로 표정 바꾸고.
버스 안에서 은아는 민혜의 답장을 기다리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다.

#68. 은아의 옥탑 집/민혜 방(밤)

민혜　삐쳐가지고 답장도 안 하고… 그게 은아 마지막이었는데…
(더 이상 울음으로 말을 이어갈 수가 없다) 이제는 은아가 살아
돌아만 오면 이해 못 해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경분　(마찬가지로 울면서 민혜 보고 있다)
민혜　(팔뚝으로 눈가 닦아내면서) 은아가 보고 싶어요…

경분, 결국 참지 못하고 민혜에게 가 끌어안는다.
민혜 역시 경분 끌어안고.

경분　은아 그 기지배, 내 꿈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이 엄마는 꼴도 보기
싫은가 봐… 은아야… 은아야… 엄마도 은아 보고 싶다… 엄마
꿈에도 좀 나와 줘라… 은아야…

서로를 부둥켜안고 엉엉 우는 두 사람.

#69. 경분의 꿈. 경분의 집/경분 방(낮)

경분, 자신의 이부자리 위에서 자고 있다.
밖에서는 평화롭게 짹짹 우는 새소리만 들리고.
방에 들어온 은아, 곤히 자는 경분 보고 씩 웃는다.

경분　(잠꼬대로 은아 찾는다) 은아야…
은아　(경분 곁에 가서 자는 경분을 흔들어 깨운다) 엄마, 엄마.

은아의 손길에 잠에서 깨는 경분.
옆에 있는 은아에게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다.

경분　은아야…
은아　(웃고) 엄마는 자면서도 날 왜 이렇게 찾아?
경분　(꿈인지 생신지 계속 은아 보고 넋 나가 있고)
은아　(경분에게 애교스럽게) 엄마는 내가 그렇게 이뻐?

경분, 은아의 애교에 눈물이 확 고인다.
바로 자리에서 은아를 끌어안고.
당황한 얼굴의 은아.
경분　그럼. 그럼… 우리 은아가 세상에서 젤루 이쁘지.
은아　(놀라 있다가 경분을 따뜻하게 안아준다)
경분　엄마는 은아가 뭘 해도 은아를 사랑해.
네가 뭘 어째도 사랑 못 할 일이 없어.
은아　(경분을 좀 더 꼭 안아주며) 엄마, 고마워.

#70. 은아의 옥탑 집/은아의 방(아침)

(E)부르릉— 동네 골목 어귀를 지나는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 소리에 잠에서 깨 천천히 눈을 뜨는 경분.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모습이 아직 꿈에서 못 헤어나온 듯한.
주변을 둘러보면 꿈속 자신의 방이 아니라
통영 은아의 방인 걸 겨우 인식하고.
아까의 행복했던 꿈과는 대비적으로 너무나 고요한 주변이다.
새소리나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골목에서 애들 뛰노는 소리 정도만 나는데.
그 안에서 멈춘 듯 가만히 앉아 있는 경분이다.
그때 울리는 경분의 핸드폰 벨 소리.
경분, 힘없이 핸드폰을 찾아 받는다.

경분 어… 경애야. …경애야… 방금 꿈에 은아가 나왔다?
처음으로 나왔어.

경애(F) 은아가, 가기 전에 언니 마지막으로 보러 왔나 부다…
은아랑 무슨 얘기 했어?

경분 내가… 은아한테 뭘 해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은아가 고맙대….

경애(F) 은아가 가기 전에, 엄마한테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었나 부네…
언니가 은아 듣고 싶던 말을 해줘서 은아도 맘 편하게 가겠다…
이제…

경분, 끔뻑끔뻑 경애와의 전화통 들고 있다가 조용히 끊는다.
경분, 잠시간 생각하다 다시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건다.

안내음(F)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중입니다.
삐 소리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삐—

경분 은아야… 이제야 엄마 봐주기로 하고 엄마 꿈에도 나와준 거야?
정말 이제 가려고…? 가기 전에, 엄마 보러 와줘서 고마워…
(울컥) 은아야…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응? 마음의 짐 다
내려놓고 맘 편하게 훨훨… 먼저 가 있어… 먼저 잘 가 있어…
사랑한다… 내 새끼….

전화를 끊고 볕이 들어오는 창을 바라보는 경분.
따사로운 볕이 경분에게 쏟아져 내린다.

#71. 납골당(낮)

유리 케이스 안, 은아의 납골함 앞에 놓이는 커플링 하나.
커플링을 놓는 손에는 다른 커플링이 끼워져 있다.
보면, 민혜다.
커플링을 놓고 한 걸음 떨어지는 민혜.
그런 민혜 곁에는 경분이 서 있다.
나란히 서서 은아의 납골함이 안치된 곳을 보는 두 사람.
은아의 사진, 은아와 경분의 사진, 은아와 민혜의 사진,
은아가 쓴 소설 두 권과 커플링까지 깔끔하게 놓여 있다.

민혜 (경분 보며) 은아, 정말 여기로 옮겨도 괜찮으시겠어요?

경분 이곳에는 은아가 좋아서 선택한 것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은아도 여기에 있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은아의 납골함 자리를 손으로 쓸며) 나 그래도 은아 자주 보러
와도 되죠? 너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다시 눈물이 조금 고인다)

민혜 (그런 경분의 어깨를 안아 위로한다)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에서. 은아랑 같이.

두 사람, 서로를 의지한 듯 기대선다.
그러다 시선을 돌려 은아의 납골함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은아의 독사진에서.

끝.

작가 후기

드라마 집필 공부를 하면서 그 사실을 꽤 오랜 시간 가족들에게 비밀로 했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시점이었고, 엄마는 은근히 제게 공무원 시험을 종용하고 있을 때였죠.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두루뭉술한 말을 하면서 저는 엄마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울에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새마을호 안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 당장 이 기차가 사고가 나서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얼마나 황당할까? 라는 생각이요. 잠시 외출한 줄 알았던 딸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오다 사고로 죽었을 때 대관절 우리 엄마는 마음이 어떨까… 통영행 버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수정을 하면서 나는 이 드라마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의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글을 수정하면서도 그 메시지를 놓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정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신 김지일 센터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제는 가족들에게 제가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펜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페어
(The Fair)

추현정

작의

범죄사건 관련 판결 뉴스에 달리는 댓글들은 대부분 비슷하다.
분노다.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에 비해
가해자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 페어›는 이런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에서부터 출발한다.

범죄 피해 트라우마를 가진 주인공 희선.
‘가상범죄프로그램(VCP)’을 통해 가해자도 피해자와 똑같이 고통받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 했지만, 결국 위기를 맞는다.

등장인물

류희선(37세, 여) 인간과 기술의 결합을 연구하는 ‘파이널 피스 연구소’ 대표
체지방률 제로, 근육으로 다져진 몸에 명석한 두뇌, 날카로운 눈빛.
목표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해가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치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빠른 속도에 비해 타고난 약점들로 생존율이 낮은
치타처럼 희선 역시 돌진하는 모습 속에 많은 불안정 요소들을 갖고 있었다.
분노, 집착, 경계, 의심… 그리고 목을 조이는 지독한 외로움까지.
그의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모두 한 지점에서부터 출발한 것들이었는데
25년 전 그날, 그놈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가 죽었다.
그놈이 죽였다. 그놈만 아니었더라면 희선도 엄마가 있었을 것이다.
학창 시절에 추억이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와 나눌 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엄마와의 소중한 기억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놈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그러고는 고작 7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해
과거를 벗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희선은 분노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불공평한 세상을 기필코 공평하게 만들고 말겠다고.

남주철(55세, 남)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ReBorn' 센터의 소장

처음 교정직 공무원이 됐을 때, 그저 밥벌이는 하겠구나 싶었다.
대단한 사명감 따위 당연히 없었다.
그렇게 10년, 업무 특성상 가끔 험악할 일이 벌어질 때도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지루할 만큼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일상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재소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죄명은 살인이었다.
애꿎은 남의 목숨을 빼앗고, 그 벌로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는 몸속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분노가 좀처럼 빠지질 않아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가 자꾸 주철의 눈에 밟힌 건 단순히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재소자 정보를 정리하던 중 그자의 생일을 알게 되었다.
고민하던 주철은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다.
바로 특정 재소자를 다른 재소자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주철은 뭔가에 이끌리듯 소설책 한 권을 포장했고, 그에게 건넸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선물을 받은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주철은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시절,
반에서 가장 약한 친구의 도시락을 날마다 뺏어 먹었다.
하루는 그 친구의 엄마가 학교로 찾아왔는데, 혼날 거란 예상과 달리
친구의 엄마는 주철에게 따로 만든 도시락을 건네주었다.
주철은 그날, 그 도시락을 먹으며 오열했다.
온몸으로 오열하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준 도시락을 먹었다.
자신이 준 선물을 받고 우는 재소자, 민욱을 보며 주철은 다짐했다.
이들에게 전에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을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주겠다고.

강민욱(45세, 남)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인생은 '고통' 그 자체였다.
엄마는 기억 속에서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아빠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 소년원을 제집처럼 들락거리던 그는
결국 스무 살이 되던 해,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간다.

7년 만에 출소한 민욱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 당시 수감 중이었던 교도소의 교도관, 주철이었다.
민욱에게 주철은 은인이자, 스승이고, 새롭게 얻은 진짜 아버지다.

고도영(28세, 남) 유료 채널 방송 '랜선 추리'의 운영자

마치 설정이고 연기인 것처럼 살인을 저지르고,
이 과정을 생중계해 시청자들에게
살해 동기, 시신 유기 장소 등을 퀴즈로 내며 추리게임을 제공하지만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도영이 저지른 살인이 진짜라는 것을.
결국 도영은 붙잡혔지만 같이 기소된 채널 시청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 모두 진짜 살인인지 '몰랐다'고 했기 때문이다.

황 검사(33세, 남)

희선에게 연민을 갖고 있다. VCP를 지지한다.

김 씨(60세, 여)

도영이 살해한 피해자 아영의 어머니.

판사(50세, 남)

부장 판사급. 희선을 아니꼽게 생각한다.

그 외

희선 모, 민욱 딸(중학교 1학년) 등

줄거리

일주일에 두 번씩, 규칙적으로 살해당하는 남자
희선은 그가 살해당할 때마다 "이제 세상은 좀 더 공평해졌다"라고 말한다.

불확실한 미래, 절망이 역병처럼 창궐한 시대에 잔혹 범죄율은 점점 높아졌다.
하지만 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내려지는 형벌의 강도는 천차만별이었고
더 이상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재범률은 끝없이 올라갔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낮은 형량만을 선고했다.
결국 보다 못한 국민들은 강력하고 새로운 형벌 제도를 요구하기에 나섰고
실제로 여러 방안이 모색되던 중, 파이널 피스 연구소의 대표 희선이 개발한
'가상범죄프로그램, VCP'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VCP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억,
그리고 사건 자료 등을 토대로 가상 세계를 만든 후, 이에 가해자를
접속시켜 본인의 범죄에 본인이 피해자가 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VCP에 접속된 가해자는 시각, 청각, 지각뿐 아니라 통각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자신이 피해자에게 준 모든 공포와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아야만 했는데 바로 이 점이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당연히 인권문제가 대두됐다.
인간의 기억을 임의로 추출하고, 이를 변형시켜 주입 후 다시 복귀시킨다는 점,
그리고 인위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한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재소자의 인권과 출소자의 사회화를 돕는 Reborn 센터의 소장 주철은
VCP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은 구시대적 발상의 비문명적 제도라 규정
짓고 여러 인권 단체들과 함께 VCP 반대 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희선이 VCP의 교정 효과를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자
분분하던 의견은 한순간에 VCP 제도 도입 찬성으로 모아졌다.
빠른 속도로 입법부를 통과한 VCP, 결국 새로운 교정 방식으로 채택되며
희선과 주철, 두 사람의 첫 싸움은 희선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희선의 편이 아니었다.
교정 방식으로 채택은 됐지만 3년이 지나서야 첫 VCP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고, 이조차 VCP 집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단 위기를
맞게 된다. 세상은 희선에게 VCP 중단을 요구했고, 희선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왜, 그들은 피해자와 똑같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VCP만을 위해 달려온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한 희선,
VCP를 비난하는 주철에게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뭔지 보여주겠다며
25년간 옷장 안에 숨겨져 있던 '그것'을 꺼내 입고 어디론가 달려간다.

더 페어 (The Fair)
추현정

#1. 거리(새벽)

동트기 직전,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
멀리서 불빛을 반짝이며 다가오는 청소차.
차가 멈추자 뒤에 매달려 있던 환경미화원이 내려서 쓰레기통을 비운다.
그동안 운전석의 동료는 라디오 뉴스를 듣는다.

앵커(E) 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연녀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강간한 피의자 유 모 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동료, 혀를 끌끌 차며 라디오를 끄고 음악을 튼다.
쓰레기통을 다 비운 동료가 손짓하자 이를 백미러로 보고는 출발한다.

#2. 골목(밤)

누군가 구토하고 있다. 검은 모직 코트를 입은 여자, 희선(37세, 여)이다.
괴로워하며 계속 구토를 시도하지만 나오는 거라곤 침과 위액뿐.
입에서 나온 끈적끈적한 액체가 희선의 머리카락 끝에 엉겨 붙는다.
이때, 희선의 허리춤으로 불쑥 들어오는 칼. 흠칫 놀라는 희선.

괴한 (희선 귀에 대고) 난 여자가 좀 튕길 때 그렇게 좋드라.

희선, 놀란 것도 잠시,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우두커니 서 있다.
오히려 당황한 건 괴한 쪽이다. 조급해져 다시 칼에 힘을 주려는데
순간 헉 하고 놀라는 괴한. 보면, 희선이 칼날을 그대로 손에 쥐고 있다.
새하얀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시뻘건 피. 놀라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괴한.
그 틈을 이용해 희선은 재빨리 괴한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는
칼날을 그대로 손에 쥔 채, 칼날 끝을 괴한의 목에 바짝 갖다 댄다.

희선 (낮고 조용히) 너 몇 살이니?
괴한 (얼어붙은) 에?
희선 몇 살이냐고.
괴한 스, 스물하나요….
희선 그럼 네가 나를 죽인다 해도, 서른도 안 돼 출소하겠네? 한 반년은 얌전히 살 테고. 그러다 오늘처럼 혼자 있는 여자를 발견하면 넌 또 이렇게 말할 거야. 난 여자가 좀 튕길 때 그렇게 좋드라….
괴한 (침 꼴깍)
희선 그렇게 또 감옥에 가도 넌 쉰도 안 돼서 다시 기어 나와. 마치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바퀴벌레처럼. 물론 반성은 하겠지. 죄도 뉘우칠 거고. (피식) 그럼 뭐해? 손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럼 넌 또…! (칼끝에 힘주는)
괴한 (헉, 튀어나올 듯 커진 눈)
희선 너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벌써 셋이야.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네 목을 콱 쑤셔버린다면? …세 명의 목숨은 살리는 거지.
괴한 (바들바들 떠는)
희선 자 질문, 내가 지금 너를 죽여야 할까, 아니면 살려야 할까?
괴한 (정신없어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주, 죽… 죽여야 해요.

기가 차서 괴한을 잠시 노려보다 이내 괴한을 놓아주는 희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털썩 주저앉는 괴한.
희선은 칼끝을 벽에 대고 부러뜨려 멀리 집어던진 후 괴한을 향해 말한다.

희선 숨도 쉬지 말고 살아. 나 또 만나기 싫으면.

희선, 그대로 돌아서 큰길로 나간다.

#3. 거리(밤)

쓰레기통을 비우던 환경미화원, 무심코 돌아보다 흠칫 놀란다.
어두운 골목에서 나오는 희선, 희선의 손에서 흐르는 피....
재빨리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며 어색하게 미소를 짓는 희선.
거리를 걷는 희선. 곧 청소차가 희선을 앞질러 저만치 간다.
청소차 뒤에 매달린 환경미화원, 희선을 계속 주시한다.
환경미화원의 불편한 시선에 코너를 돌아 방향을 바꾸는 희선.
좀 더 어두운 거리. 희선은 그 길을 홀로 뚜벅뚜벅 걸어간다. 암전.
(E)남자의 다급한 숨소리.

#4. 몽타주. In VCP(밤)

— 거리 (#3, 희선이 코너를 돌아 걷던 거리와 동일 장소)

— 남자의 왼쪽 눈으로 보는 시선 (오른쪽 눈은 안 보이는 상태)
어둠 속을 달리는 남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다.
달리면서 계속 뒤를 돌아본다. 아무도 없다. 다시 돌아본다. 아무도 없다.
속도를 살짝 늦추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본다. 누군가 쫓아온다!
헉! 남자는 다시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한다.

— 막다른 길
무작정 계속 달리다 결국 막다른 길에 들어선 남자,
다급히 주변을 둘러보지만 도망갈 곳이 마땅치 않다.
어느새 추격자는 남자 바로 뒤에 서 있다.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을 가렸다.

남자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며) 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추격자 (모자 아래로 미소만)

추격자, 휴대폰을 꺼내 남자 쪽으로 카메라를 들이댄다.
남자의 시선 앞으로 불쑥 다가왔다 다시 뒤로 물러나는 추격자.
남자, 시선을 내려다보면, 시커먼 피로 물든 자신의 두 손.

추격자의 손을 보면, 시커먼 피로 물든 칼.
다시 한번 추격자가 다가온다.
두 번 연달아 들리는 칼이 몸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
남자의 시선이 밑으로 툭 떨어진다. 추격자의 발이 보인다. 쓰러진 것이다.

남자 (무슨 말인가 하는데 발음 부정확한) 주… 주… 이… 마…
추격자 (남자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뭐?
남자 제, 제발… 죽이… 죽이지 마세요… (숨 헐떡이는)
추격자 (끅끅대며 웃고는) 사람은, 다 죽어.

남자,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추격자의 모자를 벗긴다.
드러나는 추격자의 얼굴. 순간 정적...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
침묵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추격자의 오른쪽 눈, 젖빛 동공.
추격자, 카메라 플래시를 남자의 시선에 앞에 바짝 갖다 대며 말한다.

추격자 걱정 마. 넌 이제 아주 재밌는 게임의 주인공이니까.

마지막으로 추격자가 남자의 배를 칼로 찌르는 순간,
남자의 시선이 직소 퍼즐처럼 갈라져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사라지면서 동시에 카운트, 10. 9. 8. 7...

INSERT
모니터 화면에 '6, 5, 4, 3, 2, 1... Disconnection!'

#5. 파이널 피스 연구소(이하 연구소)/VCP 집행실(낮)

사방이 커다란 모니터로 둘러싸인 공간.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각종 수치와 VCP 내 화면을 보여주던
각각의 모니터가
모두 'Disconnection'이란 글자로 바뀐다.
중앙에 놓인 커다란 의자, 그 의자에 앉아 있는 한 남자.
남자의 양 팔목과 발목에는 각각 의자와 연결된 결박 장치가 채워져 있고

그 결박 장치를 시작점으로 온몸의 신경이 붉은빛을 띠다 점차 사라진다.
복부 역시 네 개의 붉은 흔적(VCP에서 칼로 찔렸던 지점)이 천천히 사라진다.
눈에는 의자와 연결된, 행성 고리 모양의 원통형 고글이 씌워져 있다.

경고음과 함께 화면의 'Disconnection' 글자가 깜빡이더니
고글이 반으로 갈라지며 남자의 얼굴이 드러난다.
눈을 번쩍 뜨는 남자, 남자의 오른쪽 젖빛 눈동자.
방금 남자를 칼로 찔러 죽인 추격자, 바로 도영(28세, 남)이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왼쪽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는 도영.

도영의 정면 모니터 뒤로 돌아가면, 사방이 어두컴컴한 공간.
흰 가운을 입은 희선이 팔짱을 낀 채 도영 쪽을 바라보며 홀로 서 있다.
가운 가슴팍에 작게 새겨진 이름 '파이널 피스, 류희선'
희선 쪽에서는 도영이 보이고, 도영 쪽에서는 모니터만 보인다.

잠시 후, 희선 혼자 서 있는 줄 알았던 공간 뒤편 어둠 속에서
한 중년 남자가 희선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온다.
이어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박수를 치며 앞으로 나오더니
곧 조명이 켜지며 뒤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선을 향해 박수를 보낸다.
등 뒤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무표정하게 서 있는 희선, 그 위로

앵커(E) 드디어 가상범죄프로그램 VCP의 첫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6. 연구소 앞(낮)

창문이 하나도 없는 단층 건물, 그리고 건물보다 더 높은 담장.
담장 주변으로 수많은 기자들과 VCP 지지자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룬다.
연구소 건물을 배경으로 소식을 전하는 방송국 기자.

기자 피의자에게 피해자와 똑같은 공포와 고통을 느끼게 하는 VCP.
VCP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첫 집행이 실시됐습니다.

#7. 강당(낮)

자막 — 3년 전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에 서는 희선.
무대는 별다른 장치 없이 뒤에 스크린만 설치돼 있다. (애플 키노트 참고)

희선 (당당한 말투)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 국민들은 두 번 분노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다음에는 가해자에게 내려진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벌에.

희선이 작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편집된 영상이 빠르게 지나간다.

INSERT
— 스크린 속 영상
형사 사건 관련 최종 판결 뉴스 (속도감 있게)

"동료에게 약물을 먹인 후 강간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성추행 동영상을 찍어 퍼뜨린 학생들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내연녀를 살해한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등등...

이어서 한 피의자가 기자들에 둘러싸여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장면.
사과, 반성 등을 운운하며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을 향해 소리 지르는
피의자.

피의자 내 마누라 내가 좀 팬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카메라 향해 침 뱉는)

카메라에 침 떨어지는 순간 영상 멈춘다.
다시 강당, 희선은 객석을 바라보며 말한다.

희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자가 교도소에서 몇 년 복역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게 될까요?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까요?

(언성 높여)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10분의 일이라도 공감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은 일부러 침묵하며 객석의 긴장감을 높인다.

희선 (다시 침착하게) 하루가 다르게 재범률이 높아지는 요즘,
이제는 강력하고 새로운 형벌 제도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초범이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낮아지는 그런 형량이 아닌, 피해자도, 피해자의 가족들도,
선량한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벌 제도.

희선이 다시 리모컨을 누르자 이번에는 화면에
'Virtual Crime Program (VCP)'이라는 글자가 커다랗게 띄워진다.

희선 저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희선이 무대 반대편을 가리키자 그곳에 핀 조명이 내려오며
전시되어 있던 행성 고리 모양의 원통형 고글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위로 쏟아지는 박수갈채. 희선은 다시 리모컨을 누른다.

INSERT
— 스크린 속 영상
그래픽 화면과 음성으로 소개되는 VCP 안내 영상.
가해자라고 적힌 사람이 특수 의자에 앉아 원통형 고글을 쓰면
고글을 통해 보이는 VR 영상 속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
피해자 시점으로 자신에게 범죄를 당한다.

다시 강당, 안내 영상을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사람들.
그 속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주철(55세, 남).

#8. 몽타주

— 뉴스 화면
연구소 앞, VCP를 지지하며 환호하는 사람들 모습.
반대편, VCP를 반대하는 인권 단체 모습, 그 선두에 선 주철.
주철이 들고 있는 피켓 문구 '인권을 침해하는 VCP 절대 반대'
이때, 어디선가 날달걀이 날아와 주철의 머리를 강타한다.

시민 (달걀 던지며) 네 가족이 죽었어도 인권이니 뭐니
떠들어댈 수 있어?!

— 기자 회견장
선글라스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십여 명 앉아 있고
마이크 앞에 앉은 한 여자(30대)가 흐느끼며 성명서를 발표한다.

피해자 저를 포함, 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
오백서른두 명은 VCP를 적극 지지합니다.

— 연구소/헬스 룸
50평 남짓 사방이 시멘트로만 칠해진 공간.
가운데 놓인 긴 트랙 위를 운동복 차림의 희선이 땀을 흘리며 달리고 있다.
희선이 착용한 VR 안경을 통해 양옆, 앞뒤로 숲길이 게임 화면처럼 보인다.
중간중간 부러진 나뭇가지나 물웅덩이, 또는 산짐승 등이 나타나면
희선이 계속 달리며 그것들을 팔로 쳐내 사라지게 한다.
상단 진행 막대를 통해 목표지점까지 남은 거리를 알 수 있다.

— 토론회
VCP 반대 패널로 나와 토론을 벌이는 주철.

주철 (격앙된) VCP는 그 과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방청석 일반인 패널이 주철에게 질문을 던진다.

패널 아까부터 계속 인권을 언급하셨는데, 왜 박사님 머릿속에는
범죄자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거죠?

— 연구소/헬스 룸
트랙이 이제는 윗몸일으키기 기구로 바뀌어 있다. (변경 가능한 운동 기구)
희선이 VR 안경을 끼고 윗몸일으키기를 하면, 몸을 일으킬 때마다 눈앞에
악당 캐릭터가 나와 펀치를 날릴 수 있다.
연속 콤보 펀치로 높은 점수를 얻는 희선. 씩 웃는다.

— 토론회

주철 VCP는 교정 효과가 없습니다.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 교정본부/기자 회견장
단상에 올라 VCP 교정 효과를 발표하는 교정본부장 모습.

본부장 현 재소자 서른다섯 명을 대상으로 VCP 임상실험을 한 결과,
교정 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연구소/헬스 룸
다시 트랙을 달리는 희선. VR 안경을 통해 보이는 장애물을 가뿐히 통과한다.
상단 Bar를 통해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숨을 헐떡이는 희선의 얼굴에 기분 좋은 미소가 떠오른다.

— ReBorn 센터 앞
주철이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몰려온다.
VCP 교정 효과에 대해 묻지만 그냥 센터로 들어가 버리는 주철.

— 연구소/헬스 룸
트랙을 달리는 희선. 상단 Bar가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
희선은 자세를 바로 하며 막판 스퍼트를 낸다.

— 정부 브리핑 룸

법무부장관 가상범죄프로그램 VCP를 교정법으로 공식 채택합니다.

— 법원+파이널 피스 연구소 앞
환호하는 지지자들.

— 리본 센터/소장실
굳은 표정의 주철.

— 연구소/헬스 룸
목적지에 도착하자 VR 화면에 폭죽이 터진다.
몸을 숙인 채 숨을 고르며 기분 좋게 미소 짓는 희선의 모습에서

#9. 북한산 중턱(낮)

자막 — 3년 후
산 중턱에서 바라보는 들쑥날쑥한 빌딩 풍경, 흐린 날씨.
등산으로 가빠진 호흡을 고르며 빌딩 풍경을 바라보는 주철.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온다. 누군가 주철의 어깨를 두드린다.
보면, 민욱(45세, 남)이 커다란 배낭을 메고 주철을 보며 서 있다.

민욱 비가 올 거 같은데, 그만 내려갈까요?
주철 (잠시 고민하다 앞장서며) 좀 더 가보지.

민욱,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먹구름을 보고는 이내 주철 뒤를 따른다.

#10. 산길(낮)

산을 오르는 주철과 민욱,
함께하는 산행에 익숙한 듯 번갈아가며 서로를 이끄는 모습.

#11. 산 정상(낮)

휴식을 취하며 물을 나눠 마시는 주철과 민욱.
민욱은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열어 주철에게 보여준다.
교복을 입은 앳된 여자아이 사진이다.

민욱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요. 교복이 예쁘다며 아주 신났어요.
주철 (사진 보며 미소) 아이 엄마는 잘 있지?
민욱 네. 일하랴 아이 뒷바라지하랴 정신없죠.
주철 (그런 민욱 보며) …행복해 보이는군.
민욱 (주철 보며) 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주철 (미소, 다시 사진 속 아이 바라보는)

이때 휴대폰 사진 위로 빗방울이 떨어진다.
서둘러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두 사람.

#12. 연구소 앞(낮)

비가 쏟아지는 연구소 전경.

#13. 연구소/헬스 룸(낮)

VR 안경 없이 트랙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희선. 한 손에 붕대를 감고 있다.
분노한 표정. 손에 힘을 주자 붕대에서 피가 새어 나온다.

#14. 과거. 법원 앞(낮)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VCP 반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주철.

#15. 과거. 법원/재판 법정(낮)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종 판결만을 앞둔 긴장된 분위기.
검사 측에 황 검사, 재판장석에 판사가 앉아 있다.
방청석에 희선은 팔짱을 끼고 앉아 판사를 노려본다.

CUT TO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판사 피고 최인구에게 과실치사로 인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기뻐하는 피고 측 변호사,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한 황 검사.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희선.

#16. 과거. 법원/법정 앞 복도(낮)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같은 자리를 맴도는 희선.
짐을 챙겨 나오던 황 검사가 그런 희선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내쉰다.

희선 항소하실 거죠?
황 검사 (대답 않고 그냥 가는)
희선 (옆에 바짝 붙어) 무려 이십 년을 남편 폭력 속에서 살다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5년?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요?
황 검사 (계속 걸으며) 없겠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희선 항소하세요. 저런 놈들이야말로 VCP를 선고받아 마땅합니다.
황 검사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아무리 검사가 VCP를 구형하면 뭐합니까. 재판부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루자는 분위긴데.
희선 (답답한)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해봐야죠!
황 검사 재판부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 인권 단체에서도 들고일어날 게 뻔해요. 상황이 이런데 누가 총대를 메려 하겠어요?
희선 (침묵, 시선) …

황 검사 (침묵, 시선) …

희선 …무려 3년을 기다렸어요. 온 국민이 3년을…

황 검사 (시선 떨구는)

희선 동기를 집단 강간한 대학생들이 붙잡혔을 때도, 친구 아내를
강간 살해하고, 그 친구마저 죽인 범인이 붙잡혔을 때도…
국민들은 바랬다고요. 그들도 피해자와 똑같이 고통스럽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황 검사가 입을 연다.

황 검사 대한민국 재판부가 늘 그렇게 국민들 원하는 바를 충족시켰다면,
대표님께서 애초에 VCP를 만들지도 않으셨겠죠.

황 검사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고는 그대로 돌아서 가버리는 희선.

#17. 과거. 법원/주차장(낮)

운전석에 올라타는 희선, 곧바로 차를 출발시킨다.

시위 피켓과 전단지 뭉치를 들고 가던 주철,
실수로 전단지 뭉치를 떨어뜨린다.
엉거주춤 앉아 사방으로 흩어진 전단지를 주워 모으는데,
통로 끝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와 멈춘다. 손을 들어 양해를 구하는 주철.

승용차 안, 운전석의 희선, 기둥에 세워진 시위 피켓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VCP 절대 반대 /
인간을 교정할 수 있는 건 기계가 아닌 인간입니다.’
코웃음 치는 희선, 이내 웃음기 사라진 싸늘한 얼굴로 주철을 바라본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희선,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한다.

후진하는 승용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전단지를 줍는 주철.
벽 끝까지 간 승용차가 그대로 꼼짝도 않고 서 있자 손을 멈춘다.
그 순간, 헤드라이트를 켜고 주철을 향해 돌진해오는 승용차.

놀란 주철은 멍하니 바라보고,
그런 주철을 보고도 속도를 늦추지 않는 희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주철이 서둘러 옆으로 피해 가까스로 충돌을 면한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전단지에 타이어 자국을 남기며 가버리는 희선.
넋 나간 얼굴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주철.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백미러로 주철을 바라보는 희선.

#18. 연구소/희선 룸(낮)(#13 연결)

부엌, 침실, 거실 등이 구분 없이 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 스튜디오형.
서로 어우러지지 못한 가구와 가전들에서 서툰 솜씨가 느껴진다.

집업에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 새 붕대를 감는 희선.
희선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구석에 놓인 검은색 옷장으로 향한다.
(E)시위대 함성 소리.

#19. 법원 앞(낮)

고도영의 VCP 판결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사람들.

#20. 법원 입구(낮)

호송차에서 내려지는 도영.
도영은 기자들을 향해 웃으며 자신의 젖빛 오른쪽 눈으로 윙크를 해 보인다.

INSERT
인터넷방송화면, 채널명 ‘랜선 추리’
영상 속에 남자를 죽이는 장면.
#4의 상황이 도영이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시선으로 보인다.
칼을 맞고 바닥으로 픽 쓰러지는 피해자(20대, 남),

신음 소리와 함께 뭐라 중얼거리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

도영(E) (카메라 시선 피해자 쪽으로 내려가며) 뭐?

피해자 제, 제발… 죽이지… 죽이지 마세요…. (숨 헐떡이는)

도영(E) (끅끅대며 웃고는) 사람은… 다 죽어.

도영의 칼에 찔리는 피해자 모습이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그대로 보여지고 영상 옆 채팅창에 글자들이 빠르게 올라간다.
'사운드 완전 리얼', '경련하는 장면 완전 지리고', '멘트가 좀 약했음' 등등.
그중 한 채팅 글 CLOSE UP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꼭 진짜 같다.'

다시 법원 입구,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는 도영.
그런 도영 모습과 사건 현장 사진이 교차되어 나타난다.

INSERT
막다른 길 앞에 칼을 맞고 죽어 있는 피해자, 그 주변으로 폴리스 라인.
골목길 구석에 역시 죽어 있는 피해자(20대, 여) 등.
모두 일곱 건의 살인 사건 현장 사진이 빠르게 겹쳐진다.

#21. 법원/재판 법정(낮)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있는 도영. 발언하는 황 검사.

황 검사 피고 고도영은 '랜선 추리'라는 인터넷 방송 채널을 열어,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모든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황 검사, 리모컨으로 영상을 재생시켜 방송 화면과 채팅창을 보여준다.

황 검사 이는 연출된 장면이 아닌, 실제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이었으며,
이렇게 생중계되는 가운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가 무려
일곱 명입니다. (도영 쪽을 보면)

자랑이라도 하듯 손가락으로 7을 만든 후 자신의 목을 그어 보이는 도영.
그런 도영의 태도에 방청석 곳곳에서 욕설이 튀어나온다.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아 이 과정을 지켜보는 희선.

CUT TO
재판부의 최종 선고를 앞둔 긴장된 분위기.
왠지 생각이 많아 보이는 판사. 그런 판사를 보며 씩 미소 짓는 희선.
이윽고 판사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판결을 내린다.

판사 피고 고도영에게 징역 15년에 주 2회씩 총 10회의
가상범죄프로그램 VCP 집행을 선고한다.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는 황 검사.
반면 이미 예상했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가는 희선.

#22. 법원/화장실(낮)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희선. 이때 휴대폰 울린다.
발신자 보면, '정우석 부장 판사'

판사(F) (격앙된) 당장 파일 보내. (끊는)

희선, 휴대폰에서 영상 하나를 찾아 재생시킨다.
부장 판사가 젊은 여자들을 희롱하며 술 마시고 노는 것을 도촬한 영상이다.
희선은 복사본을 하나 만든 후 부장 판사에게 보낸다.
파일 전송 완료 확인 후 화장실을 나서려던 희선, 순간 멈칫한다.
어떤 냄새를 찾는 듯 코를 킁킁거리다 곧 욕지기를 느끼며 변기로 달려간다.

변기 앞에 주저앉아 토를 하는 희선.

한참 동안 나올 것도 없는 속을 게워내던 희선은 지쳐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런 희선 옆 화장실 창문 밖으로 환호하는 시위대의 모습이 보인다.

INSERT

법원 앞, 기뻐하는 시위대 모습.

#23. Reborn 센터(이하 센터) 앞(낮)

센터 전경, 한가로운 풍경.

#24. 센터/소장실(낮)

책장 가득 교정, 심리학 등의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외출 준비를 하는 주철.
팸플릿 따위를 들고 들어오던 민욱이 그런 주철을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민욱 …가시게요?

주철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주철, 민욱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소장실을 나서려는데

민욱 (다급히) 저기, 소장님!

주철 (돌아보면)

민욱 저는, 소장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지지합니다.

주철 (보고 있으면)

민욱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는)

주철 (시간을 확인하고는) 내 다녀와서 듣지.

주철, 서둘러 나가고, 민욱은 한숨을 내쉰다.

#25. 교도소/복도(낮)

콧노래를 부르며 교도관을 따라 복도를 걷는 도영.

#26. 교도소/접견실(낮)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주철. 잠시 후, 도영이 들어온다.

도영 (주철을 보고는) 어라? 이건 또 뭐야?

주철 (말없이 맞은편 의자 가리키는)

도영 (경계하는 표정으로 앉으며) 변호사야?

주철 (명함을 건넨다)

도영 (고개를 쭉 빼고 명함을 읽는) 리본 센터 소장? 그게 뭔데?

주철 전과자들의 사회화를 돕고 있습니다. 고도영 씨처럼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도영 (비웃는) 길을 잃기는 개뿔. 이봐 아저씨. 나는 내 인생에 개척자 같은 사람이야. 콜롬버스 알지? 그 새끼가 남이 만든 길로 갔으면 그렇게 유명해졌겠어? 지가 여기저기 개척하고 다니니까 유명해진 거지.

주철 …유명해지려고 일곱 명을 살해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까?

도영 (비릿하게 웃으며 자세 고쳐 앉는) 아니.

주철 (보면)

도영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기 위해서.

주철 (귀를 의심하는) 뭐?

도영 이 지루하고 각박한 세상, 한 명이 죽어 수백 명이 즐겁다면, 가성비 괜찮은 거 아닌가? 한마디로 서비스직이지.

순간적으로 동요하는 감정을 가까스로 억누르는 주철.
그런 주철을 보며 장난스럽게 오른쪽 눈으로 윙크를 해 보이는 도영.

주철 (힘겹게 입을 떼는) 왜…

도영 (손으로 턱 괴며) 응?

주철 왜, 왜 이렇게까지 된 건가?

도영 (어깨 으쓱) 내가 뭐 어때서?

주철 정말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나?
지금 자네가 어떤 처진지 알기나 해?

도영 (순간 거슬린) 뭐?

주철 사람을 일곱 명이나 죽여 징역 15년도 모자라 3년 동안 한 번도 선고된 적 없었던 VCP를 선고받았어. 이제 자네는 일주일에 두 번씩 죽음을 경험해야 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라고.

도영 (발끈, 주먹으로 테이블 탕 치며) 웃기지 마! 당신 내가 통장에 돈 얼마까지 꽂혀봤는지 알아?! 당신 차 뭐야?! 집 얼마짜리야?! 당신 하룻밤에 술값으로만 천만 원 써본 적 있어?! 난 있어! 내 친구들 다 나 부러워해! 그런데 뭐?! 내 처지가 어쩌고 어째?!

씩씩대며 주철을 노려보는 도영. 주철은 그런 도영을 바라보며 갈등한다.
이윽고 주철은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다시 대화를 이어간다.

주철 오늘 온 목적을 말하지.

도영 (거만하게 턱을 들어 보이는)

주철 변호사를 지원해줄 테니 항소하도록 해.

도영 (뜻밖의 말에 살짝 당황) …뭐?

주철 항소하라고. VCP 집행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야.

도영 (주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주철 난 교정학 연구만 20년을 했어. 확신하지. VCP는 교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될뿐더러,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모르는 위험한 프로그램이야.

도영 …그거, 가짜 아냐?

주철 (보면)

도영 왜 게임처럼.
눈에 뭐 쓰고 보면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인.

주철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야. 뇌파를 조작해 기억을 바꾸고, 살해당했을 때의 공포와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게 바로 VCP라고.

도영 그러니까. 그 공포와 고통, 다 가짜 아니냐고? 끝나면 싹 사라지는.

주철 (한숨) 과연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동물일까? 스위치를 끄면 활성화되어 있던 모든 기능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가전제품처럼?

도영 (미심쩍은)

주철 기억을 바꾸는 것도 그래.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다시 기억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걸 누가 백 프로 보장하겠나?

도영 (계속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주철 파이널 피스도, 또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도,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건…

도영 아— 이제 알겠다. (낄낄거리는)

주철 (뭐지? 보면)

도영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 밥그릇 싸움에 내가 올라간 거구나?

주철 뭐?

도영 그렇잖아. 만약 브이씬가 뭔가가 잘되면, 그쪽 밥그릇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그걸 막으려고 지금 이 지랄 떠는 거 아니냐고?

주철 (답답한) 내가 지금 내 욕심 차리자고 이러는 거 같나?

도영 이봐요 아저씨. 난 그거 덕분에 무기징역을 면한 사람이야. 안경 뒤집어쓰고 게임 몇 번만 하면 다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내가 뭐한다고 항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겠어! 내가 병신이야?!

의자 뒤로 기대앉으며 툴툴거리는 도영.
역시 의자 뒤로 기대앉으며 설득 의지를 잃은 채 도영을 바라보는 주철.

#27. 교도소/복도(낮)

창문 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진다.
접견실을 나와 터벅터벅 힘없이 복도를 걸어가는 주철.

#28. 교도소/주차장(낮)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주철이 차로 달려온다.
운전석 문 앞에 서서 서둘러 리모컨을 눌러보지만 작동이 되지 않는다.
다급해진 주철은 손으로 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역시 열리지 않고...
이때, 누군가 나타나 주철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준다.
주철, 고마운 마음에 살짝 미소 지으며 돌아보는데, 희선이다.
놀라는 주철, 한 우산 속에 마주 선 두 사람, 빗줄기가 점점 거세진다.
희선, 가만히 주철의 손에서 리모컨을 가져가 누른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삑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열린다.
주철을 보며 운전석 문을 열어주는 희선, 그런 희선을 바라보는 주철.

희선 (대뜸) 다 하셨어요?
주철 …
희선 (미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돌아서 가려는데)
주철 (다급히) 대표님!
희선 (멈칫, 잠시 가만히 서 있다 이내 돌아보는)
주철 (단호하게) 대표님은 틀렸습니다.
희선 …틀렸다… 뭐가요?

주철은 잠시 고민하다 희선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말을 이어간다.

주철 대표님께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잠시 어디 가서…
희선 (O.L.) 하세요. 우리 도란도란 얘기 나눌 사이, 아니잖아요.
주철 (잠시 고민하다 이야기 시작하는) 오래전, 교도관으로 있을 때 알게 된 재소자가 있습니다. 죄명은 살인, 7년을 받았죠.
희선 …
주철 저는 그 자의 눈 속에서 활화산 같은 분노를 봤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분노. 형을 마친다 해도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게 뻔했죠.
희선 (지루한 듯 한숨) 그런데요?
주철 하지만 저는 그 분노의 불씨를 끄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희선 (보면)
주철 존중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존중.
희선 …
주철 그자의 생일날, 제가 보던 소설책 한 권을 생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분노를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며칠을 쉬지도 않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희선 (무심하게 듣는)
주철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이 대표님이 찾던 바로 그 해답입니다. 지금 그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내와 작은 가게를 하며 틈틈이 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간 예쁜 딸도 키우면서요.

마치 정지화면처럼 주철을 빤히 바라보는 희선,
그러다 별안간 웃음을 터뜨린다. 당황하는 주철.

희선 (가까스로 웃음 참으며) 그런데…
주철 (보면)
희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전 왜 이런 게 궁금해지죠?
주철 …네?
희선 그자가 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과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주철을 빤히 바라보는 희선. 순간 말문이 막힌 주철.

희선 (주철 흉내 내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웃으며 돌아서는 희선. 무슨 말인가 하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 주철.
희선이 떠나고 비를 맞으며 홀로 서 있는 주철의 모습에서.

#29. 연구소 앞(낮)

연구소 전경.

#30. 연구소/집행 준비실(낮)

도영의 머리에 장치를 부착하는 연구원.
모니터 앞에 앉아 있던 연구원이 뭔가를 조작하자 화면에
'추출 중'이라고 뜬다.

추출한 도영의 기억 영상(도영의 시점에서 보이는 #4의 범죄 순간)에서
시점을 상대의 시점으로 전환시키는 연구원.
전환된 피해자 시점에서 보이는 인물의 형태에 도영의 모습을 입힌다.

다른 쪽에서는 연구원들이 피해자 시신 사진과 부검 결과를 분석하여
도영에게 적용될 통증 위치와 강도를 설정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별생각 없이 지루한 듯 하품하는 도영.
한쪽 유리벽 너머 연구실에서 희선이 그런 도영을 지켜보고 있다.

#31. 연구소/연구실(낮)

유리벽 너머 여자 연구원에게 시시덕거리는 도영을 지켜보는 희선.
황 검사가 들어와 희선에게 과자 봉지를 내민다.
별 반응 없는 희선. 별수 없이 직접 과자를 뜯어 한 개 집어 먹는 황 검사.

황 검사 기분이 어때요?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잖아요.
희선 제가 기다려온 순간은 지금이 아니에요.
황 검사 (의아한 표정으로 희선 보면)
희선 (황 검사 손에서 과자 봉지 가져와 한 개 집어 먹는)
황 검사 (그런 희선 빤히 보다) 나 꽤 오랫동안 궁금했던 건데, 물어봐도 돼요?
희선 사적인 질문만 아니라면.
황 검사 왜 이렇게까지 이 일에 인생을 걸어요?
희선 (과자만 집어 먹는)
황 검사 …신념? 명예? (하다) …사적인 질문이었나?
희선 (다시 과자 봉지 돌려주며) 불공평해서요.
황 검사 네?
희선 (도영 보며)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요.

황 검사만 남겨두고 연구실을 나가버리는 희선.
그런 희선을 의아하게 바라보던 황 검사, 다시 도영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유리벽 너머, 장난을 치며 웃고 있는 도영의 모습에서.

#32. 연구소/VCP 집행실(낮)

모니터 뒤, 첫 집행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주철, 판사, 황 검사 등.
잠시 후, 문이 열리며 10여 명의 사람들이 어두운 얼굴로 들어온다.
피해자 가족들이다. 일동 자세를 바르게 하며 예의를 갖춘다.
희선,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시선을 재빨리 집행실 쪽으로 고정한다.

CUT TO
모니터 너머 집행실에 도영이 교도관 두 명과 함께 들어온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행실 안을 두리번거리는 도영.
그런 도영의 모습에 피해자 가족들이 동요하기 시작한다.
울부짖는 소리, 화내는 소리, 욕하는 소리 등… 경찰이 달려와 진정시킨다.
잠시 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진정되자
도영 옆에 대기하고 있던 집행관이 차고 있던 무선 마이크에 대고 말한다.

집행관 2021년 2월 22일, 오후 1시 정각.
수감번호 3402번 고도영 VCP 총 10회 중 1회 집행을 시작합니다.

집행실과 모니터 뒤에 불이 꺼진다.

CUT TO
의자에 앉아 고통스러워하는 도영.
사방 모니터에는 #4의 살해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집행이 끝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집행 의자에 앉아 있는 도영.
정면 모니터 너머 희선을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들.
맨 뒤에 서 있던 주철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간다. 그런 주철을 보는 희선.

#33. 몽타주

— TV 뉴스를 통해 VCP 첫 집행 소식을 보는 사람들 모습.
공항, 병원, 기차역 등에서 대형 TV 앞에 모여든 사람들.
휴대폰으로 뉴스 보는 사람들. 뉴스 보는 경찰들, 형사들. 교도소의 재소자들.
피해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의 모습, 붉어진 눈으로 뉴스 보는....

— 연구소 앞에서 소식을 전하는 방송국 기자(#6)

기자 피의자에게 피해자와 똑같은 공포와 고통을 느끼게 하는 VCP.
VCP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첫 집행이 실시됐습니다.

— Reborn센터/라운지
모여 서서 뉴스를 보는 전과자들, 그들 뒤에 민욱 모습.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주철이 들어온다.
민욱과 시선을 주고받는 주철.

#34. 연구소/복도(낮)

조용한 복도. 누군가와 통화하며 걸어오는 희선.

희선 네. 두 번째 집행은 25일 한 시입니다. 그때 뵙죠. (끊고)

문득 걸음을 멈추는 희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셔본다.
그러고는 뭔가를 기다리는 모습.... 그러다 다시 숨을 한 번 크게 쉰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천천히 눈을 뜬다. 순간 흠칫 놀란다.

보면, 맞은편에 김 씨(60세, 여)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이 희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뒤로 주춤 물러나는 희선.
그런 희선에게 김 씨가 다가와 희선의 손을 꼭 잡더니 이내 안아준다.
낯선 상황에 당황해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희선.

김 씨 (희선을 꼭 안으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희선, 시선을 들어보면, 가족들 모두 희선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반면 얼굴이 하얗게 질린 희선. 뻣뻣하게 굳어버린 몸.
손을 들어 김 씨를 안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안지 못한다.

#35. 교도소 앞(밤)

교도소 전경, 경비가 삼엄한 풍경.

#36. 교도소/독방(낮)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도영, 불안해한다.

#37. 연구소/집행실(낮)

두 번째 집행 날. 모니터 너머 집행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맨 앞줄에 희선과 연구진들,
그 뒤에 주철 및 관계자들.
그리고 가장 뒤에 피해자 가족들 모습 보인다.

CUT TO
처음과 다르게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는 도영.
연구원이 다가와 결박 장치를 채운 후 머리에 고글을 씌운다.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도영의 몸이 긴장감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집행관 2021년 2월 25일, 오후 1시 정각.
수감번호 3402번 고도영 VCP 총 10회 중 2회 집행을 시작합니다.

집행관이 나가면, 모니터 너머 연구원이 키보드를 조작해 집행을 시작한다.

#38. In VCP/클럽 안(밤)

— 도영의 왼쪽 눈으로 보는 시선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 술 마시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들을 지켜보는 왼쪽 눈 시선, 맥주를 한 모금 마신다.

INSERT
클럽
무료한 표정으로 앉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맥주를 마시는 피해자(20대, 여).
잠시 후 옆에 놓여 있던 가방을 집어 들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다시 In VCP, 춤추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왼쪽 눈 시선.
계단을 오르고, 출입문을 지나 큰길로 나간다.

#39. In VCP/거리(밤)

— 도영의 왼쪽 눈으로 보는 시선
네온사인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 한적한 길로 접어든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인적 없는 어두운 길로 들어섰다.
왠지 불안해 자꾸만 주변을 돌아보는 시선,
정차 중이던 택시 한 대가 보인다.
택시로 다가가는 시선.

INSERT
택시로 다가가는 피해자.

다시 In VCP, 조수석 창문 열리고, 시선은 운전석 쪽으로 살짝 다가가보지만
차 안이 어두워 택시기사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INSERT
조수석 창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창문 안쪽으로
고개를 살짝 밀어 넣어 택시기사에게 묻는다.

피해자 아저씨, 김포까지 가실 수 있어요?

다시 In VCP, 운전석을 바라보는 시선, 기사는 말이 없다. 다시 묻는다.

피해자(E) 아저씨. 김포 안 가세요?

조용히 팔을 들어 실내등을 켜는 기사, 그리고 시선 쪽을 바라본다.
오른쪽 젖빛 눈동자. 도영이다.
카메라, 택시 뒤를 비추면 번호판이 '마'로 시작한다.
(택시 번호판은 아, 바, 사, 자로 시작)

#40. In VCP/골목길(밤)

INSERT
청테이프로 팔, 다리가 묶이고, 입이 막혀 있는 피해자.
공포로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향해 도영이 뚜벅뚜벅 다가간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방송 라이브 모드를 켜는 도영.

— 도영의 왼쪽 눈으로 보는 시선.
In VCP, 눈앞에 플래시가 팍 켜지자 시선이 본능적으로 옆으로 돌아간다.
그러다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가는 시선, 플래시 불빛에 눈을 깜빡거린다.

INSERT
고개를 돌린 피해자가 정면 카메라를 보게끔 손으로 얼굴을 돌리는 도영.

다시 In VCP, 시선 바로 앞에 카메라 불빛, 그 뒤로 도영이 보인다.

도영 우리 재밌는 게임 할까?

피해자(E) (입 막힌 채) …네?

도영 잘 들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죽일 거거든?

피해자(E) (격하게 흔들리는 시선, 청테이프를 뚫고 나오는 신음 소리)

도영 워워. 진정해.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피해자(E) (흐느끼는)

INSERT
연구소/집행실
몸부림치며 흐느껴 우는 도영.
이를 지켜보는 모니터 너머 희선 포함한 사람들.

다시 In VCP.

도영 내가 널 죽이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추리를 시작할 거야. 어때? 재밌겠지?

피해자(E) (사방으로 흔들리는 시선, 절규)

도영 한 마디로 넌 이 방송의 주연 배우야. 난 연출가고. (미소)

INSERT
바닥에 누워 몸부림치는 피해자.
도영은 일어나 카메라를 자기 쪽으로 비추게 하고는 말한다.

도영 (자신의 입만 보이게 한 후) 다들 준비됐지? It's showtime!

도영 모습 너머 들리는 피해자의 절규.

#41. 연구소/집행실(낮)

양손, 양발 그리고 고글에 의해 몸이 결박당한 채로 몸부림치는 도영.

도영 안 돼. 안 돼….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비명)

비명을 지르던 도영, 갑자기 비명을 멈추더니 이내 경련을 일으킨다.
도영의 배 쪽에 움찔거리며 붉은 반점이 피어오른다.

모니터 너머 사람들 긴장한 모습, 희선만 무표정하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열하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주철은 더 이상 지켜보기 괴로운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경련을 일으키던 도영의 몸이 딱딱하게 굳더니
이내 힘이 풀리며 축 늘어진다.
모니터에서 카운트 시작, 10, 9, 8… 4, 3, 2, 1… Disconnection!
결박 장치 풀리고, 고글이 반으로 갈라지며 넋 나간 도영의 얼굴이 보인다.
연구원이 다가와 도영의 상태를 확인한 후 희선을 향해
오케이 사인을 보내면
대기 중이던 교도관 두 명이 다가와 도영을 부축해 일으킨다.

교도관에 의해 비틀비틀 걸어 나가던 도영.
갑자기 희선 쪽 모니터로 달려온다.
순간 당황하는 사람들, 희선 역시 살짝 긴장한다.

도영 (모니터 두드리며 애원하는) 저, 저기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거 안 하게 해주면 안 돼요?

웅성거리는 사람들. 반면 아무런 동요 없이 도영을 바라보는 희선.
계속 애원하며 눈물 흘리는 도영, 그런 도영을 끌고 나가려는 교도관.
희선은 천천히 손을 들어 모니터에 비치는 도영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낸다.

희선 (미소 지으며 나지막이) 울지 마… 아직은….

#42. 연구소 앞(밤)

불빛 하나 없는 연구소 전경.

#43. 연구소/희선 룸 욕실(밤)

변기 앞에 주저앉아 토를 하는 희선, 고통스러워하며 빈속을 계속 게워낸다.
괜찮은가 싶으면 토하고... 괜찮아졌나 싶으면 또 토하고....

INSERT
연구소/희선 룸
구석에 놓인 검은색 옷장(#18) CLOSE UP
(E)도영이 교도관을 부르는 소리.

#44. 교도소/독방(밤)

도영이 문에 매달려 밖을 향해 소리친다.

도영 교도관님! 교도관님!
교도관 (달려와) 뭐야?
도영 저 예전에 찾아왔던 그 교정인가 뭔가 한다는 사람 좀 불러줘요!
교도관 뭐?
도영 왜 있잖아요! 나한테 항소하라고 했던 사람! 빨리 불러달라니까!

문을 잡고 흔들며 소란을 피우는 도영.

#45. 센터/소장실(낮)

다급히 외출 준비를 하는 주철. 이때 민욱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온다.

주철 고도영을 당장 만나봐야겠어.
민욱 소장님.
주철 뭔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게 분명해. 아무래도 불길해…(하는데)
민욱 (단호하게) 소장님!
주철 (흠칫 놀라 보는)
민욱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철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얘기하지. 내가 지금 고도영을…
민욱 (O.L.) 가지 마십시오.
주철 …뭐?
민욱 이제 그만 VCP 반대를 멈춰주십시오.
주철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민욱 소장님의 신념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주철 (보면)
민욱 센터로 하루 수백 통의 협박 문자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저와 제 가족들을 겨냥한 내용까지 있고요.
주철 …
민욱 소장님의 신념 때문에 저와 제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주철 하지만 자네, 내가 뭐 때문에 VCP를 반대하는지 잘 알지 않는가.
민욱 네. 압니다… 아니! 사실 모르겠습니다.
주철 (놀라 보면)
민욱 솔직히 그들은 그냥 죗값 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철 죗값 받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야. 인간으로서 죄를 지었다면,
인간으로서의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VCP 같은
비인간적 처사를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할 수 있나.
더군다나 자네가!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주철을 보는 민욱, 아차 싶은 주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민욱 (주먹 꽉 쥐는) …아무튼 전, 지금 누리고 있는 제 행복…
포기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욱, 주철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소장실을 나간다. 남겨진 주철.

#46. 교도소/접견실(낮)

도영을 기다리는 주철의 어두운 표정.
이때 도영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주철에게 애원한다.

도영 나 항소할래요. 변호사 비용 대준다면서요. 할게요!
주철 (한숨) 늦었어. 판결 나고 칠 일 안에 해야 해.
도영 뭐? 뭐가 그래? (테이블 내리치며) 무슨 법이 그따위야!
주철 (몸 바짝 땅기며 목소리 낮춰) 혹시 부작용 같은 게 있나?
환청이라든지 환영, 아니면 부분 기억 상실 같은….
도영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주철 (다시 뒤로 물러나며) 그럼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누군가에
살해당하는 고통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나?!
도영 그런 게 아니라고!
주철 (보면)
도영 그런 게 아냐. 그런 게 아니라고…

안절부절못하며 손을 떠는 도영. 그 모습에 심각해지는 주철.

#47. 연구소 앞(낮)

기자들, VCP 지지자와 반대파가 진 치고 있는 모습.

#48. 연구소/복도(낮)

교도관에 의해 집행실로 향하는 도영. 가지 않으려 발버둥 친다.

도영 싫어! 안 가! 이건 무효야! 무효라고!
교도관 얌전히 못 가?!
도영 안 가. 절대 안 가! 절대 못 가!

버티는 도영을 억지로 끌고 가는 교도관들.

#49. 연구소/집행실(낮)

3차 집행을 위해 집행실 안으로 들어오는 희선, 순간 멈칫한다.
주철, 황 검사, 판사, 교정본부장 등이 심각한 표정으로 희선을 바라본다.
그들 사이를 뚫고 희선에게 달려오는 주철.

주철 당장 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희선 (한숨) 제가, 적당히 하시라고 했죠?
주철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할 테니 일단 중지해요.
희선 그 이유가 뭔데요? 지금 설명해보시죠.
주철 (잠시 망설이다) VCP 집행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났어요.
희선 이상 증상?
주철 자세한 건 나중에… (하는데)
희선 그 증상, 의학적으로도, 데이터로도 모두 증명된 건가요?
주철 (대답 못 하는)
희선 그냥 고도영 본인이 얘기한 증상이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는.
주철 하지만…
희선 VCP는 집행 전후로 의료진이 철저하게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진행된 두 번의 집행 모두 이상 없음이 확인됐고요.
주철 하지만 대표님…
희선 (정색하며) 남주철 소장님. 집행을 중단시키고 싶으시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주세요. 아니면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주철 …
희선 (앞에 있는 연구원들 향해) 시작하죠.

주철, 옆에 있던 판사 등을 바라보면,
모두 방법이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곧 불이 꺼지고, 정면 모니터 너머 떨고 있는 도영의 모습이 보인다.

CUT TO
3차 집행이 끝나고,
모니터에 'Disconnection' 글자가 뜨며 결박 장치가 풀린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는 도영.
이때 모니터에 글자가 'Warning'으로 바뀌며 경고 사이렌이 울린다.

모니터 너머 웅성거리는 사람들, 집행실로 연구진들 뛰어 들어오고.
긴급히 도영의 상태를 체크해보지만 도영은 계속 의식을 차리지 못한다.
모니터를 보며 "고도영!"을 외치는 주철, 다급히 뛰쳐나가는 사람들.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희선.

INSERT
사이렌을 울리며 파이널 피스 연구소 정문을 통과하는 구급차.

#50. 연구소/회의실(낮)

희선, 주철, 판사, 교정본부장, 황 검사, 의료진 등이 모여 긴급회의를 한다.

희선 프로그램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도영에게 확인되지 않은 지병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주철 대표님. 지금 눈앞에서 일이 벌어졌잖습니까? VCP를 당장
중단하고, 안전성을 다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희선 사망의 직, 간접적 원인이 VCP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철 이건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도박이었습니다. 인간을 교정시키는
건 인간이지 저 차가운 기계 덩어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희선 말조심하시죠! 스무 명 연구진들이 7년 넘게 피땀 흘려 만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택된 형벌 제도입니다! 도박이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형벌 제도가 소장님한테는 한낱 도박에
불과합니까?!

판사 (진저리) 자, 자, 진정들 합시다.
지금 싸우자고 모인 게 아니잖습니까?
주철 (한발 물러나는)
희선 (아랑곳 않고) 아까 VCP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죠?!
판사 류 대표님! 제발 진정 좀…
희선 지금 말씀해보시죠. 그 증상이 뭔지.

회의실 내 모든 시선이 주철에게로 향한다.
주철, 하는 수 없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무겁게 입을 연다.

주철 이전 VCP 집행 중에도… 고도영이 사망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회의실 내 사람들.

#51. 과거. 교도소/접견실(낮)(#46 연결)

주철 그럼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누군가에 살해당하는 고통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나?!
도영 그런 게 아니라고!
주철 (보면)
도영 그런 게 아냐. 그런 게 아니라고… 거기서 봤어.
주철 봤다니? 뭘?
도영 …나를.
주철 (갸웃)?
도영 나를 봤다고! 죽어 있는 나를!
주철 …뭐?
도영 가짜가 아니었어. 잠깐이지만 칼에 찔리는 순간 진짜로
죽었었다고!
주철 그걸 어떻게 알지? 착각 아냐?
도영 처음 칼에 찔리는 순간,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 막
온몸이 찢겨 타들어가는 것 같은… 너무… 너무 끔찍한 고통이…
주철 피해자들이 느꼈던 고통이지.

도영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야. 갑자기 그 고통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이번엔 엄청난 쾌감이 밀려오는 거야.

주철 (눈 번쩍 뜨이는)

도영 그리고는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의자에 누워 있는 내가 보였어….

주철 (심각해지는 표정)

도영 너무 이상해서 계속 생각했지. 설명 들을 때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
그러다 어디서 들은 말이 생각났어. 사람이 죽으면 뇌에서 뭐가
나와 엄청 흥분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죽기 직전까지 가는 놈들도
있다고….

주철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도영 두 번째 하고 나서 확실하게 알았어. 내가… 내가 진짜 죽었었구나.
맞지? 나 죽었던 거 맞지? 당신은 박사니까 알 거 아냐?!

도영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주철을 애원하듯 바라본다.

#52. 현재. 연구소/회의실(낮)

심각한 분위기. 희선만 아무런 미동 없이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
그 모습을 본 주철, 설마 하는 표정으로 따져 묻는다.

주철 설마… 대표님 알고 계셨습니까?

희선 (대답 않는)

주철 (벌떡 일어나) 대표님! 대표님은 VCP 집행 도중 실제로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두 놀란 얼굴로 희선을 보면, 침묵을 지키던 희선이 드디어 입을 연다.

희선 …살인자는… 죽으면 안 됩니까?

태연한 희선, 충격에 빠진 주철과 사람들, 그리고 황 검사.

#53. 연구소/복도(낮)

분노로 문을 박차고 나오는 주철.

#54. 연구소/회의실(낮)

사람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회의실을 나가고
판사 역시 심각하게 앉아 있다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나서며 희선에게 말한다.

판사 안전성 재확인 때까지 추가 선고는 없습니다. 집행도 중지입니다.

순간 주먹을 불끈 쥐는 희선.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황 검사가 그런 희선을 보며 묻는다.

황 검사 기다린다는 게 이거였습니까? 피의자도 피해자와 똑같이 죽는 거.

희선 (대답 않는) …

황 검사 범죄자들과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VCP를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의실을 나가려던 황 검사, 문 앞에 멈춰 선다.

황 검사 어쩌면, 늘 외로워 보였던 대표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었습니다.

황 검사마저 나가고, 남겨진 희선의 모습에서.

#55. 연구소/주차장(낮)

운전하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주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보면, 정면에 희선이 서 있다. 그대로 후진하는 주철.

하지만 희선이 달려와 주철의 차 보닛을 짚으며 가로막는다.

희선 도대체 왜!

주철, 차 멈추고 보면, 분노한 희선이 주철을 향해 소리 지른다.

희선 도대체 왜 그들은 피해자와 똑같이 고통스러우면 안 된다는 건데?!
왜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죽으면 안 된다는 건데?!!

주철 (운전석에서 내리는) …

희선 (주철 코앞으로 다가와) 당신은 지금까지 형벌들이 공평했다고 생각해?! 사람을 죽여도 몇 년 후면 버젓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강간을 하고도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피해자 주변을 얼씬거릴 수 있는 그런 판결들이 모두 공평했다고 생각해?!

주철 저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뭔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희선 (O.L.) 당신은 몰라. 당신은 절대 몰라!

주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주면 안 될까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희선 아니!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자체가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린 거야.

주철 …

희선 나는 절대 이대로 가만히 안 있어. 절대… (돌아서려는데)

주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희선 (돌아서며 서늘하게 웃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돌아서 가는 희선, 그런 희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주철.

#56. 센터/라운지(밤)

불 꺼진 센터. 지친 기색이 역력한 주철이 들어와 불을 켠다.
잘 정돈되어 있는 라운지를 한번 둘러본 후 사무실로 향하는 주철.

#57. 센터/사무실(밤)

텅 빈 사무실, 주철은 민욱이 쓰던 책상 앞으로 간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소설책. 이를 바라보는 주철의 무거운 표정.

INSERT
과거. 교도소 내
민욱에게 소설책을 건네는 교도관 주철.
소설책을 받아들고 오열하는 재소자 민욱.

다시 현재, 소설책 몇 장을 펼쳐보다 이내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는 주철.

FLASH CUT #45 센터/소장실

민욱 전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다시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서려던 주철, 멈칫한다.

FLASH CUT #28 교도소/주차장

희선 그자가 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과연 그 피해자 가족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다시 현재, 잠시 고민하던 주철은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주철 (상대가 받고) 나네. 뭐 하나만 물어보지. 25년 전 강민욱 사건 말이네. 혹시 그때 피해자 가족 생각나나? 남편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깜짝 놀라는) …뭐? 그, 그게 무슨 말인가? 피해자 가족이… 누구라고?

#58. 연구소/헬스 룸(밤)

VR 안경을 끼고 땀을 흘리며 트랙을 달리는 희선.

INSERT
연구소/희선 룸
구석에 놓인 검은색 옷장, (E)12살 희선의 콧노래 소리.

#59. 과거. 거리+희선 집 앞(낮)

— 거리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하는 12살의 희선.
희선 어깨에는 교복 상표가 그려진 커다란 종이 백이 걸쳐져 있다.
자막 — 25년 전

— 집 앞
대문을 열려던 희선이 멈칫한다.
잠금 고리가 밖으로 나와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다.
고개를 갸웃하는 희선, 천천히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60. 과거. 희선 집/마당+지하실(낮)

— 마당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지하실로 연결된 계단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희선,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다 왠지 신경 쓰여 계단 앞으로 간다.

— 지하실
어두컴컴한 계단. 알 수 없는 불길한 기분에 표정이 굳어지는 희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간다.

희선 (조심스럽게) …엄마? 엄마 여깄어?

계단을 내려와 지하실 출입문 앞, 출입문 역시 열려 있다.
출입문 밖에 전등 스위치를 켠 순간, 희선이 종이 백을 툭 떨어뜨린다.

#61. 과거. 희선 집/지하실+계단(낮)

지하실 안, 민욱이 희선 엄마의 목에 칼을 겨눈 채 엄마 입을 막고 서 있다.
옷 여기저기가 찢겨 피투성이가 된 희선 엄마.
엄마는 얼른 도망가라고 눈빛을 보내지만, 놀란 희선은 벌벌 떨고만 있다.
예상치 못한 희선 등장에 당황한 민욱.

민욱 에이 씨… 너, 너 일루 와. 저기 구석에 가 뒤돌아 서 있어.
엄마 (얼른 도망치라는 눈빛)
희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민욱 빨리! 안 그럼 네 엄마 죽여버린다!

희선, 재빨리 지하실 안쪽으로 달려가 벽을 보고 선다.
민욱은 엄마를 끌고 지하실 계단 앞까지 가 다시 한번 희선에게 말한다.

민욱 너 100까지 큰 소리로 세고 있어. 안 그럼 내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너랑 네 엄마 다 죽여버릴 거니까. 빨리!
희선 (울며 숫자 세는) 하나… 둘…
민욱 큰 소리로!
희선 넷! 다섯! …

민욱, 재빨리 죽어가는 엄마를 지하실 안으로 밀어 넣고는
지하실 불을 끄고 출입문을 밖에서 걸쇠로 잠근다.
그때까지 계속 울면서 큰 소리로 숫자를 세는 희선.
곧 민욱이 계단 뛰어 올라가는 소리와 밖에서 문 잠기는 소리가 들린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희선이 울며 숫자를 센다.

CUT TO
어둠 속에서 바닥을 더듬어 엄마를 찾는 희선.

죽어가는 엄마를 부둥켜안고는 엄마를 부르며 서럽게 운다.
그러다 출입문으로 달려가 "살려주세요!" 외치며 문을 두드리다
문 앞에 떨어져 있던 종이 백에서 자신의 중학교 교복을 꺼내 엄마의 몸에 난 상처를 덮어주며 애원한다.

희선 엄마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 소리를 힘겹게 내뱉는 희선 엄마.
희선은 다시 출입문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친다.

INSERT
희선 집/마당
지하실 문 앞, 희선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린다.

CUT TO
엄마를 부둥켜안고 "죽지 마…"를 반복하던 희선이 갑자기 멈칫한다.
곧 소스라치게 놀라며 엄마로부터 도망치는 희선. 벌벌 떨기 시작한다.

CUT TO
어둠 속, 지하실 구석진 곳에서 토를 하는 희선.
그런 희선 뒤, 희선의 교복을 덮은 채 누워 있는 희선 엄마의 시신이 보인다.
계속 토하는 희선. 토하고, 토하고 계속 토하다 이내 지쳐 쓰러진다.

#62. 과거. 희선 집 앞+마당(낮)

— 희선 집 앞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 앞에 모여든 이웃 주민들.
벨을 누르려다 문이 열려 있자 "희선 엄마"를 부르며 안으로 들어간다.

— 마당
마당을 살펴보던 이웃, 지하실 출입문 앞 검은 피 발자국을 발견한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이웃. 이내 비명 소리가 들린다.

CUT TO
사이렌 소리, 분주히 움직이는 경찰과 감식반 사람들.
구급요원에 의해 지하실 밖으로 나오는 기진맥진한 희선.
희선 눈앞에 보이는 경찰 사이렌. 경찰들과 놀란 이웃들의 표정…

INSERT
희선 집/지하실
엄마 시신을 덮고 있던 희선의 교복이 치워지고 그 위에 하얀 천이 덮인다.

#63. 과거. 교도소 정문 앞(낮)

철문이 열리며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중 민욱의 모습.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민욱.

멀리서 그런 민욱을 지켜보는 19살의 희선.

#64. 몽타주

—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며 열심히 사는 민욱. 그런 민욱을 지켜보는 희선.
— 결혼식. 행복한 표정으로 결혼하는 민욱. 하객들 뒤에 희선.
— 리본 센터에서 주철과 웃으며 대화 나누는 민욱.
  밖에서 그걸 지켜보는 희선.
— 중학교 교복을 입고 포즈 취하는 딸의 사진을 찍는 민욱(#11의 사진).
  그리고 이 모습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는, 검은 모직 코트를 입은 희선.
— 청소차가 지나가는 그 시각, 골목길에서 토를 하는 희선의 모습(#2).

#65. 센터사무실(밤)(#57 연결)

놀란 표정으로 귀에서 휴대폰을 떼는 주철.

#66. 연구소/희선 룸(밤)

검은 옷장, 그 앞에 땀으로 범벅이 된 운동복 차림의 희선.
검은 옷장 문을 열면, 그곳에 피로 얼룩진 희선의 중학교 교복이 걸려 있다.

#67. 센터/사무실(밤)

초조한 모습으로 사무실을 서성이는 주철, 문득 스치는 기억.

FLASH CUT #55 연구소/주차장

희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다시 센터, 민욱에게 전화하는 주철. 받지 않자 일단 사무실을 뛰쳐나간다.

#68. 연구소/희선 룸(밤)

땀 묻은 운동복을 벗고 피 묻은 교복을 입는 희선.

#69. 도로(밤)

다급히 운전하며 계속 민욱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하는 주철.

#70. 편의점(밤)

딸과 통화하며 간식거리를 고르는 민욱.

민욱 미니 초코 말고 또 뭐? …알았어. 아빠가 금방 사갈게.

전화 끊자 바로 걸려오는 주철의 전화.
잠시 고민하던 민욱은 그대로 종료 버튼을 누른다.

#71. 도로/주철 승용차(밤)

전화가 그냥 끊어지자 신경질적으로 속도를 내는 주철.

#72. 도로/희선 승용차(밤)

피 묻은 교복을 입고 어디론가 운전해 가는 희선, 서늘한 눈동자.

#73. 민욱 집 앞(밤)

간식거리를 사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하는 민욱.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어디선가 갑자기 희선의 목소리가 들린다.

희선(E) 하나… 둘… 셋…

멈칫하는 민욱. 잘못 들었나 싶은 순간 다시 숫자 세는 소리가 들린다.
결국 멈춰서 돌아보면, 안쪽 골목에서 피 묻은 교복 차림의 희선이 일정한 속도로 숫자를 세며 민욱에게 다가오고 있다.

희선 (점점 크게) 넷… 다섯! … 여섯! …

바로 누군지 알아본 민욱, 당황한 얼굴로 주춤주춤 물러나면
희선, 흔들림 없이 숫자를 세며 다가와 어느새 민욱 바로 코앞에 선다.

희선 열하나! … 열둘! …
민욱 자, 잠깐… 왜 이러는 거야?
희선 …왜 이러는 걸까?

민욱　난 죗값 다 치렀어….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희선　용서? 용서를… 누가 해줬는데?

민욱　난 형을 다 살았어! 그럼 된 거 아냐…?!

희선　그때 지하실에서 난 계속 고민했어. 정말 백까지 세야 하나?
그만 세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밖에서 내가 백까지 세는지
듣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도 죽이면 어떡하지?

민욱　(계속 뒤로 물러나는)

희선　그때… 정말 밖에서 내가 백까지 세는지 듣고 있었어?

민욱　몰라…. 기억 안 나.

희선　넌 듣고 있지 않았어…. 내가 바보처럼 백을 세는 동안 넌 이미
도망가고 없었어…. 그렇지?

민욱　도대체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

희선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은… 셀 필요가 없지 않을까?

민욱　(침 꿀꺽)

희선　널 죽이기 위해 백까지는 셀 필요는.

교복 품에서 칼을 꺼내 드는 희선, 놀라 도망치려는 민욱.
희선은 재빨리 그런 민욱을 뒤로 붙잡고 목에 칼을 겨눈다.
(#61에서 민욱이 희선 엄마에게 했던 같은 자세)

희선　어때? 이러니까 기억이 잘 나는 거 같지 않아?

민욱　(컥컥거리며) 살려줘… 나한테 딸이 있어….

희선　(울컥, 버럭 하는) 우리 엄마한테도 딸이 있었어!
그런데 넌 죽였잖아! 딸이 있는 우리 엄말 넌 죽였잖아!

이때 갑자기 저쪽에서 “아빠” 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놀라 동시에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는 희선과 민욱.
보면, 민욱의 딸이 교복에 책가방을 메고 서 있다.
딸의 등장에 창백해진 민욱. 역시 동요하는 희선.

민욱　이진아. 집에 가! 얼른 집에 가!

민욱 딸　(울먹이며) 아빠!

칼을 든 희선의 손이 심하게 떨려온다.
민욱의 딸과 눈이 마주치는 희선.
희선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가로 내젓는 민욱의 딸.
당황한 희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다
결국 칼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재빨리 딸에게 달려가 딸을 감싸 안는 민욱.
넋 나간 얼굴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희선.
가로등 불빛 아래 민욱의 부녀가 서 있고,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희선이 주저앉아 있다.

희선　왜… 당신은 거기 있어?

민욱　… (딸 꼭 껴안는)

희선　당신이 지옥으로 밀어 넣은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왜 당신만 혼자 거기 있어…?

민욱 딸, 무슨 말인가 싶어 민욱을 보면, 민욱은 딸의 시선을 피한다.

희선　왜 당신만 혼자 그곳에 있는 거냐고?! 왜?! 왜?! 난 아직도…
난 아직도 엄마의 시신 냄새가 내 코를 찌르는데… 당신은 왜…

서럽게 우는 희선.
이때 주철이 다가와 희선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둘러준다.
희선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안으며 고개를 푹 숙이는 주철.
주철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오열하는 희선.
혼란스러운 얼굴로 두 사람과 아빠를 번갈아가며 바라보는 민욱의 딸.
그리고 딸의 시선을 계속 피하는 민욱.
네 사람의 모습에서.

#74. 에필로그. 숲속(낮)

청명한 날씨. 숲속 산책로.
트레이닝복 차림의 희선이 음악을 들으며 조깅을 하고 있다.

이때 휴대폰 울린다. 발신인 보면, '남주철'

희선 (영상 통화 누르고, 무뚝뚝하게) 왜 한국 안 오고 전화해요?

주철(F) (뒤로 펼쳐진 바다를 보여주며) 맨날 연구실에만 있지 말고 이런 걸 좀 보라고. 어때? 가슴이 확 트이는 거 같지 않나?

희선 그래서 한국은 언제 오는데요?

주철(F) (졌다는 듯 고개 절레절레) 한국에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희선 좋은 소식, 이제 만들어야죠.

주철(F) 응?

희선 (천천히 달리기 멈추는)

주철(F) (기다리고)

희선 (숨 고르며) 해답. 같이 찾기로 했잖아요.

주철(F) (미소) 역시, 류 대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군.

희선 포기를 왜 해요.
여전히 말 같지도 않은 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철(F)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희선 (잠시 고민하다 다시 달리며) 한국 오면 그때 연락해요.
귀찮게 바다 같은 거나 보여주지 말고.

전화 끊고 다시 숲길을 달리기 시작하는 희선.
저만치 앞에 역시 트레이닝복 차림의 황 검사가 희선을 기다리고 있다.

웃으며 나란히 달리는 희선과 황 검사의 모습에서.

끝.

작가 후기

수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인공 희선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녀의 아픔을 알고,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아는,
저와 희선의 관계는 의심할 것도 없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대본을 만지면 만질수록 희선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꾸만 희선에게서 그녀답지 못한 행동이 튀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울리지 않는 대사를 했고, 공감할 수 없는 감정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에게서 한없이 멀어져버린 주인공 희선을 보며
저는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남몰래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전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VCP가 결국 실패했음에도 다시 해답을 찾기 위해 달리는 주인공 희선처럼
저도 다시 답을 찾기 위해 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계속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희선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수정을 하며 계속 질문을 던졌고, 수정을 통해 질문의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완고'라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완고'를 내면 기분이 날아갈 듯 가벼울 줄 알았는데
'완고'라고 못 박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미완성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드라마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마지막으로 범죄피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밝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풀카운트

[B ●●● S ●● O ●●]

이병준

작의

꿈이 좌절되고 남은 상처는 패배이자 실패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수정할 수 없고, 몇 번이나 더 실패가 기록될지는 알 수 없다.
끊임없이 위기와 기회가 반복되는 삶에서 이 승부를 결정할 한 가지,
사랑이든 희망이든 우리를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은
당당한 승부사인,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등장인물

고동치(31세, 남) 프로야구 2군 공식 기록원
3년 차지만 기록에 관해서 꼼꼼하고 깐깐하다. 선수로 성공하지 못한 한이 자격지심으로 남아 있는데, 고대하던 1군 기록원 승격 기회를 잡았다.

하범진(31세, 남) 위너스 2군 투수
특급 유망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진출한 뒤, 10년 동안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 복귀했다. 에이스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장혜온(30세, 여) 재활병원 간호사
동치의 여자친구. 가급적 동치에게 맞춰주려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살짝 소원해진 동치를 지켜보며 한번 터뜨릴 태세이다.

고송희(29세, 여) 일간지 스포츠 기자
동치의 여동생으로 직선적이고 활달하다. 부모님의 애정과 기대를 독차지하던 동치에게 샘이 많다. 잘생긴 범진을 고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했다.

우갑분(77세, 여) 혜온의 할머니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며 증상이 심해지면 유독 동치를 박대한다.

박찬수(31세, 남) 요양병원 물리치료사
동치의 친구. 야구선수 출신이고, 갑분이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다.

양무중(48세, 남) 프로야구 1군 공식 기록원
동치를 많이 아끼는 선배이다. 동치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 한다.

그 외
이군희(25세, 남, 위너스 2군 포수), 투수코치, 간병인, 기록위원장 등

줄거리

프로야구 2군 공식 기록원인 동치는 기록에 관해 깐깐하고, 정확하며 타협이 없다. 선수 시절 포지션인 포수와 현재의 기록원은 그라운드 전체를 한눈에 살핀다는 공통점이 있어 적성에 잘 맞는다. 동치는 대학교 때까지 절치부심했지만 성적 부진과 부상이 겹쳐 끝내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접었다. 가족과 주변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자격지심이 동치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고, 2군을 넘어 1군 무대에 서야 한다는 욕망이 크다. 운 좋게 선배 기록원의 사임으로 1군에 자리가 난다. 동치는 자신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에 뭐든 하겠다는 기세로 의욕을 불태운다.

그 와중에 고등학교 졸업 후 특급 유망주 대우를 받으며 미국에 진출했던 투수 범진이 위너스 2군 육성선수로 나타난다. 동치는 과거에 자신을 포수로서 신뢰하지 않았고, 고교 마지막 대회였던 봉황대기 결승전에서 승부를 망쳐버린 범진에게 감정이 남아 있다. 마지막 위기 상황에서 범진이 동치의 변화구 사인을 무시하고 강속구를 던진 바람에 결국 허무하게 끝내기 점수를 내주며 우승을 놓치고, 기록마저 포수 잘못인 패스트볼로 남았다. 동치는 범진의 인사에 달갑지 않은 티를 팍팍 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뒤에서 호박씨까지 깐다. 그러자 동치에게 에이스 범진의 강속구가 날아드는데….

풀카운트 [B ●●● S ●● O ●●]
이병준

#1. 몽타주

— 도로+동치의 차 안
뙤약볕이 내리쬐고, 연식이 오래된 준중형차가 도로를 달린다.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동치,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물통에 꽂힌 빨대로 갈색 결명자차를 쪽쪽 빨아들인다.

진행자1(E) 다음은 올드팬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소식입니다.

— 엔젤스 경기장/그라운드+더그아웃
연습용 보호 펜스와 공 바구니를 준비하는 선수들.
삼삼오오 스트레칭하는 선수들.
더그아웃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마시는 선수.
엔젤스1, 타석에서 공을 힘차게 때린다.

진행자1(E) 최근, 분실된 것으로 알려진 1977년 봉황대기 결승전 기록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진고가 낳은 위대한 투수 고 최원동 선수의 21탈삼진, 동서고 김효창 선수의 4연타석 안타, 전진고 아홉 타자 연속 득점 등 대한민국 야구 영웅들의 활약으로 회자되는 경기입니다.

— 동치의 차 안
동치, 정지 신호에 걸려서 멈추고
반대편 우회전 차로에서 줄지어 나오는 차량의 번호판을 눈으로 읽는다.

동치 (선글라스 콧등까지 내리고) 4526, 1290, 3782.

진행자1(E) 야구는 기록의 경기라고 하죠. 구전으로 전해진 경기를 기록지로 생생하게 복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 경기의 30년 후 결과는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동서고 출신이라

꼭 언급하고 싶네요.

동치 (라디오를 힐끗 보는) 2071…

— 엔젤스 경기장 주차장
동치의 차, 경기장이 보이는 주차장 안으로 들어선다.
동치, 차에서 내려 경기장을 바라본다.

진행자1(E) 2007년도 봉황대기 결승전은…

"하범진"을 연호하는 우렁찬 함성 소리에 진행자1의 목소리가 묻힌다.

#2. 과거. 동대문야구장/관중석+그라운드(저녁)

전광판에 9회 말 전진고 0, 동서고 0으로 점수가 표시되고
카운트는 S(스트라이크) 2, B(볼) 3, O(아웃) 2이다
(표기 변경 전 S, B, O 순).
관중석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하범진"을 연호하고,
여학생 몇은 '전진고 ACE 하범진 사랑해♡'라고 쓴 종이를 흔든다.
그 사이에 혜온도 함께 응원한다.
좌완투수 범진, 땀 닦으며 슬쩍 3루 주자 찬수를 보고, 포수 동치를 보면

동치(E) (손가락 네 개만 펼치고, 마음의 소리) 체인지업.

범진(E) (고개 젓고 왼손 검지를 오른팔에 대며, 마음의 소리) 패스트볼.

한숨 쉰 동치, 일어서서 타임 걸고 마운드로 가려는데, 범진이 등을 돌린다.
동치, 더그아웃의 눈치를 보더니 앉아서 같은 사인 내고 미트를 댄다.
긴장한 동서고 좌타자, 짧게 잡은 방망이를 움켜쥔다.
찬수, 범진이 와인드업을 하는 순간에 쏜살같이 본루로 질주한다.
타자는 바깥으로 낮게 치우친 강속구에 스윙을 하지만 공은 맞추지 못하고.
빠른 공에 놀란 동치,
뒤늦게 미트를 대지만 앞에서 튄 공은 백스톱으로 빠진다.
타자, 스트라이크 낫 아웃임을 깨닫고 1루를 향해 뛰어가고
찬수,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본루를 지나가면,
주심, 세이프 판정을 한다.
끝내기. 동서고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쳐나오면
본루의 동치, 마운드의 범진, 전진고 선수들 허탈하게 서로를 응시한다.

#3. 과거. 동대문야구장/선수 대기실(저녁)

동치, 뒷짐을 지고 서서 고개 숙이고 있다.

감독1 백업 주제에 뭔데 범진이 사인을 무시해?
니가 게임 망쳤어 새끼야!

짐을 챙긴 선수들, 동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며 나가고
선수들이 다 나가면, 문 앞에 범진이 서 있다.
동치, 고개 숙인 채로 범진을 힐끗 본다.
감독1에게 욕먹는 동치, 문 앞의 범진이 판화처럼 찍히면

#4. 엔젤스 경기장/기록원실(낮)

#3의 판화가 책상의 상판으로 변하고
동치, 그 위에 수첩, 야구 규칙서, 검은 펜, 빨간 펜, 수정액을 가지런히 놓고
줄과 칸이 빽빽한 기록지 두 장으로 범진과 욕먹던 자신을 차례로 가린다.

심판1(E) 플레이볼!

창문 너머 외야의 전광판이 빠르게 확대되고
카운트의 B(볼), S(스트라이크), O(아웃) 불(표기 변경 후)
이 동시에 다 켜지며

타이틀. ‹풀카운트›

#5. 엔젤스 경기장/화장실(낮)

동치, 변기에 앉은 채로 통화한다.

동치 결명자차가 쉬었나, 경기 끝날 때까지 참느라. (사이) 이번이 처음이야. (사이) 눈하고 목 관리 잘하지. (사이, 귀찮은) 엄마, 내가 기록 제일 잘하니까 이젠 걱정 마요. (휴대전화 확인하고) 톡 왔다, 끊어요.

동치, 전화를 끊고 '스틸맨'의 톡을 확인하면 기사 캡처 사진이다.
'2007년 봉황대기 결승전 통한의 패스트볼',
'동서고 우승 주역 박찬수 선수'
우승 트로피와 우승 깃발을 두고 찍은 동서고 선수단 사진도 있다.

동치 박찬수 이 자식이 또… (신호가 오는) 어흑!

#6. 엔젤스 경기장/통로(낮)

동치, 한 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서 있다.

동치 또 왜 이러세요.
엔젤스1 (방망이 어깨에 걸치고) 또 왜 이러세요? 선배한테 말본새 하고는, 6회 왜 세컨 실책으로 했냐? 타율 빠지게?
동치 맨손으로 펌블[1]했잖아요.
엔젤스1 바로 잡아서 송구까지 했잖아? 나도 은퇴는 1군에서 해야지.
동치 전 정확하게 봤을 뿐입니다.
엔젤스1 너 대학 졸업하자마자 유니폼 벗었다고 프로 선배 샘내냐?
동치 유치하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엔젤스1 야, 인생이 기록처럼 딱딱 맞는 거 아냐, 인마. (돌아서서 간다)

1. 땅볼 타구를 한 번에 잡지 못하고 더듬어서 다시 떨어뜨리는 실책.

동치 (혼잣말로) 그 인생 자체가 기록입니다.

#7. 동치의 차 안(저녁)

동치, 운전하면서 이어셋으로 통화한다.

동치 다음 주에 위너스 경기라 올라가는 중이죠. 선배님, 시즌 중에 갑자기 사임하신다고 해서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무중(F) 인원도 없는데 미안하게 됐지. 그것보다, 기왕이면 완전무결 기록원 고동치가 1군 내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냐?
동치 (얼굴에 화색이 도는) 1군, 그럼요!
무중(F) 기록위원장님이 인사 기조 바꾸신 거 알지? 경력보다 실력!

동치, 씩 웃으며 운전대를 꽉 움켜쥔다.

#8. 요양병원/병실(저녁)

혜온, '곰텅구리 동치'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 중이자 끊는다.
갑분, 간병인이 주는 찹쌀떡을 오물조물 꼭꼭 씹어 먹는다.

혜온 할머니 맛있어?
갑분 (고개 끄덕이는) 응. (주변을 살피는) 내 거 그거…
혜온 카세트는 내일 찾으러 오래요. (찹쌀떡 먹으려는) 진짜 맛있나?
갑분 아가씨, 모찌 내 건데…
혜온 (안 먹고 웃는) 네, 네. 할머니 다 드셔.
간병인 할머니가 동치 총각만 보면 역정을 내시면서 총각이 사온 찹쌀떡은 잘 잡수시네. 정신 돌아오시면 꼭 사오라고 시키시잖아.
혜온 (픽 웃고) 평소에는 누가 사왔는지도 모르면서.
간병인 근데 동치 총각 어느 날부터 할머니 안 뵈려 하더라고, 바빠서 늦나…. 예전에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오더니.
혜온 뭐… 저도 겨우 시간 내잖아요.

갑분　아가씨. (베개 밑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보여주는)
이거 내 손녀 생일 선물이야. 몰래 봐.

간병인　이걸 사주고 싶었다고 갑자기 말씀하시데.

혜온　(MP3 플레이어 들고 뭉클한) 요새는 스마트폰이지…
할머니 손녀는 할머니 덕분에 사랑받겠다.

갑분　(손 내밀며) 빨리 줘. 손녀 줘야 돼.

찡한 혜온, 갑분의 손에 MP3 플레이어를 쥐여준다.

#9. 백화점/1층 로비(낮)

동치, 통화하면서 정문 쪽으로 다가간다.

동치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위원장님도 그쪽으로 출장 가시면….
(사이) 좋은 곳 찾아봐야죠. 정갈한 데로.
(사이, 피식) 네, 눈도장. 알겠습니다.

정문 근처에서 쇼핑백을 들고 기다리는 혜온, 동치와 눈을 마주치자
귓불을 만지고서, 턱 건드리고, 손으로 팔 쓸고, 왼손등을 두 번 친다.
동치, 전화를 끊으며 혜온의 앞으로 온다.

혜온　사인했잖아. 거기 있으라고.

동치　(갸우뚱, 턱에 손가락 대고) 이게 키 사인 아니었어?

혜온　사인 미스면 게임 셋이라고 그래놓고, 까먹어?

동치　(변명하는) 그래서 야구는 아웃 카운트가 세 개야.
(쇼핑백 들어주고) 뭔데 약속시간보다 먼저 왔어?
(안을 보며) 카세트? 수리돼?

혜온　목소리 녹음하고 듣는 게 할머니 최애 취미잖아.
빨리 안 갖다 드리면 할아버지 전파상 찾아가실라.

동치　이거 사용법은 기억하시네….

혜온　목 디스크 컨디션은 어때? 얼굴 본 지 두 달 만이라
기분 좀 내려고 좋은 데 찾아놨는데.

동치　(목 만지며) 그냥 꼭대기에 카페나 가지.

혜온　내가 네 번 양보하면, 한 번은 양보하지 않았어?

동치　… (휴대전화 꺼내며 나가는) 그 한 번이 오늘이구나.

혜온, 뒤를 돌면 정문 너머로 야구공 들고 있는 꼬마1이 보인다.

#10. 과거. 대학교 운동장(낮)

혜온, 노란 우산과 간호학 개론 책을 들고 친구1과 걸어간다.
야구 동아리 학생들이 야구를 하는데 공 빠뜨리고, 애꿎은 데로 던진다.

친구1　야구부인가? 운동하는 남자들 멋지다.

혜온　멋지긴…. 운동밖에 모르는 남자들. 질퍽한 운동장에서 저게 뭐야?
그리고 폼이 엉성한 게 정식 야구부도 아니네.

친구1　니가 보면 알아?

혜온　아니. 그래도 선수면 저거보다는 훨씬 잘할걸?

깡, 알루미늄 배트에 맞은 공이 혜온 쪽으로 날아오면
혜온, 당황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서는데, 어디선가 "위험해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덮치더니 혜온이 화면에서 사라진다.

동치　(몸을 일으키며 당황한) 괘, 괜찮아요? (혜온을 알아보고) 앞집?

혜온, 거의 사지가 뒤틀린 채로 눈만 껌벅이며 동치를 본다.

#11. 백화점 정문 앞(낮)

혜온, 앞서가는 동치를 보며 피식 웃는다.

혜온　(놀란 척) 어, 어. 공! 공! 오빠!!

동치(E)　(톡을 입력하느라 바쁜, 마음의 소리) 너 이천에서 일했잖아?

가본 곳 중에 깔끔한 한정식집 좀 알려줘.
('고송희'에게 보낸다)

혜온, 머쓱하게 혼자 공을 막는 자세를 취하지만
동치, 들은 기색도 없이 앞만 보고 간다.
꼬마1, 혜온을 이상하게 본다.

#12. 음악감상실(낮)

헤드셋 쓴 연인들이 나란히 앉아 음악을 감상한다.
동치, 휴대전화만 보며 초조해하다가 톡을 적는다.

동치(E) (마음의 소리) 예전에 말했던 곳은 어때?
거긴 예약 밀려서 빨리 해야 한다며, 답 좀 빨리 줘.

혜온 (LP판을 가져오고) 이런 곳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음악 감상이 우리가 유일하게 공유하는 취미잖아?
오랜만에 오붓하게 듣자.

동치 어? 빨리 듣자.

혜온 혼자 바빠? 노래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동치 (LP판 보고 기대하는 척) 비틀즈! 오랜만이네.

CUT TO
다정한 연인이 두 손 잡고 음악 감상을 하는 옆에서
혜온, 얕은 한숨 쉬고, 동치, 휴대전화를 꼭 쥐고 꾸벅꾸벅 존다.

#13. 동치의 차 안(저녁)

운전하는 동치, 거치대의 휴대전화를 힐끔 본다.

혜온 (앞만 보고) 오빠, 기록이 왜 중요해?

동치 뜬금없이… 기록이 전부니까.

혜온 그래? 오늘 오빠는 어떻게 기록된 거 같아?

동치 (서늘한 기운을 감지하는) 응?

혜온 종일 폰하면서 만나고, 음악 듣고, 밥 먹고 운전도 하잖아.

동치 혜온아, 오늘만 좀 봐줘라.

혜온 오늘만 그랬으면. 오죽하면 할 말이 있었는데 폰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 다음 달 말에 미국 6개월 연수 잡혔어.

동치 잘 됐네. 우리도 미국 일본하고 교류 많은데 좋은 기회다.

혜온 …나 미국 가면 오빠가 할머니 좀 잘 봐줘.
그리고 정신 온전하실 때 찾아뵈면 좋잖아.
찹쌀떡 말고 얼굴 보여주고.

동치 (담담한) …시간 내볼게.

혜온 (찜찜한) … (편하게) 아까부터 무슨 연락을 그렇게 기다려?

동치 중요한 약속 때문에. (피식 웃고) 겹경사네.

혜온 중요한 약속? 겹경사… (웃음을 머금는) 장소가 중요하겠네.

동치 아주 좋은 곳으로 골라야 돼.

혜온 (기대하는) 이천에 한정식 전문점이 새로 생겼나 봐.
대령숙수 후계자가 주방장이라고 입소문 났어.

동치 (반가운) 그런 데가 있어? 음식이나 서비스 괜찮대?

혜온 말로만 들어서 잘 몰라. 특히 미역국이 일품이라던데….

동치 (픽 웃고) 미역국 가지고 되겠어?

혜온 (힐끗 보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동치 꼭 대단해야 돼. (결연한) 기대해.

혜온, 내심 기대하며 창가를 보고 히죽인다.

#14. 위너스 경기장/통로(낮)

뚜벅뚜벅 걸어가는 누군가의 발뒤꿈치에서 위로 천천히 훑으면
등번호 111번, 이름은 하범진이다.
하얀 얼굴에 선크림까지 발라 새하얀 범진, 기록원실 앞에서 멈춘다.

#15. 위너스 경기장/기록원실(낮)

동치, 필기구를 정리하다가 송희에게 받은 톡을 확인한다.

송희(E) 맨입 사절.

동치 그냥 넘어가나 했다….

범진 (문을 벌컥 열고 반갑게) 에이스 컴백. 야, 반갑다?

동치 (깜짝 놀랐다가 인상 쓰는) 반가워?

범진 영어로 해줘? (손 흔들며 유창하게) 나이스 투 미 츄?

동치 (한심하게 보는) …

군희 (범진 옆에 서는) 여기 계셨습니까, 선배님!

범진 군희야, 왜 날 반가워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군희 누가요? 누가 또 선배님을 질투합니까?! 감히 메이저리거를?

동치 (픽 웃고) 메이저리거?

범진 (군희에게 헤드록 걸고 꿀밤 먹이며) 너 영어 빵 점이지.

군희 (황당한) 예?

범진 메이저랑 마이너도 구분 못 하는데. (F, P 발음 차이 나게)
패스트볼(Fastball[2])이랑 패스트볼(Passed ball[3])은
구분할 줄 아냐?

동치, 범진을 쏘아보고, 범진, 씩 웃어준다.

#16. 위너스 경기장/불펜(낮)

범진, 공을 힘껏 던지면, 포수 군희의 오른쪽으로 빠진다.
옆에 있던 투수코치, 고개를 가로젓고는 밖으로 나간다.
범진, 왼팔꿈치를 풀어주고, 공을 달라고 손짓한다.

2. 속구.

3. 포수가 잡을 수 있는 투구를 뒤쪽으로 빠뜨리는 것.

#17. 카페(저녁)

동치,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얇은 블라우스 입은 송희 앞에는 티라미수, 마카롱에 큰 커피잔이 있다.

송희 (마카롱 먹고) 야근, 야근. 내 수명을 야금야금 갉아 먹어.

동치 누가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래?

송희 또, 또. 여기서도 잘 다니는 중이거든?

동치 옷도 너무 시스루 아냐? 잘생긴 선수들 보면 헤벌레 하고 다니지?

송희 꼰대 같기는. 지는 혜온 언니 보고 헤벌레 해놓고서.

동치 잔말 말고 물어본 거나 알려줘.

송희 혜온 언니랑 가게?

동치 혜온이도 좋아하게 될 거야.

송희 뭐래…. 극비 리스트 공개 전에 대답부터 듣고. 위너스 하범진이랑
알지? 인터뷰 다리 좀 놔줘. 그 오빠 운동 전념한다고 엄청 빼더라.

동치 오빠는 무슨! 쫄딱 망한 녀석하고 인터뷰를 왜 하냐?

송희 화려한 유망주의 쓸쓸한 귀환과 베일에 싸인 그 비하인드.

동치 (망설이는) 너… 그거 비수다.

송희 동병상련보다, 오빠한테 다 양보하고 산 동생에게
측은지심을 느껴줘.

동치, 송희의 눈길을 피하며 커피를 마신다.

#18. 재활병원/1층 로비(저녁)

혜온, 차트를 확인하며 가다가 고개를 들면
모자 쓴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주변보다 더 밝게 광채가 난다.
범진, 혜온의 앞에 우뚝 멈춰 서면, 혜온, 눈이 휘둥그레진다.

범진 (모자챙을 살짝 올리고) 전진고 2학년 2반 쪼꼬미 장혜온. 맞지?

혜온 (놀라는) 어맛! (바로 수줍게) 버, 범진 선배?

범진 희망대로 간호사 됐네? 유니폼이 나만큼 잘 어울리는데?

혜온 (미소로) 한국 복귀했다는 소식 들었지만 여기서 볼 줄은….

범진 나도. (자기 왼팔꿈치를 가리키며) 얘가 아직 관리가 필요하거든.
(혜온의 이마에 검지를 대며) 딱 요만만 하라니까,
오빠 말 들었구나?

범진, 혜온의 이마를 콕콕 찌르며 개구지게 웃고,
발그레한 혜온, 어쩔 줄 몰라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19. 재활병원/물리치료실(저녁)

치료를 마친 범진, 병상에 앉아 신발을 신는다.

혜온 (상냥한) 치료 잘 끝났어요?

범진 (씩 웃는) 담당 간호사님이 바뀐 거야?

혜온 그, 그건 아니고요….

범진 쌤이 느긋하셔도 내 상태는 정확히 아시네. 할머니 연배쯤 되시나?

혜온 할머니요? (의아한) 오빠가 우리 할머니를 알아요?

범진 전교생 앞에서 할머니한테 쓴 편지 읽고 상 탔잖아?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편찮으셔서 걱정이에요, 제가 열심 공부해서… 맞나?

혜온 별걸 다 기억해요.

범진 할머니는 깜빡깜빡 안 하시고 건강하셔?

혜온 (짠한) 점점 아이가 되어가세요. 치매시거든요.
(밝게) 이따 병원에 걸 사진 꼭 찍어줘요, 알겠죠?
(호출기 소리 듣고) 다음에 얘기해요.

범진 (가는 혜온을 보며) 나도 다음에 얘기해야겠네.

#20. 요양병원 앞(저녁)

동치, 검은 봉지 들고 병원 건물을 등지고 있다.

간병인 (밖으로 나오고) 동치 총각, 퀵으로 보내지 면회 시간을 넘겨서 와.
머리채 안 잡히려고 그러는 거야?

동치 (씩 웃고 검은 봉지를 건네며) 찹쌀떡이요.

간병인 (검은 봉지 받고) 가끔은 영감님 그리워하시기도 해.

갑분, 열린 창문으로 "영감탱이? 영감탱이야?" 소리친다.
동치, 간병인에게 서둘러 인사하고 가려는데,
밖으로 나오는 찬수와 마주친다.

#21. 편의점 앞(저녁)

오렌지 주스 든 동치, 맥주 든 찬수, 파라솔 탁자에서 건배를 한다.

찬수 (맥주 마시고) 오랜만에 한 잔도 못 하냐?

동치 난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

찬수 한 캔 가지고 요란 떨기는.

동치 이렇게 했으니까, 1군 올라갈 기회도 온 거야. (목 풀어주며
승모근 눌러주는) 하긴 2군에만 있던 녀석이 뭘 알겠냐.

찬수 2군이 뭐? (약 올리는) 프로도 못 간 새끼가. (맥주 마시고)
선수도 아니고 기록원이 1군이나 2군이나 뭐가 달라?

동치 (발끈하는) 일! 이! 숫자가 다르잖아!

찬수 (살짝 아리송한) 그러네…. (일어서서 동치의 목을 마사지 해주는)
야야, 손맛이나 봐라. 근데 니가 뭐라고 선배들 건너뛰고 올라가냐?

동치 이 자식이…. 준비된 자에게 둘도 없는 기회가 왔다.

찬수 (픽 웃고) 둘도 없는 우승 기회도 날렸는데, 잡을 수 있을라나?

동치 잡을 거다! 안 놓쳐!

찬수 오, 패기 좋아. 아까 3층 카랑카랑 할머니랑은 아는 사이냐?

동치 여자친구 할머니. 신경 좀… (아픈) 야! 살살해.

찬수 그럼 그 사람 좋다던 야구선수가 너였네.

동치 (픽 웃는데 씁쓸한) …

찬수 도둑놈처럼 왔다 갔다 말고, 시간 나면 와.
오락가락하셔도 괜찮으실 때 있는 게 어디냐?
가족 점수가 가중치 제일 높은 거 알지?

동치　(목이 시원해지는) 지극 정성을 다하려고 그런다….

#22. 과거. 간호대학/복도(아침)

유니폼 차림의 동치, '장혜온' 사물함 문틈에 편지를 끼워둔다.
주변의 시선을 피해 슬금슬금 가다가 부리나케 뛰어나간다.
그 모습을 본 혜온, 사물함에 꽂힌 편지를 보면 꼼꼼하게 밀봉상태다.

친구1　참 눈에 안 띄는 우체부야…. 혼자 아날로그 세상에 살면서
편지엔 도배풀을 발랐나, 아주 칼 각으로 붙여놨다.
혜온　(귀찮은 듯) 괜찮다는데 왜 저래?
친구1　편지도 괜찮다고 해. 여기 우체통 아니라고.
혜온　(그건 좀 아닌) …

혜온, 사물함을 열면, 깔끔하게 열린 편지봉투가 수북하다.

#23. 과거. 대학병원 병실(낮)

한쪽 다리를 붕대로 감은 동치, 빼곡하게 적은 야구일지를 본다.

혜온　곰같이 튼튼하신 분들이 오히려 잘 다치시네요, 이상하게.
동치　(반가운) 금방 일어날 수… (다리에 통증이 오는) 크헉.
혜온　저기… 수술 후 오버는 금물이고요. 뭐 보세요?
동치　(야구일지 보여주는) 일지예요. 감각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혜온　(야구일지 보며) 와, 역시 뭔가 고수, 프로는 달라 보여요.
동치　(기분 좋은) 간호사님도 그렇죠.
혜온　(머쓱한) 저 여기 실습 나오거든요. 어? 또 이웃? (속삭이는) 그거
아세요? 덕분에 제가 야구선수라서 팬레터 받은 줄 안 거?
동치　(쑥스러운) 사과에 정성을 들여야 하니까….
혜온　야구일지처럼 편지도 정성이 만땅… 가득했어요.
선배1　(문 열고) 장혜온 여기서 뭐해?
혜온　(선배1 보고 놀라는) 아닙니다. (서둘러 나가며) 갈게요.

동치, 선배1을 따라가는 혜온을 보며 웃음 짓는다.

#24. 위너스 경기장/기록원실(낮)

동치, 위너스 오퍼레이터1(전광판 담당), 각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

오퍼레이터1　기록원님, 7회 류종현이 송구 실책 한 거 자책점으로 들어가요?
동치　아뇨, 비자책점이에요. 투수도 투구 후에는 야수가 되니까 야수
실책이나 다름없어요.
오퍼레이터1　그럼 방어율 안 올랐겠네요. 제 사촌동생인데 성적 나빠질까 봐
조마조마해요. 기록원님은 정확하게 판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동치　기록원은 판정이 아니라 룰을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팀이 류종현 실책으로 졌는데, 그거 기록에 남았어요.
오퍼레이터1　그게 문제네요. 마음에 담아두는 거 아닌지 몰라.
동치　(짐만 챙기는) …
오퍼레이터1　하범진 선수처럼 쿨해져야 할 텐데.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동치　책임질 일이 없어서 쿨한가 보죠? 지멋대로인 거랑
제구 안 잡히는 건 배우지 마라고 하세요.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도 실패한 거니까.

동치 뒤에 조금 열린 문틈으로 누군가 지나가고
뒤이어 군희의 모습이 보인다.

#25. 위너스 경기장/통로(낮)

동치, 입구로 나가려는데 느닷없이 날아든 야구공이 기둥을 강타하고
통로 안쪽으로 데굴데굴 굴러간다.

동치　(멈칫했다가 돌아보는) 뭐야?

범진 (안쪽에서 공을 들고 나오는) 쏘리. 제구가 안 됐네?
동치 뭐? 제구가 안 돼? 야!
범진 어때? 내 공 한번 받아볼래?

어이없는 동치, 화를 내려다가 참고 범진을 바라본다.

#26. 위너스 경기장/불펜(낮)

동치, 미트만 낀 채로 자리에 앉는다.
범진, 적당한 속도의 공을 한가운데로 꽂아 넣는다.

동치 (무심결에) 나이스 볼! (공 던져준다)
범진 (픽 웃고 공 받는) 백업들은 연습 때마다 투수 기 살려준다고 추임새를 넣어주잖아. 니가 그걸 제일 잘했어.
동치 (꾹 참고) 한때 에이스 칭찬이니 고맙게 받지.
범진 한때 에이스…. 느낌상 한때 에이스라도 필요한 일이 있나 보다?
동치 (헛기침하고) 인터뷰 어떠냐?
마침 메이저 신문사 기자가 있는데….
범진 메이저? 마이너 실패자를?
동치 (뜨끔한) 시, 실패….
범진 노력, 열정까지 숫자로 싸잡혀서 평가받는 건 운동선수의 숙명이지만, 억울해. 내가 미국에서 놀다 온 건 아닌데.
동치 …그런 걸, 이야기해주면 되겠네.
범진 (씨익 웃고) 그럼 너도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줘.

동치, 얼굴이 화끈거리고, 범진, 공을 만지작대며 미소 짓는다.
동치, 범진, 햇살을 받으며 마주 보고 있다.

#27. 동치의 차 안+도로(아침)

동치의 차, 뻥 뚫린 길을 시원스레 달린다.

동치 (이어셋으로 통화하는) 오늘 김 선배님하고 정 선배님이 한잔하자는데 여자친구 생일이라고까지 했어요.
무중(F) 잘했다. 학교 선배님으로 모시는 거지만, 괜한 소리 나와.
동치 (혜온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늦지 마세요. 이따 봬요. (사이) 네.
(혜온의 전화를 연결하며 웃는)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니까.
혜온(F) (웃음소리 내고) 나도 알지, 중요한 약속.
동치 이것만 알아둬. 오늘은 니가 기대하는 첫날이 될 거야.
('가화정'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식당 전화 온다. 나중에 연락할게.

#28. 재활병원/1층 로비(아침)

혜온, 접수대에 기대어 고개를 갸우뚱한다.
환자복 차림의 아줌마 환자1, 휴대전화로 문자를 하며 혜온을 지나쳐 간다.

혜온 뭔 소리야…. 생일 축하한다는 말인가? (피식 웃는) 식당….
환자1(E) (미끄덩하고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아야야, 엄마야! 나 죽어!
혜온 (놀라는) 괜찮으세요?! (아줌마1에게 달려가서) 미끄러지셨어요?
환자1 (끄응) 보면 몰라? 바닥이 물바다잖아!
간호사1 (대걸레를 들고 뛰어오고) 그사이에, 어쩌면 좋아….
혜온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환자1 (팩 소리치는) 지금 일어나게 생겼어!
범진 (모자챙을 슥 올리며 잘생긴 미소로)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혜온 (범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
환자1 (범진 얼굴에 빠져 상냥해지는) 어머, 여기서 아야 해서….
범진 빨리 검사를 받아야 치료하죠. 일어나보실래요?

범진, 환자1이 수줍게 내민 손을 잡아주며 혜온에게 윙크한다.

#29. 재활병원/물리치료실 앞(낮)

혜온, 차트를 확인하러 가면, 간호사1이 쪼르르 따라온다.

간호사1 혜온 쌤 생일이신데 진상 환자 때문에…. 죄송해요.

혜온 환자 괜찮으시니까 다행이지. 나 통화 좀 하고 갈게.

간호사1 네. 가볼게요. (간다)

혜온 (난간 쪽으로 다가가 휴대전화 보고) 이렇게까지 서프라이즈를 한 적이 없는데…. 나중이 언제일까….
(실수로 동치에게 전화 건다) 이그.

INSERT

한정식 식당 앞.

동치, 전화를 받지만, 무중과 기록위원장이 차에서 내린다.

동치 내일 전화할게. (전화 끊고) 오셨습니까!

혜온, 전화가 끊어지자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어 멍하다.

물리치료실에서 나온 범진, 혜온을 알아보고 슬금슬금 다가와 놀라게 한다.

혜온 (기겁을 하는) 어우! 뭐야, 진짜 뭐야!!

범진 (입을 못 다물고 웃는) ….

혜온 어머, 선배…. 미안해요. 치료 잘 받았어요?

범진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같은데?

혜온 (부끄러운) 제가 뭘요…. 너무 놀라서.

범진 생일이라며?

혜온 네?

범진 아까, 방음 잘 안 되더라. 밥 먹자, 퇴근 몇 시야?

혜온 그게… 저 전화 딱 한 통만. (범진이 안 보이게 동치에게 전화를 하는) … (소리샘으로 연결이 되자 난감해서 웃는) ….

범진 남자친구 기다려?

혜온 (전화 끊고) 워낙 바빠서요….

범진 복귀 결정했을 때보다 아쉬운데? 우린 시작도 못 했는데.

혜온 저… 선배.

범진 니 얼굴에 서운함 묻었다?

혜온 (발그레한 볼을 가리며) 제, 제가요?

범진 남자친구가 생일날 기다리게 하는구나? 난 안 그런데.

혜온, 바로 연락이 없는 동치가 야속하지만, 억지로 웃는다.

#30. 한정식 식당/내실(저녁)

동치, 무중, 기록위원장,

정갈한 음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하다.

기록위원장 올해에도 한 이닝에 코칭스태프가 마운드로 두 차례 올라간 거 바로 잡았고, 지난해는 엔트리에 없는 선수가 등판한 거 지적했었지.

동치 (송구한) 다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기록위원장 그럼, 기록도 야구의 일부야. 자네가 기록원의 위상을 높인 거라고.

무중 실수도 잡고, 실수도 안 하죠. 제 자리 메울 충분한 재목입니다.

기록위원장 (고개 끄덕이는) 경력도 경력이지만 실력이 중요하지.

동치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중 (흐뭇해하며 동치의 어깨를 쳐주는) 하던 대로만 해.

노크 소리가 나고, 종업원1,

고급 술병과 안주를 가지고 들어온다.

동치 (의아한) 주문한 거 없는데요?

종업원1 고동치 님 아니세요? 아버님께서 기록위원장님께 특별 서비스 내드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동치 (당황한) 누, 누가요? 제 아버지요?

무중 위원장님 약주 안 하시는데….

사장1 (급히 오며) 죄송합니다. (종업원1에게) 의사를 먼저 여쭸어야지!

기록위원장 (허허 웃고) 내가 너무 선의를 믿었나? 내일 일정도 있으니 일어나지.

동치, 무중,

일어나는 기록위원장을 보고 허둥댄다.

#31. 한정식 식당/로비(저녁)

동치, 무중, 기록위원장, 내실을 나와 통로를 지나간다.
범진과 혜온이 같이 들어오고, 실수로 범진의 모자가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면
혜온이 주워주는데, 범진, 모자를 혜온의 머리에 툭 씌워준다.
범진의 장난에 당황한 혜온,
모자를 벗어 웃으며 돌려주는데 얼굴은 발그레하다.
동치, 혜온, 동시에 눈을 마주치고 멈칫한다.

범진 (기록위원장에게 꾸벅 인사하는) 위원장님.
동치 (영문을 모르고) ?
기록위원장 (악수를 청하는) 하범진이 여기서 또 보네? 여자친구랑 왔나?
범진 (악수하며 빙긋 웃는) 글쎄요?
동치 (범진과 혜온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운) ….
기록위원장 다음에 아버님과 같이 한 끼 하자고. (밖으로 나간다)
범진 살펴 들어가십시오.
혜온 (얼결에 기록위원장에게 인사하는) ….
무중 (범진 슬쩍 보고 동치에게) 계산하고 빨리 나와. (나간다)
동치 (종업원1이 계산하는 동안 범진과 혜온을 보는) ….
혜온 ….
범진 (혜온의 표정을 보고 동치에게) 니가 있는 줄 몰랐네?
동치 (전화 받고) 예, 선배님 지금 나가요. (카드 받아 밖으로 나간다)

범진, 손가락으로 입구와 혜온을 번갈아 가리키면, 혜온, 한숨을 내쉰다.

#32. 레드윙스 경기장/기록원실(낮)

동치, 심판 콜에 따라 기록지에 'O' 표시하며 볼카운트를 기재하는데

INSERT #31 한정식 식당/로비
범진, 모자를 혜온의 머리에 툭 씌워준다.
범진의 장난에 당황한 혜온, 모자를 벗어 웃으며 돌려주는데 얼굴은
발그레하다.

방망이에 공 맞는 소리와 함께 INSERT 장면이 깨진다.
동치,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선이 기록지에 가 있다.
레드윙스 오퍼레이터2, 다급히 책상을 치며 "기록원님"이라고 부르면
동치, 그제야 정신 차리고 상황을 파악한다.

#33. 위너스 경기장/체력단련실(낮)

송희, 구석에서 전화통화를 한다.

송희 (인상 쓰는) 그래, 가화정은 사실 나도 잘 몰라서 아빠한테 부탁….
동치(F) 야! 아버지 오지랖 넓으신데!
송희 아직도 운동만 한 아들이 사회생활 못할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 (전화 뚝 끊는) 에이 진짜.
(돌아보고 깜짝 놀라는) !
범진 고송희 기자님?
송희 (밝게) 안녕하세요! 오빠?
범진 (빙긋 웃고) 기자님은 진도가 빠르시네요?
송희 저 전진고 46회예요. 오빠 3학년 때, 저 1학년. 삼고초려를
뛰어넘어 칠전팔기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범진 (미소로) 근데, 가화정은 왜? (귀에 손가락 대고) 크게 들려서.
송희 (머리 긁적이며) 그게 오빠 부탁으로 예약했었는데, 일이 좀….
범진 아…. 그럼 고송희 기자님은 고동치 동생?
송희 저희 오빠도 아시겠네요? 같은 전진고. 지금 2군 기록원이에요.
범진 덕분에 저녁 굶었는데.
송희 제가 사드릴게요! 오빠한테 선수보다 남자로 관심이 있으니까.
범진 넌 그냥 내 팬으로 남아라.
송희 왜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열한 번 찍을 준비 돼 있는데?
범진 (픽 웃고) 여긴 미국만큼 도전 의식 불러일으키는 동네네.

#34. 카페(저녁)

동치, 혜온, 목받침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

혜온 뭘 물을지 아니까 먼저 대답할래. 범진 선배랑 고등학교 때 잠깐 알고 지냈어. 병원에 재활치료하러 왔길래 오랜만에 만나게 됐고.

동치 많이 가까웠나 보다? 비싼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혜온 내 생일이었어.

동치 (마시던 커피를 컵에 도로 흘리는) !!

혜온 이제 보니 혼자 들떠서 전화만 붙들고 기다린 꼴이었다. 근사한 생일상 받아보고 싶어서 염치 불고하고 선배한테 빌붙었어.

동치 말을 하지! 나도 중요한 약속 때문에….

혜온 그래 알아. 높으신 분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 이해해. 근데, 연애도 비즈니스야. 기브 앤 테이크잖아.

동치 우리가 다 바쁘니까….

혜온 내가 아는 오빠는 우울증 걸려도 내 생일 기억하고 편지 보낸 사람이야. 머리채 붙잡혀도 웃으면서 할머니한테 가던 사람이고. 변했어.

동치 변해? 내가 누구 때문에…. 넌 왜 하필 하범진이야?

혜온 (어이없는) 뭐라고 대답해야 해?

동치 잘생기고, 몸매 좋고, 이름 알려졌으니까 좋았겠지. 그런 애가 눈웃음 흘리고 하니까 너도 그냥 막 웃음 나오고. 옛 감정 살아났어?

혜온 (할 말을 잃은) ….

동치 다시 거뜬히 재기할 것 같고, 마음이 아주 흔들렸겠지.

혜온 아웃.

동치 (놀라는) 뭐?

혜온 (일어서서) 흔들려? 오빠 같은 사람이 흔들리면 엄청 흔들려. 그래서 나도 덩달아 흔들린다. 됐냐? 왜 웃냐고? 오랜만에 재밌어서 웃었어.

동치, 나가는 혜온을 붙잡지 못하고 커피잔 들었다 찜찜해서 탁자에 탁 놓는다.

#35. 과거. 대학병원/화장실(아침)

혜온, 허리춤에 양손 올린 선배1을 슬쩍 봤다가 눈 내리깐다.

선배1 장혜온! 너는 그렇게 알려줘도 또 까먹었어?

혜온 (고개 숙이고 입술 삐죽 내미는) ….

선배1 아까 선배님들 표정 썩은 거 봤어, 못 봤어?

혜온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체크하겠습니다.

선배1 현장에서 실수하면 끝장이라고!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나면, 선배1, 얼른 거울 보는 척한다.
혜온, 금방이라도 울음 터질 것 같은 얼굴로 꾹 참고 있다.

#36. 과거. 대학병원/비상계단(아침)

울어서 눈이 팅팅 부은 혜온, MP3를 꺼내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는다.

혜온 (이어폰 한쪽도 꽂으려다가) 지도 몰랐으면서 왜 나한테 화풀이냐고.

동치 (문을 열고 목발 짚으며 오는) 다 울었어요?

혜온 (서둘러 눈물 닦는) 안 울었어요.

동치, 좁은 계단에 앉으면, 혜온, 옆으로 밀려나도 둘은 가까워진다.

동치 (연습장을 건네며) 자.

혜온 (연습장 펼치면 꼼꼼하게 뭔가 기록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동치 정신없어 보이길래, 눈대중으로 간호사님들 일과 보면서 적어봤어요.

혜온 이걸 다요? 내 생각 해서?

동치 (으쓱한) 뭐… 도움이 될까 해서.

혜온 (코를 훌쩍이고) 고마워요! 무지무지 도움 될 거예요.

동치 (MP3를 보고) 음악 좋아해요?

혜온 (이어폰 들고) 같이 들어볼래요?

동치 (이어폰 받아서 귀에 꽂고) 근데 아직도 MP3 써요?

혜온 할머니가 사주셨는데,
바로 스마트폰이 나오는 바람에 아까워서 써요.

동치, 피식 웃고, 남은 눈물 훔친 혜온도 따라서 활짝 웃는다.

#37. 빅보이즈 경기장/불펜(낮)

범진, 강속구를 던지지만 군희의 미트보다 아래로 제구된다.
군희, 손이 얼얼해서 미트를 벗고 손을 푼다.

투수코치 너 오늘 선발이야. 공에 절실함 안 실어?

범진 (모자 벗어 땀을 닦고) ….

투수코치 기자가 넙죽 인터뷰 해주고 주목받으니까 옛날 생각나지?
고작 유망주 딱지에 취해서 결국에 실패자로 남을래?

범진 (어금니 깨무는) ….

동치(E)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도 실패한 거니까.

투수코치 감독님 연줄로 공 던지지만, 경쟁에 연줄 없어.

범진 걱정 마세요. 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모자챙 안에 'It ain't over till it's over' 글귀(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자 쓰는 범진, 다시 와인드업하며 공을 던진다.

#38. 빅보이즈 경기장/주차장(낮)

동치, 짐 챙기고 통화를 하며 차에서 내린다.

무중(F) 니가 사정해서 지방 한 번 더 가는 거지만, 다들 오셨을 때 눈에
띄지 않게 눈도장 콱 찍으란 말이야. 기록위원장님이 나도
불편해하시잖아.

동치 (문 닫고) 걱정 마세요. 꼭 만회할 테니까.

동치, 결연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향해 간다.

#39. 빅보이즈 경기장/통로(낮)

기록원실로 향하던 동치, 범진과 마주친다.
동치, 범진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앞을 막는다.

범진 인터뷰 재밌었다? 같이했으면 더 재밌었겠지?

동치 야, 하범진. 내가 아직도 우스워 보이냐?

범진 우습지 않은 선수가 없어서. 니 동생은 내가 우습나 들이대더라?

동치 (노려보는) 니가 이딴 쓰레기인 줄 알아야 하는데.

범진 누가? 혜온이?

동치 (범진의 멱살 잡고) 너를 봉황대기 끝나고 죽였어야 했는데!

범진 기록위원장님께 잘 말씀드려줄까? 성깔로 1군 감 기록원 있다고.

동치 (멱살을 세게 놓는) ….

범진 1군 가고 싶구나? 순순할 때면 뭔가 있어.
누가 1군에 먼저 가나 내기할래? 혜온이가 심판.

동치 건방 떨지 마라. 너 따위 신경 안 써도 1군 간다.

범진 그래? 나도 여기서 절대 실패 안 할 생각이거든. 혜온이도
더 믿을 만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겠어? 오늘 내가 선발인데.

동치 (픽 웃고) 선발? 이미 끝난 새끼를?

군희 저, 선배님! 준비하셔야 합니다.

범진 (한 발 다가가서)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동치, 입술 깨물며 범진을 노려보고
기둥 뒤에서 누군가 동치, 범진을 바라보는 시선.

#40. 몽타주

— 빅보이즈 경기장 전경. 저녁 경기를 위한 조명이 환하다.
— 관중석. 기록위원장, 프로야구 총재와 관계자들이 관전한다.

캐스터1(E) 오늘 위너스 선발 투수가 최고의 유망주였던 하범진 선수죠.

— 기록원실. 동치, 미간에 힘이 들어간 채로 경기를 주시한다.
— 그라운드. 범진의 투구하는 모습과 전광판 이닝 변화가 겹쳐진다.

캐스터1(E) 하범진 선수 퍼펙트게임[4] 페이스인데요?

6회 말까지 위너스는 R(득점) 3, H(안타) 4, E(실책) 0, B(볼넷) 0이고,
빅보이즈는 R 0, H 0, E 1, B 3. 카운트는 B(볼) 3, S 2, O 2이다.
마운드에 범진, 회심의 강속구를 던지면, 빅보이즈 좌타자,
방망이에 겨우 맞춘다.
깎여 맞은 타구를 유격수가 앞으로 달려 나오며
맨손으로 잡으려다가 놓친다.
그사이, 발 빠른 타자는 죽기 살기로 달려서 1루를 밟고
아쉬움에 머리를 감싼 범진, 전광판을 보면 빅보이즈의 H에 '1'이 표시된다.
범진, 어이없다는 듯 기록원실을 노려본다.

#41. 빅보이즈 경기장/기록원실 앞(밤)

동치, 밖으로 나와 기록원실 문을 닫는데
범진, 군희의 만류도 뿌리치고 동치의 앞에 선다.

범진 나 엿 먹이려고 그랬지?
군희 (범진을 말리며) 선배님, 기록원님한테 항의하면 큰일 나요.
범진 (무시하고) 그게 유격수 에러지 왜 안타야? 이게 니가 말하는 룰 적용하는 거야? 사심 넣어서 판정하는 거지?
동치 미친 새끼…. 이대후 좌타 준족이고 타구도 느린데 유격수가 급하게 맨손 캐치 했잖아. 러닝 스로까지 감안하면 아웃 확신 못 해. 글러브라도 댔으면 실책으로 봤을 거야.

4. 선발 투수가 한 타자도 출루시키지 않고 완투하여 승리하는 경기.

범진 결국 니 맘대로네? 선수 때처럼!
동치 (멱살 잡는) 내 맘대로?
범진 (멱살 잡고) 그래 니 맘대로!
군희 (말리는) 두 분 왜 이러세요?
동치 어차피 안타든 실책이든 강판당했을걸? 지가 두들겨 맞아 패전해놓고, 퍼펙트라도 할 줄 알았어?
범진 왜 못 해. 나 에이스 하범진이야! 너 따위 백업이 아니라고.
동치 (주먹 날릴 듯이 쥐고) 난 실수 절대 안 해.
범진 실수를 안 해? (픽 웃고) 기록은 패스트볼인 거 몰라?
동치 와일드 피치[5]야!
범진 기록위원장님한테 접대할 생각하지 말고 물어나 봐. 왜 패스트볼인지.
동치 뭐, 접대? (주먹을 부르르 떠는) 묻긴 뭘 물어!

누군가 기둥 뒤에서 동치, 범진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다.

#42. 빅보이즈 경기장/주차장(아침)

동치의 차가 들어서고 주차를 시키면
대기하던 기자들, 동치를 알아보고 몰려온다.

동치 (내리다가 놀란) 뭐, 뭐야….
기자1 고동치 기록원님이시죠? 하범진 선수와 왜 싸우셨나요?
동치 (당황한) 예?
기자2 2007년 봉황대기 결승전 이후 감정이 쌓였었나요?
기자3 어제 애매한 상황에 안타 기록도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동치 (발끈하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규정대로 한 겁니다!
기자4 진태욱 기록위원장님도 얽혀 있다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5. 포수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빗나간 투수의 투구.

동치　　예? 기록위원장님이 왜?

동치, 기자들을 뚫고 헐레벌떡 뛰어간다.

#43. 빅보이즈 경기장/선수 대기실(아침)

범진, 군희, 투수코치 앞에서 해명한다.

군희　　그게…. 아는 기자 친구가 취재를 왔었는데….
투수코치　　그래서 인터뷰해준 A선수가 너라고?
군희　　기록원님이 선배님을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범진　　(군희 보며 웃고 투수코치에게) 기사 같은 감정은 없습니다.
기록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록위원장님 일은 제 오해고요.
투수코치　　이딴 식으로 훈련하고 경기, 집중할 수 있겠어?
범진　　전 다음 로테이션 지킬 겁니다.

#44. 신문사 주차장+동치의 차 안(저녁)

동치, '기록위원장님'에게 전화를 걸지만 연결되지 않아 초조하다.
'너 설마 선배 제치려고 했냐', '그래서 그날 약속 쨌네', '고동치 뒤에 비수를 가지고 있었구나?' 등의 기록원들이 보내는 톡이 오면서 더 심란해진다.

송희　　(기웃거리다 차에 타고) 고 모 기록원님 배짱 좋다? 본진털이 왔어?
동치　　기자들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소설 쓰냐?
송희　　워낙 주목받는 범진 오빠랑 엮였으니까.
동치　　기록위원장님은 왜 또…. (따지는) 식당 예약부터 너.
송희　　내가 기사 썼나, 날 엮어? 지나간 일은 지워줘라 좀. 기사는 우리 신입이 욕심부린 거야. 바로 내리고 정정기사 냈잖아, 근데.
동치　　근데 뭐?
송희　　맞지? 결승전 비하인드?
동치　　(침 꼴깍 삼키고) 너, 하범진한테 들이대지 마.

송희　　얘기가 왜 그리로 튀냐? 그 오빠도 의외로 순진한 구석이 있네?
동치　　남매가 그딴 자식한테 쌍으로 밑 보여야 되겠냐고!
송희　　밑 보여? 맞네. 메이저리그 유망주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월등한 범진 오빠한테. 뭐 그전부터 워낙 유명했잖아? 그에 비하면….
동치　　(반박은 못 하고) 하범진한테 껄떡대지 마. 알겠어?
송희　　이런 오빠를 만나주는 혜온 언니는 동정인가?
동치　　뭐?
송희　　아닐 텐데…. 근데 말이지, 고작 4프로야.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프로 되는 비율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해서 하늘의 별 따기라고. 96프로가 루저야? 자기 길 찾는 새로운 도전자지.
동치　　내가 기자랑 말싸움이 되겠냐…. 됐어.
송희　　나도 됐네요. (내리려다 말고) 행여나 나한테 미안해하진 마. 오빠한텐 어려운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신입 교육은 똑바로 시켜놓을게.

송희, 문 닫고 가면, 동치,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 쉰다.

#45. 재활병원/물리치료실 앞(저녁)

범진, 밖으로 나오며 지나가는 혜온의 앞을 막는다.

범진　　잘 안 보이더라? 이번 등판 말아먹어서 위로받고 싶은데.
혜온　　(놀랐다가) 아… (차분히) 그럴 수 있죠. 한 경기인데.
범진　　그래?
혜온　　야구는 열 번 중에 세 번만 쳐도 되잖아요. 루틴만 잘 지키면….
범진　　(픽 웃고) 나 투순데. 동치가 그래?
혜온　　저 선배… 생일에 저녁도 안 먹고, 기사도… 미안해요.
범진　　니가 왜 미안해? 동치가 사고뭉친데.
혜온　　원래 그런 오빠가 아닌데….
범진　　그래서 더 아쉽다. 널 동치한테 뺏길 줄이야.
혜온　　(당황한) 서, 선배….

범진 봉황대기 우승하고 고백하려고 했어. 우승 날아가고, 미국 진출 준비에, 야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내 감정은 그대로거든.

혜온 선배가 절 그렇게까지….

범진 장혜온이 내 루틴이었으니까.

혜온 (망설이다가) 오빠는 우승해야…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범진 응?

혜온 (전화가 오고) 잠시만요. (보면 발신자는 '간병인'이다)

#46. 편의점(저녁)

파라솔 자리의 동치, '기록위원장님'의 '괜찮네' 문자에 손을 떤다.

찬수 (맥주 마시며 동치 문자 슬쩍 보고) 우승 못 한 것들끼리 쌈박질이나 해대고, 기록위원장님은 심판 보게 했냐?

동치 여기까지 와서 초 칠래? 여긴 왜 왔냐? 너도 원정 다녀?

찬수 나 나름 잘나간다? 교육도 다녀. 달리기보다 잘하는 걸 찾았잖아. (낄낄대는) 1군도 못 가고, 제일 자신 있는 도루하다가 야구 인생 종치고…. 너나 나나 제2의 인생은 어떻게 산다?

동치 프로 3년 만에 방출되고 내 앞에서 대성통곡한 녀석이 너야.

찬수 지나고 보니까, 할 만큼 했더라. 너보다 조금 더 한 거지.

동치 (못마땅한) 그 정도 목표밖에 안 세우니까….

찬수 넌 목표가 너무 높은 거 아냐? 하범진? 웃긴다.

동치 웃겨? 뭐가?

찬수 부러워할 놈이 따로 있지 원 탑을? 대단해. 그렇다고 하범진이 지금도 에이스는 아니잖아?

동치 ….

찬수 야구는 접었지만 아버지한테 용돈 좀 찔러드릴 수 있고, 마눌님은 바가지 긁어도 예쁘고, 내 주니어들 무럭무럭 크면 장땡이지.

동치 (찬수 맥주 뺏어 마시고) 나도! 그러려고 그런다고!

찬수 깜짝이야. 야, 그리고 그날 하범진 기록원실 찾아갔다더라.

동치, 찬수를 보는데, 탁자 위에 놓인 동치의 휴대전화가 울린다.1

#47. 요양병원/병실(저녁)

동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범진이 있자 표정 굳는다.
갑분, 범진의 손을 꼭 잡고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흡족해한다.

간병인 (동치 보고) 아이고, 한발 늦었네….

동치 (범진에게 다가와 손을 낚아채는) 니가 왜 여기 있어?

갑분 영감탱이?

범진 (픽 웃고) 혜온이 할머니 뵈러 오지도 못해?

동치 나와!

갑분 (동치의 머리채를 잡고) 우리 오라버니 놔라! 놔!

간병인 (갑분을 말리며) 아이고, 할머니 또 이러시네.

동치 (겨우 갑분에게 떨어져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범진 가리키며) 이 자식은 마음에 들고 저는 마음에 안 드세요? 왜요? 할아버지랑 닮아서요? 그때 그러셨죠! 야구도 못 하는 놈이 우울증이나 걸리고 하나서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앞에선 웃고 뒤에서 그러셨잖아요!

갑분 (씩씩대는) 이 영감탱이가!

갑분, 카세트를 집어 던지면, 동치의 눈썹 뼈에 맞고 바닥에 떨어진다.
동치, 눈썹에서 피가 흐르고, 범진, 간병인, 흥분한 갑분을 같이 말리는데
손으로 지혈하던 동치, 문 앞에 혜온과 눈을 마주친다.

#48. 요양병원 앞(저녁)

표정 굳은 혜온, 앞만 보고 가는데
동치, 뛰어와서 혜온의 앞을 가로막는다.

동치 미안해. 내가 잠깐….

혜온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지금까지?

동치 ….

혜온 왜 내가 먼저 고백한 걸 후회하게 해? 이 곰텅구리야!

동치, 흐르는 피도 닦지 못하고 서 있다.

#49. 과거. 대학병원/병실(낮)

동치, 멍한 채로 눈만 껌벅거린다.

혜온 눈 깜빡거리는 게 예스예요, 노예요?

동치 그, 그러니까….

혜온 솔직히 나보다 못한 선배들이 꽃미남이라고 비실한 것들 데리고
와서 씨씨라고 자랑하는데. 나도 씨씨 해보려고요.

동치 내, 내가 재기하면. (베개맡에서 공 꺼내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1호 홈런볼로… 고백하려고….

혜온 재기해야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이 좋은 건데?

동치 (혜온의 손에 공 쥐여주고) 이제 니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밝게 웃는 혜온, 동치에게 뛰어올라 뽀뽀를 하고
동치, 혜온의 무릎에 붕대 감은 다리가 눌려 찌릿한데 꾹 참는다.

#50. 과거. 카페(낮)

송희, 혜온에게 편지봉투 다발을 건네준다.

혜온 (편지봉투 보며 애틋한) 고마워, 송희야.

송희 나도 궁한데, 비둘기 역할이나 해야 하는 게 참…. 그래도
언니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곰이 웅녀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INSERT
동치의 방.
산발인 동치, 어두컴컴한 방에서 스탠드만 켜놓고
편지봉투에 편지지를 넣은 다음 풀을 빈틈없이 바른다.

송희 야구 그만두고, 이렇게 심하게 우울증에 걸릴 줄은 몰랐는데.

혜온 (미소 지으며) 우리, 오빠 믿자. 곰이잖아.

#51. 과거. 요양병원/병실(저녁)

갑분, 찹쌀떡을 먹고 식혜로 입가심을 한다.

혜온 오빠가 사다주는 찹쌀떡은 먹으면서 왜 꼭 증세 심해지면 동치
오빠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갑분 내가 기억이 나겠냐. 곰 같은 선머슴아가 야구도 못 하고 우울증?
하이고…. 하나서 열까지 맘에 드는 구석이 없다. 2군 뭐? 기록원?
난 숫자 2가 제일 싫다. 두 번째 여편네 만든 니 할애비 생각나니까.

혜온 (어이없어서 웃는) 할머니도 참….

갑분 너 건사하려면 사내자식이 번듯해야지.
할애비처럼 그 녀석도 너 고생시킬까 봐, 할미는 잠을 못 자.

살짝 열려 있던 문이 조용히 닫힌다.

#52. 요양병원 앞(저녁)(#48 연결)

혜온, 눈가가 붉어져서 한숨을 쉰다.

혜온 편지 끊고, 할머니도 안 보려고 하고….

동치 너도 내가 남들처럼 잘나길 원했을 거 아냐.
그러니까 하범진 같은….

혜온 아웃.

동치 !!

혜온 오빠 야구 원래 못 했잖아.

동치 !!!

혜온 난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나도 아직까지 유능한 간호사
아니야. 미국 연수도 갑자기 자리 나서 손만 빨리 들었어.

동치 ….

혜온 우리 둘 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혜온, 동치를 지나치려다가 핸드백에서 반창고 꺼내 집어 던지고 간다.
동치, 혜온을 붙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반창고만 본다.

#53. 요양병원/복도(저녁)

범진, 병실에서 모서리가 깨진 카세트를 들고 나온다.

범진 (중얼거리는) 이거를 고칠 수가 있나?

눈썹에 반창고 붙인 동치,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카세트를 뺏어 간다.

#54. 요양병원 주차장(저녁)

동치, 카세트를 차에 넣고 보면 범진이 서 있다.

동치 차에 깔리기 싫으면 꺼져.

범진 그 카세트, 잘 부탁한다?

동치 (범진의 멱살을 잡고) 신경 꺼라.

범진 혜온이도?

동치 (주먹을 움켜쥐고 높이 들며) 아가리 닥쳐.

범진 여긴 기자님 안 계신가? 쳐.

동치 어후, 너랑 체급 차이가 얼만데. 너 나한테 맞으면 죽어.

범진 (픽 웃고) 근데 왜 안 쳐?

동치 (어금니 깨무는) ….

범진 (동치의 손을 쥐고 풀며)
내가 악력이 세서 볼 회전수 높은 거 알지?

동치 (손 아파서 빼는) 이런 씨….

행인1(E) (혀 꼬부라진) 어어? 저거 하범진 아냐?

술이 거나하게 취한 행인1·2·3, 시시덕거린다.

행인2 또 싸우네? 기록원이랑 싸웠다더니 싸우러 한국 왔냐?

행인3 (낄낄대며) 야구 안 되니까 길바닥에서 화풀이하는 거지.

범진 (다가가며) 아저씨,
야구선수가 배트 없으면 못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동치 (낌새가 이상한) 야, 야!

행인1 (웃통을 벗으려는) 한판 뜰까?

범진 (손짓하며) 와봐.

행인2·3 (동시에) 붙어, 붙어!

동치 (범진의 허리춤을 붙들고) 미친 새끼야, 야구 아주 쫑 낼래?

범진, 동치의 손을 꽉 눌러 풀고 행인1에게 달려들면
동치, 그 앞을 막아서고,
행인1이 날린 주먹에 맞고서도 행인2·3까지 붙든다.
소란스러운 와중에 도로 건너편, 경찰서가 보인다.

#55. 경찰서/유치장(저녁)

행인1·2·3, 유치장에서 곯아떨어져 있고
동치, 범진, 옆 유치장에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동치 (목 만지며) 맞기만 했는데 왜 나까지 가둬? 출동 나가면 다야?

범진 (픽 웃고) 목 디스크 가짜 아니야?

동치 가짜? 에휴, 그걸 못 참고 지랄을 떨어서 나까지 이 꼴로….

범진 안 하던 인터뷰 해주고, 양심 불량 기록원 기사 해명도 깔끔하게
해줬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난 사회생활 참 잘해.

동치 참 잘해서 유치장에 있냐? 오늘 일도 못 막으면 시리즈 찍겠네!

범진 하여간 넌 블로킹이 약해. 아직도 와일드 피치 같아?

동치 (쏘아보는) 그럼 기록원실은 왜 찾아갔어?

범진 (픽 웃고) 결승전 기록 참관인으로 지금 기록위원장님이 오셨었어.
안 바꿔주데. 그러니까 패스트볼이지.

동치　…에이스랍시고 백업 무시하고. 결승전에서 주전 포수 부상이라 나밖에 없는데도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못 믿었냐?

범진　포수가 투수 상태도 몰라? 상대 작전은 판단 못 해? 9회에 변화구 밋밋해서 주자 채웠고, 찬수는 8강에서도 홈스틸로 점수 냈어.

동치　(흥분한) 마지막 타자도 너처럼 영웅 심리 있는 녀석이라 분명 배트 낼 거라 예상했다. 방망이 짧게 쥐고 오른발 박아두고서 직구 기다리더라. 너 지치고 1루도 비었겠다, 변화구로 승부 가능했어!

범진　변화구 기다리는 포수한테, 반응도 못 할 강속구 던진 내가 망친 걸 수도 있지. 욕은 니가 먹고. 그래도 같은 공 던질 거야.

동치　나도 사인 절대 안 바꿔!

행인1　(잠결에) 꿈에서 왜 이렇게 떠들어! 나가! 흠냐….

범진　(픽 웃고) 똑같이 블로킹 형편없는 포수 되는 거지.

동치　저딴 놈한테 왜 백업이라고… 프로도 못 갔다고 쪽팔렸냐….
(이마에 손 얹고) 이 곰텅구리야….

범진　쪽팔려서 그만뒀냐? 그럼 좀 알려줘라. 아직은 내가 그때의 너와 비슷한 기로에 있잖아.

동치　에이스라고 떵떵거리더니 약한 소리냐?

범진　에이스… 근데 뺏겼잖아? 혜온이를.

동치　(어이없는) 뺏겨?

범진　에이스 하범진, 가장 자신 있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동치를 보며) 홈 어드밴티지가 세네.

동치　뭐?

범진　내가 너 목 디스크 걸린 걸 어떻게 알았겠어?

FLASH BACK (#45 연결)

혜온　(전화를 끊고) 선배…. 사실 선배 만난 건… 연수 가게 될 미국 생활은 어떤지 그쪽 재활 시스템은 어떤지 궁금해서지, 옛 감정은 아니에요. 선배는 저보다 야구가 더 중요하잖아요.

동치, 멍하게 범진을 보는데 툭 소리와 함께 야구공이 굴러온다.
철창 밖에서 매직을 든 형사1, 실수로 공을 놓친 듯 멋쩍어한다.

#56. 경찰서/형사계(밤)

범진, 형사들과 인사하는 행인1·2·3에게 차례차례 사인을 해준다.
동치, 책상 위에 #55의 공을 슬쩍 굴려서 범진의 사인이 보이게 둔다.

#57. 경찰서 앞(밤)

동치, 범진, 어색하게 계단을 내려온다.

범진　차였는데 아쉽지 않은 거 보면 야구를 더 사랑하는 건가?

동치　차여? 야! 넌 야구만 사랑해! (전화를 받는) 왜?!

찬수(F)　너 병원 와서 깽판 치고 갔다며? 할머니 사라지셨어!

동치　할머니가? 바로 앞이니까 지금 간다.
(전화 끊는데 '양 선배님'에게 전화가 오자 받으며) 선배님, 제가….

무중(F)　기록위원장님 사무실에 계신다. 얼른 넘어와.

범진　(전화를 받고) 어, 군희야.

동치　기록위원장님이요? …선배님! 급한 불 끄고 나중에 정중하게 사죄할게요. 죄송해요! (전화 끊고 후다닥 경찰서 정문으로 뛰어간다)

범진　(동치 보며) 꽤 늦었다…. 가야지,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동치, 정문 너머 요양병원으로 무단횡단을 하며 달려간다.

#58. 몽타주

— 요양병원 복도. 찬수, 간병인, "할머니"를 외치며 돌아다닌다.
— 골목. 경찰차가 주변을 살피며 지나간다.
— 동치의 차 안. 동치, 이어셋을 끼고 초조해한다.
— 혜온의 집 거실. 방 밖의 핸드백에서 진동이 울리고
열린 방문으로 캐리어에 짐을 꾸리다가 눈가 닦는 혜온이 보인다.

— 동치의 차 안. 동치, 전화 연결이 안 되자 인상 쓰고, 문득 생각이 난다.

INSERT #9 백화점/1층 로비

혜온 목소리 녹음하고 듣는 게 할머니 최애 취미잖아.
빨리 안 갖다드리면 할아버지 전파상 찾아가실라.

— 도로. 동치의 차, 급히 유턴한다.
— 혜온의 집 거실. 혜온,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보고, 급히 밖으로 나간다.

#59. 폐 전파상 앞(밤)

갑분, 문 닫은 지 오래된 낡은 전파상 간판 아래 무릎 세우고 앉아 있다.
택시기사, 택시 앞에서 머리를 흩뜨리며 난감해한다.

택시기사 할망구 환자복 입었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재수 없으려니까.
동치(E) 저기요!
갑분 (동치의 목소리에 쳐다보며) 영감탱이!
동치 (차에서 내리고) 택시비나 받고 조용히 가시죠.
택시기사 (동치의 몸집에 위축되며) 돈만 주면 가지….

CUT TO
동치, 카세트 만지작거리는 갑분, 폐 전파상 앞에 나란히 앉아 있다.
갑분, 얇은 체육복 상의를 걸치고 있다.

동치 날도 흐리고 쌀쌀한데 가요. 여기 간판만 달렸지 문 닫았잖아요.
갑분 영감탱이야. 조강지처 버리고 나가 살림 차리니까 살맛 나디? 이거 고쳐줄 사람이 영감밖에 없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동치 (갑분을 안쓰럽게 보는) 할머니….
갑분 (동치에게 카세트 건네주고) 냉큼 고쳐. 냉큼.
동치 (카세트를 툭툭 치는) 겉만 깨진 거 아닌가? (테이프가 재생된다) !
갑분(E) 내가 정신 놓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녹음이라도 해둬야겠다. 어른이 불러도 안 오는 놈이 뭐가 좋다고. 샘난다. 영감한테 그런 마음을 못 받아봐서. 복에 겨운 놈아, 손주는 보여줄 거여? (지지직거린다)
동치 (재생을 멈추고) 왜… 허락해줘요? (갑분을 보는) ….
갑분 (꾸벅꾸벅 조는) ….

동치, 갑분의 머리를 어깨로 받쳐주고, 손을 꼭 잡아준다.

#60. 요양병원/병실(밤)

혜온, 어두운 병실에서 잠든 갑분을 안쓰럽게 보며 미소 짓는다.

#61. 위너스 경기장/더그아웃(아침)

먹구름 낀 하늘 아래, 그라운드에서 위너스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송희, 투수코치와 인터뷰를 마치고 인사한다.
투수코치, 그라운드로 나가면, 범진, 군희, 안으로 들어온다.

송희 (반갑게) 투수코치님이 오늘 등판 기대해도 좋다는데,
오빤 어때요?
범진 (빤히 보며) ××일보는 신뢰가 안 가서.
송희 또 이직해야 하나…. 회사 핑계로 펜스 치는 거죠?
범진 너 내가 아는 애보다 도루 잘하겠다. 눈치가 빨라서.
군희 (웃음 참는) 큽.
송희 (군희 흘겨보고) 흥, 나도 그냥 대시나 해본 거거든요?
범진 오늘 컨디션 아주 좋은데요, 기자님?
송희 눼, 그래 보이시네요. (새침하게) 비올 거 같은데.
범진 (픽 웃고 군희에게) 준비됐지?
군희 (거수경례를 하는) 넵!

범진, 군희, 그라운드로 나간다.

#62. 요양병원/병실(아침)

갑분의 병상에 노란 우산이 걸려 있고
혜온, 서랍을 열어 연습장 하나를 꺼내 보면
꾸덕꾸덕한 종이에 '치매 예방 체조', '치매에 좋은 음식' 내용이 빼곡하다.

갑분 (멀쩡한 상태) 아줌마가 어련히 알아서 정리했을까. 난리를 쳐.
혜온 6개월이나 신경 못 쓰잖아. (연습장 넣고) 찹쌀떡은….
갑분 동치 녀석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어저께 왔더라.
혜온 …멀쩡한 할머니 보고 가서 다행이다.
갑분 여적 노란 우산만 쓰냐?
혜온 (우산 들고) 왜겠어. 할머니가 조그만 애는 눈깔에 띄게 꼭 노란 우산만 쓰고 다니랬잖아.
갑분 (미소로) 조그만 강아지 얼마나 컸나 보자. (두 팔 벌려) 내 새끼.
혜온 (갑분에게 안겨) 금방 올게.
갑분 (혜온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에고, 잊어버리면 안 되지.

갑분, 편지봉투와 깨진 부위에 절연테이프 붙인 카세트를 꺼내고
혜온의 핸드백에 쏙 넣어준다.

#63. 위너스 경기장/그라운드(낮)

외야 펜스 앞에 동치, 기술자들이 점검하는 전광판을 보고 있다.

무중 (동치 옆에 서는) 그동안 선배들 쫓아서 사죄하고 다녔다며? 나도 껴주지…. 8년 차 성식이가 올라가기로 됐다. 위원장님이 집중력 높인다고 수를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너 기회 날린 거야.
동치 어차피 짬밥 순인 거… (슬쩍 보고) 선배님 오지랖에….
무중 (기가 찬) 야 인마, 니가 술만 마시면 1군, 성공. 그랬어 안 그랬어? 너 보면 나 보는 거 같아서 그랬지!
동치 (픽 웃고) 감사하고, 죄송해요….
(갸우뚱하는) 잠깐, 왜 여기 계세요?
무중 빨리도 묻는다. 좀 앞당겼다, 입원.
동치 (놀라는) 입원이요? 어디가 아픈데요?
무중 몰라 인마, 아직 진짜 몰라. (아련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무릎 각대로 묶어서 기록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야, 설득 안 되는 선수들한테 쫄지 마. 니 기록지가 다 말해주니까.
동치 선배님… (무중을 와락 껴안는다) 아프지 마요.
무중 숨 막혀 인마!

전광판에 모든 카운트 불이 동시에 반짝이더니, 이내 하나씩 완전히 꺼진다.

#64. 재활병원/1층 로비(낮)

혜온, 서류철을 챙기며 접수대 안쪽에서 나온다.

간호사1 혜온 쌤, 비행기는 신발 벗고 타는….
혜온 (밉지 않게 흘기는) 믿을 뻔했어.
간호사1 (웃으며 혀 살짝 깨물었다가) 쌤! 여권은요?

놀란 혜온, 핸드백을 열어보면 여권이 있고, 카세트와 편지봉투도 보인다.

INSERT
꼼꼼하게 밀봉상태인 동치의 편지봉투들.

혜온 ('공항 체크리스트'라고 적힌 편지봉투를 보다가 전화 받고)
네, 쌤. 공항으로… (사이, 놀라는) 비 때문에요?

#65. 위너스 경기장/기록원실(낮)

동치, 휴대전화 연락처에 '안방마님 혜온이'를 누를까 말까 고민한다.

오퍼레이터1 (일어나며) 사촌동생 컨디션 별로라 불펜 일찍 가동되면 안

되는데….

동치 …에이스가 나오잖아요.

오퍼레이터1 네? 아… 네. (문으로 가다가 흠칫하고 나간다)

범진(E) 오늘의 에이스 등장.

동치 (의자 돌려 보고) 여기 들어올 정신이 있냐?

범진 난 블로킹 잘하는 포수만 있으면 돼.

동치 (픽 웃고) 야, 하범진… ('전진고'라고 쓰인 야구일지에 손 올리고)
에이스가 혼자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팔에 힘 들어가잖아.

범진 (야구일지를 슥 집어 펼치며) 그래서 이게 족보다 이 말?

동치 (뺏으려는) 야. (머쓱해서 헛기침하고) 잘 던져라.

범진 (씩 웃고) 나, 에이스야.

동치, 범진, 서로 마주 보다가 민망해서 돌아선다.

#66. 위너스 경기장/그라운드+기록원실(낮)

마운드에 범진, 보슬비를 맞으며 와인드업과 함께 공을 던지면
공이 군희의 미트에 묵직하게 꽂히며 엔젤스1의 헛스윙을 유도한다.
전광판에 구속은 '157km/h'가 찍힌다.
기록원실의 동치, 기록지에 'ㅇ'를 표기한다.
범진, 강속구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자신의 손가락 끝을 바라본다.
투구 전에 로진백을 손으로 만지면 가루가 흩날린다.

CUT TO
빗줄기가 거세지자 심판1이 경기 중단을 선언하고
범진, 더그아웃에서 대기하고 있다.
동치, 휴대전화로 '1시간 전'에 도착한 톡을 확인한다.
혜온의 톡. '비행기를 신발 벗고 타라고? 쓰리 아웃 되고 싶어?'
당황한 동치, 바로 전화를 걸고 신호만 가자 밖으로 뛰어나간다.
놀란 위너스 오퍼레이터1, 휑하게 열린 문만 본다.

#67. 위너스 경기장/백스톱+더그아웃(낮)

그라운드에는 방수포가 덮여 있다.
빗속으로 그물망 뒤에서 심판1의 팔을 붙잡고 말하는 동치가 보인다.
범진, 군희, 위너스 선수들, 더그아웃에서 보고 있다.

동치 이 정도면 노게임 해야 하잖아요? 해줘요!

심판1 왜 이래? 30분은 더 봐야지.

동치 더 볼 것도 없겠구만!

범진, 어처구니없는 동치를 보며 피식 웃는다.
애타는 동치, 뒤돌아 그라운드를 보면 관중석에 노란 우산이 눈에 띈다.
순간 직감한 동치, 한 발 한 발 걸음을 뗀다.

#68. 위너스 경기장/그라운드+더그아웃(낮)

동치, 관중석의 노란 우산, 혜온을 향해 마구 달린다.
더그아웃의 선수들, 동치의 이상한 행동에 고개를 빼고 바라본다.
관중석의 혜온, 동치 보고 계단을 내려오면
동치, 멈춰서 귓불 만지고, 턱 건드리고, 손으로 팔 쓸고,
왼손등을 두 번 친다.
그물망에 다다른 혜온, 발걸음을 멈추면, 동치, 혜온의 앞으로 다가간다.

동치 (손으로 팔 쓸고) 키 사인. (왼손등 두 번 치며) 스톱, 맞지?

혜온 …첫 고백을 그따위로 해?

FLASH BACK (#59 연결)

동치, 어깨에 기대 잠든 갑분 옆에서 카세트를 만지작거린다.

동치 이거 누르면 녹음인가? (녹음 버튼 누르고) 아아, 장혜온.

혜온, 거리를 두고 폐 전파상 앞의 동치를 바라보고 있다.

혜온　읊어.

동치　…장혜온. 프로 못 간 고동치도 괜찮고, 2군 기록원 고동치도 괜찮고, 할머니한테 욕 먹…었던 고동치도 괜찮냐….
나, 너한테 가도 되냐?

혜온　….

동치　(더 크게) 내가 너한테 간다고! (머뭇대는) 나 아웃이야?

혜온　….

동치　(그물망에 양손을 대고 틈으로 입술 삐죽 내민다) ….

혜온　(픽 웃고) 세이프. (입 맞춘다)

범진, 먼저 환호하면, 다들 따라 하고, 군희, 손가락 휘파람 소리를 낸다.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송희, 사진을 찍으면 입 맞추는 동치와 혜온이 담긴다.
FLASH BACK (#51 연결)
살짝 열려 있던 병실 문이 조용히 닫힌다.

혜온　(빙긋 웃으며) 난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좋기만 한데? 오빠랑 나는 우리 아빠, 엄마 처음처럼 똑같이 만난 운명의 데스티니잖아.

빗줄기가 잦아들고, 노란 우산이 바닥에 놓여 있다.

끝.

작가 후기

위기의 순간도 어쩌면 기회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드라마입니다.
작품의 주인공들 이름을 살갑게 불러주신 센터장님과
자기 작품을 대하는 애정으로 리뷰해주신 대리님, 동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공식 기록원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기록원만의 매력과 야구 기록이 주는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잘못을 뉘우치는 중입니다.
극의 설정과 내용에도 허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재미를 위해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직을 비하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무례한 질문도 받아주신 KBO 기록위원회 문의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동적인 인물의 성격을 수정하여 극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인공이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도 밝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그 밖에 오류가 있다면 얼치기 초보의 미숙함 탓입니다.
실책이 난무해도 그 안에 배움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풀카운트›는 오랜 자양분으로 남을 듯합니다.

늘 지켜봐주시는 부모님과 재미난 드라마를 쓰라고 말해주는 형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풀카운트›를 보신 모든 분,
현재의 결과보다 자기 노력을 믿고 원하는 바에 세이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의 온도

최하늘

최하늘

2020 • 한국방송작가교육원 59기 창작반
2018 • 드라마 ‹검법남녀› 보조작가

작의

인간을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공포가 밀려온다.
막연히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랬고,
가깝게는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며
어떻게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괴로웠다.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성이란 무엇일까 질문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든 시대, 누군가를 쉽게 믿기도 힘든 시대.
이런 시대라면 인간과 가장 먼 존재를 통해
인간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을지 모른다.
인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외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종(種)'을 뛰어넘는 이해가 가능한 날이 올 때
사람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번졌다.
그렇다면 가장 이질적인 존재와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해보자 싶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난독증'이 난무한 시대.
인간보다 더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AI가 나타난다면,
그리고 한 인간이 이 AI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써 내려 가보기로 했다.

등장인물

윤태주(35세, 여) 로봇윤리학자
심장을 잃어버린 로봇윤리학자.
민재와 결혼생활 중 얻은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았다.
마음이 딱딱해야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아무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고,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
드디어 상처투성이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날 밤.
남편은 사라졌고, 그와 똑같이 생긴 AI가 나타났다.
슬프면 눈물까지 흘리는 그가 자꾸만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는다.

21(ver. 21, 남) 국립인공지능연구소 AI
인간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AI.
스물한 번의 업그레이드 끝에 지금의 완성된 모습을 갖췄다.
입력된 민재의 기록, 사진, 음성 등이 그를 이루는 주요 데이터.
그의 창조주와 다른 게 있다면, 그보다 훨씬 섬세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을 만큼.

오민재(35세, 남) 국립인공지능연구소 로봇과학자
촉망받는 로봇과학자이자 태주의 남편. 곧 전남편이 될 예정이다.
뜨거웠던 신혼도 잠시, 부부생활은 처참히 망가졌다.
행복을 잃고 일로 도피하며 밤낮없이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21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엄청난 변수가 생겼다.
21이 자신보다 뛰어난 감수성을 지닌 것!

장재호(60대 말, 남)
국립인공지능연구소장 겸 한국대 윤리학과 교수.

이연수(30대 초, 여)
국립인공지능연구소 21프로젝트 매니저.

오세희(20대 말, 여)
국립인공지능연구소 윤리연구팀 막내 연구원.

그 외
여러 인물

줄거리

국립인공지능연구소에서 로봇윤리학을 연구하는 윤태주는
남편이자 동료인 로봇과학자 오민재와 이혼할 날만을 고대한다.
결혼생활 7년, 가슴엔 폐허만 남았고 남편 민재와도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다.
마음의 문을 닫고,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않는 지경이 돼서야
상처 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한다.
그런데 완전히 꼬여버렸다.
이혼 도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남편 민재가 잠수를 탔다.

인공지능 협회 세미나에서 그가 만든 완성형 AI를 공개하기로 한 날이었다.
하필이면 그날, 민재가 사라졌다.
연구소장 수행원인 자신에게 말도 없이 잠적한 남편 탓에 한껏 열 오른 태주.
늦은 밤, 태연히 집으로 돌아온 민재의 모습에 화가 치민다.
그런데 곧 그가 민재가 아님을 알아챈다.
시리도록 차갑던 민재의 눈빛이 아닌,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남편과 똑같이 생긴 AI가 내 앞에 있음을….

21의 온도
최하늘

#1. 고속도로/태주의 차(낮)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손을 뻗는 21.
바람이 손에 스친다. 눈을 감고 바람을 맞는 21의 평온한 얼굴.

#2. 국립인공지능연구소/민재의 실험실(낮)

눈을 뜨는 21. 그가 있는 곳은 차가운 느낌의 실험실 안이다.
실험 베드에 앉은 21과 그를 바라보고 마주 앉은 민재(35, 남)가 있다.
낯빛에 온도 차는 있지만 놀랍도록 똑같이 생긴 두 남자!

타이틀. ‹21의 온도›

#3. 법정(낮)

재판 중, 증인 선서하는 태주(35, 여).
방청석의 피해자 부모, 태주에게 기대를 거는 얼굴이다.

변호사 증인은 국립인공지능연구소 소속 로봇윤리학자죠.
태주 그렇습니다.
변호사 사고 차량엔 연구소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었죠.
태주 네, 저희 연구소의 인공지능 모델이 맞습니다.
변호사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주시죠.
태주 장애인 전용 자율주행 차량이 역주행해서 돌진해 오는 일반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추돌,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변호사 원고 측에선 보행자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했던 겁니다.
피해자 부모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태주 증거로 제출된 인공지능의 정보처리 과정을 보면 해당 인공지능은 보행자를 피할 대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방법은 역주행 차량과 그대로 추돌하는 것뿐이었고요. 그런데 차량 안엔 생후 15개월 아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구조 1순위로 설정된 노약자를 구하면서 보행자와 추돌한 겁니다. 안타깝지만 매뉴얼대로였습니다.

망연자실한 피해자 모, 참지 못하고 울부짖는다.

피해자 모 세상에 그딴 매뉴얼이 어딨어!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돼, 왜! 아무 죄 없는 내 새끼가 왜!
태주 (마음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고) 인공지능은 기술일 뿐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민이나 안타까움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삶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측면으로만 바라봐 주십시오.

#4. 태주의 집/거실(낮)

법정에서와 달리 헐렁한 옷에 머리를 질끈 묶은 태주.
자신의 방에서 서류 들고 나와 바로 맞은편 방문을 두드린다.

#5. 태주의 집/민재의 방(낮)

문 열고 들어가면, 각종 서적으로 한쪽 벽면이 꽉 찬 민재의 공간.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 PC로 신문 읽는 민재에게 이혼서류 건네는 태주.

태주 이혼하자.
민재 드디어 오늘이냐.
태주 응, 논문 프로포절 통과된 기념으로.

민재 성질도 급하시지. 누가 보면 벌써 박사 딴 줄 알겠다.

태주 어, 축하해 줘서 고마워.

민재 (서류를 읽어보며) 잉꼬 흉내도 이제 끝이네. 참, 특강 좀 해줘.

태주 나 비싼데.

민재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받아.
너도 대학원 강의 경험 있으면 좋잖아. 박사라고 소개해놨어.
박사과정이긴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태주 박사과정 주제에 무슨 강의야. 연구소 수석 연구원께서 하셔야지.

민재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사람들이 너더러… 아니다, 됐다.

태주 되긴 뭐가 돼.

민재 됐다고. 그만하자고.

태주 뭐가 됐냐구.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민재 특강 안 하면 될 거 아냐. 됐지.

태주 뭐라 그러냐니까?!

민재 소시오패스래! 기곗덩이 같대. 심장이 없는 거 같댄다.
사람들이랑 말도 안 섞고, 예민하게 구니까.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해야겠냐.

태주 그래서 창피해?

민재 그 뜻이 아니잖아.

태주 잘 됐네. 이혼하면 되겠네.

태주, 정떨어진다는 듯 방을 휙 나가버리고 민재, 그 뒤에 퍼붓는다.

민재 그래! 나도 심장 없는 깡통이랑은 그만 살고 싶다, 제발 좀!

#6. 가정법원 일각(낮)

태주, 홀가분하다는 듯 법원 앞 계단에서 햇살을 만끽한다.
뒤에서 그런 태주를 바라보고 선 민재.

민재 이혼이 그렇게 좋냐.

태주 너도 좋잖아. 심장 없는 나랑 살기 싫다며.

민재 (말을 해도 참) 야 그거는….

태주 난 세미나로 바로 갈 거야. 연구소 들를 거지?

민재 넌 이 상황에 일 얘기가 나오냐.

태주 왜. 이혼 애도 기간이라도 필요해?

민재 필요하다면?

태주 동의 못 해. 오늘 세미나에서 공개하는 거지?

민재 (못 당하겠다) 그래야겠지. 근데 모르겠다.

태주 문제 있어?

민재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연습대로 안 되면 소장님 난리 나겠지?

태주 사고 치지 마. 네가 싼 똥 맨날 내가 치우잖아.
진짜 싫어, 경고했다.

민재 사고 안 쳐, 걱정 마. 내 인생에 사고는 너 하나면 족해.

태주, 이젠 그런 말에 상처조차 받지 않는 듯 걸음을 옮긴다.
멀어지는 태주를 보는 민재의 고민스러운 얼굴에서.

#7. 도로/민재의 차(밤)

민재, 운전 중이고 그 옆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21이 있다.
신호가 걸린 사이 21, 차창 밖으로 보이는 연인들을 바라본다.
고래고래 싸우다 여자가 남자를 밀어내고, 울며 주저앉는다.
남자, 여자를 일으켜 품에 안아 토닥인다.
신호 바뀌며 차 출발하고, 연인들 멀어진다.

21 (문득) 인간다운 건 뭘까요?

민재 네가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문제면 인류가 벌써 증명했겠지.

21 그럼 나는 누구죠?

민재 내가 만든 인공지능이지. 역작이자 실패작.

21 …세미나에서 다들 나를 보게 되나요?

민재 그래.

21 실패작을 왜 공개해요?

민재　과학자는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난 과학자니까.
그러니 내 미래가 너한테 달린 거지. 어이없게도.
네가 얼마나 인간과 닮았는지, 사회에 적응은 할 수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야.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21　연습한 대로….

민재　감정은 배제하고, 원칙과 합리성만 생각해.
네 비밀 들키지 말라고.

21　마음을 들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민재　그래.

21　있는 걸 어떻게 숨기죠? 마음을 숨길 수가 있나요?
선생님은 그게 되나요?

민재　네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넌 인간이 아냐.
그러니까 인간다울 필요가 없다고. 제발 시키는 대로 해.

21　그렇지만 날 인간처럼 만들었잖아요.

민재　야!

21　왜 날 만들었어요? 어째서 내가 실패작인데요?

민재　그만!

민재, 결국 못 참고 핸들을 쾅! 내리친다.

#8. 한국인공지능 협회 대강당(밤)

'2025년 한국인공지능 협회 세미나' 플래카드 걸린 대강당.
재호(60대 말, 남), 민재의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일그러진다.

민재(F)　오늘 세미나엔 참석 못 할 것 같습니다.

재호　다짜고짜 뭔 소리야!

민재(F)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해서요.
상황 정리되면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옆에 서 있는 태주를 노려보는 재호.
단상 위에서는 재호를 소개하는 멘트 끝나고 박수가 터진다.

박수 소리와 함께 오버랩되는 교통사고 추돌 굉음.

#9. 도로변/민재의 차(밤)

전봇대를 받고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진 민재의 차.
머리에 피 흘리며 겨우 눈 뜬 민재 앞에 21이 보인다.
멀쩡하지만 당황한 듯 보이는 21, 민재의 맥박을 짚어 바이탈 스캔하고
시야에 시스템 정보창을 띄워 민재의 맥박, 혈압 확인한다.

21　많이 아파요? 다행히 위험하진 않아요. 구급차 불렀어요.

민재　(힘겹게) 블랙박스 지워….

21　뭐라고요?

민재　아무도 몰라야 돼. 블랙박스…!

21　(잠시 머뭇거리다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영상 지운다)

민재　집으로 가. 명령이야.

21　(망설이는데)

민재　(다급하게 21을 밀어낸다) 집으로 가라고!

#10. 한국인공지능 협회 대강당(밤)

재호,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오면, 태주, 옆에서 연설문 받아든다.
태주가 건네는 물을 예민하게 밀쳐내는 재호.

재호　오민재 선생 어떻게 된 거야?!
오늘 공개한다 큰소리쳐놨는데 내가 뭐가 되느냔 말이야.

태주　연구소에서 마무리하고 따라온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재호　마누라인 네가 모르는 게 말이 돼!
지 남편 단속도 못 하는 주제에 박사 따겠다는 말이 나와!

태주　제 커리어랑 남편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교수님.

재호　이 판국에도 따박따박 말대답이 나오나?
오민재, 내일 해 뜨자마자 내 앞에 데려다 놔.

재호, 잔뜩 화가 나서 나가고, 그 뒤에 꾸벅 인사하는 태주, 미치겠다.
민재에게 전화 걸지만 연결음 계속되다 끊긴다. 화가 치민다.

#11. 거리(밤)

인적 드문 골목길을 내달리는 21 앞에 갈림길 나타난다.
21의 시야에 길 안내 화면이 펼쳐지고 화면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꺾으면,
아파트 단지가 나타난다. 아파트 향해 달린다.

#12. 태주의 집/거실(밤)

태주, 집에 들어와 제일 먼저 강아지 쭈리와 인사하고
가방은 식탁에 대충 두고, 냉장고에서 맥주 꺼내 벌컥벌컥 마신다.
초인종이 울려 인터폰 돌아보면, 화면 속 검은 모자를 눌러 쓴 21.
민재라고 생각한 태주, 문을 열자 앞에 21이 서 있다.
21, 태주를 보는 눈이 반짝한다.
그가 현관에 한 발짝 들어서고 문이 쾅 닫힌다. 완전히 집으로 들어선 21.
태주는 그를 민재로 착각하고, 태연함에 다시 화가 뻗친다.

태주 장난해?
21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태주 말도 없이 세미나에 안 오면 어떡해? 전화는 왜 안 받아.
사고 치지 말랬더니 아예 잠수를 타? 제정신이야?
난 매 순간이 조마조마한데 넌 뭘 믿고 맨날 그렇게 태평하냐?
네 뒤치다꺼리 못 한다고 나더러 박사 자격 없대.
내가 이러려고 기를 쓰고 코피 쏟으면서 논문 쓴 줄 아니?!
21 (나 때문인 거 같아 미안한데)
태주 내가 네가 싼 똥 치우려고 너랑 결혼했어!?
마지막까지 이래야겠니.
너 땜에 내 인생이 너무 거지 같아, 알아?

태주, 생각할수록 분해서 눈시울 붉어지는데,
안절부절 지켜보던 21, 태주의 눈물을 닦는다.
태주,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 잠시 얼떨떨한데.

태주 뭐 하는 거야?
21 미안해요.
태주 …너, 뭐야. 누구야…!

그때, 전화벨 울린다.

태주 네, 맞는데요. (21 보며) 누가 병원에 있다구요?

21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태주의 눈빛.

#13. 병실(밤)

호흡기 낀 채 침상에 누운 민재 옆에서 심란하게 그를 바라보는 태주.

태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4. 태주의 집/거실(밤)

테이블에 21과 마주 앉은 태주, 그사이 초췌해진 모습.
21을 찬찬히 뜯어본다.

태주 그러니까 그쪽은 오민재가 만든 AI다. 본인이 21이라는 거죠?
21 (끄덕인다)
태주 세미나에 가려다가 취소하고 연구소로 차를 돌렸고, 사고가 났고,
오민재는 그쪽을 집으로 보냈다.
21 (역시 끄덕인다)
태주 그래 좋아. 연구 중이었다는 건 나도 아니까. 근데 어떻게 믿죠?

일부러 사고를 냈는지, 오민재를 버리고 도망친 건지 알 게 뭔데.

21, 싸늘한 태주 표정에 당황하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생각하는데
도무지 모르겠고 믿어줄 것 같지 않다. 서글픈 얼굴, 이내 눈물이 맺힌다.
눈물 한 방울이 손등에 툭 떨어진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보는 태주.
21, 스스로도 당황하며 눈물을 닦는다.

21 (눈물 떨어진 손 보며) 나는… 실패작이래요. 정말 그럴까요.
태주 (난감하다) 내일 나랑 같이 연구소로 가요. 가보면 알겠지.
21 그러지 말아요.
태주 (무슨 뜻인지 몰라 쳐다보면)
21 보내지 말아 줘요.

21, 눈물 그렁해 애원하듯 바라본다.
태주, 어쩐지 맘이 불편하다. 낯설면서 안쓰럽고 여러 고민이 스친다.

#15. 태주의 집/민재의 방(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태주와 21.

태주 오민재가 굳이 몰래 데려오려고 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허락하는 거니까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지내요.
21 (끄덕인다)
태주 (볼수록 똑같다) 오민재는 병원에 있고, 그쪽은 여기 있고.
돌겠네. 나도 모르겠다 정말.
21 오민재 선생님은 괜찮아요?
태주 (이 와중에 그게 궁금해?)
21 너무 걱정돼서….
태주 진짜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21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나요?
태주 (졌다) 그쪽이 걱정하는 오민재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의식은 없지만 위험하진 않고요.

불행히도 내 몸은 하나라서 연구소도 가야 하고,
쭈리도 봐야 하고, 그쪽 감시도 해야 하고요.
만사 제쳐두고 간호할 수 없어서 사람 붙였고요. 됐어요?
21 다행이네요.
태주 당분간은 퇴근하고 병원 들를 거예요.
어떻게든 수습해볼 테니까 협조해요.
집에서 사고 치면 내 손으로 연구소 끌고 갈 거니까.
21 (사뭇 진지하게, 끄덕끄덕)
태주 (가만히 보다가) 근데. 왜 돌아가기 싫은 건데요?
21 …너무 차가워서요.

태주, 저게 진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인가 싶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일인가 싶은데, 해답이 없다.
한숨 한 번 쉬고 나가는 태주.
21,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방을 천천히 둘러본다.
온기라곤 없는 방 안. 그나마 포근해 보이는 침대에 털썩 앉는다.
푹신한 침대에 폭 안착해 들썩들썩해본다.

#16. 국립인공지능연구소/연구소장실(낮)

각종 상패들과 수여증이 가득한 연구소장 재호의 공간.
재호, 신문 속 자신의 세미나 사진 보는 중이고 그 앞에 태주가 서 있다.

재호 어떻게 된 거야?
태주 21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수정하는 중이었답니다.
재호 무슨 문제.
태주 그건 기밀이라 저도 알 수가 없구요.
재호 왜 자네 혼자야.
이젠 연구소도 때려치우겠다는 거야 뭐야.
태주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병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호 하필 이 시점에 몸이 안 좋아? 이 난리를 쳐놓고?
제멋대로 사고 쳐놓고 아프면 다야!

태주 병원에 있습니다.

재호 심각한 건가?

태주 연구 스트레스가 심했나 봅니다.

재호 쌍으로 맘에 안 드는구만. 나가봐.

#17. 국립인공지능연구소/윤리연구실(낮)

태주와 연수(30대 초, 여), 세희(20대 말, 여) 업무 중인데,
태주, 연구소 인트라넷에 민재의 출입증을 스캔해 로그인한다.
보안 등급 최상인 '21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연구 기록을 살펴보던 태주, 꽤 놀란다.

태주 연구소 허락 없이 감정을 설정해? 미쳤어, 오민재.

도무지 이해 안 되는 태주. 고개 젓다 작은 모니터로 시선 옮긴다.
반려동물 홈TV와 연결된 화면.

INSERT
태주의 집. 21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호감을 드러내는 쭈리.
21이 조심스레 인사 나누자 금세 그의 무릎 위에 오른다.

#18. 아파트 단지 놀이터(해질녘)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 쭈리와 나란히 앉은 21.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 들리고, 자전거 타는 아이들 있다.
쭈리, 21이 주는 간식을 받아먹는다. 21, 아이들을 뚫어져라 보는데
시선을 의식한 꼬마 하나가 자전거를 멈추곤 21을 본다.

21, 꼬마가 타던 자전거 앞에서 비장한 얼굴로 안전모 쓴다.

INSERT
21의 시야. 원격 빅데이터 엔진
'자전거 타는 방법' 검색하자 블로그 글, 영상, 위키피디아 등
빅데이터들 빠르게 스캔 한다. '스캔 완료' 알림 뜨고 검색창 사라진다.

드디어 페달에 발 딛는 21.
헛발질이 계속되고 급기야 타지도 못한 채 넘어진다.
자전거 옆에 세우고 지켜보던 동네 꼬마, 조용히 다가온다.

꼬마 아저씨 자전거 처음 타봐요?

21 네. 처음 타봐요.

꼬마 말투가 왜 그래요?

21 (어색하게 씩 웃는다)

꼬마 우리 아빠가 알려준 건데요. 일단 앉아요.

21 (시키는 대로 안장에 걸터앉고)

꼬마 그러고 걸어봐요.

21, 엉거주춤한 자세로 걷는데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자 놀란다.
쭈리를 대신 안고 서 있는 꼬마들, 초집중해서 지켜본다.

꼬마 더 빨리 걸어봐요. 뛰는 것처럼.

21, 빠르게 걷자 마치 자전거가 주행하듯 빨라진다.
멀리뛰기를 하듯이 점점 발이 붕 떠오르는 자세로 공원을 돈다.

꼬마 이제 페달에 발 올려요.

21, 페달에 발을 올린다. 이제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린다.
바람을 가르는 얼굴에 환희가 스친다.
공원을 몇 바퀴나 돌고 또 돈다.
꼬마들의 박수가 터져 나오고, 더 신나서 페달을 밟는 21.

맥주 홀짝 마시며 공원 저쪽에서 걸어오던 태주, 21을 본다.
내가 뭘 본 거지, 싶어 다시 자세히 봐도 21이다.

자전거를 타고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얼굴.
민재 얼굴로 천진하게 웃는 21을 보니 픽 웃음이 나고.

21, 쌩쌩 달리다 끽 세우고 고개 들면, 태주가 있다.
태주를 보고 활짝 웃는 21.

#19. 산책로 일각(저녁)

태주와 21, 쭈리를 데리고 벤치에 앉아 있다.

태주 어떻게 쭈리를 데리고 나올 생각을 했어요?
21 하루 종일 집에서 답답할 텐데 바람 쐬어줘야죠.

태주, 끄덕이며 건너편 벤치에 앉은 노부부를 본다.

태주 저 나이까지 같이 살면서 몇 번이나 싸웠을까.
21 글쎄요. 일 년에 열 번이라고 치면….
태주 (어이가 없어 웃고)
21 (왜 그러지?)
태주 1년에 열 번? 하루에 열 번도 싸우겠다.
21 그럼 태주 씨는 몇 번이나 싸웠는데요?
태주 오민재가 그런 건 안 알려줬나 보네.
21 태주 씨 이야긴 6년 전 5월이 끝이라서요.
태주 하! 너무 솔직하시다. 오민재 설정값 아니랄까 봐.
21 설정이 같다고 완벽하게 같은 건 아네요.
일란성 쌍둥이도 세포까지 세분화하면 달라요.
한 사람의 DNA를 복제해도 완벽하게 같은 개체가 될 순 없죠.
사람 몸엔 3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마다 DNA가 있고…
태주 오케이. 거기까지.
21 사실상 외모, 목소리, 일부 기록만 가진 셈인 거죠.
태주 알았다고요. 난 문과예요. 그만해요.
이왕 만들 거 정우성으로 하지.
지 얼굴이 웬 말이야. 정떨어져.
21 정이… 떨어지게 생겼나요, 제가?
태주 아니, 그게 아니라….
21 그렇군요.
태주 상처도 받고 그래요?
21 (가슴에 손 얹고) 통증은 못 느끼지만 왠지 여기가 묵직해진다면 그게 상처를 받은 건가요?
태주 미치겠네.
21 얼굴은 아마 초상권 때문에 최선이었겠죠.
임의로 설정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태주 (들을수록 갑갑하다) 그래, 좋게 생각하자 윤태주.
인간 아니니까 기대할 것도 없고 차라리 편하잖아.
7년 동안 커피 취향 하나 모르는 인간보다야 낫잖아. 그찮아.
21 칭찬인가요?
태주 칭찬이에요.
21 왜 아닌 것 같죠.
태주 기분 탓이에요.
21 커피 취향은 오래전에 기록해두고 잊었을 가능성이 있죠.
태주 그게 문제라고요! 그렇게 점점 내가 휘발되는 게.
21 하지만 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태주 (말문 턱, 막힌다)
21 소화 기능이 없어서 물이나 밥 같은 건 없어도 돼요.
태주 네?
21 배터리만 갈아주면 되니까, 귀찮게 하진 않을 거예요.
태주 (괜히 미안하게 왜 이래) 알아요.
21 전 이게 다예요. 태주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커피 취향 말고 뭘 알아두면 좋을까요. 뭘 좋아해요?
태주 조용한 거요.
21 (흡, 입을 꾹 다물었다가) 걸을까요. 조용히?

#20. 산책로(밤)

태주, 일부러 21과 멀찍이 떨어져 걷는데
쭈리한테 이끌려서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한다.
21, 주변 구경에 마냥 좋은 얼굴. 옆에서 걷는 태주를 살핀다.

조깅하던 세희,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태주와 21 보고 달려간다.

세희 오민재 쌤? 대박. (손 흔들며) 태주 선배님! 민재 쌤!
태주 (세희 봤다) 미치겠네.
(21 모자를 팍 눌러 씌우고) 눈 깔아요. 눈.
21 눈을 깔아요?
태주 쉇.

21, 태주를 따라 어설프게 고개 숙이면서도 다가오는 세희 유심히 본다.

INSERT
21의 시야. 원격 빅데이터 엔진.
데이터에 기록된 인물과 세희 얼굴을 매치시킨다.
수많은 사진들 후루룩 지나가고, 연구원 프로필 속 세희의 얼굴과 매치된다.

태주 제발 아무 말 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21 (손을 잡으며) 걱정 마요.

태주, 깜짝 놀라서 21 보는데 세희, 어느새 둘 앞에 와서 멈춘다.

세희 오 쌤 휴가 내셨다면서요?
21 세희 씨, 오랜만이야.
세희 (묘하게 낯설지만 웃으며) 밖에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두 분 케미 밖에서 보니 더 빛난다, 빛나!
팀장님 사무실에선 완전 차가우시면서
이럴 때 보면 또 전혀 딴 사람 같으시다니까요.
21 (손을 더 꼭 잡아 보이며) 이 사람 따뜻해, 다정하고.
태주 (순간 마음이 일렁이고, 21을 보는데)
세희 서럽다, 서러워, 나도 얼른 나만 봐주는 남자 만나야지.
21 힘내. 우리처럼 잘 맞긴 힘들겠지만.
태주 (현실감 돌아와 표정 굳고) 그만 가봐, 세희 씨.
연구소에서 봐.

세희, 당황했지만 애써 웃는다. 또 저런 식이란 얼굴.
태주가 먼저 발길 옮기자 21, 세희에게 인사하고 따라 걷는다.

#21. 태주의 집/거실(밤)

21, 쭈리의 목줄을 풀어주고 돌아보는데 태주, 언짢아 보인다.

21 왜 그래요?
태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죠.
21 모른 척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태주 그걸 누가 몰라? 대충 인사하고 왔음 됐잖아요.
21 태주 씨가 피할 이유 없잖아요.
태주 난 피하고 싶다고요.
21 왜요.
태주 모르는 사람하고 얽히는 거 싫어요.
21 같이 일하는 동료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태주 나에 대해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지.
21 태주 씨가 알아갈 기회를 안 주는 건 아니고요.
태주 내 인생에 누가 들어오는 게 싫어요, 난.
21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태주 (갑자기 화가 치솟고) 뭘 안다고 이러는데. 나 알아요?
나에 대해서 다 알아?
21 사람들한테 다정했잖아요.
태주 기억 안 나요, 아까 나더러 차갑다는 거?
아니지, 남들까지 갈 거 뭐 있어.
살 섞고 산 남편도 나한테 심장 없는 깡통이라는데.

그럼 그 말이 맞겠지. 근데 그래서 뭐. 그게 어때서.
마음이 딱딱해야 살아지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 살면 좀 어때서!

21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운다고 마음 약해질 리 없죠.

FLASH CUT #14 태주의 집/거실(밤)
21, 눈물 그렁해 애원하듯 바라본다.
태주, 어쩐지 맘이 불편하다. 낯설면서 안쓰럽고 여러 고민이 스친다.

21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태주 진짜 남편이라도 된 줄 아네.
내 기록, 6년 전이 끝이랬죠. 왜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이혼할 사이니까.
21 이혼을 한다고요?
태주 도장 찍고 남남 되는 이 시점에 그쪽이 굴러들어왔다고.

태주, 그만하자 싶어 돌아서는데, 떨리는 21의 목소리에 멈춘다.

21 그럼 어떡해야 할까요?
태주 뭐라구요?
21 내가 어떡하는 게 좋겠어요? 난 굴러들어와 버렸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태주 씬 다 싫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주 …아무것도 하지 마요.

싸늘하게 말하곤 밖으로 나가버리는 태주. 21 혼자 남았다.

#22. 회상. 태주의 집/태주의 방(밤)

태주와 민재, 키득키득하며 이불 속에서 엉겨 붙어 있다.
서로의 다리 위에 자기 다리를 올리려고 기를 쓰면서 웃겨 죽겠는 둘.
결국 민재가 태주의 손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

민재 (태주 볼에 뽀뽀를 막 퍼부으면서) 예뻐 죽겠어.
태주 그래서 우리 아기 이름 뭘로 하냐구.
민재 몰라, 그냥 네가 너무 좋아.

태주, 그 소리에 좋아서 또 웃음이 터지는데 웃는 태주에게 입 맞추는 민재.

#23. 국립인공지능연구소/윤리연구실(밤)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 혼자 앉은 태주.
생각에서 빠져나오며 고개를 내젓고 안경 쓰며 정신 차린다.

#24. 태주의 집/거실(밤)

21, 빨래를 탁탁 털어 건조대에 넌다.

21 아무것도 하지 말랬지만 밥값은 해야겠지. 빨래가 산더미야.
(다시 탈탈 털다가) 잠깐, 난 밥을 안 먹잖아.

괜히 심술이 나서 널었던 빨래를 도로 걷는데
맘 약해져서 다시 탈탈 털어 곱게 널어둔다.
다 널고 뿌듯한 얼굴로 소파에 앉으면 쭈리가 옆에 와 있고,
무릎에 턱을 기대고 앉은 쭈리의 숨소리 이상해 돌아보는 21.
가까이서 숨소리를 들어보는데, 심상치 않다.

#25. 국립인공지능연구소/윤리연구실(밤)

태주, 이어폰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논문 작업 중이다.
한참 작업하다가 옆을 보면 핸드폰 진동이 마구 울리고 있다.

#26. 동물병원(밤)

헐레벌떡 들어오는 태주. 수의사 인사도 못 보고 지나치고,
21 품에 안긴 쭈리를 데려가 살핀다. 안정된 쭈리를 품에 꼭 안는다.

수의사 폐렴이에요. 아주 초기라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을 텐데
남편분이 호흡이 이상한 걸 알아채셨네요.
덕분에 약 먹고 밥 잘 먹으면 금방 낫겠어요.

태주, 그제야 21과 눈이 마주친다.

#27. 동네 거리(밤)

쭈리를 안고 걸어가면서 소리 없이 펑펑 우는 태주.
그 뒤를 조용히 따라 걷는 21, 안타까워 더 빨리 따라붙었다가도
막상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다시 조금 멀어지기를 반복하며 걷는다.

#28. 태주의 집(밤+낮)

태주, 쭈리를 안고 소파에 누워 울다 지쳐 잠들었다.
담요를 덮어준 뒤, 옆에 앉아 잠든 모습을 들여다보는 21.

시간 흐르고, 아침이 밝았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턴테이블에선 음악이 흐른다.
21, 부엌에서 커피콩을 갈고, 태주는 여전히 소파에 잠들어 있다.
커피 물을 올리고 잠든 태주를 돌아본다.
햇살을 온몸으로 받는 태주 얼굴이 반짝인다.
21, 다가가 살피는데 머리카락이 살짝 얼굴을 덮고 있다.
손을 뻗어 머리칼을 살며시 귀 뒤로 넘겨주면
인기척에 잠에서 깬 태주, 순간 21과 눈이 마주친다.
서로의 눈동자가 선명하게 다가온다.

시간이 멈춘 듯, 음악만 흐른다.
이내 커피포트에서 띵 하고 소리가 난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아침.
태주, 커피를 두 손에 꼭 쥐고 21과 나란히 앉아 있다.

태주 고마워요. 인사가 늦었어요.
21 이제 괜찮아졌어요?
태주 (끄덕인다)
21 너무 걱정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태주 (21 보면)
21 (살짝 미소 짓고)
태주 미안해요. 어젠 말이 너무 심했어요.
21 맞아요. 그런데 나보단 태주 씨가 더 힘들었잖아요. 이해해요.
태주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고요.
21 상황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사과부터 해야 했는데 늦었어요.
태주 됐어요. 따지고 보면 그쪽 잘못도 아닌데….
21 난 태주 씨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태주 나 편해요.
21 온몸에 힘 꼭 주고 살지 않아도 돼요.

괜찮다고 답하고 싶은데 막상 그러지 못하고,
미처 못한 말이 입가를 맴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제야 흐르는 음악을 듣는 태주.

태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인데….
21 알죠.
태주 (얼마나 알아? 맞혀봐요)
21 쭈리랑 처음 만나던 날 산책하면서 듣던 곡이죠?
태주 (맞다, 신기하고 민망한데) 나를 엄청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네.
21 (웃는다) 그래도 궁금한 게 더 많아요.
태주 (커피 한 모금 마시는데, 맛있다. 괜히 웃음이 나고) 맛있다.
21 그래요?

태주　이 방면으로 소질 있네.

21　나도 꽤 쓸 만하죠?

태주　(끄덕끄덕) 뭐, 제법. 내 커피 담당할래요?

21　좋죠. 근데 태주 씨, 양말 좀 뒤집어놓지 말아요.

태주, 황당해서 헛웃음이 터지는데 21, 정말 진심이다.

#29. 국립인공지능연구소/윤리연구실(저녁)

연수와 세희, 각자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는 척하지만,
태주가 언제 퇴근하나 눈치 보는 중이다.
시간은 오후 6시를 향해 간다.

태주　(일어서며) 나 퇴근한다.

연수　요즘엔 계속 칼퇴네. 조심히 가.

세희, 이게 웬일인가 싶어 무음의 환희를 발산한다.
태주, 나가면서 문자메시지 알림이 울리자 확인하는데

태주　아 진짜 또 결제했어! 집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드라마만 봐!
이놈의 티브이 부시고 나 오늘 지옥 간다.

#30. 태주의 집/거실(밤)

전보다 깨끗하고 아늑해진 집 안 분위기.
21, 웃으며 문을 열면 태주가 비장한 얼굴로 집에 들어선다.

21　왔어요?

태주, 집에 들어오는 동시에 집을 어지른다.
신발 대충 벗고, 외투는 의자에 대충 걸치고, 양말은 대충 뒤집어놨다.

21　(양말 집어 들며) 태주 씨. 양말 뒤집어놓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치우는 사람 생각은 안 해요? 정말 너무하네요.

태주, 그렇게 들어오면서도 할 말은 있다.
역시나 TV에선 드라마 ‹대장금› 재생 중인데.

태주　(문자 들이밀며) 아니, VOD를 대체 몇 편을 결제한 거야? 7만 원?!

21　(당황, 양말 툭 떨어뜨리고) 그게….
한 번 틀면 끊을 수가 없어서….

태주　되도록 미니시리즈 위주로 봐요. 응?
왜 대장금을 봐. 왜 대하드라마를 봐…!

21　대장금이 재밌어서 대장금을 본 건데 왜 대장금을 보냐고 하면….

태주　48회? 벌써 이만큼을. 아니 하루 종일 드라마만 봐요?

21　아침에 태주 씨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게 내 낙이에요.
드라마도 못 보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무슨 낙으로 살아요?

태주　우리 엄마야 뭐야.

21　쉿. 중요한 장면이에요.
미안한데 우리 밥은 10분만 있다가 먹어요.

태주, 부엌을 돌아보면 식탁에 태주의 저녁상이 차려져 있다.

태주　(TV 끄며) 안 돼요. 나 배고파.

21　(너무해) 그럼 밤에 최신영화 결제해서 봐도 돼요?

태주　진심이세요? 만 원인데?

21　(제발요, 한 번만)

태주　아 그럴 거면 뭐 하러 집구석에서 영화를 봐! 영화관을 가지!!

#31. 영화관(밤)

상영관 안에 딱 붙어 앉아 있는 태주, 21.
누가 봐도 끌려온 얼굴인 태주와 달리 21 혼자 신났다.
21, 제일 큰 팝콘을 팔에 끼고 있다. 태주, 콜라를 전투적으로 마신다.

21 화면 되게 커요. 잘 보이겠다.

태주 나 진짜 진짜 피곤하다고요. 팝콘은 왜 샀어요. 먹지도 못할 거.

21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태주 (못 말린다)

어두워지면서 영화 시작한다.
사방이 캄캄한데 태주와 단둘이 있는 느낌에 황홀해지는 21.
자연스럽게 팝콘을 집어 먹는 태주.
21, 조심스럽게 팝콘에 손을 가져가고, 태주와 손이 스친다.
태주, 아랑곳 않고 팝콘 먹으며 영화 본다.
기대와 달라 조금 당황하는 21 얼굴.

팝콘 먹다 말고 잠든 태주, 21의 어깨에 스르륵 기댄다.
21, 팝콘을 내려놓고 태주를 편하게 기대어준다.
태주, 잠결에 21에게 팔짱을 살며시 두른다.
21, 그 손길에 놀라지만 이내 미소가 번진다.

#32. 국립인공지능연구소/윤리연구실(낮)

한참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태주.
피곤한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홈TV 화면 띄워본다.

INSERT
화면 속. 태주의 집.
쭈리를 안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21.

피식 웃음이 나는데, 모니터 옆 달력에 눈길이 멎는다.
'세미나', '논문 심사결과', '쭈리 사료 주문' 등 빼곡한 일정 속에
유독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24일에 시선이 멎는 태주.

#33. 회상. 태주의 집/태주의 방(밤)

6년 전.
아이를 잃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태주.
아이 사진, 신발, 옷 등을 한 상자에 넣는다.
태주, 차마 뚜껑을 닫지 못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민재, 제 손으로 상자 닫아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
그제야 눈물이 터지고 무릎에 고개를 파묻는 태주.

#34. 회상. 태주의 집/거실(밤)

5년 전.
샤워 후 가운 걸치고 나온 민재, 분위기 잡으려 캔들 켜는데,
태주는 어린 쭈리를 귀하게 쓰다듬을 뿐 민재를 보지 않고.

민재 안 씻어?

태주 좀 이따.

쭈리를 보며 미소 짓는 태주 얼굴에 민재, 불쑥 화가 치민다.

민재 나한테 할 얘기 없어?

태주 무슨 얘기?

민재 (피임약 내보이며) 계속 피임했더라.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태주 …난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민재 적어도 상의는 했어야지. 다시 노력하기로 했잖아.
너도 동의했잖아. 아이는 나만 원해?

태주 아이가 물건이야?

민재 뭐?

태주 넌 그래서 무섭지가 않구나. 아이는 또 가지면 되니까.
난 너무 무서워. 또 못 지킬까 봐.

민재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됐다. 알았어, 안 가지면 되잖아.
이래갖고 무슨 말을 하겠냐.

#35. 병실(밤)

호흡기는 뗐지만 여전히 잠들어 있는 민재.
그 옆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는 태주.

태주 올해는 이렇게라도 같이 있네. 웃기다 참.

태주, 민재를 밉게 보다가도 삐져나온 손을 이불 속에 잘 넣어준다.

#36. 태주의 집/거실(밤)

21, 빨래를 개는 솜씨가 남다르다.
문득 창밖을 보면, 창문에 빗방울이 한두 줄기 굵게 떨어진다.

#37. 아파트 단지 일각(밤)

소나기가 쏟아진다.
21,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와 서성인다.
비 맞으며 터벅터벅 걷는 태주를 본 21. 태주도 21을 봤다.
21,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는데
태주, 말없이 바라보다가 가만히 안긴다.
다짜고짜 안긴 태주를 토닥이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21.

#38. 아파트 단지 놀이터(밤)

빗줄기가 잦아들었다. 그늘막 아래 벤치에 앉은 태주와 21.
21, 태주가 무슨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다.

태주 비 오는데 왜 나와 있었어요.
21 비가 오니까 나왔죠.

태주 (좀 고맙다)
21 괜찮아요?
태주 (끄덕끄덕)
21 안 괜찮으면 말해요.
태주 (그럼 어떡할 건데?)
21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태주 배고파요.

21, 그런 태주가 안쓰러운데 귀엽다.

#39. 태주의 집/부엌(밤)

식탁 앞에 앉은 태주. 21이 차린 진수성찬에 입이 떡 벌어진다.
21, 국을 놔주면서 마주 앉으면 태주, 숟가락 들어 밥 먹는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짐짓 밝게 재잘거리는 21.

21 오늘 쭈리한테 수제 간식 만들어줬는데 잘 먹더라구요.
태주 그래요?! 전에 내가 해준 건 안 먹던데.
21 내 손맛이 좋은 거겠죠. 계량은 자신 있으니까.
태주 좋겠네 좋겠어. 이제 쭈리 사랑 독차지하겠네.
21 국 어때요. 태주 씨 사랑도 독차지할 수 있는 맛인가요?
태주 부족해. 음식은 정성인데 정성이 부족하구만.
21 인간의 마음을 얻기란 정말 어렵구나.
태주 (빵 터져서) 맛있어요. 우리 엄마 것만큼은 아니지만.
21 (해맑게 웃고)
태주 (문득 맘이 안 좋다) 이 맛있는 걸 나만 먹네.
21 태주 씨가 두 그릇 먹어요. 내 것까지.
태주 같이 밥 한 끼를 못 먹는구나, 우리는.
21 (그저 미소 짓는)

#40. 태주의 집/거실(밤)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음악을 듣고 있는 태주와 21.

21 핸드폰 좀 빌려줘요.

태주 왜요?

21 음악 추천해줄게요.

태주 갑자기?

21 기분전환 하고 싶을 때 들을 음악이요. 알고리즘 알죠?
내가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이런 건 내 전문이지. 기가 막힐걸요.

21, 스트리밍 어플에 자신이 고른 음악들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건넨다.
태주, 그중 한 곡을 재생해본다. 썩 맘에 든다.

태주 오 이거 좋다. 내 취향 되게 잘 아네.

21 그럼요. 내가 그런 거엔 귀신이죠.

태주 옛날에, 너무 울어서 온몸에 물기가 다 빠진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마음엔 아직도 눈물이 가득한데 몸은 말라비틀어진 때.

21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 것 같다)

태주 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죽긴 싫은 거야.
누구라도 날 좀 봐주길 바랐어. 제발 끄집어내주기를.
근데 아무도 없더라구. 밥은 먹었어, 기분은 어때, 묻는 사람이.
오히려 더 멀어지기만 했지.

21 …오민재 선생님도 옆에 없었어요?

태주 (아프게 웃으며) 그거 알아요?
너무 큰 슬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는 멀어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슬픔을 피하거든.

21 (왜일까, 어렵고, 아프다)

태주 그때 알았지. 살려면 마음에 찬 슬픔을 빼야 되는구나.
그래서 난 그때부터 울지도 않았어요.
마음이란 게 없어야 살겠더라.
(21 보며) 다 알잖아요. 내 데이터가 6년 전 어디서 끝나는지.
왜 거기가 끝인지. 다 알죠? 알고서 오늘 기분 맞춰주는 거잖아요.

21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나 봐요.

태주 싫다는 게 아니라.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은 좀 괜찮은 거 같아요.
밥도 맛있었고, 음악도 좋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심장이 뛰는 사람 같아서. 살 것 같았어.

21 다행이에요. 내가 도움이 돼서.

태주 하나 궁금한 건,
나한테 따뜻한 게 6년 전 설정 때문인지. 그거예요.

21 데이터는 첫인상에 불과해요. 마음은 오로지 내 거예요.
심장도 없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습지만….
내가 실패작이라면, 내 설정값은 오류겠죠.
오류 때문에 마음이란 게 생겨버려서 그런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우습죠.

태주 지금 마음이 어떤데요?

21 웃게 해주고 싶어요. 태주 씨를 더 이해하고 싶고.
웃게 하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좋아요, 태주 씨가.
이 오류를 고치기 싫다면… 내가 주제넘는 거겠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말하는 21.
태주, 따뜻하게 바라보다가 순간 이끌려 입을 맞춘다.
잠시 시간이 멎은 듯 입 맞추지만, 이내 화들짝 놀라며 멀어진다.

태주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태주,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21, 잘못했다 싶고 덜컥 두려워진다. 태주 방 앞을 서성이는 모습에서.

#41. 태주의 집/태주의 방(밤)

문에 기대어 서 있는 태주.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찔하다.

#42. 태주의 집/거실(아침)

태주, 살금살금 방에서 나와 신발 신는다.
쭈리가 다가와 소리를 내자 조용하라며 안절부절못하는데
21, 다가와 커피 담긴 텀블러 건넨다.

21 잘 다녀와요.
태주 (빨리 받아들고 대충 얼버무리며) 고마워요.

태주, 누구보다 빠르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간다.
쾅 닫히는 문 앞에 선 21의 얼굴, 마음이 무겁다.

#43. 국립인공지능연구소/윤리연구실(낮)

태주, 연수 자리를 똑똑 두드리고
무슨 일이냔 얼굴로 돌아보는 연수에게 나가자 손짓한다.

#44. 국립인공지능연구소/옥상(낮)

연구소 옥상 정원에서 자판기 커피를 뽑는 연수와 그 옆에 선 태주.

연수 언니가 커피 마시자는 말을 다 하고. 요즘 좀 다르다?
태주 내가 좀 그랬나?
연수 보기 좋아. 애들도 편하다 그러구.

연수, 자판기 커피 건네는데 사양하는 태주.

태주 (텀블러 들어 보이며) 이제 난 맛없는 커피는 사양.
연수 뭐래. 자판기 커피 언니가 제일 많이 마셨거든.
형부는? 안 그러던 사람이 오래 쉬니까 말이 많아.
태주 21 말이야.

연수 형부 잘 있냐니까 갑자기 딴소리야.
태주 정말 인간처럼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거야?
연수 뭐, 기술만 받쳐준다면, 영구적이지. 왜.
태주 어디까지 인간처럼 가능해? 친구가 된다거나. 그런 건 가능한가.
연수 친구? AI랑 친구가 될까.
태주 비관적이다. 프로젝트 매니저란 애가.
연수 아니. 친구든 연인이든 마음이 통해야지.
이 프로젝트는 감정을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고 정을 통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데.
태주 만약에 가능하다면?
연수 불가능하지.
태주 가능하다면.
연수 왜 이래. 친구 필요해? 뭐, 웬만한 인간들보다 낫긴 하겠지.
태주 그래. 내 말이 그거야.
연수 천하의 윤태주도 외롭구나. 언닌 사람을 너무 안 믿어.
태주 넌 아직도 사람한테 기대가 있네.
연수 나도 인간 싫어. 그래도 가끔은 인간성에 기대는 걸어보는 거지.
태주 연애 고수가 바라는 인간성은 뭔데? 키스, 섹스?
연수 중요하지. 너무 중요하지. 근데 또 그것만큼 안 중요한 것도 없다.
태주 그럼 뭐. 넌 뭘 기대하는데?
연수 마지막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따뜻한 거. 그거지 뭐.

태주, 연수의 말에 복잡했던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

연수 형부는 언제 복귀해?
프로젝트 올스탑이라고 소장님이 나한테까지 눈치 준다고요.

연수, 옥상을 나가고, 한숨 푹 쉬다 커피 마시는 태주.
커피가 따뜻하다. '따뜻한 것.' 태주,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하게 다가온다.

#45. 아파트 단지 놀이터(저녁)

수심 가득한 얼굴로 쭈리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산책 중인 21,
쭈리가 반갑게 짖는 쪽을 바라보면 태주가 손을 막 흔든다.
뛰어오는 태주, 근심과 걱정은 온데간데없이 편안하다.

태주 어제 실수라고 한 거 취소할게요.

21 (무슨 말을 할지 벌써 두려운데)

태주 밥 한 끼 같이 못 먹고 섹스도 못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1 (뭘 못 한다고? 너무 거침없잖아)

태주 (손잡고) 나한텐 이 온도가 가장 따뜻한데. 어쩌겠어.
그니까 맘 놓고 옆에 있으라구요. 계속 그렇게 나한테 잘 해주고요.

21 그럼…. 계속 옆에 있어야지. 태주 씨 계속 좋으라고.

21,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맘이 놓이고, 기분이 좋다.
태주도 이제 한결 마음이 편하다.

#46. 태주의 집/태주의 방(밤)

태주, 침대에 편하게 누워 잠들려는데,
21, 노크하며 들어와 머리맡에 물을 놓아준다.

태주 아 거의 잠들었는데….

21 미안해요. 아까 목마르다고 해서.

태주,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바라보면, 21도 태주를 다정하게 본다.

태주 맨날 그렇게 보면 어떡해.

21 태주 씨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돼요.

태주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내가 자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

21 좋은 사람이잖아요, 태주 씨.

태주 아닌데, 나 성질 더럽고 차가운데.

21 태주 씨 그런 사람 아닌 거 나는 다 알지.

일어서려는 21의 손을 놓지 않고 끌어 앉히는 태주.

태주 가지 마요. 같이 있어줘.

21, 옆에 누워 태주의 헝클어진 머리를 귀 뒤로 조심스럽게 넘기면,
태주, 금방 잠들 것 같은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21 얼굴을 만져본다.
온기가 느껴진다.

태주 따뜻해.

태주, 등을 토닥토닥 쓸어주는 21 품 안에서 잠든다.
21, 잠든 태주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태주가 잠결에 확 끌어안는다.

#47. 병실(밤)

민재의 눈썹이 금방이라도 깨어날 것처럼 꿈틀하더니
민재, 손가락 움직이면서 천천히 눈을 뜬다.

#48. 태주의 집/태주의 방(낮)

햇살이 들이치는 아침. 침대 위엔 태주 혼자 잠들어 있다.
옆자리 더듬어보는데 아무도 없다. 뭐지 어디 갔지, 더듬다가 번쩍 눈 뜬다.
벌떡 일어나 상태 확인하는데, 민소매 속옷에, 바지는 어제 입었던 그대로,
어제 입었던 블라우스가 화장대 의자에 걸려 있다.

FLASH CUT #46 태주의 집/태주의 방(밤) 연결
21을 끌어안고 잠든 태주.
“더워” 하면서 이불을 걷어차고 블라우스를 벗어던진다.

흑역사가 떠오르면서 아차 싶은 태주.
얼른 나가려는데 노크 소리 들리고, 홀딱 벗은 것도 아닌데 왠지 부끄럽다.
급한 대로 이불로 온몸을 감싼다. 21, 그 모습이 웃기고 귀엽다.

21 뭐해요.
태주 옷 좀 갈아입게요.
21 갈아입어요.
태주 뒤를 돌든가 눈을 감든가 해요,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21 (웃으면서 눈 감는다) 이렇게 부끄러워할 거 어젠 왜 그랬어요.
태주 (옷 대충 걸치다가 시침 떼며) 어제 뭐요? 어제 내가 뭐했는데?
기억 안 나요. 잠들면 업어 가도 몰라서.
21 그래요. 알았어요. 나 이제 눈 떠도 돼요?
태주 아직 안 돼요.
21 왜 피해요. 난 사람도 아닌데.
태주 알아요. 우리 키스도 섹스도 못 하는 거. 그니까 끌어안고 잤지.
21 이렇게 거침없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태주 난 원래 쭈리 앞에서도 옷은 안 벗어요.
21 (웃는다) 나를 쭈리만큼은 생각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나가라고는 안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거구나.
태주 뭐래 진짜. (다 입고 거울까지 한번 쓱 보고는) 이제 눈 떠요.

21, 눈 뜨면 태주는 이미 방에서 나가고 없다.
못 말리겠다는 듯 웃는 21. 그 위로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

#49. 병실(밤)

등받이에 기대앉은 민재. 태주, 옆에 앉아 얼굴을 살피는데
혈색만 좀 안 좋을 뿐 편안해 보인다.

태주 좀 어때?
민재 죽진 않았네.
태주 농담이 나와?

어색하게 눈치만 보고 우물쭈물 말을 망설이던 둘,
어렵게 한 마디 뱉는데 타이밍 안 좋게 겹쳐버린다.

태주 고마워.
민재 미안하다.

두 사람, 기막힌 타이밍에 풉 웃음이 터진다.

태주 (웃기다) 우린 타이밍도 참.
민재 그러게. 먼저 해.
태주 …너한테 고맙단 말한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더라.
분명 고마운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건 다 까먹었어.
차갑고 냉정하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욕했었는데
내가 뾰족하면 너도 뾰족하고, 내가 웃으면 너도 웃는 거더라.
민재 우리가 서로한테 너무 솔직하긴 했지.
태주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솔직해서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어.
민재 (그런데?)
태주 솔직하지 못해서 무너져버린 거였어, 우리 둘 다.

민재, 태주를 잠시 바라보다가.

민재 그럼, 더 무너지기 전에 솔직해볼게.
태주 (무슨 말이야?)
민재 이제 죽는구나 싶은데, 미안하단 말 못 한 게 걸리더라.
네가 더 아팠을 텐데. 뻔히 알면서 외면했던 거.
우리 아이, 못 지켰단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
나 살자고 네 손 놓고 도망쳤던 거.
태주 (괴롭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뭐 하러 해.
민재 이제라도 하는 거야. 미안하다, 태주야.

민재, 태주 손을 잡는데 이내 손을 빼버리는 태주.
왜 그러나 싶어 태주를 보는 민재.
태주, 눈물 꾹 참는데 참다가 터져버린다.

태주　왜 이제 와서 이래! 왜 이제 와서 사람 맘 흔들어!?
손잡아달랄 때 잡아줬어야지. 왜 지금 이러는데!
아침까지 까르르 웃던 애가 하루아침에 떠났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 어쩜 그렇게 매정해.
어떻게 6년 동안 한 번도 얘길 안 할 수가 있어! 왜 잊어!
왜 나만 그리워해! 넌 뭔데, 뭐 했는데.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민재, 처음으로 터뜨려 우는 태주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
다가가서 끌어안는데, 밀쳐내는 태주. 민재, 다시 끌어안는다.

민재　미안해. 난 네가… 말하면 힘들어할 줄 알았어.
그게 빨리 잊는 길인 줄 알았어.
태주　(주저앉아버린다) 왜 이제 와서 이래, 사람 미치게!

울음을 그친 태주에게 물을 건네는 민재.

태주　이러려던 게 아닌데.
민재　우리 둘 다 계획과는 다르게 여기까지 왔잖아.
태주　그때 피임한 거… 미안해.
민재　나도 잘한 거 없지. 제일 힘들 때 외면했으니까.
태주　솔직히 그때 너, 거지 같았어.
민재　그래. 나 거지같았어. 앞으로 잘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태주　(기회라니, 무슨 뜻이야?)
민재　우리 다시 잘 해보자.

태주, 잘해보잔 말에 머리가 멍해진다.
민재, 답을 기다리는 눈친데, 태주는 어떤 대답도 줄 수가 없다.

#50. 병원 복도(밤)

태주, 병실을 나서며 창문으로 잠든 민재를 바라본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어 쪼그려 앉는다.

#51. 아파트 단지 일각(새벽)

잠 한숨 못 이룬 까칠한 얼굴로 걸어오는 태주.
21, 태주를 발견하곤 다가가 살핀다.

21　무슨 일 있었어요?
태주　그 사람 깨어났어요.

21,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싶고, 축하해야 하는데 쉽게 그래지지 않는다.
태주, 어설프게 웃는 그 얼굴이 오히려 안쓰럽다.

태주　괜찮아요. 평소처럼 지내면 돼요. 노력해봐요.
21　(웃으며) 그래요.

#52. 태주의 집/거실(낮)

민재의 짐을 챙겨 들고 민재와 집 안으로 들어선 태주.
민재와 21, 어색하게 눈빛이 만난다. 21, 눈짓으로 살짝 인사 건넨다.

21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민재　(편하게) 그러게. 너도 그러고 있으니까 아주 인간 같다.

이 상황이 불편한 태주, 짐을 민재 방에 두려고 문 여는데 민재, 붙잡는다.

민재　쟤가 내 방 쓰고 있을 거잖아. 네 방에서 지내지 뭐.
태주　내 방에서?
민재　어차피 곧 방도 합칠 거고.
태주　(21을 보며, 난감한데) 그 문젠 아직….
민재　(그 눈빛을 읽었다 태연하게) 그래 천천히 정리하자.

민재, 일부러 태주 어깨에 팔 두르는데
21을 바라보며 불편한 듯 떨쳐내는 태주.

민재, 잠시 당황하고, 두 사람 번갈아 본다.
태주, 눈짓으로 살피는데 괜찮다는 듯 미소 짓는 21.
둘 사이 기류를 포착한 민재, 표정 굳는다.

#53. 태주의 집/부엌(저녁)

태주, 저녁상에 마지막으로 수저를 놓고 자리에 앉는다.
습관처럼 태주 맞은편에 앉으려고 의자를 빼던 21, 민재와 부딪힌다.
민재,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어색하게 소파로 가 앉는 21.
태주 밥 위에 반찬 올려주며 노력하는 민재.
21, 문득 민재와 시선이 부딪히고 결국 방으로 들어간다.

민재 (일부러) 미안, 불편하지.
태주 아니, 괜찮아.
민재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할게.

#54. 태주의 집/민재의 방(밤)

침대에 그저 앉아 있는 21.
생각만 많은데, 책장에 거꾸로 꽂힌 앨범을 본다.
살짝 꺼내보면, 태주와 민재의 웨딩앨범이다.
그 모습 보기 싫어 다시 탁 닫는데, 오래된 사진이 떨어진다.
주워 뒤집어보면, 태주의 어릴 때 모습이 담긴 사진.
귀여워서 웃음이 나다가 이내 서글퍼진다.

#55. 태주의 집/태주의 방(밤)

침대에 나란히 누운 태주와 민재.
민재는 이미 잠들었지만 어색하고 불편해 뒤척이는 태주.

#56. 태주의 집/거실(밤)

방에서 조용히 나오는 태주와 마주한 21.
태주, 옆에 다가가 앉는다.

태주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쵸.
21 어떤 대답을 바래요?
태주 (끌어안으며) 내 옆에 있겠다는 말.
21 (밀어내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태주 (당혹스럽다, 왜 그래요? 하는 얼굴로 보는데)

#57. 태주의 집/태주의 방(밤)

민재, 옆자리가 허전한 느낌에 잠에서 깨는데 태주가 없다.

#58. 태주의 집/거실(밤)

태주 갑자기 왜 그래요. 겁나게….
21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주 말했잖아요. 이대로, 잘…
21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나랑 평생 살 수 있어요?
늙지도 죽지도 썩지도 않는 나랑?
나는 태주 씨랑 같이 갈 수 없어요. 알잖아요.
태주 그래서 고민했잖아요. 고민했고, 내가 다 감수한댔잖아요.
21 그 고민에 나는 없잖아요.
태주 무슨 뜻이에요.
21 나 때문에 세상과 멀어질 태주 씨 볼 때,
그걸 보는 내 마음 어떨지 생각해봤어요?
태주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 걱정 마요. 내가 알아서 잘해요.
21 어떻게요?
죽지도 않으면서 평생 오류나 일으킬 나 같은 걸 어떻게요.

태주 왜 그렇게 못되게 말해요. 나한테.

21, 불안함에 가까이 다가오는 태주에게서 오히려 멀어진다.

21 태주 씨… 나를 버려야 돼요. 모르겠어요?

고개 가로젓는 태주. 두렵고, 쓰리다. 눈물이 차오르고.
21,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다.

민재, 벽 뒤에서 모든 걸 들었다. 혼란스러운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

민재 (21 멱살을 잡고 끌어내며) 감히, 주제넘게.
태주 (민재에게서 떼어놓으려 애쓰고) 왜 이래, 이러지 마!

민재, 21을 보호하는 태주를 보니 화가 치민다.
포기 않는 태주, 결국 21을 떼어놓으면서 그 반동으로 휘청하고
넘어지는 태주를 부축하는 21.
태주가 자연스럽게 21에 기대는 모습에 더 분한 민재.

민재 (21을 보며) 진짜 인간이라도 된 것 같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윤태주 책임질 수 있어?
네가 저지른 이 상황, 책임질 수 있냐고.
21 (다 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다) 지키고 싶어요 나도.
민재 뭐?
태주 (맘 아프게 보면)
21 근데 그럼 안 되니까. 그럴 수 없어서 화가 나요.
왜 곁에 있지 않았어요. 왜 혼자 뒀어요.
그러지 말았어야죠. 내 마음이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민재 (지독하게 쓰리고) 주제넘는 착각 마.
네 마음이란 거 시스템 에러일 뿐이야.
태주 (상처받을까 괴롭고) 그만해.
민재 넌 프로그램이야. 리셋 한 번이면 폐기되는.
21 (마음이 무너진다)

태주 제발 그만해! 나한테 미쳤다고 하고 싶은 거 아냐?
그럼 나한테만 해. 내가 여기 있게 했고, 의지했어.
그래서 살아졌어. 전부 다 내가 선택한 거야.
민재 너, 정말….
태주 미안해, 이렇게 돼버려서.
민재 (그 말이 더 비참한데) 됐어,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니까.
(21을 보며) 연구실로 갈 거야.

21, 철렁 내려앉고, 이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일찌감치 체념한 듯한 21을 보자 오히려 오기가 생기는 태주.

태주 (앞을 막아서며) 안 돼.
21 태주 씨.
민재 정신 차려. 쟤 사람 아니야, 윤태주.
태주 알아.
민재 알면서 어쩌게. 평생 숨어서 끼고 살게? 방법 있어?
태주 도와줄 거야?
민재 뭐?
21 (조마조마한데)
태주 도와줄 거 아님 기다려. 쭈리 산책 시키고 올 테니까.
민재 (핑계가 형편없네) 지금 한밤중이야.
태주 산책, 할 거야.

태주 눈빛에 흔들림이 없다.
태주가 21의 손을 꼭 잡는데 민재. 그 광경을 봤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겠다는 낭패감이 밀려온다.

#59. 고속도로/태주의 차(밤)

시원하게 달리는 태주의 차.
걸려오는 민재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 태주.
쭈리를 안고 있는 21, 그런 태주의 모습이 낯설다.

21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태주 나도 몰라요. 위치장치 껐죠? 다 꺼버려요. 아무도 못 찾게.

#60. 태주의 집/거실(새벽)

독한 술을 따라 벌컥벌컥 마시는 민재.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온다. 유리잔을 내던져 부순다.

#61. 바닷가(낮)

쭈리는 신나서 모래사장 뛰어다니고
태주와 21, 밀려오는 파도를 따라 거닌다.

21 어떡할 거예요?

태주 (솔직히 대책 없다)

21 네?

태주 몰라요. 시간이라도 벌어야지.

21 그런 다음엔요?

태주 왜 자꾸 나한테만 물어요. 같이 와놓고.

21 매일 도망치면서 살 거예요?

태주 그럼 어때. 또 누굴 잃는 것보단 낫지.
(보며) 어떡하고 싶은데요?

21 난….

FLASH CUT #54 민재의 방(밤)
태주의 어릴 때 사진 보는 21. 귀여워서 웃음이 나다가 이내 서글퍼진다.

21 돌아가고 싶어요.

태주, 심장이 쿵 내려앉아 걸음을 멈추고 보는데
온화하게 마주 보는 21.

태주 거짓말.

21 진심이에요.

태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21 (끄덕끄덕)

태주 알면서 가겠다고요?

21 그럼 어떡할까요?

태주 난 어떡해요. 지키고 싶다면서요.
아까 그랬잖아, 나 지키고 싶다고.

21 그러고 싶어요.

태주 근데 왜 가? 왜 가.

21 내가 가야 태주 씨 시간이 흐르니까.
언제 끝이 다가올지 몰라서 불안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야 하니까. 그건 내가 해줄 수 없는 거니까.

태주 나랑 있으면 불행할 것 같아요?

21 태주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태주 난 같이 있어야 행복해요.

21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태주 씨 마음을 알았으니까, 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주 씨도 웃으면서 보내줘요.
웃는 얼굴 기억할 수 있게.

태주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웃을 수가 없다)

21 나 없다고 예전처럼 양말 뒤집어놓지 말고요.

태주 (픽, 결국 웃음이 터지고)

21 이렇게요.

21, 태주 뺨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고
그러면서 찬찬히 태주의 모습을 눈에 담는다.

태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21 (안아주며) 고마웠어요.

태주 나중에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그땐 내가 꼭 지킬게요.

21 (편안하게 웃는다)

오래 서로의 온기를 느낀다.

#62. 고속도로/태주의 차(낮)

굳은 얼굴로 운전 중인 태주.
21은 쭈리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내다본다. (#1과 연결)
창문을 내려 손을 뻗어본다. 바람이 손에 스친다.
눈을 감고 바람을 맞는 21의 평온한 얼굴에서.

#63. 가정법원 일각(낮)

태주와 민재, 함께 법원을 나와 계단을 내려간다.

민재 정말 남남이네 우리. 아쉽다고 돌아와도 소용없다.
태주 (픽 웃고)
민재 나 미국 가. 소장님이 꼴 보기 싫다고 나가 있으래.
거기서 연구나 실컷 하려고. 횡재했지 뭐.
태주 잘 됐다. 가고 싶어 했잖아.
민재 프로젝트도 내 손 떠났고 홀가분하다. 잘 살아.
태주 너도.
민재 너랑 좋았던 때가 그리워서 그랬다.
태주 ?
민재 데이터는 6년 전에 두고 감정을 설정한 이유.
태주 (고마운 맘에 씁쓸하게 웃는다)

태주, 민재가 건네는 쪽지 받아본다. 카페 주소인데.
쪽지를 보는 동안 돌아서 떠나는 민재. 태주, 멀어지는 뒷모습 지켜본다.

#64. 근교 카페(낮)

개방형 주방이 널찍하게 펼쳐진 카페 안. 사람들로 붐빈다.
“바리스타가 AI라고?”, “엄청 맛있대” 같은 말들을 주고받는 손님들.
태주, 사람들 틈에서 커피를 내리는 한 남자를 본다.
고개를 든 남자 역시 태주를 보고, 두 사람 시선이 허공에서 만난다.
다른 생김새지만 눈빛만으로 21임을 알 수 있는 태주.
남자, 낯익은 듯 바라보면. 환하게 미소 짓는 태주 얼굴에서.

끝.

작가 후기

후련할 줄 알았는데,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싶어 자꾸만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네요.

‹21의 온도›를 쓰고 고치는 과정은
태주. 민재 그리고 21을 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장치와 사건 위주로 풀었던 초고는 다시 보면 부끄럽습니다.
인물의 마음보다 극적인 것에 기대려 했던 제 얄팍함이 보여서요.
부끄러움으로 수정고를 쓰기 시작했고,
저조차 완벽하게 알지 못했던 인물들 마음을 차근차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주제를 몸소 체험한 것도 같습니다.
태주, 민재, 21을 알아가는 동안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쓰면서 주변에 많은 조언을 구했습니다.
보편적인 감정인지, 이해는 되는지 질리도록 묻는데도
기꺼이 도우며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흔들리고, 두려워서 도망칠 궁리만 하던 시기에 오펜에 오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동료들을 만났고, 덕분에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드라마를 쓰는 여정에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구 이즈 백
(Deokgu is Back)

김해녹

작의

28년 무인도 생활에서 돌아온
로빈슨 크루소가 다시 바다로 떠난 게,
정말 바다가 마냥 좋아서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졌다 5년 만에 나타난다면,
혹은 사라졌던 내 가족이 5년 만에 불쑥 나타난다면,
행복하게 전처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피붙이가
세상에서 제일 멀어 보일 때,
그럴 때,
서로에게 가족으로 돌아가는 건
생각보다 무지하게 힘들지 모릅니다.
가장 가깝고도 먼 이름—'가족'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등장인물

천덕구(30세, 남) 5년 만에 돌아온 실종자
5년 만에 살아 돌아왔는데, 가족이란 것들은 왜 살아 돌아왔냐고 성화다.
아버지도 누이들도, 심지어 마누라도 그냥 내가 죽은 척 있어줬으면 좋겠단다.
아니, 진짜 눈만 감았다 뜨니 5년이 후딱 지나가버렸는데 날더러 어쩌라구?!
집을 비운 사이, 가족들은 훨씬 못돼졌다.

천복남(64세, 남) 덕구 부, 복남장어 사장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5년 만에 살아 돌아왔다. 꿈인지 생시인지 꼬집어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실종되고 5년 지나야 보험금 받을 수 있대서 아들 죽어
정신없는 와중에도 꼬박꼬박 부은 보험금! 그 보험금으로 이제 겨우 복남장어
건물 새로 올린 마당에, 지금 그걸 뱉어내라고…?! 그렇겐 못 하지!

난 절대 못 해!

지화자(59세, 여) 덕구 모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5년 만에 살아 돌아왔다. 배 아파 낳은 자식 죽었다 살아 돌아오니, 쌓였던 체기가 쑥— 내려가는 것만 같다. 그런데 남편 말대로, 쥐새끼 비누 파먹는 가난뱅이 집구석 탈출시켜준 그 보험금, 토해낼라니 아주 많이 아깝긴 하다. 남편 편을 들어야 하나 아들 편을 들어야 하나, 난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천춘희(34세, 여) 덕구 누나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5년 만에 살아 돌아왔다. 무사하다니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회사 잘 다니던 남편 부추겨 장어 껍질 벗기게 한 건 바로 나다. 복남장어는 우리, 아니 공주 아빠와 내 꺼란 말이다! 동생아, 대체 왜 살아 돌아온 거니?

정치국(40세, 남) 덕구 매형
죽은 줄 알았던 처남이 5년 만에 살아 돌아왔다. 남들한테 유산 노리고 데릴사위 노릇까지 한다는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이제 막 장어집에서 자리 좀 잡나 싶었는데, 홀랑 아들 자리 다시 내주라고? 피만 안 섞였지, 나 이 집 아들이나 마찬가진데?

허순정(26세, 여) 덕구 처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5년 만에 살아 돌아왔다. 그런데 어쩌나. 옆에 누워도 그닥 반갑지가 않다. 나는 이미 남편 친구와 아니, 정확하게는 죽은 남편 친구와 사랑에 빠진 지 오래돼버렸는데…! 내 몫 보험금 챙기려고 버틴 5년, 이제 어쩌지?

천도희(26세, 여) 덕구 여동생
죽은 줄 알았던 오빠가 5년 만에 살아 돌아왔다. 눈물이 핑 돈다.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 나 같음 빡칠 텐데, 저 바부탱이는 그래도 좋다고 허허실실이다. 난 누구 편이냐구? 글쎄. 음, 바부탱이 편 내가 해줄까, 말까?

그 외
동형(30세, 남, 덕구 불알친구), 국진(5세, 덕구 아들),
보험회사 송 팀장(50세, 남, 대박생명 보험1팀 팀장),
보험회사 구 팀장(43세, 남, 대박생명 지급팀장), 개덕구(7세, 개, 백구),
박 노인, 김 노인, 장 노인 등 동네 사람들

줄거리

제 이름은 천덕구입니다. 이름 그대로 요즘 집에서 제대로 천덕꾸러기 신세죠.
왜 천덕꾸러기냐구요? 취직을 못 해서? 돈을 못 벌어와서? 잘나지 않아서?
뭐, 아닌 건 아니지만, 딱히 그 이유는 아닙니다.
집에서 제가 완전 천덕꾸러기가 된 이유는
죽었다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5년 만에.
제가 죽은 줄 알고 보험회사가 준 보험금 자그마치 10억 원.
가족들은 그게 제가 남겨준 선물인 줄 알았다네요.
그래서 다 쓰러져가던 장어집 건물도 그 돈으로 삐까뻔쩍하게 새로 올렸는데,
아 제가, 마침 새 장어집 개업하는 날에 똬아—! 돌아와버린 거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란 건, 저도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심각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죽은 듯 살라고.
내 목숨 값으로 올린 새 장어집, 손에 쥔 떡을 다시 뺏길 순 없다면서 말이죠.
바다 건너 용 날아다니는 어떤 영화에서 남들은
철왕좌를 누가 차지하느냐로 피 터지게 싸운다는데,
전 이제 산 사람 되겠다고 박 터지게 싸워야 할 판입니다.
누구랑? 세상에서 젤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들과 말이죠!

죽어야 살 수 있는 저 천덕구,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대체 이 사람들! 5년 만에 돌아온 가족한테 이래도 되는 걸까요?
요즘 같아선 가족들이 진짜 절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에이… 가족끼리 그러기까지 하겠냐구요?
나 참, 진짜라니까! 그놈의 돈이 뭔지 다들 눈들이 홱 돌아갔더라니까요!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제 가족을 의심해주세요 네? 꼭입니다요,
꼭!!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이라 저한테 무슨 일 생겨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덕구 이즈 백 (Deokgu is Back)
김해녹

#1. 과거 5년 전. 무창포 방파제(밤)

찌그러진 귀퉁이 하나 없이 아주 동그란 보름달,
화면 가득, 깜깜한 하늘에 홀로 휘영청 떠 있다.
주변으로 철썩— 철썩— 파도 소리 점점 거세지더니
해일이라도 치는지 보름달에 닿을락 말락
달 귀퉁이까지 흰 포말이 솟구쳐 오른다.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

하지만.
진짜 들은 건지 잘못 들은 건지,
사그라지는 포말과 함께 주변 다시 고요해진다.
시치미 뚝 떼고 떠 있는 보름달 위로,

노랫소리(E) 십오야 밝은 둥근 달이 둥실둥실둥실 떠오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울렁거리네.

#2. 현재. 복남장어 외경(밤)

보름달에서 천천히 내려오면,
반짝반짝반짝— 경박하게 움직이는 무지개 꼬마전구들과
'축! 확장 개업' 큼지막하게 적힌 플래카드,
'복남장어' 네온 간판 옆으로 보이고.
카메라, 아름드리 버드나무 지나 시끌벅적 노랫소리 들려오는
복남장어 3층짜리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간다.
딱 봐도 삐까뻔쩍 새 건물이다.

#3. 복남장어/1층 홀(밤)

동네잔치 분위기. '죽청1리' 모자 쓴 한 무리 사람들 흥에 겨워 떼창 중이다.
취기 오른 복남(64세, 덕구 부), 홀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다.

복남 (박수치며) 짝—짜라라라—짝짝! 짝—짜라라라—짝짝!

어느새 박수 따라 치는 동네 사람들.
홀 가득 짝—짜라라라—짝짝! 울리면 흡족하게 올라가는 복남 입꼬리.

복남 그쟈 그쟈! 이게 이름하야 '복남박수'!
천복남 젊었을 띠 땡볕 점방서 참외팔이 하던 시절에도
이 복남박수만 치면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근디 복남장어 확장 개업한 이 좋은 날!
복남박수가 빠질 수 있겄어?

박 노인 없지이! 일케 삐까뻔쩍하게 건물까정 올렸는디 복남박수
뿐이겄어?

복남 하하하하핫! 그르치? (자세 잡고) 그럼 또, 내가 오늘 우리 현진이
얘길 빼놓을 수가 없겄네. 대한민국이 낳은 톱스타! 이제 토론토거
뭐다냐, 브루제이스 유니폼을 똬아— 입게 된 우리 류현진이가!

김 노인 (추임새) 옳지 현진이가!

복남 갸가 한화 이글스서 야구헐 띠, 현진이가 젤로 잘했던 시즌 띠,
9이닝 완투가 다섯 번이여, 글고 한 점도 안 준 완봉이 두 번.
근데 그 두 번이 다 장어 먹은 담날이란 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재!
그래서 한동안 프로야구 선수들이…!

박 노인 프로야구 선수들이?!

복남 (씨익) 장어를 하도 찾아대서 우리 자연산 장어가 씨가 마를 뻔
했다아— 뭐, 이런 전설 같은 소문들이 있재. 하하하핫.

장 노인 (눈치 보다 소심하게 손들고) 근디… 거 2010년 야기 아닌가?
현진이, 완투 다섯 번은 맞는디, 완봉이 두 번이 아니라 시 번이여.

웃음기 거두고 장 노인 쳐다보는 복남.
왼쪽 관자놀이 핏줄 불—뚝 올라온다.

#4. 복남장어/1층 야외 수족관 안+밖(밤)

은은한 달빛, 화면 앞으로 헤엄쳐 오는 장어 한 마리,
갑자기 반대쪽으로 홱 틀더니 경쟁하듯 대가리 모으고 있는 무리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려 생난리 친다.
아니나 다를까, 물속으로 우악스럽게 비집고 들어오는 빨간 고무장갑.
틈새 비집기에 성공하지 못한 장어, 단번에 잡혀 올라가고.
파닥거리는 장어 바구니에 던져 넣고
가게로 들어가는 치국(40세, 덕구 매형).

#5. 복남장어/1층 홀+주방(밤)

손으로 바구니 대충 막은 치국, 홀 지나 주방으로 향하고.

치국 (카운터 지나치며) 처제, 어제 돈 또 삼만 원 비든데?

홀 카운터 앉은 도희(26세, 덕구 여동생),
핸드폰 게임하다 치국 쓱 째려본다.
육중한 덩치, 째려보는 눈빛 매섭다.

치국 주방 들어서면, 입구에 쪼르륵 앉아 다라이에 겉절이 무치고 있는
화자(59세, 덕구 모), 춘희(34세, 덕구 누나), 순정(26세, 덕구 처).

치국 아이—참! 벌써 버무리믄 안 된다니까!
거 아까부터 오는지 안 오는지 전화도 안 받는다는데.
물 생겨요, 물!

일동, 그러든지 말든지 대꾸 없고.
치국, 장어 꺼내 통나무 도마에 박힌 송곳에 아가미부터 쑥— 꽂아넣는다.
버둥거리는 장어 배 갈라 내장 발라내는 치국의 손놀림.
망설임 없이 능숙한.
그러다 문득, 장어뼈 바르다 말고 도마에 칼 꽂는다.

치국　잠깐만. (잠시) 이 인간들, 빵꾸 내는 거 아냐?

앞치마에 핏물 쓱쓱 문지르며 주방 나서는 치국.

#6. 복남장어/1층 현관 앞(밤)

뒷짐 지고 보름달 바라보고 선 복남 뒷모습 위로,

치국(E)　장인어른, 이 사람들 노쇼 아네요, 노쇼?
복남　(돌아보며) 뭔 쇼? (혀 차는) 에이그—. 이래서 닌 안즉 멀었단겨.
송 팀장이 안 올 사람여? 니 같음 안 오겄냐고.
맨날 이 건물 지가 올린 거라고 거들먹거리는데
차암—도 안 오겄다.

복남 서슬에 찍— 소리 못하고 돌아서는 치국.

복남　(돌아서다 퍼뜩) 야야! 니 혹시 아냐?
2010년 류현진이 완봉 기록, 두 갠지, 시 갠지.
치국　(천진난만하게) …완봉이 뭐요?
복남　(끙—) 됐다. 퍼뜩 드가서 준비나 혀!
(가는 치국 등에 대고) 니 류현진이가 누군진 아냐?!

에잉—거리는 복남, 밤하늘 올려다보면
휘영청 달과 눈 마주친다.

#7. 복남장어 인근 산길(밤)

똑같은 달 쳐다보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
산길 걷는데, 바닥 질질 끄는 걸음걸이, 흙투성이 바짓단,
찢어진 삼선 슬리퍼, 꼬질꼬질 드러운 맨발, 헉헉대는 숨소리.
먼 길을 온 듯하다. 저 멀리 '복남장어' 네온사인 보인다.

#8. 복남장어/2층 홀(밤)

달궈진 불판에 척 올려지는 구불텅 구불텅 장어.
이번엔 2층 홀 가득, 왁자지껄 먹어대고 있는 대박생명 보험팀 사람들.
송 팀장(50세, 남) 옆자리 앉아 수발들고 있는 복남.

복남　(잔 채우며) 송 팀장,
도착허면 도착헌다고 기별 살짝 혀주지 그렸어.
송 팀장　아따, 사장님 전화 온 지도 몰랐다니께.
(귓속말) 이 아줌씨들, 45인용
관광버스에 꽈악— 채워놔봐. 뽕짝 볼륨에, 벨소리가 들리겄어요?

"그렇지!" 추임새 올려붙이며 송 팀장 입에 장어 한 쌈 가득 넣어주는 복남.

#9. 복남장어/1층 야외 수족관(밤)

녹말 이쑤시개 물고 장어 들여다보는 라이방 쓴 버스기사.
안에서 순정 나오더니 바구니에 수족관 장어 퍼 담는데,

라이방 기사　(다가와) 을마나 들어요? (턱짓으로) 이런 거 하나 차릴라믄?
순정　(보는) ?
라이방 기사　(또 턱짓) 아니, 이런 장어집 하나 할람 을마나 드냐구유.
순정　(기사 앞으로 턱 들이밀며) 진짜, 알고 싶어요?
라이방 기사　(뭐야, 움찔하는) …?
순정　이 집 아들 목숨 값. (바구니 들고 돌아서며) 딱 그만큼 들었어요.

'뭔 소리야' 싶은 표정으로 복남장어 건물 올려다보는 라이방 기사.
그 건물에서,

#10. 복남장어 마당(밤)

다시 마당으로 내려오면,
앞유리에 '대박생명 보험1팀' 푯말 붙은 관광버스. 가려고 시동 걸고 섰다.
버스 앞에 쭉 도열하고 선 복남네들.
복남, 버스 타려는 송 팀장 주머니에 봉투 쓱 찔러 넣는다. 송 팀장 보면,

복남 피로회복제! 복남장어 건물 일케 멋들어지게 올라간 거, 뉘 공인데!

치국 그쵸 그쵸. 제가 보험일 헐 때 사수셨던 울 송 팀장님이, 가족들 생명보험 쎄게 들라고— 들라고— 안 하셨음 그게 팡! 터질 수 있었겠어요?

하는데, 치국 툭! 치는 복남. 옆에 선 동네 사람들 분위기도 살짝 쎄하고.
서둘러 송 팀장 버스에 태우는 복남.

송 팀장 (버스 타다 말고, 귓속말로) 아! 낼 지급 확인하러 사람 하나 나온대요. 거긴 진짜 신경 써서 잘해드려. 꼬투리 같은 거 잡히지 말고. (복남네 향해) 자 그럼, 오늘도 공짜루다 자알 얻어먹고 갑니다아—!

관광버스도 떠나고, 동네 사람들도 떠나고. 오롯이 남은 복남네들.
한껏 올렸던 가식적인 입꼬리가 스르륵— 내려갈 때쯤,
마당가 개덕구(개, 백구) 어두운 도로 쳐다보고 맹렬히 짖어대기 시작한다.

복남 (뭔가 싶어) 뭐여, 덕구 너 왜 그랴…?

쏜살같이 도로 쪽으로 뛰쳐나가는 개덕구.

#11. 복남장어 앞 도로(밤)

호기심 반 두려움 반,
일렬로 서서 개덕구 간 어둠 속을 뚫어져라 보는 복남네들.

저 멀리, 뛰쳐나간 개덕구 다시 뛰어오는데, 뒤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
눈 끔뻑끔뻑, 저게 뭔가 싶어 목 길게 빼는 복남네들. 그러다,

복남 (턱 덜덜 떨며) 저, 저, 저게… 뭐여…? (눈 커지는) 더, 더, 덕구?!

드디어. 가로등 불빛에 제 모습 드러내는 한 남자.
남루해진 누런 옷, 삼선 슬리퍼에 맨발 찔러넣은 웬 거지 몰골의 장발남이다!

남자 (팔 번쩍 올려 만세—) 아부지이—!
(가족 쭉 보고) 엄마! 누나! 매형! 도희야! 순정아!
(잇몸 만개 미소) 나, 덕구야! 천덕구우—!!

화면 가득, 활짝 웃는 꼬질꼬질 덕구 얼굴 옆으로, 타이틀인 듯 아닌 듯
‹덕구 이즈 백(Deokgu is Back)› 떴다 사라지면 화면 확—! 어두워진다.

#12. 복남장어/3층 거실(밤)

깜깜한 화면에 덕구 목소리.

덕구(E) 근데… 개는 원래 칠뜨기 아니었나? 개 이름이 왜 덕구가 된 겨?

밝아지면, 덕구 가운데 두고 빙 둘러앉은 가족들. 여전히 더러운 덕구 몰골.

화자 (훌쩍이는) 그렇게 혀서라도 니 이름 계속 부른다고,
느이 아부지가.

덕구 아… 그려서 칠뜨기가 덕구가 됐구만… 개덕구.

춘희 됐고. 개덕구 얘긴 집어치우고 니 얘기나 얼른 봐.
대체 5년 동안 어딜 쏘다니다 온 겨?

덕구 입에 집중되는 시선. 옴짝달싹 대는 덕구 입술.

덕구 그… 그기 말이지…. (잠시) 걸 나도 통 모르겄어.

아—! 탄식과 함께 실망한 가족들 얼굴 위로,

덕구(E) 그날도, 평상시처럼 방파제에 새벽 낚시하러 갔었거든?
내가 그때 원투낚시에 막 맛을 들여서—

#13. 회상. 무창포 방파제(새벽)

5년 전. 다시 #1의 아주 동그란 보름달.
내려오면, 철썩철썩 파도치는 방파제 위.
지금보다 살집 반은 덜어낸 멀끔한 덕구가 연신 찌에 봉돌 달고 있다.
파도 점점 거세지지만 모르는 눈치.

도희(E) 미쳤냐? 그 새벽에 거길 기어나가게?
덕구(E) 글게나 말여. 암튼 들어봐. 그때쯤엔 슬슬 날 풀리면서 새벽에도
손맛 못 잊어 오는 꾼들이 꽤 있는디, 그날따라 진짜 암도
없드라고.

덕구 주변 두리번거리면, 휑한 방파제.

덕구(E) 근디! 갑자기! 진짜루다! 집채—만 한, 진짜루 이따아아만한
파도가! 날 퍽! 하고 덮치는 게 아니겄어?!

갑자기 덕구 머리 위로 끝 모르고 솟구쳐 오르는 해일급 파도.
올려다보는 덕구 모가지도 끝없이 뒤로 꺾이는데,
달 귀퉁이까지 솟아오른 흰 포말이 웽—!
굉음과 함께 덕구 위로 쏟아져 내린다.
악! 소리만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덕구. 성난 파도 소리 가득한 텅 빈 방파제.

덕구(E) 그러고 나서, 딱 눈을 떴는디….

#14. 회상. 이름 모를 섬/염전노예 숙소(아침)

감았던 눈 뜨는 덕구. #13과 달리 살집 있고 더러운 몰골.
주변 두리번거리는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표정이다.
보면, 좁고도 더러운 방. 쌓여 있는 온갖 오물들 사이로
흡사 개밥처럼 보이는 음식, 세숫대야에 담겨 있다.

덕구(E) 진짜 눈만 감았다 떴는디 살도 겁나게 쪄 있고
머리도 길어져 있고…. 뭔가 아주 이상트라고.
무섭기도 허고, 얼렁 집에 가야겄다 싶었구먼.

뭔가에 이끌리듯 스르륵 일어나는 덕구.
누가 깜빡한 건지, 잠기지 않은 자물쇠 문에 달려 있다.
문 슬쩍 밀어보는 덕구.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바깥 빛 쏟아져 들어오고.
덕구, 빛 속으로 한 발 내디디면 화면 하얗게 날아간다.

도희(E) 말이 돼? 자그마치 5년이 비는데,
기억나는 게 떨렁 그거 하나라고?

#15. 현재. 복남장어/3층 거실(밤)

멍한 표정의 덕구. 눈 끔뻑끔뻑대더니,

덕구 뭐 …몇 개 더 있긴 혀. 쪼각쪼각 다 쪼가리여서 문제지.
(기억 떠올리는) 바다… 섬… 소금밭… (정색) 어떤 미친 시키들.

덕구 말 따라 보여지는 조각 영상들.
섬, 염전, 빙 둘러서서 무자비한 주먹질 발길질 내리꽂는 한 무리의 남자들.
덕구, 자기도 모르게 그렁그렁 눈물 고여가는데….

도희 (덕구 윗도리 확 제끼는) 이거 봐 이거 봐! 오빠 니 그거였네, 그거!

남루한 옷 아래로 드러난 덕구 등판.
오래된 깊은 상처 자국이 온몸에 가득하다.
놀란 복남네들, 궁금하단 표정으로 도희 보면

도희 (의기양양) 거 있잖아! (잠시) 염전노예…!

갑자기 뭐에 복받쳤는지, 입 삐죽대며 질질 짜기 시작하는 덕구.
화자가 손 뻗어 덕구 어깨 감싸고, 이어 다른 가족들도 덕구 얼싸안는다.
눈물 콧물 쏟아내기 시작하는 가족들.

화자 …돌아왔으니 됐구먼…. 이눔아,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다구….
치국 고생했다, 고생했어! 으이구!!
춘희 야, 니 죽은 줄 알고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어케 살었는지 알어?
순정 (눈물 쪼끔) 바부탱이. 진짜 죽은 줄 알았잖아….
도희 (어깨 토닥이다 덕구 냄새 맡고 흡!) 아… 좀 씻자….

한 발짝 떨어져 코 벌게진 채 서 있던 복남, 눈가 쓱 닦으며 돌아서는데
덕구 찔찔 짜면서도 그런 복남 뒷모습 힐끗 본다.

#16. 복남장어/3층 화장실(밤)

습기 가득한 거울 닦아내는 손길.
거울 속에는 때 벗겨진 덕구 얼굴 보인다. 장발은 아직 어쩌지 못한.

#17. 복남장어/3층 순정 방(밤)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열리는 문. 덕구 들어온다.
침대에 누워 있던 순정, 벽 쪽으로 홱 돌아눕고.

덕구 (침대 끄트머리 걸터앉으며) 와아… 근디 장어집도 글쿠,
이 집도 글쿠… 나 없는 동안 집이 아주 부자가 됐네…. 혹시…?

순정 (감았던 눈 슬쩍 뜨는) …
덕구 아부지 로또 되셨나?!

순정 어이없어 피식— 하면, 덕구 '때는 이때다' 이불 속으로 파고든다.
틈새 노려 순정 가슴께로 손 쓱 들이밀어보는데,

순정 (돌아누운 채) 아이씨…ㅂ!
덕구 (분위기 파악 못 하고 한 번 더) 아이——~.

하는데, 덕구 얼굴로 퍽! 냅다 꽂히는 베개.
벌떡 일어나 앉은 순정이 던졌다.

순정 (씩씩대는) 고만 허랬지! 5년이나 어디 가서 딴짓거리하고
굴러먹다 와선 어따 들이대 이 새끼야! 꼴에 남편이랍시고
들이대는 거야?! 파도니 염전이니 그딴 거 나한텐 씨알도
안 먹히니까, 고만 허라고!

헐…! '어쩌다 내 순정이가 이리 포악해졌나…' 할 말 잃은 덕구.
슬금슬금 이불 들고 침대서 일어서려는데 발치에 뭔가 물컹— 한다.

덕구 (이불 슬쩍 들어보고) …이건… 이건 뭐여?

보면,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웬 남자아이(5세).

순정 (이불 홱 낚아채는) 아씨, 안 덮어? 국진인 나 혼자 낳아
나 혼자 키운 내 새끼니까, 집 나가셨던 남편은 신경 끄셔요.
덕구 (순정 말 안 들린다) 아… 국진이…? 천…국진… 천국진.

덕구 입가에 슬며시 번지는 아빠 미소. 새근새근 잠든 국진 얼굴에서,

#18. 복남장어/1층 야외수족관 안(밤)

깜깜한 어둠, 미동 없는 장어 무리와 달리
홀로 천천히 헤엄치는 장어 한 마리.
앞으로 다가오면 커다랗게 보이는 장어 눈, 마치 이쪽을 바라보는 듯한데,
장어를 배경으로 열리는 카톡창(CG) 하나.

INSERT
(우상단CG) '가족방2' 이름의 카톡 대화방.
'깔따구 님이 새우등 님, 음하하핫 님, 라라밍 님을 초대했습니다' 아래로
이어지는 대화들. 연신 울리는 까똑— 까똑— 알림음.

깔따구 : ...왕자의 귀환...
새우등 : 헐... 맞네 왕자님이 돌아오신 거네... 헐헐헐
라라밍 : 근데 염전노예였음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님?
깔따구 : 웬 신고? 실종됐던 사람 살아왔다고 광고할 일 있냐?
음하하핫 : 그러게... 보험금까지 다 타먹은 마당에...
새우등 : 그놈 보험금 다 토해내야 하는 거 아냐??? (깜놀 이모티콘)
깔따구 : 토해내기만 해? 거짓말했다구 줄줄이 깜빵 갈걸!
음하하핫 : 아... 다시 그 드럽고 다 쓰러져가는 복남장어로... 돌아가는
건가요...
라라밍 : 빽투 더 꼬진 복남장어 (춤추는 이모티콘)
깔따구 : ...그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카톡창 스르륵 사라지면, 이쪽 보고 있던 장어도 방향 틀어 사라진다.

#19. 복남장어 전경(아침)

안개 낀 아침. 스산한 공기에 싸여 있는 복남장어.

#20. 복남장어/3층 주방(아침)

잠에서 막 깬 듯한 덕구 주방으로 나오면, 식탁에 차려진 진수성찬.

덕구 (눈 번쩍 떠지는) 우와— 이게 다 뭐여—. 나 먹으라고 한 겨?
화자 집 떠나 몸 축나고 뜨신 밥도 못 얻어먹은 것 같은디, 마이 묵어.
며칠 안 있음 니 생일 아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께 기대혀.

다 같이 한 술 뜨는 복남네들. 비실비실 웃음 비어져 나오는 덕구. 좋댄다.

덕구 이야—. 몇 년 없어질 만허네—.
나도 이제 장어 잡는 거나 배워보까?
이렇게 번듯허게 그 뭐냐, 패, 패밀리 비즈니스?
거 하는 거 보니까 이 집서 하나뿐인 아들인 내가 그걸 안 함
또 누가 허나 싶기도 허고.
춘희 (당황해서) 너까지 뭘 해. 매형 이미 장어 잡는 덴 선수야—.
덕구 아니, 나도 아들 딸린 애비가 됐는디 뭐라도 혀야지. 없음 모를까.
순정 (역시 당황한) 구, 국진인 차차—
복남 (O.L.) 안 돼.

덕구, '네?' 하는 표정으로 복남 보는데,

복남 (단호한) 안 된다고. (잠시) 덕구 니는. 암것도 허면 안 된다고.

슬쩍 덕구 눈치 살피는 가족들. 단호한 복남 얼굴에서,

#21. 복남장어 마당(낮)

쭉 뻗어 올라간 새 복남장어 건물 바라보고 선 덕구 얼굴 위로,

복남(E) 이 복남장어 건물, 이거 로또 아녀. 니 목숨 값이여.
니 죽었다고 나온 보험금이 이 복남장어 건물이 됐다고!

햇살 받아 반짝이는 장어 수족관 바라보는 덕구 표정,

#22. 복남장어/3층 주방(낮)(#20 연결)

분위기 싸해진 복남네 아침 식탁. 다들 밥술 못 뜨고 덕구와 복남 보는.

복남 거 땜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자식 잃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실종 보험금은 5년 이따 나온대서, 그동안 꼬박꼬박 보험금도
부어야 한대서. 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넣을라고 독허게 살었다고.
근디.

덕구 (눈치만) …

복남 그게 5년 만에 우리 손에 겨우 들어왔는디, 딱 개업식 하는 날
니가 거짓말마냥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
덕구 니 생명보험금이 을마였는 줄이나 알어?

덕구 (침 꼴깍) …

복남 자그마치 10억 원이여…!

덕구 (생각보다 많다) …!

#23. 복남장어 마당(낮)(#21 연결)

다시 마당에 선 덕구 얼굴로 연결되고.

덕구 (혼잣말) 덕구 니는… 암것도 허면 안 돼….
암것도, 허면, 안 돼. (잠시 고민하다) 까짓거, 그라지 머!
내가 은제 열심히 산 적 있었나.
진짜 죽으란 거도 아닌데, 그라지 머.

말은 그렇게 해도, 아쉽고 서운한 건 숨겨지지 않는 덕구 표정.

#24. 복남장어/지하 창고방(낮)

틱— 소리와 함께 켜지는 천장등. 아래로 내려오면,
복남 필두로 복남네들(화자만 없다),
빙 둘러 깜빡거리는 조명 바라보고 섰다.

치국 이게 이게. 불이 좀 말썽이네.

춘희 근데 어차피 숨어 살라면 불 끄고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덕구 (춘희 쓱 보는) …

복남 그려. 덕구 집에 들어오는 거 누가 봤을지도 몰르니께 입단속들
철저히 허고. 일단 여 좀 있어보고 담에 어디 조용헌 디 좀
찾아보자.

도희 (불쑥) 조용한 데? 어디? 니가 가라— 하와이—?

쓰읍— 분위기 파악 못 하는 도희 일제히 째려보는 복남네들.
복남, 창고방 쪽문 열면,
언제 다 준비했는지 상자마다 먹을 것과 생필품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다. 흡사 잘 갖춰진 팬트리 느낌.

순정 어머— 이걸 다 언제 준비하셨대요?

도희 오올— 이건 그거네 그거.

이번엔 또 뭐냐...는 표정으로 도희 쳐다보는 복남네들.

도희 거 있잖아. (잠시) 기생충.

덕구 기생충? 기생충이 뭐여?

다 아는 거 혼자만 모르는 덕구 위해, 들고 온 패드 주섬주섬 꺼내는 도희.

도희 아차차, 오빠 넌 몰르겠구나. (패드 건네는) 이거로 보면 다 나와.
초록창에 기생충 치고 봐봐. 거기 와파 잡는 거도 다 나오니깐.

복남 …오줌은 저 안 오줌통서 해결허고 똥은 하루 딱 한 번만 올라와서
혀. 낮에 손님 없이 쉴 때, 그 띠가 좋겄네. 그 띠 맞춰 싸는 연습도

허고. 밥도 저녁 한 끼는 장사 끝나고 밤에 올라와서 같이들 혀.

말 마친 복남네들,
패드 안고 선 덕구 남기고 주춤주춤 올라가려고들 하는데,

덕구 …근디요. 대충 얼만큼… 여기 있는 거여요?

복남 쓱 돌아보면,

덕구 (민망한지 미안한지 웃는) 아니, 뭐 일단이란 게 얼만큼인지
대충이라도 알어야… 지 맴이 좀 낫지 않겄어요?

할 말 못 찾고 선 복남과 복남네들, 그때 때마침 1층에서 들려오는 소리.

구 팀장(E) 여기 암도 안 계십니까? 대박생명 지급팀에서 나왔는데ㅡ.

화들짝 놀란 복남네들, 서둘러 1층으로 올라가고
홀로 남은 덕구, 창고방 쪽창 밑에 의자 놓고 올라선다.
창문에 붙은 셀로판지 귀퉁이 손톱으로 떼어내고 구멍에 눈 들이미는 덕구.
막 마당으로 나서는 복남 보이고. 복남, 구 팀장 안으로 모신다.
다시 깜빡깜빡 점멸하는 천장등. 덕구 한동안 바라보다, 꺼버린다.

#25. 복남장어/1층 홀(낮)

더운지 연신 땀 닦는 구 팀장(43세, 남).
홀에 마주 앉은 복남, 물 한 잔 앞으로 민다.

복남 (물 들이켜는 구 팀장 보며) 어째, 물 한 잔 더 드려?

구 팀장 (주섬주섬 서류 꺼내는) 아뇨, 괜찮습니다. 그, 아드님 돈이, 보자,
(서류 보는) 보험금 10억. 요즘 뭐 10억이 돈이냐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진짜 유용한 액수예요, 그죠?

복남 그, 그쟈. 특히나 즈이 집엔 아주 큰 도움이… 허허허허허.

구 팀장 근데요, 천덕구 씨 실종된 게 2015년 4월 1일이네요.
만우절 날 거짓말처럼, 그죠?

복남 (뜨끔) 그, 그짓말이라뇨? 허허허허허.

구 팀장 아니, 날짜가 그렇단 말이죠ㅡ.
자식 죽음 부몬 가슴에 묻는다는데….

복남 (한숨) 그쟈… 맨날 울고 짜고… 가슴이 찢어졌었죠….

구 팀장 찢어졌었죠? 아, 벌써 다 옛날 일 되셨나?

복남 (허걱) 뭐래요, 그때, 그때 내가 그랬다, 그 얘기 하는 거지, 참.

구 팀장 (껄껄 웃는) 누가 뭐래요ㅡ. 자, 딱 5년 돼서 법원 선고 떨어지고
(서류 보는) 5년 동안 보험금 납입 꼬박꼬박하셔서,
2020년에 드뎌 보험금 수령하셨네?
(둘러보는) 이거, 그걸로 업그레이드하신 거지?

복남, 고개 끄덕이면 속 꿰뚫어보듯 지그시 바라보는 구 팀장.

구 팀장 근데 혹시, (복남 뚫어지게 본다) 보험금 수령 전이든 혹은 수령
후든, 아들 천덕구 씨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아들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거나,

복남 (긴장) …

구 팀장 혹은, (잠시) 천덕구 씨가, 살아 돌아오셨다거나…!

히익! 복남, 침 꼴깍 삼키는데

구 팀장 (배시시 웃는) 그런 건 아니시죠?

복남 허허허허헛, 아, 아니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릴… 허허허허헛.

구 팀장 (서류 복남 쪽으로 밀며) 그럼,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한
사실을 알고도 악의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ㅡ이 조항에 싸인해 주시죠.

복남 이거, 쩐번에도 혔는디?

구 팀장 실종자는 싸인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
절 계ㅡ속 보셔야 한단 뜻이죠.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싸인하는 복남. '천복남' 싸인 크게 보인다.

#26. 복남장어 외경(낮+밤+아침)

복남장어 건물 뒤로 해 넘어가고.
시커먼 밤 어스름해지는가 싶더니, 날 밝는다.

#27. 복남장어/1층 주방(아침)

주방 도마 앞에 서 있는 치국 뒷모습.
머리 위까지 쳐들었던 뾰족한 삼각 장어칼 도마에 퍽—! 내리꽂으면,
도마 옆으로 쭉— 흘러내리는 핏물. 치국, 물 뿌려 핏물 씻어낸다.

덕구(E) 이야— 울 형님! 진짜 베테랑 다 되셨네—.

치국 쓱 돌아보면, 어느새 등 뒤에 서 있는 덕구.

치국 (흠칫 놀란) 장인어른 보면 어쩔라구 일케 밖으로 나와 돌아댕겨?
덕구 하루 한 번은 올라와도 된담서요. (배에 손 대며) 급똥…!

치국 한소리 하려고 입 여는데.
두 번 길게 울리는 경적 소리, 밖에서 들려온다.

치국 어? 오늘 물차 벌써 들어오나?

소리 나는 바깥 쳐다보는 덕구.

#28. 복남장어 앞(낮)

물차 위에서 작업 중인 동형(30세, 덕구 친구).
키 크고 몸 좋은 훈남 스타일.
"야! 똥형—!" 하는 소리에 고개 들어보면,
치국보다 앞서 달려오는 덕구 보인다.

치국 (덕구 뒷덜미 잡으러 쫓아오며) 야, 얌마! 니 정신이 있니 없니?!!

그런 덕구 보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뜰채 놀리는 손놀림 계속하는 동형.

동형 야아—, 천덕구—. 돌아왔단 얘긴 들었다.
덕구 (벌써? 누구한테?) ??
동형 (물차에서 내려 덕구 어깨 툭 치는) 글쎄, 내가 좀 빨리 알았지?

하는데, 뒤에서 들리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

복남(E) 대체 지금 뭣들 하는 거엿?!!

복남 호통에 덕구, 치국, 동형까지도 동작 그만인데,
'망했다!'는 표정의 치국, 분노 씹어 삼키는 복남. 민망한 듯 실실 웃는 덕구.

#29. 복남장어 전경(밤)

'복남장어' 네온 간판, 꺼진다.

#30. 복남장어/3층 주방(밤)

늦은 저녁밥 뜨는 복남네들. 덕구도 섞여 앉아 식사 중인데.
복남 여전히 화가 안 풀린 표정이다. 때마침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
보면 비닐봉지 든 동형. 국진이 "똥형이 삼촌!" 하며 뛰어나가
동형 품에 안긴다.

동형 (화자에게 봉지 주며) 덕구 왔길래, 소고기 좋은 걸로다

끊어왔어요. (덕구 보고 씩 웃는) 새끼, 집에서 밥 먹으니 좋냐?
나도 5년, 아니 다섯 시간만이라도 잠수 탔음 원이 없겠다—

덕구 아, 나 놀다 온 거 아니라니—

화자 (O.L.) (동형에게) 밥은, 먹었고?

동형 한술 뜨긴 했는데, 찬밥 남았음 한 공기만 주시고요.

하고, 무릎에 국진이 척 앉히고 순정 옆에 자리 잡는 동형.

동형 (자연스레 순정에게) 나 물 좀.

역시나 자연스레 물 떠주는 순정.
덕구 심란한 표정으로 한 가족 같은 셋 본다.

복남 (수저 탁 놓으며) 딱 동형이까지여. (덕구 힘줘 보며) 니 돌아온 거 아는 거, 우리 가족 말곤 딱 동형이까지라고. 동형인 니 불알친구고 니 죽었다 생각혔을 때 아들같이 쭉 본 아니께, 됐다 치고!
한 번만 더 나가 싸돌아 댕겨봐. 뭔 사달이 벌어지나!

숟가락 내팽개치고 자리 뜨는 복남. 먹던 밥 목에 걸려 캑캑대는 덕구.

#31. 복남장어/지하 창고방(밤)

도희가 준 패드 들고 쪽창 여기저기 대보는 덕구. 와이파이 안 잡힌다.
시계, 새벽 2시 40분 지나는. 그때, 밖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트럭 엔진 소리.

덕구 (귀 쫑긋 세우고) 뭐여, 이 시간에.

쪽창 셀로판지 귀퉁이 살짝 뜯어 구멍에 눈 들이대는 덕구.
보면, 붉은 후미등 켜고 서 있는 동형 물차.

덕구 똥형?

하는데, 종종걸음으로 물차에 올라타는 사람... 순정이다.
밖으로 나가는 물차. 아랫입술 지그시 깨무는 덕구.

#32. 복남장어 인근 도로가/동형 물차 안(밤)

주차돼 있는 동형 물차. 언뜻 보기엔 아무도 안 타고 있는 듯한데,
스윽— 차 유리 내려오면 밖으로 툭 나오는 금시계 찬 팔.
보면, 운전석에 앉은 동형이다. 옆 조수석에는 순정.

동형 아씨, 새끼 어디 가서 뒤진 줄 알았더니, 인제야 기어들어와.
5년 동안 중국 장어 몰래 떼다 어르신 갖다 드린 게 얼만데.
(순정 보는) 좋디? 남편 돌아와서?

순정 뭐래. 덕구 오빠랑 산 시간보다 오빠랑 사귄 시간이 더 길거든.

동형 (순정 째리는) 덕구 오빠? 오빠 소리 아주 착착 감긴다, 감겨.

순정 됐어. 졸지에 바람핀 년 돼자구 지난 5년 버틴 거 아니거든?
내 몫으로 챙겨 받을 보험금, 그거 하나 보고 이 집구석에 남은 건데, 바부탱이가 죽는 거 하나 제대로 못 해.

동형 나도 친구 마누라 뺏은 놈밖에 더 되냐? 너 정신 바짝 차려. (잠시) (뾰로통한 순정 볼 만지작) 기분도 드러운데, 요 앞 저수지나 갈까?

출발하는 동형 물차. 빨간 후미등,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33. 복남장어/지하 창고방(밤+아침)

핏발 선 눈으로 쪽창 밖 어둠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선 덕구.
눈에는 이제까지 볼 수 없던 화가 이글이글 불타오르는데,
왠지 수상스러웠던 동형과 순정의 단상들 휙휙 스쳐간다.

FLASH CUT
#17 덕구 손길 매몰차게 뿌리치는 포악한 순정.
#28 "글쎄, 내가 좀 빨리 알았지?" 비웃는 듯 의미심장한 동형 표정.

#30 동형에게 달려가 안기는 국진, 한 가족 같은 동형·국진·순정 모습.

현재. 이글이글 타오르는 덕구 눈동자 위로 아침 태양 떠오른다.

시간 경과.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슬며시 창고방 문 열고 들어오던 화자,
쪽창 앞에 선 덕구 보고 화들짝 놀란다.

화자 에고, 깜짝이여—. 니 벌써 일난 겨?
덕구 (핏발 선 눈으로 슥 돌아보는) …
화자 (그 눈에 또 한 번 놀라고) 아, 아니 장어 좀 구워갖고 왔다고.
이번엔 진짜 국산 장어가 쫌 들와—
덕구 (O.L.) 엄닌 누구 편이요? 내 편이요?
화자 (왜 그딴 걸…?) 어? 나야… 당근… 니 편—
덕구 (O.L.) 내 편이믄, 나 지금 미쳐불겠으니께 뭐라도 쫌 혀봐요!!
얼렁!!

그런 덕구 얼굴 위로,

덕구(E)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34. 인근 도로(아침)

아침 햇살 내리쬐는 2차선 도로 위를 질주하는 화자 스쿠터.
헬멧 쓴 화자 뒤에 붙은 덕구. 덩치 때문에 스쿠터 휘청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분노의 절규 쏟아내는 덕구. 화자, 고막 터질 듯하다.

화자 (그래도! 얼굴 찡그린 채) 에미는! 덕구 니 편이여! 잊지 마아—!!

화자 스쿠터, 바람 맞으며 멀어져간다.

#35. 인근 교차로(아침)

교차로 신호등에 멈춰 선 화자 스쿠터. 진 빠졌는지 얌전해진 덕구.
건너편 차선에 구식 1톤 트럭 털털대며 서 있는데,
짐칸에 앉은 동네 노인들 서넛, 다 #3의 '죽청1리' 모자 썼다.

박 노인 저 복남네 아닌가? 어디 댕겨오나 벼?
김 노인 뒤엔, 뉘여? 못 보던 얼굴인디?
장 노인 (덕구 유심히 보는) 뉘긴 뉘여? 그 집 하나 있는 아들내미 아녀?
박 노인 뭔 소리댜! 덕만인가 덕군가 갸는 없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인디!
그 돈으로 복남장어 건물 올린 거, 잊었어? 치매여?
장 노인 아녀! 저 얼굴 생김이 갸 맞는 거 같은디?

때마침 파란불로 바뀌는 신호등. 화자 스쿠터와 노인들 트럭 스쳐 지나간다.

박 노인 복남네! 어디 댕겨오나? 뒤엔 뉘여?
화자 (급당황한) 네? 아, 야, 야는… 내 외가 쪽 조카여요, 외조카!

'망했다!' 쌩하니 액셀 밟으며 멀어지는 화자 스쿠터.

김 노인 (장 노인에게) 그 봐! 닌 뭔 소리다냐! 눈깔허고는.
박 노인 그려! 갸는 야 반쪽밖에 안 됐자너! 쟈는 살이 겁나 쪘고만!

하지만 여전히 고개 갸우뚱하는 장 노인. 멀어지는 스쿠터 길게 바라본다.

#36. 복남장어/1층 홀(아침)

장어 수족관 청소하고 있는 치국과 춘희.
물 뺀 수족관 안 치국, 바깥쪽 춘희,
수세미질 하며 서로 얼굴 문지르는, 꽤나 웃긴 모습이다.
(E)빵— 빵— 트럭 경적 소리 들리고

춘희　뭐야, 물차 벌써 왔나? 여보, 안쪽 얼렁 헹궈. 장어 다 죽을라.

밖으로 나가는 춘희.

#37. 복남장어 앞(아침)

동형, 물차에서 장어 퍼올려 바구니에 담으면,
춘희 바구니 수족관으로 옮기고,
얼음 동동 띄운 보리차 들고 나오는 순정, 치국도 나오면서 한 잔 받는다.

동형　(차 들이켜고) 형님, 한 30키로 더 갖고 올까요? 단체 또 있담서요?
치국　아냐. 아무래도 넘 정량대로 줬나 봐. 이번엔 그람수 쫌씩
줄일라고.
동형　네, 여튼 요즘 단속이 심해서 중국 장어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어요. (의미심장한) 제가 을마나 고생하는지, 형님도 잘 아시죠?
덕구(E)　야, 이 새꺄! 자랑헐 게 없어서 중국장어 떼오는 것도 자랑질이냐?!

보면, 마당서부터 뛰쳐오는 덕구.
스쿠터 팽개치고 화자 뒤따라오지만, 늦었다.

동형　덕구? 뭐야—

하는데, 말 끝내기도 전에 동형 덮치는 덕구!
놀란 순정 비명 지르고, 어쩌지 못하고 선 치국, 춘희, 화자.

덕구　(동형 위에 올라타서 때리는) 야, 이 새꺄!! 세상천지
여자가 없어서 친구 놈 여잘 채가?! 나쁜 새꺄!!
내가 진짜 죽은 사람처럼 보이냐?
동형　(버둥거리다 덕구 머리채 잡고 뒤집는)
뭐?! 5년 만에 나타나서 뭐 어쩌고 어째?
(덕구 퍽 치는) 나도 순정이 사랑한다고 이 자슥아!
덕구　(다시 뒤집는) 뭐? 사랑?! 어따 대고 사랑이랴? 이 새끼가 진짜!!
혹시 국진이도 니 새끼 아녀?! 내 목숨 값 받을라고 니들 암 말
안 헌 거 아니냐고! 내가 니들 간통죄로 확 다 처넣어버릴 겨!

화자, 춘희, 치국, 모두 놀라 덕구 쳐다보는데, 어느새 나타난 도희.

도희　(와중에 쓰윽) 오빠 없어지기 직전에,
간통죄 폐지됐자너, 생각 안 나?

'엥—?' 하는 표정의 덕구 얼굴 위로,

순정　국진인…! 니 새끼야! 이 바부탱이야!!

덕구, 순정 쪽 돌아보는데... 뒤통수 꽝! 내려치는 대형 후라이팬!
복남이다.

덕구　(정신 잃으며) 아, 아부지…?

바닥에 풀썩 쓰러지는 덕구.

#38. 덕구 꿈. 염전노예 섬/농로+신물 상회 앞(낮)

뜨거운 햇볕이 내리찌는 한여름.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아지랑이.
휘청대며 넘어질 듯 뛰는 누군가의 발걸음. 맨발에, 찢어진 더러운 바짓단.
보면, 긴 농로를 뛰고 있는 덕구다. 저 멀리 '신물 상회' 허름한 간판 보이고.
꾸역꾸역 '신물 상회' 앞까지 가쁜 숨 몰아쉬며 뛰어간 덕구,
다급하게 공중전화에 동전 욱여넣는데. '11' 이어 '9'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쓰윽 나오는 새까만 얼굴의 60대 노인. 덕구 보고 씨익 웃는다.

노인　머여 멍뭉이—, 으따 전화헐라고?

하고 전화 끊어버리는 노인. 싸늘한 눈빛으로 덕구 향해 가까이 다가오면.

#39. 복남장어/지하 창고방(낮)

"으악!" 진저리치며 라꾸라꾸 침대에서 눈 뜨는 덕구. 그런데...
무표정한 얼굴의 복남, 덕구 내려다보고 있다. '헉ㅡ' 숨이 멎는 덕구.

복남 요란허게도 꾸네. 뭔 놈의 꿈이여. 누가 니 쫓아오기라도 혀?

덕구 (아직 진정 안 되는) …

복남 그려서… 국진인, 니 아가 아녀?

덕구 모르죠…. 지난밤에… 순정이가 물차 타고 몰래 나가드라고요.

복남 …난 알고 있었구먼. 순정이가 동형이랑 만나는 거, 건 진즉에 알았지. 동형이 놈 볼 때마다 덕구 니 생각나니께 그냥 두고 본 거고.

덕구 (표정 착잡한) …

복남 순정이가 국진인 니 새끼라고 지금도 빡빡 우기긴 허지만, 뭐 (탁탁 털고 일어서는) 유전자 검산가 뭔가, 거 해보믄 그건 되고. 순정인 내보낼 거구먼. 니도 똥 밟았다ㅡ 허고, 그냥 잊어.

덕구 뭐요, 그냥 가시는 거요?

복남 (덕구 돌아본다) 그럼?

덕구 (소리 지르는) 마누라는 젤 친한 친구 놈이랑 붙어먹고! 내 새끼 줄 알았던 아들놈은, 내 새끼지 젤 친한 친구 놈 새끼지 아리까리헌디! 저보고 그냥 이대로 참으라고요? 내보내는 거로 끝이라고요?!

복남 안 그럼…?! 젤 친한 친구 놈이 내 마누라랑 붙어먹었슈, 나 안 죽었슈, 나 살아 있슈! 그라니 저 놈년들을 감빵에라도 보냅시다! 이럴라고?! 다들 니 죽었다고 알고 있는디 어뜨케 그걸ㅡ

덕구 (O.L.) 안 죽었으니께요! 진짜 죽은 게 아니니께! 이르케 멀쩡히 살어있으니께!

순간, 덕구 멱살 움켜쥐는 복남.

복남 (눈 부라리며) 그람 돈은? 복남장어는? 가족들은ㅡ? 닌 살아서 가족들헌티 해준 거보다 죽어서 해준 게 훨 많어. (멱살 풀며) 그르케 원통하믄 니를 원망혀. 죽어라 살지 않은 니를!

문 쾅ㅡ 닫고 지하방 나서는 복남. 덕구, 자리에 주저앉는다.

시간 경과.
라꾸라꾸에 앉아 진지한 얼굴로 메모지에 뭔가 적고 있는 덕구.
보면, 복남네들 이름 쭉 적힌 종이에 OX 치고 있다.
복남, 춘희, 치국 이름에 X, 화자, 도희 이름에 O.
마지막에 적힌 순정 이름에서 멈칫ㅡ하는 덕구. 입술 꼭 깨물고 X 친다.

#40. 복남장어/1층 야외수족관 안(밤)

#18처럼 여전히 깜깜한 수족관 안.
여느 날과 달리 연신 구불텅거리는 장어들.
날쌘 한 마리가 수족관 안을 휙ㅡ 질러가더니
다른 장어의 대가리를 힘껏 문다.
물린 장어, 무리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 버둥대는 위로 열리는 카톡창(CG).

INSERT
(우상단CG) '가족방2' 이름의 카톡 대화방.
'음하하핫 님이 나갔습니다' 뜬다.
그러자, 까똑ㅡ 까똑ㅡ 줄줄이 뜨는 카톡들.

라라밍 : 딴 집 살림을 왜 집 안에서 차리고 ㅈㄹ이야. 미친 거 아님?
깔따구 : 저년 간땡이가 부은 거지.
새우등 : 우린 다 나가 죽어야 돼.
라라밍 : (?? 이모티콘)
깔따구 : 뭔 소리임?
새우등 : 순정이랑 동형이 그러쿠 그런 사인 건 노인네들은 다 알고 있었고.
라라밍 : (헐 이모티콘)
새우등 : 돈 나온 거로 둘 결혼식 올려주고 순정이한테 호프집도 차려주려고 했대!
깔따구 : (폰 던지는 이모티콘)
라라밍 : 왜왜왜? 대체 호프집을 왜왜왜?!
깔따구 : 아니, 국진이가 진짜 동형이 새끼면 어쩔라구?!
라라밍 : 막말로 오빠 없어지기 전부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 아님??

새우등 : 이미 그 호프집엔 계약금도 1000이나 들어갔댄다!
라라밍 : 뭐야! 난 BMW 살 돈 모은다고 네일샵 하나 해달랬드니
등짝스매싱 날려놓고!
깔다구 : 이건 찐배신이야 배신!

까똑— 까똑— 소리 계속되는데, 수족관 카톡창 쓱 닫혀버린다.
장어 수족관 역시 다시 여느 때의 고요함으로 돌아가 있다.

#41. 복남장어/1층 화장실 밖+안(낮)

복남장어 1층 화장실 문. 닫힌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살짝 열려 있다.
열린 틈으로 보이는 덕구 눈동자.

화장실 안,
주머니에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찔러넣고 연신 주위 탐색 중인 덕구.
보면, 점심 장사 마친 복남장어 한산한 모습. 카운터 앉은 도희 졸고 있는데
치국과 춘희 홀 쪽으로 나온다. 슬쩍, 화장실 문틈 더 좁혀 닫는 덕구.

춘희 (카운터 탁탁 치며) 천도희! 잘라면 들어가서 자.
이따 저녁 예약 세 팀 있으니까 넘 처자진 말고.

잠결에도 스윽 일어나 계단으로 가는 도희.
춘희와 치국도 현관문 걸어 잠그고 3층으로 올라간다.
텅 빈 카운터.

#42. 복남장어/1층 현관 카운터(낮)

스파이라도 된 듯 화장실에서 종종걸음으로 나와 벽에 붙어 이동하는 덕구.
아무도 없는 카운터 잠입에 성공하고. 주위 살피며 카운터 수화기 주워 든다.

덕구 (112 걸고, 받으면 여자 목소리로) 저기, 경찰서죠?

물어볼 게 있는디,
경찰(F) 네, 말씀하시죠?
덕구 저기…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어케 해야 돼요?
경찰(F) 네?? (잠시) …경찰서에 장난전화 하지 마세요.
덕구 아니아니, 장난 전화 아닌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믄—
경찰(F) (O.L.) (짜증 난) 귀신이죠.
덕구 네? 아뇨 진짜 죽은 사람 말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믄,
경찰(F) (O.L.) 고. 맙. 죠.
덕구 그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하는데, 뚜— 뚜— 뚜— 이미 끊어진 전화.
뭔가 서운한 표정으로 수화기 보는 덕구, 축 처진 어깨로 일어서는데
탁상 달력에 '구 팀장 단체'라고 빨간 동그라미 쳐진 날짜 보인다.
이틀 뒤다.
눈 반짝! 빛나는 덕구.

#43. 몽타주. 대탈출 준비하는 덕구

— ‹미션임파서블› 풍의 음악 흐르는 위로,
— 복남장어 건물 배치도 그리는 덕구.
시간대별로 가족 각자가 하는 일도 적고,
— 쪽창서 와이파이 잡아가며 패드로 경찰서 위치도 검색하고,
— 마을버스 시간, 지역 택시회사 번호도 찾아본다.
— 다시 복남네 이름에 OX 친 종이 보고 앉은 덕구,
도희 이름에서 고민하는데
— 도희 이름 옆에 크게 그려진 '?'에서.

#44. 복남장어/3층 도희 방(밤)

몸짱 사진들과 Before→After 류의 다이어트 사진으로

도배돼 있는 도희 방.
침대 엎드려 핸드폰 게임하고 있던 도희, '똑똑' 소리에 문 쪽 돌아본다.

도희 (얼굴 들이미는 덕구 보며) 오빠 니가 웬일?
여기 올라와 있어도 돼?

덕구 (뒤로 문 닫으며) 뭐 내가 죄수여?
집 안서도 맘대로 못 돌아다니게.
(배 쓱 문지르는) 야식 쫌 땡기는디, 내가 부엌서 뭐라도 할라 하믄
또 천복남 씨 나와 난리난리 칠 께 뻔허니께.

도희 (씩— 웃는) 군만두 콜?
그 정도야 옛정 생각해 내 싸비스 해주지 뭐.

일어나 덕구 어깨 퍽! 치는 도희. 덕구, 휘청—한다.
도희 방 나서면, 옷장 쪽으로 후다닥 뛰어가는 덕구. 옷장 열어젖힌다.

시간 경과.
책상 위에 걸린 BMW 스타일 차키 만지작거리고 선 덕구.
허리춤으로 미처 바지 안에 꼼꼼히 넣지 못한
분홍색 여자 원피스 자락 보인다.

도희 (군만두 들고 들어서는) 짠—! 겉바속촉 군만두 대령이욧!

덕구 (차키 가리키며) 야, 모닝인지 BMW인지
헷갈리는 차가 니 차였냐?

도희 헐. 벌써 인사했어? 내 엘리자베스랑?

덕구 (군만두 입에 하나 넣고) 에, 엘리자베스?
거, 봤지. 버드나무 옆에 딱 주차돼 있드먼.

INSERT
덕구 돌아오던 날, 버드나무 옆에 예쁘게 주차돼 있는 엘리자베스.
BMW 엠블럼이 앞 그릴, 바퀴 휠, 뒤 트렁크 뚜껑에까지 박힌
'국산 모닝'이다.

도희 내 비록 지금은 모닝이지만 언젠간 반드시 베엠베를 사고야

말겠다는 자그마한 으지으 표현이라고나 할까? (키득대며 웃는)

들으면서 먹으면서 차키 옆에 보이는 BMW 로고 라이터 주워 드는 덕구.

덕구 뭐여, 니 담배도 펴? 라이터꺼징 다 BM—

하면서 무심코 라이터 켜는데, 화라락— 솟구쳐 오르는 불꽃.
눈썹 홀랑 타버린 덕구, 먹던 만두 주르륵— 흘린다.

도희 (살쪄서 팔 올리기 어렵다는 제스처, 킥킥대는) 미안, 난 살이 쪄서.
(웃다 문득) 근데, 오빠 니 곰방 생일이지 않어?

덕구 (자조적인) 쳇, 죽은 사람이 생일은 무슨… 만두 잘 먹었구먼.

돌아서 나가는 덕구. 도희 눈에 덕구 허리춤 분홍 옷자락 보인다.

도희 (닫히는 문에 대고) 생선 받고 싶은 거 있음 얘기해! 알았지이—??
(혼잣말) 근데, 저 내 옷 아님? 나갔다 오드니 취향 독특해졌스….

#45. 복남장어 외경(밤)

복남장어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시끌벅적한 소음.
보험팀 사람들 홀 서서 몸 흔들어대는 모습, 작게 보인다.

#46. 복남장어 마당(밤)

불 밝힌 마당으로 들어서는 동형 물차.
주차된 관광버스 옆에 나란히 차 세운다.
그런 물차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

#47. 동형 차 안(밤)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동형, 시동 끄고

동형 (핸드폰에다, 달래는) 내 금방 국진이 동생 만들어주께,
고만 뚝—해. 막말로 국진이 평생 못 보는 거도 아니고.
(듣는, 미소 짓고) 어, 그려.
국진이 동생 생각해서라도 내 일케는 못 물러나지.
동형 전화 끊고 차에서 내리면,

#48. 복남장어 마당(밤)(#46 연결)

성난 얼굴의 복남과 치국, 내리는 동형 빤히 쳐다보고 섰다.

동형 (피식 웃는) 아유, 마중을 다 나오셨네들.
(시끌벅적한 건물 보고) 바쁘신데, 용건만 간단히 할까요?

하는데, 동형에게 와락— 달려드는 치국.
하지만 체급 차이로, 오히려 동형이 치국 멱살 잡아버리고.

동형 (눈 부라리는) 아 형님 왜 이러시나. 나랑 순정이 큰 거 안 바래요.
먼 데 가서 우리끼리 잘 살 테니, 쫌만 도와달라는 건데,
(복남 보고) 아까우세요 어르신? (씨익) 그럼 덕구 돌아왔다고,
온 동네에다 다— 까발려볼까요?

동형, 치국 멱살 풀어주는데, 캑캑대던 치국, 주머니에서 장어 삼각칼 꺼내
휙— 휘두른다. 동형 얼굴을 스치는 삼각칼날. 뺨에서 피가 흐른다.

동형 (피 쓱 닦는) 이런 씹… (빡친) 기한은 덕구 놈 생일까지요.
그때까지 돈 안 주면 경찰서 갑니다. 내 가나 못 가나 두고 보십쇼.

물차 올라타 차 빼는 동형.

물차가 마당 나설 때까지 노려보고 선 복남과 치국.
서늘한 표정의 복남 얼굴 위로, 영 안 어울리는 뽕짝 음악 울려 퍼진다.

시간 경과.
복남의 서늘한 표정이 천천히 가식적으로 웃는 표정으로 바뀌면,
오라이— 음악과 함께 켜지는 후진등.
출발 직전의 '대박생명 지급팀' 관광버스.
역시 도열하고 선 복남네들. 거나하게 취한 구 팀장, 옆엔 송 팀장도 함께다.

구 팀장 (취한) 전번보다 오늘 장어들이 더 실한 거 같더라니까요. 하하핫.
송 팀장 (역시 취한) 그럼 그럼. 알아서들 잘 챙겨주셨을라고! 이제 그짝
일도 여기 구 팀장이 다 알아서 해드리니까, 걱정 붙들어들 매시고.
구 팀장 이젠 꽃길만 걸음 되시지들.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오겠어요?!
복남 (애써) 허허… 허허. 그름요 그름요. 지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허허.

와르르— 웃는 복남네들과 구 팀장, 송 팀장.
복남 옆으로 아직 동형한테 당한 화가 덜 풀린 치국만 따라 웃지 않는데,
와중에 도희, 왠지 안절부절못한 채 고개 빼고 혼자 버스 안 살핀다.

#49. 버스 안(밤)

인원 체크하는 라이방 버스기사. 시끌벅적한 버스 안.

라이방 기사 자—! 주목! 아직 버스에 안 타신 분, 손—!
보험사1 어머, 안 탄 사람이 어떻게 손을 들어—

까르르— 웃는 보험사들. 반응이 맘에 들었는지 씩 웃는 라이방 버스기사,
"어디 보자 빈자리가 있나 없나" 중얼거리며 버스 안 돌아보기 시작한다.
끝에서 두 번째 자리. 분홍색 원피스에 선글라스 쓴 여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분 찍고 립스틱 덕지덕지 바른—덕구다!

빈자리 없는 거 확인하고 돌아서던 라이방 버스기사
자는 척하는 덕구에게 고개 바짝 들이대는데,

라이방 기사 (유심히 보는) 어… 이 사람…?
덕구 (쫄았다) …!
라이방 기사 (덕구 긴 머리 손으로 만지며) 아이 이 사람, 머리카락에 어서 김칫국물을 묻혀왔댜! 이럼 시트에 다 묻잖여! 사람들이 말여, 주인의식이 없스, 주인의식이! 에이…!

하고 돌아서는 라이방 기사. 여전히 자는 척하는 덕구, 땀 삐질— 흐른다.

#50. 복남장어 마당(밤)(#48 연결)

송 팀장 (꾸벅 인사) 자, 오늘도 또 공짜루다 자알— 얻어먹고 갑니다아—!
구 팀장 조만간, 내 또 연락드릴께—.

구 팀장, 송 팀장 비틀비틀 버스에 올라타면, 관광버스 떠나간다.
버스가 마당을 막 빠져나가는... 그때! 도희 눈에 잡히는 분홍색 원피스!
긴 머리에, 어디서 본 듯한 선글라스까지.

도희 어? 어?! 어!! (버스 가리키며) 내 선글라스! 덕구 너 진짜 이러기야!
복남네들 뭐?! 덕구?!!

#51. 마당 앞 도로+봉고 안(밤)

'복남장어' 스티커 붙은 봉고 급히 출발하면, 신난 개덕구 짖으며 쫓아간다.
봉고 안. 운전하는 치국 옆으로 복남,
뒷자리에 춘희, 화자, 도희, 긴장한 얼굴로 앉았다.
복남, 핸드폰으로 송 팀장, 구 팀장 돌아가며 전화하는데 받지 않고.

INSERT
관광버스 안. 만취해 이미 꿈나라로 넘어간 송 팀장, 구 팀장 조는 모습.

복남 (운전하는 치국에게, 다급한) 하이빔! 하이빔!! 빵빵! 빵빵——!!

#52. 복남장어 인근 도로 위(밤)

관광버스 뒤로 바짝 붙어 따라가는 복남장어 봉고.
하이빔을 이제야 눈치챘는지, 비상등 켜고 한쪽으로 정차하는 관광버스.

#53. 버스 안(밤)

어리둥절한 표정의 라이방 버스기사와 보험팀 사람들.
버스 문 취익— 열리면 치국과 춘희 올라탄다.

춘희 (웃으며) 아이 이를 어째요. 대박생명 분이 아니신데 술 취해 이 버스에 타신 분이 있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치국과 춘희, 버스 좌석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고
결국... 덕구 긴 머리채를 홱— 들추고 만다.

#54. 복남장어/지하 창고방(밤)

퍽—!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가떨어지는 덕구. 입가에 흐르는 피.
아직 벗지 못한 분홍 원피스와 아직 지우지 못한 화장 탓에 다소 기괴한 몰골.

화자(E) 고만 혀! 공주애비! 고만 혀라고!

보면, 독기 오른 치국, 다시 덕구 멱살 거머쥐는데 화자, 치국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 치국, 어떻게 하냐는 표정으로 복남 돌아보고.

복남 (춘희, 도희에게) 엄니 데꼬 니들도 올라가 있어.

화자 (춘희, 도희 손길 뿌리치며) 왜 이런데요? 왜 덕구 입장서는 생각 안 혀요?! 지는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디, 죽은 사람으로 살라 허믄, 당신 같애도 도망치고 싶지 않겄어요?! 안 그려요 덕구 아부지!

춘희 (화자 끌어내며) 엄마 일단 가. 아부지 화 많이 나셨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창고방에서 끌려나가는 화자.
창고방에 남은 셋. 복남, 덕구, 그리고 치국.
치국, 다시 덕구 패기 시작한다.

치국 (지 분에 겨워) 니놈 때문에 동형이 그 자식이 오늘 장인어른을 을마나 협박했는지 알기나 혀?!

치국 주먹에 덕구 다시 나가떨어지는데. 바닥에 쓰러진 덕구, 피식 웃는다.

복남 (핏줄 불—뚝 솟는) 웃어? 이 상황에 니는 웃어? 왜? 쪼끔만 참아달라는디, 대체 왜 이랴는겨?! 왜 일을 키워?!!

덕구 (킥킥 웃다)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헌티, 이젠 죽은 사람으로 살라믄서, 그게 쪼끔이라고 얘기하는 거여요? (복남 쳐다보며) 왜 돌아왔나 싶죠 내가? 다시 죽었음 좋겠죠 내가?!

복남 그랴! 니가 진짜 왜 돌아왔나 싶구먼! 그 돈! 그거, 니가, 죽은 울 아덜이, 우리헌티 남기고 간 선물이라고 생각혔다! 그냥 가족들 위혀서! 니가 죽은 사람으로 있어줌 안 되는 거여?!

덕구 내가 왜요? 내가 왜 가족들 위해 뭘 꼭 혀야 혀요? 왜 죽은 사람이 돼야 혀요?!

복남 (O.L.) 난! 난 어뜩해서든 니들 벌어 맥일라고! 가진 거 읍고 받은 거 읍써도 밸짓 다하믄서 살았어! 니는?! 니는 취직을 해봤어, 돈을 벌어봤어?! 니가 가족을 위해 헌 게 대체 뭐야—?!

덕구 나 하나 죽은 놈 맨들어서 울 가족들 부자로 살믄, (잠시) 그럼 다들 행복한 거여요? 그럼 아부진 행복혀요?!

복남 (말문 막힌) 니, 니가! 희, 희생하는 거지! 대의를 위혀서!

덕구 (비웃는) 뭐요? 대의요? 대의 좋아허시네. 가족 위헌답시고 가족 하나 잡는 거—거 대의 아녀요. 착각하지 마셔요.

복남 (부들부들 떠는) …!

덕구 대체… 왜 그러고 살어요…?

옆에 섰던 치국, '다리라도 분지를까요?' 표정으로 복남 본다.

복남 (치국에게) 저놈, 다신 도망칠 생각 못 허게, 뽄때를 비여줘…!

시간 경과.
징— 바리깡 소리 지하 공간에 울린다. 뭉텅뭉텅 잘려나가는 덕구 머리카락.
세상 다 산 표정의 덕구. 부어터진 덕구 볼 타고 흐르는 눈물방울.
그러나 바리깡 쥔 치국의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고,
덕구 눈물에도 복남 표정에는 측은함이 없다.

밖에서 자물쇠 철컹— 채우고 떠나는 치국과 복남.
텅 빈 지하방에 홀로 남은 덕구. 라꾸라꾸에 잔뜩 웅크리고 누웠다.
그런 덕구 내려다보는 동그란 달.
들릴락 말락 한 덕구 울음소리와 함께, 화면 천천히 어두워진다.

#55. 복남장어/야외수족관 안(밤)

어두워진 화면, 뭔가 움직인다. 연한 달빛 아래 서로 엉켜 있는 장어 무리들.
온 수족관 전체가 구불텅 구불텅 움직이는 모습이 희미하게 배경처럼 보인다.
그 위로 열리는 카톡창(CG).

INSERT
(우상단CG) '가족방2' 이름의 카톡 대화방.
까똑—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카톡 대화들.
라라밍 : 지하방 상황은 어땠어?
새우등 : 처참해. 머리 깎이고 찔찔 짬. 담에 다리 몽둥이 부러질 각.
깔따구 : 근데 머리 깎는 걸로 되겠어?

라라밍 : 안 되나?
깔따구 : 진짜 어디 도망가 버리기 전에 정신병원에라도 넣어야지!
새우등 : 아ㅡ 정신병원! 거긴 가족이 넣음 절대 다시 못 나오지~
라라밍 : 그치... 덕구가 정상은 아니지.
깔따구 : 그치, 눈 떠보니 5년이 확 지나버렸다는데, 정상은 아니지.
새우등 : 아 씨발! 또 짜증 나네. (폭발하는 이모티콘)
깔따구 : 왜???
새우등 : 아까 동형이 새끼 순정이랑 살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러 왔었어.
라라밍 : 헐! 염치도 좋아!
깔따구 : 그래서? 아부지가 준대?
새우등 : 동형이 새끼가 덕구 생일까지 돈 안 주면 경찰서 가겠대.
라라밍 : 헐... (헐ㅡ 이모티콘)
깔따구 :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새우등 : 덕구 생일 전에... 동형이 놈 배때기를 장어칼로 확 쑤셔버리든가.
깔따구 : 하아... 덕구 생일...

대화 마무리되자 휙ㅡ 닫혀버리는 카톡창.
여전히 구불구불구불 움직이고 있는 장어 무리들과 흔들리는 수족관 물.
화면, 완전히 어두워진다.

#56. 복남장어/3층 주방(밤)

어두운 화면 위로,

노랫소리(E) 생일 축하합니다ㅡ 생일 축하합니다ㅡ
사랑하는 천덕구ㅡ 생일 축하합니다ㅡ

화면 확 밝아지면, 추하게 머리 깎인 덕구 힘없이 웃는 둥 마는 둥 한다.
복남네들, 가운데 덕구 중심으로 식탁에 모여 앉았고,
미역국, 갈비탕, 잡채, 호박찜, 갈치조림 등 푸짐한 생일상 옆으로
덕구 생일 케이크도 보인다.

복남 (어색한 분위기 깨며) 자… 다들, 묵자.

미역국 한술 뜨는 덕구. 그제야 복남네들 다 밥 먹으려는데,

덕구 (미역국 응시하고) 죄송혀요…. 나 하나 죽은 놈 되믄 나머지
가족들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디, 뭐 허겠다고 산 놈 되겄다
난리쳤는지…. 평싱 뭐가 되보고 싶은 적도 없고, 뭘 갖고 싶었던
거도 없었던 기, 괜한 욕심을 부렸구만요. (국에 이마 닿을 만큼
사죄의 고개 숙인다)
화자 (눈물 펑 터지는) 그래 그래. 아이구 내 새끼.
방법을 쫌 찾아보자….
복남 …그랴. 난 가족 위해 평싱을 글케 살었다. 니도 내처럼ㅡ

복남 말하는데 화자한테 미역국 그릇 건네는 덕구. 복남, 남은 말 삼킨다.

덕구 엄니, 이거 렌지에 좀 데워줘요. 곰방 식었네.
화자 아이고 그랴? 국 식었어?

화자, 일어나 국그릇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다.

INSERT 1
위ㅡ잉ㅡ 전자레인지 속에서 돌아가는 미역국 그릇.

도희 (뭔가 찾는, 덕구에게) 어? 근데 내 핸드폰 못 봤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춘희에게) 언니, 나한테 전화 좀 해봐봐.

춘희, 귀찮지만 핸드폰 꺼내 전화 건다.
화면 위로 '뚜르르ㅡ' 통화 연결음 울리는데,

INSERT 2
전자레인지 속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국그릇에서 서서히 기포 올라오고, 드르르르륵ㅡ 진동으로 떨리고 있다.
자세히 보면, 미역국 그릇 안에 들어 있는 도희 핸드폰!

갑자기, 스파크 튀면서 펑—! 터지는 핸드폰!
한순간에 암흑! 정전이다.

#57. 복남장어 전경(밤)

복남장어 네온사인도 스파크 일으키며 꺼지고. 암흑에 싸인 복남장어.

#58. 복남장어/3층 주방(밤)

다시 식탁. 어둠 속에서 웅성대는 복남네들.

복남 라이타! 도희 니 라이타 어여 꺼내!

도희 (헥! 시침 떼보는) 네? 뭔 라이타…?

복남 쓰읍— 소리에, 도희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 건네는 듯한데,
순간, 확! 타오르는 BMW 라이터에 눈썹 그을리는 복남 모습 보인다.
복남, 한바탕 뿜으려는 찰나,

치국 어? 처남 어디 갔지?

그제야 켜지는 핸드폰 불빛들, 비춰보면,
손으로 뭉갠 듯 아작나 있는 덕구 생일 케이크.

#59. 복남장어/3층 도희 방(밤)

구르듯이 뛰어 들어오는 도희.
책상 위에 걸려 있어야 할 BMW 차키—없다!

도희 (머리 쥐어뜯는) 아악! 내 엘리자베스으—!!

도희, 정신 나가 뛰쳐나가는 뒤로
책상 위에 얌전히 놓인 메모지 한 장 보인다.

INSERT
메모지 내용. '엘리자베스는 생선으로 가져간다'

#60. 인근 도로/도희 엘리자베스 안(밤)

엘리자베스 타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덕구.

덕구 (이 악물고) 가족 위해 평싱 글케 살었으니 니도 내처럼 살라고?
허! 이거저거 다 말아먹다 겨우 늘그막에 내 목숨 값으로
올린 장어집으로 돈 벌고 있음서, 가족 위해 평싱 자기가
희생했다고오—?!

분노 게이지만큼, 액셀 밟는 발에 힘 빡! 들어가고.

#61. 인근 도로/봉고 안(밤)

치국이 모는 봉고. 조수석에 복남, 뒷자리에 화자, 춘희, 도희까지 다 탄.
#51과 동일한 대형이다.

복남 (안달하는) 쫌 더 밟어! 덕구 저거 분명 경찰서로 갈 거여!
경찰서 가기 전에 꼭 잡아야 헌다고—!!

부웅— 속도 올리는 치국. 멀리 보이는 경찰서 불빛.

#62. 경찰서 앞 도로/도희 엘리자베스 안+밖(밤)

그 불빛 보고 달려가는 엘리자베스.

백미러엔 이미 바짝 따라붙은 봉고 보인다.
아슬아슬하게 경찰서 앞 도로 진입하는데,
경찰서 문에 붙은 '순찰 중' 표지판.
망연자실한 얼굴로 돌아보는 덕구.
끼이익— 멈춰 서는 복남의 봉고. 헤드라이트 불빛에 얼굴 찡그리는 덕구.
"엘리자베스!" 외치며 도희 봉고 문 박차고 내리고,
이어 내린 치국과 춘희, 마치 범인 포박하듯 엘리자베스에서 덕구 끌어낸다.
"으아아아아아——" 절규하는 덕구 목소리, 밤하늘에 울린다.

#63. 복남장어/마당(밤)

마당으로 들어서는 봉고와 엘리자베스.
차에서 내리는 덕구. 두 손 끈으로 묶여 있다.
이제야 안심한 표정의 복남네들 막 현관으로 들어서려는데,

장 노인(E) 내 눈이 보통 눈이 아니지.

머리털이 쭈뼛 서는 복남, 돌아보면.
비릿한 웃음 띤 채 마당 한 편에서 나타나는 장 노인.

장 노인 내가, 한번 본 얼굴은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그든—.
아무리 살이 겁나 쪘어도 쟈가 복남네 없어진 아들내미라는 거,
내가 못 알아볼 리가 없재. (씨익— 웃는) 돌아왔구먼, 천덕구.

복남 그쟈… 류현진이 십 년 전 완봉 기록도 기억허는 냥반인디…
(치국에게 눈짓하며) 못 알아볼 리가 없재… (호통) 잡어어어—!!

복남 외마디에 치국, 잽싸게 장 노인 쪽으로 뛰고,
장 노인 엉겁결에 야외 수족관 쪽으로 피하는데
치국, 달려오던 속도 실어 텅—! 장 노인 밀치며 야외 수족관 들이받는다.
기우뚱— 넘어가는 수족관!
장 노인과 치국 몸싸움에 결국 하나가 와장창! 깨지고.
수족관에서 탈출한 장어 무리들 흙바닥 기는 위로 장 노인과 치국 뒹구는데

독기 어린 치국 상대로 꽤나 잘 버티던 장 노인,
한순간 눈 초점 풀리더니 앞으로 홱— 고꾸라진다.

치국 (소스라치게 놀라며) 춘희야!

보면, 피 묻은 뾰족한 돌 손에 쥐고 서 있는 춘희. 가쁜 숨 몰아쉬고 있다.
장 노인 머리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붉은 피,
장어들 꿈틀대면 핏물이 튀고,
그 모습 보며 굳은 채 서 있는 복남, 치국, 도희... 그리고 춘희.

그때!
부르릉— 시동 걸며 출발하는 복남장어 봉고.
재빨리 사태 파악하는 복남—덕구가 사라졌다!

화자 (덕구 묶었던 줄 흔들며) 내가 그랬슈, 내가!
울 덕구 그냥 좀 가게 놔둬유!

확— 화자 붙잡는 손 뿌리치고 복남, 도희 차로 뛰어간다.

복남 천도희! 에리자베쓰—!!

#64. 인근 도로(밤)

부감. 구불구불 이어진 구도로를 달리는 두 대의 차.
앞선 봉고와 뒤따르는 엘리자베스.

#65. 봉고 안(밤)

정신줄 반쯤 놓은 덕구, 연신 입으로 중얼대며 필사적으로 운전 중이다.

덕구 미쳤어… 다들 미쳤어… 돈, 돈 땜에 다들 해까닥… 했구먼….

내 뒤통수에다 돌댕이 꽂는 거… 거도 곰방일 거라고…!

#66. 도희 엘리자베스 안(밤)

운전석에 도희, 조수석에 복남, 뒷자리 가운데에 치국.
긴장하고 비장한 표정들.

복남 (눈빛 매서운)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복남장어 다시 내줄 겨?
덕구 쟈 지금 제정신 아닌 거 알재? 그게 우리헌티 을매나
위험한 상황인지, 거만 똑똑히들 기억혀두라고!

#67. 인근 도로(밤)(#64 연결)

다시 부감. 간격 좁혀졌다 멀어졌다 하는 봉고와 엘리자베스.
붉은 후미등 길게 선을 그리는 위로, 긴장되고도 묘하게 서글픈 음악.
굵은 빗줄기 퍼붓기 시작한다.

#68. 무창포 방파제 전경(밤)

#1의 그 방파제. 쏟아지는 빗줄기 뚫고 방파제 앞으로 비춰 들어오는
복남 봉고 헤드라이트 불빛.

#69. 무창포 방파제 앞/봉고 안+밖(밤)

방파제 앞에 복남 봉고 세우는 덕구.
아직 복남네 엘리자베스는 보이지 않고.
덕구 차에서 내리는데, 다 내려놓은 표정이다.

#70. 무창포 방파제 위(밤)

내리는 비 맞으며 방파제 위로 걸어가는 덕구.
잠시 뒤, 끼—익 마찰음과 함께 덮쳐오는 헤드라이트.
돌아보지 않고, 오른손만 크게 흔들어주는 덕구.
엘리자베스에서 내리는 복남네들. 방파제 걸어가는 덕구 본다.

복남 쟈 뭐하는 겨?
덕구 (뒤돌아보며, 큰 소리로) 나, 진짜 죽어버림 어떠요?
아부지도, 누나도, 매형도, 동생도, 집 나간 마누라도,
다 지금 이거 원하는 거 아녀요?

덕구 돌직구 질문에 다들 대답 못 하고 섰는데,

덕구 그냥… 내가 5년 전에 이 방파제 위에서 콱!
디져버렸어야 혔는디….
치국 처남! 바람이 차! 집에 가서 얘기혀!
덕구 (피식) 집이요? 집이라….
도희 거기서 청승 떨지 말고 얼렁 나와. 죽지도 못할 거면서.
덕구 (허탈한) 죽지도… 못할 거? (곱씹는) 죽지도. 못할 거.
(피식) 나도 알어요. 나 생각 읍씨 산 거. 허고 싶은 거도 없고,
되고 싶은 거도 없고. 사실 딱히 살고 싶지도 않았던 거 같애.

방파제 끝까지 간 덕구, 퍼붓는 빗속에 양팔 벌리고 돌아본다.

덕구 근디… 막상 죽은 사람으로 살라니, 나 진짜 살고 싶었어요.
산 사람으로. 산 사람 천덕구로 당당히 살고 싶었다고요…!

그때, 덕구 뒤로 천천히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파도!
복남네들 "어—?", "어—?" 하며 바라보는데
끝모르고 솟아오르는 파도에 모가지들 뒤로 넘어간다.

덕구 (양팔 머리 위로 들어, 몸 날릴 듯) 가족이믄…

내 편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녔어요…?

서글픈 덕구, 미소.
그 미소에 복남, 갑자기 덕구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하는데,

복남 더, 덕구야—! 안 돼애———!!

하지만 웽— 하는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리는 파도!
악—!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덕구와 복남, 사라져버린다.
망연자실 주저앉은 도희와 치국,
파도치는 방파제 위로 세차게 퍼붓는 빗줄기.
화면 천천히 어두워진다.

#71. 무창포 방파제 인근 해변가(밤)

어두운 화면. 구급차 사이렌 소리, 경찰들 말소리 등 소음 가득 들리는데
밝아지면, 눈 감은 복남 얼굴만 크게 보이는 위로,

경찰(E) 구조된 분, 64세 남자 천복남 씨 맞으시죠?
도희(E) (흑흑대는) …네네. 저희 아부지 맞어요.

움찔움찔하더니 눈 뜨는 복남, 물 토해낸다.
도희와 치국, "아부지!", "장인어른!" 부르고.

경찰 다른 분은요? 아까 실종자 2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신 차렸는지 기진맥진하면서도 일어나 앉는 복남.
보면, 바다에 빠졌다 구조된 복남 주위로 구급대원, 경찰들 많은데,
—덕구는, 없다.

치국 (망설이다) …시, 실종자 더 없슈.
경찰 그럼 실종자 두 명 아니고 한 명인 거, 맞죠?

도희 (치국 쳐다보며) …네…네….
경찰 (무전기에 대고) 상황 클리어, 클리어. 바다에 빠진 실종자 천복남, 무사히 구조, 가족들에게 인계 완료. 이상.

경찰 무전 들으며, 서로의 눈을 빤히 바라보는 복남, 치국, 도희.
두려움인지 안도감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긴 눈동자들.
복남의 눈에도, 치국의 눈에도, 도희의 눈에도
살짝 눈물 글썽이는 듯하다.
철썩— 철썩— 파도 소리 점점 높아진다.

#72. 복남장어/야외수족관 앞(아침)

여전히 흙바닥에서 피와 엉켜 구불텅대는 장어들.
박살 난 수족관 옆으로 고꾸라진 장 노인, 손가락이 움찔— 한다.
멀찌감치 부들부들 떨며 앉았던 춘희와 화자,
그걸 보고 천천히 장 노인에게로 다가가고.
때마침 떠오르는 아침 햇살.
깨지지 않고 남아 있는 장어 수족관 비추면,
엉켜 있는 장어 무리 안에서 뭔가 반짝— 금시계 하나 햇살 받아 빛나고.
갑자기 푸르륵— 대며 수족관 안을 바쁘게 휘젓고 다니는 장어들 틈새로
죽은 동형이 둥실 떠오른다.
복남장어 새 건물 위로 햇살이 비쳐든다.

끝.

작가 후기

이십 대에 삶을 마감한 한 친구의 이야기를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십 년 후에도, 이십 년 후에도 내 삶이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스스로 아픈 선택을 한 이유는 참 서글펐습니다.
노력해도 앞으로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나아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종종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덕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십여 해 넘도록 번듯한 거 이뤄본 적 없는,
누군가 보기에는 대뜸 실패자라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인생.
그래서 덕구는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사실 딱히 살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막상 모든 사람이 덕구에게 ‘죽은 사람으로 살라’ 했을 때,
비로소 덕구는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덕구 이즈 백’은 가족극이 아니라 가족 와해극입니다.
덕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인물들은 다름 아닌 피붙이들입니다.
수정의 시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설마 가족인데 이런 일까지 하겠어…?’
돈 앞에서 설마가 사람 잡는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는데,
소동극을 다크한 블랙코미디로 빌드업 시켜보려는 작가의 시도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앞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곤 했습니다.

덕구는 죽었을까요?
글쎄요, 전 덕구가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미천한 작가도 덕구처럼 ‘살아보려’ 합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내보려’ 합니다.

2020 오펜 작품집 드라마 상

초판 발행.
2020년 12월 22일

글. 송영준, 김선미, 차이한, 모성은, 김혜정,
김지안, 추현정, 이병준, 최하늘, 김해녹

제작. 오펜
디자인. 권수진
교정 및 교열. 박은경
인쇄. 책공감

발행처. (주)씨제이이엔엠
발행인. 허민회

등록번호. 제 2015-000016 호
등록일자. 2015년 1월 13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1층
전화. 02-371-9139

ISBN 0 979-11-965931-9-3 (04680)
ISBN 0 979-11-965931-8-6 (세트)

© CJ ENM, 2020
이 책의 모든 내용은 CJ ENM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2020 오펜 작품집 — 드라마 상
ISBN 979-11-965931-9-3 (04680)